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지표 훑아보기



글머리에

전세계 정상은 2015년 유엔총회에서 인류가 직면한 종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정상들은 2030년까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 17개 글로벌 SDGs 목표 달성을 위하여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혁신적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하는 『SDGs 지표 훑아보기』는 이러한 글로벌 SDGs 지표 사용자들의 SDGs 데이터 리터시리를 높이는 안내서이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포용사회”를 촉진시키는 도구로써 이번에 빛을 보게 되었다. 유엔은 한국 SDGs 데이터 국가책임기관(National Focal Point)으로 통계청을 지정하였다. 통계개발원은 그 책임을 위임받아서 SDGs 지표개발과 이행점검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통계 전문연구원이다. “훑아보기”란 ‘살살이 나가면서 살핀다’는 순우리말이다. 17개 SDGs 목표 아래 구축된 231개 글로벌 SDGs 지표의 정의, 산출방법, 국내외 데이터 출처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SDGs 지표 훑아보기”로 칭하였다. SDGs 지표 사용자들을 위한 ‘SDGs 데이터 사전’이다.

『SDGs 지표 훑아보기』는 2016년 『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되는 지표 종합보고서로, 그간 글로벌 SDGs 지표에서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2016년 글로벌 SDGs 지표 초안 작성 이후 지표 소관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모든 지표의 방법론 개발이 완료되었다. 최근에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SDGs 지표들도 점차 늘어나는 등 지표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SDGs 지표 훑아보기』는 지난 2020년 3월에 SDGs 이행 5년 시점을 계기로 완성된 지표체계의 종합개편안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높다.

지난 5년을 돌아켜보면 SDGs 목표별, 국가별 데이터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이번 안내서가 한국의 SDGs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글로벌 SDGs 지표 중 국내 데이터가 부재한 것은 무엇인지, 글로벌 지표에 대응하는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정은 어디인지, 국내에서 강점이 있는 데이터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평가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통계역량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증거기반 포용정책을 상승시키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SDGs 지표 훑아보기』는 국내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SDGs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SDGs 지표의 구조와 개별 지표를 유엔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SDGs 데이터 교환 과정의 템플릿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SDGs 지표 훑아보기』가 단초를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혁신적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첫머리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231개 SDGs 지표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가는 여정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지도이다. SDGs 데이터를 ‘살살이 더듬어 찾아보고자 한다’면 여기 『SDGs 지표 훑아보기』에서 그 발견의 기쁨을 만끽하기 바란다.

『SDGs 지표 훑아보기』의 탄생을 위하여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김석호 교수, 온실가스-에너지관리센터 정혜진 교수, 스탯코리아 김대훈 대표의 팀연구와 노고에 감사드린다. 통계개발원 「SDG데이터연구센터」 박영실 센터장의 비전과 헌신, 윤민희 주무관의 섬세한 기여, 홍현정 사무관과 진유강 주무관의 데이터 검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러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서 포용정책의 근거가 되는 SDGs 지표의 길잡이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광출어혁(光出於革) 시대와 더불어

통계개발원 전영일 원장



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UN 글로벌 SDGs 지표 정의와 산출방법, 국내외 데이터 출처에 관한 메타 정보를 수록하였다
 - UN 글로벌 SDGs 지표는 2020년 3월 종합개편안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유엔통계위원회는 2016년 3월에 글로벌 SDGs 지표 초안을 선정한 이후, 2017년 3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5년 주기(2020, 2025)로 종합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 2020년 3월 종합개편안은 2017년 개정안 중 36개 지표에서 대체, 수정, 추가, 삭제 등의 변화가 있었다
 - 지표별 메타데이터 구조는 IAEG-SDG에서 구축한 표준안(19.12.)을 기반으로 국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 지표 일반 : 지표번호, 지표명, 목표명, 세부목표명 (국·영문)
 - 지표 정의 :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시점, 지표정의, 지표의의, 지표해설, 지표대응
 - 데이터 출처
 - 글로벌 : 데이터명, 산식, 측정단위, 자료수집방법, 시계열, 공표주기, 세분화, 지표 소관기구, 출처
 - 국 내 : 데이터명, 산식, 측정단위, 세분화, 출처, 이용통계, 자료수집방법, 시계열, 공표주기, 통계생산기관
-

■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 현황

목표	세부목표 수	지표 수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7	13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8	14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13	28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10	12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9	14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8	11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5	6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2	16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8	12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	14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0	14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1	13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5	8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0	10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 다양성 손실 중지	12	14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2	24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19	24
총 계	169	247 (중복제외시 231)

※ 중복지표 리스트

- ① 7.b.1/12.a.1, ② 8.4.1/12.2.1, ③ 8.4.2/12.2.2, ④ 10.3.1/16.b.1, ⑤ 10.6.1/16.8.1,
 ⑥ 13.2.1/13.b.1(약간 차이 있음), ⑦ 15.7.1/15.c.1, ⑧ 15.a.1/15.b.1, ⑨ 1.5.1/11.5.1/13.1.1,
 ⑩ 1.5.3/11.b.1/13.1.2, ⑪ 1.5.4/11.b.2/13.1.3, ⑫ 4.7.1/12.8.1 13.3.1

약어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정부기능분류)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공여국보고체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국내동물다양성정보시스템)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GRFA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식량농업유전자원)
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 (고위급정치포럼)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GME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아동사망률추정그룹)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보건규정)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무역센터)
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국제운수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자연보존연맹)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DOALOS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of the Office of Leg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유엔법무국해양법국)
SCBD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SIMPOC	Statistical Information and Monitoring Programme on Child Labour (아동 노동 통계 정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UIS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WCMC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
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사막화방지협약)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에이즈프로그램)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경제사회국)
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재난위험감소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주거계획)
UNHCR	The Office of the UNs High Commissioner fo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유엔통계처)
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유엔세계관광기구)
WB	World Bank (세계은행)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WPRO	World Health Organization-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SDGs 지표 톺아보기

Contents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1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39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75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99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123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143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151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69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85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3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219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237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47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263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285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313



통계청
통계개발원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지표번호	1.1.1
지표명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living below the international poverty line, by sex, age, employment status and geographical location (urban/rural)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By 2030, eradicate extreme poverty for all people everywhere, currently measured as people living on less than \$1.25 a da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국제 빈곤선인 하루 1.90달러(2011년 PPP 기준)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율
지표의의	빈곤에 대한 모니터링은 많은 국가의 발전 어젠다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발전 어젠다에서도 중요함. 특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 즉 근로빈곤은 일에서 얻는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자리의 질과 연관된 문제임. 세계은행(WB)은 2015년 국제 빈곤선을 2011년 PPP 기준 1.90달러로 정함. 국제 빈곤선에 기반한 빈곤 측정은 국가 간 비교와 시계열 비교를 가능케 함.
지표해설	세계 빈곤인구 비율은 2002년 26%에서 2015년 1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부분은 1% 이내에 불과함. 한국의 빈곤인구 비율은 0.2-0.5% 수준이고 근로빈곤인구 비율은 0% 수준임.
지표대응	UN이 제공하고 있는 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은 각각 세계은행(WB)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소득조사 자료와 노동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추정치임. ILO의 근로빈곤율은 한국이 0%로 나타나 지표 산출 의미가 크지 않음. 대부분의 선진국은 근로빈곤율을 보고하지 않고 있음. 빈곤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의 가구 소비지출과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균등화 소비지출을 계산한 후 국제 빈곤선 이하의 소비지출 가구원을 식별함으로써 산출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1	국제 빈곤선 미만 취업인구(Employed population below international poverty line, by sex and age)
	산식	$\text{근로빈곤율} = \frac{\text{1일 1.90달러 미만으로 사는 취업자수}}{\text{총 취업자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 자료를 취합한 후 자체 모델링에 기반하여 추정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2006, 2008, 2010, 2012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연령별(15세 이상, 15-24세, 25세 이상)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8/?lang=en&segment=indicator&id=SDG_0111_SEX_AGE_RT_A
	데이터 2	국제 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international poverty line)
	산식	$\text{빈곤율} = \frac{\text{1일 1.90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text{총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은행(WB)이 각국 통계청의 소득 및 소비 조사 자료를 취합, 표준화하여 추정
	시계열	2010-2018년(한국 데이터는 2006, 2008, 2010, 2012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산하 글로벌빈곤워킹그룹(GPWG)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DDAY	
국내	데이터	없음

1.2.1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지표번호	1.2.1
지표명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below the national poverty line, by sex and age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각 국가 빈곤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By 2030, reduce at least by half the proportion of men, women and children of all ages living in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 according to national defini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월
지표정의	국가 빈곤율은 국가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농촌 빈곤율과 도시 빈곤율은 각각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국가 빈곤선 미만의 인구 비율을 말함(경우에 따라서 농촌 빈곤선과 도시 빈곤선을 별도로 사용되기도 함).
지표의의	국가 빈곤율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 국가의 발전 어젠다에 중요함. 국가 빈곤선은 개별 국가가 정의한 빈곤선으로, 각국의 경제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빈곤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함.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국민의 구매력과 생활수준이 다르므로 빈곤선은 나라마다 다양하며, 한 나라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에 따라 빈곤선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국가 빈곤선은 빈곤율의 국제 비교에는 사용되지 않음.
지표해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산출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2011년 18.6%에서 2015년 17.5%, 2018년 16.7%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2.0%로 전체 인구에 비해 훨씬 높음.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소득 50% 및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산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국가 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below the national poverty line)
	산식	국가 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 = $\frac{\text{국가 빈곤선 미만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정부(통계청)가 생산한 전국 단위 가계조사 자료로 작성함. 세계은행(WB) 산하 글로벌빈곤워킹그룹(GPWG)이 각국 자료를 수집, 평가한 후 WDI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표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도농)별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산하 글로벌빈곤워킹그룹(GPWG)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NAHC?view=chart	
국내	데이터	상대적 빈곤율
	산식	상대적 빈곤율 = $\frac{\text{가구균등화 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구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또는 6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집단(18-65세 근로연령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12
	이용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의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1-20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042-481-2596)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지표번호	1.2.2
지표명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Proportion of men, women and children of all ages living in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 according to national definitions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각 국가 빈곤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By 2030, reduce at least by half the proportion of men, women and children of all ages living in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 according to national defini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없음
지표정의	-
지표의의	-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국내에서 빈곤선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없음. 그러나,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인구집단 (18-65세 근로연령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별 상대적 빈곤율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여성가구주와 아동의 소득 및 지출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각각 계산하여 『빈곤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상대적 빈곤율
	산식	상대적 빈곤율 = $\frac{\text{국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해당 집단 인구}}{\text{해당 집단 전체 인구}} \times 100$ 빈곤선은 전체 인구 가구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2
	이용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의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1-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042-481-2596)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지표번호	1.3.1
지표명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3.1 Proportion of population covered by social protection floors/systems, by sex, distinguishing children, unemployed persons,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gnant women, newborns work-injury victims and the poor and the vulnerable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Implement nationally appropriate social protection systems and measures for all, including floors, and by 2030 achieve substantial coverage of the poor and the vulnerabl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6월
지표정의	사회보호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사회보호에는 아동, 모성, 장애인, 실업자, 산업재해자, 노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 사회보호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는 보장받는 인구의 수로 측정됨 (기여 급여자와 비기여 급여자 모두 포함). 지표는 인구집단별로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한 지표는 연금을 포함한 1가지 이상의 현금수당을 받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됨. 1. 전체 아동(가구) 중 아동수당(가족수당)을 받는 아동(가구)의 비율 2. 출산여성 중 모성수당을 받는 여성의 비율 3. 장애인구 중 장애수당을 받는 인구의 비율 4. 실업인구 중 실업수당을 받는 인구의 비율 5. 전체 취업인구 중 산재보험 보장을 받는 인구의 비율 6. 법정 은퇴연령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율 7. 전체 취약계층인구 중 사회부조를 받는 인구의 비율
지표의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사회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하나임. 사회보호 보편성의 원리는 전 인구의 적절한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데 있어 사회보호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줌. 이 지표는 사회 보호 보편성이 달성되는 정도, 즉 사람들의 생활여건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나타냄.
지표해설	한국의 아동수당 지급률은 22.9%(2019년), 장애수당 지급률은 24.8%(2019년), 빈곤인구 사회부조 지급률은 21.4%(2016년), 취약계층 사회부조 지급률은 26.3%(2018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OECD 대부분 국가들의 아동수당, 장애수당, 빈곤인구 사회부조 지급률은 100%에 달함. 반면 한국의 노령연금 지급률은 100%(2018년), 산재보험 보장률은 85.2%(2019년)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임. 실업수당 지급률은 37.1%(2019년)로 보통 수준임. 1가지 이상 현금수당을 받는 인구의 비율은 67.0%(2019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90% 이상이 1가지 이상 현금수당을 받음.
지표대응	국제노동기구(ILO) World Social Protection Database 자료와 세계은행(WB) ASPIRE(the Atlas of Social Protection Indicators of Resilience and Equity) 자료임. 국내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통계생산 부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임. 지표로 작성 가능한 국내 통계로는 구직급여 수급자 수, 임금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수급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등이 있음.

글로벌	데이터 1	아동수당(가족수당)을 받는 아동(가구)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households receiving child/family cash benefit, by sex)
	산식	아동수당(가족수당)을 받는 아동(가구) 비율 = $\frac{\text{아동수당(가족수당)을 받는 아동(가구) 수}}{\text{전체 아동(아동이 있는 가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 자료임
	시계열	2016-2019(한국 데이터 2019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2	모성수당을 받는 출산여성의 비율(Proportion of mothers with newborns receiving maternity cash benefit)
산식	모성수당을 받는 출산여성 비율 = $\frac{\text{모성수당을 받는 출산여성 수}}{\text{출산여성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16-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3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severe disabilities receiving disability cash benefit, by sex)
산식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구 비율 = $\frac{\text{장애수당을 받는 인구}}{\text{장애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13-2014, 2016-2019(한국 데이터 2013, 2014, 2017, 2019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4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unemployed persons receiving unemployment cash benefit, by sex)
산식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인구의 비율 = $\frac{\text{실업수당을 받는 인구}}{\text{실업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4, 2005, 2007, 2009, 2010, 2011, 2014, 2019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5	산재보험 보장을 받는 취업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employed population covered in the event of work injury, by sex)
산식	산재보험 보장을 받는 취업인구 비율 = $\frac{\text{산재보험 보장을 받는 인구}}{\text{취업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03-2004, 2006-2012, 2015-2017, 2019(한국 데이터 2019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6	연금을 받는 법정 은퇴연령 이상 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above statutory pensionable age receiving a pension, by sex)

	산식	연금을 받는 법정 은퇴연령 이상 인구 비율 = $\frac{\text{연금을 받는 인구}}{\text{법정 은퇴연령 이상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00-2005, 2007-2019(한국 데이터 2013, 2014, 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7	사회부조를 받는 빈곤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poor population receiving social assistance cash benefit, by sex)
	산식	사회부조를 받는 빈곤인구 비율 = $\frac{\text{사회부조를 받는 인구}}{\text{빈곤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16-2019(한국 데이터 2016)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8	사회부조를 받는 취약계층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vulnerable population receiving social assistance cash benefit, by sex)
	산식	사회부조를 받는 취약계층인구 비율 = $\frac{\text{사회부조를 받는 인구}}{\text{취약계층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16-2019(한국 데이터 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데이터 9	최소 1가지의 사회보호 수당을 받는 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covered by at least one social protection benefit, by sex)
	산식	최소 1가지의 사회보호 수당을 받는 인구 비율 = $\frac{\text{1가지 이상 사회보호 수당을 받는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Social Security Inquiry 자료로, 이는 각국 노동부, 복지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행정자료임
	시계열	2016-2019(한국 데이터 2016, 2019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gess/ShowWiki.action?id=594#tabs-3
국내	데이터 1	구직급여 지급자 수
	산식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44N_7374_Z&conn_path=I3
이용통계	구직급여신청동향
자료수집방법	구직급여 신청자 행정집계 자료
공표주기	월
시계열	2015-2020
통계생산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9)
데이터 2	산재보험 가입률
산식	산재보험 가입률 = $\frac{\text{산재보험 가입자 수}}{\text{조사대상 임금노동자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고용형태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8&conn_path=I3
이용통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7-2019
통계생산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39)
데이터 3	국민연금 수급자 수
산식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급여종류별, 성별,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4&conn_path=I3
이용통계	국민연금통계
자료수집방법	국민연금공단 행정집계 자료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2-2018
통계생산기관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063-713-5117)
데이터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산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수급자유형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3
이용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수집방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집계 자료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1-2019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3)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지표번호	1.4.1
지표명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households with access to basic services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men and women, in particular the poor and the vulnerable, have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basic services,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inheritance, natural resources, appropriate new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microfinanc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0월
지표정의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의 비율로, '(모든 종류의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전체 인구) × 100'으로 계산됨. 기초 서비스에는 기초식수(양복 30분 이내 취수 가능한 식수, SDG 6.1 관련), 기초위생시설(하수시설과 화장실 및 화장실, SDG 6.2 관련), 기초수도시설(수도 및 양동이 및 비누, SDG 6.2 관련), 기초이동수단(농촌의 사계절 도로와 도시의 대중교통, SDG 9.1.1과 11.2.1 관련), 기초쓰레기수거(재활용품과 폐기물 수거), 기초의료(응급의료, 입원환자 치료와 외래환자 진료, 방사선 서비스, 예방의료,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치료), 기초교육(5-21세 학생의 교육권 달성), 기본정보서비스(광대역 인터넷 접근) 등이 포함됨.
지표의의	빈곤은 물질적 웰빙의 결핍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기회의 부족도 포함함.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안전한 식수, 적절한 위생, 현대식 에너지, 경제적 자원, 정보기술, 의료, 교육 등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곧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을 포함한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접근,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 참여의 제한 등으로 나타남. 따라서 빈곤은 다차원적이며 삶의 다양한 국면을 포함함. 이 지표는 빈곤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기초 서비스 접근'에 초점을 둠.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이동성, 주거,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초 서비스는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 기초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됨. 반면 더 나은 기초 서비스가 공급되면 사람들의 웰빙과 상품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됨. 기초 서비스의 공급은 취수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며 더 나은 에너지와 생필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수준도 향상시킴. 이 지표는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고 정부가 어떤 기초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함.
지표해설	한국의 기초식수보급률은 99.8%로 완전 보급에 근접해 있으며 기초위생시설보급률은 100%로 완전 보급 상태에 도달해 있음. OECD 국가들의 기초식수 및 기초위생시설 보급률은 대부분 90% 이상에 이르지만 일부 국가의 농촌 지역에서는 90%에 미달함(2017년 기준).
지표대응	현재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데이터 없음. 최종 지표(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산출에 다양한 세부 지표가 사용되며, 각 세부지표는 기존 SDG에 기반하여 작성됨. 현재까지는 SDG 6.1과 6.2에 근거하여 기초식수보급률과 기초위생시설보급률만 작성되어 있음. 기초 서비스 관련 세부지표는 추가로 더 작성될 것이므로 향후 작성되는 세부지표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1	기초식수보급률(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basic drinking water services, by location)
	산식	$\frac{\text{기초식수 접근 가능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데이터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2002-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도농)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
	출처	https://washdata.org/data/household#!/



	데이터 2	기초위생시설보급률(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basic sanitation services, by location)
	산식	$\frac{\text{기초위생시설 접근 가능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자료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도농)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간주거기구(UNHABITAT)
	출처	https://washdata.org/data/household#!/
국내	데이터	없음

1.4.2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지표번호	1.4.2
지표명	(a)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 (성 및 보유형태별) Proportion of total adult population with secure tenure rights to land, (a) with legally recognized documentation and (b) who perceive their rights to land as secure, by sex and by type of tenure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men and women, in particular the poor and the vulnerable, have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basic services,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inheritance, natural resources, appropriate new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microfinanc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안정적 토지권을 보유한 성인 인구의 비율. 안정적 토지권은 두 가지 요소, 즉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와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인식'으로 구성됨.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는 토지의 상태와 위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의 공식적 기록이나 발행물을 말함(법적으로 인정된 문서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토지에 대한 권리 보장 인식은 자신의 토지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의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향후 5년 이내 토지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여부와 토지 증여권 보유 여부로 측정될 수 있음.
지표의의	토지는 핵심 자산으로서 빈곤 감소, 인권, 남녀 간 기회의 평등에 필수적임. 안정적인 토지권은 토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토지가 양도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금융 담보로써 이용될 수 있게 함 이 지표는 여성과 취약집단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를 측정함. 이 지표에서는 모든 유형의 토지사용(주거, 상업, 농업, 산림, 목초, 습지 등)과 국가로부터 인정된 모든 유형의 토지권(자유로운 보유, 임차, 공공토지, 관습적 토지 등)이 다루어짐. 이 지표는 정부로 하여금 토지 거버넌스의 발전을 유도하고,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다양한 토지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함. 또한 토지권이 실제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평가하며,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요구되는 추가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함. 마지막으로 남녀 간 토지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지표해설	한국의 성인 인구(20세 이상) 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40.8%임. 성별로는 남성 인구의 46.4%, 여성 인구의 35.3%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연령별로는 20대 5.0%, 30대 28.2, 40대 44.7%, 50대 51.4%, 60대 56.3%, 70세 이상 63.2%로 나이가 들수록 토지소유율이 높음.
지표대응	글로벌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음.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통해 개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 토지소유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수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 소유율을 계산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 보유 성인 인구 비율 = $\frac{\text{법적으로 인정된 문서 보유 성인 인구}}{\text{전체 성인 인구}} \times 100$
		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성인 인구 비율 = $\frac{\text{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성인 인구}}{\text{전체 성인 인구}} \times 100$
		안정적 토지권을 보유한 성인 인구 비율 = (법적 문서 보유 비율 × 0.5) + (토지권 보호 인식 비율 × 0.5)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법적 문서 보유 인구는 각국 국토부 행정 자료, 토지권 보호 인식 인구는 각국 가구조사 자료, 전체 성인 인구 통계는 각국 센서스 자료로 집계됨.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 세계은행(WB)	
출처	-	



국내	데이터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 현황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6076&conn_path=I3
	이용통계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국토교통부의 지적통계연보와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활용)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7-2019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4)

1.5.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지표번호	1.5.1 (=11.5.1, 13.1.1)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directly affected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By 2030, build the resilience of the poor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reduce their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climate-related extreme events and oth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hocks and disaster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3월
지표정의	인구 1십만 명당 사망, 실종, 재해의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의 수를 의미함. 직접적 피해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대피, 피난, 이주를 경험했거나 생계,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포함함. 지표 값인 X는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 베이스의 지표(사망자, 실종자, 영향자)를 전 세계 인구데이터(국가 인구조사, 세계은행, 유엔 통계위원회 정보)로 나눈 단순식으로 계산함.
지표의의	센다이 재난 위험 감소 프레임워크 2015-2030은 2015년 3월 유엔 회원국들이 세계 재난 위험 감소 정책으로 채택한 것임. 글로벌 목표 중 "목표 A : 2030년까지 전 세계 재해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2005-2015년 대비 2020-2030년 전 세계 십만 명당 사망률 평균 감소"와 "목표 B: 2005-2015년 대비 2020-2030년 십만 명당 피해 인구 평균 감소"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사회, 보건, 환경 복원력을 강화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관점은 빈곤 퇴치, 도시의 탄력성, 기후 변화 적응을 포함함.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Sendai) 프레임 워크 2015-2030이 2015년 3월 UN 회원국에 의해 글로벌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지표는 이 정책의 결과를 보여줌.
지표해설	한국은 2018년에는 십만 명당 사망/실종자 수는 0.3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는 26.5명 수준임. 이 수치는 매해 재난 수준에 따라 달라짐.
지표대응	행정안전부가 매해 발간하는 '재해연보' 통계치가 제공됨.

글로벌	데이터 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text{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 + \text{재난으로 인한 실종자 수}) / \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000$
	측정단위	십만명 당 명
	자료수집방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 데이터는 관계 부처에서 수집하고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재난 관리 기관, 시민 보호 기관 및 기상 기관을 포함한 특수 목적 기관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됨. 이 자료는 센다이 프레임 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됨
	시계열	2005-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 2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Number of directly affected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text{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000$
	측정단위	십만명 당 명
	자료수집방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 데이터는 관계 부처에서 수집하고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재난 관리 기관, 시민 보호 기관 및 기상 기관을 포함한 특수 목적 기관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됨. 이 자료는 센다이 프레임 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됨
	시계열	2005-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5603N_004&conn_path=I3
	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료수집방법	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3-2018
	통계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행정자치부 기타(044-205-5313)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지표번호	1.5.2
지표명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Direct economic loss attributed to disasters in relation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GDP)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By 2030, build the resilience of the poor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reduce their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climate-related extreme events and oth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hocks and disaster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3월
지표정의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의 비(ratio). 직접적 경제손실은 물리적 자산 피해의 화폐적 가치를 말함. 간접적 경제손실은 직접적 경제손실로 인한 부가가치의 감소와 재난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함.
지표의의	2015년 UN 회원국들이 2015-2030년까지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재난 위험 감소 전문가 그룹(OIEWG)이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를 개발함. 재난 손실 데이터는 특정 대규모 재난 이벤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터 보완을 위해서는 개별 이벤트별로 보고 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표해설	한국의 재난 경제손실 규모는 2010년과 2011년이 가장 컸는데, 이는 글로벌 GDP의 0.00031%와 0.00027%에 해당하는 규모임. 국제적으로 한국의 재난 피해 규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지표대응	글로벌 데이터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집됨.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현황」 통계로 자연재해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음. 국내 GDP 대비 피해액 비율을 산출하면 재해 피해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Direct economic loss attributed to disasters relative to GDP)
	산식	$\text{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 비율} = \frac{C1 + C2 + C3 + C4 + C5}{\text{글로벌 GDP}} \times 100$ <p>C1은 농업, C2는 생산자산, C3은 주택, C4는 중요 인프라, C5는 문화유산 손실액</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가 각국 센다이 프레임워크 담당자의 보고를 통해 자료 수집
	시계열	2005-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자연재해 피해액
	산식	당해 연도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측정단위	천 원
	세분화	피해시설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5603N_004&conn_path=I2
	이용통계	자연재해현황
	자료수집방법	구시군-시도-행정안전부의 보고 체계를 통해 집계한 행정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3-2018
통계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044-205-5313)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지표번호	1.5.3 (=11.b.1, 13.1.2)
지표명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By 2030, build the resilience of the poor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reduce their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climate-related extreme events and oth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hocks and disaster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란, 효고행동계획(HFA)* 이후의 재난관리 전략계획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후적 복구에서 사전적 예방을 강조하여 재해에 의한 사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위험경감 지침이며 본 지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함.
지표의의	센다이 프레임 워크가 요구하는 국가 및 지방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면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적극적인 재난위험감소 전략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것임.
지표해설	전 세계 국가 중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85개로 보고됨.
지표대응	이 지표는 센다이 모니터(Sendai Monitor) 국가별 진행 보고서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계산되는 국제기구 소관 지표로 한국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SDGs 웹페이지에서 최근 자료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음 재난 위험 감소전략에 대하여 통계로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2010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에 의하여 수립되고 있고, 2016년 7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보다 고려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 종합계획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가 재해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 수(Number of countries that reported having a National DRR Strategy which is aligned to the Sendai Framework)
	산식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가 재해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 수의 합
	측정단위	개
	자료수집방법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OEIWG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DRR 전략을 보고
	시계열	2015-2019 (국별 자료가 아닌 세계 수준의 자료 제공, 한국 데이터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점수 항목으로 2015-2018 제공)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indicator=13.1.1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효고행동 계획(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의 약어로, 2005년 일본 고베시 효고현에서 열린 재난감축국제회의에서 수립된 것으로, 2005~2015년까지 재해감소 실행을 위한 효고 프레임워크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지표번호	1.5.4 (=11.b.2, 13.1.3)
지표명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By 2030, build the resilience of the poor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reduce their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climate-related extreme events and oth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hocks and disaster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02월
지표정의	센다이 재난 위험 감소 프레임 워크 2015-2030은 2015년 3월 유엔 회원국들이 세계 재난 위험 감소 정책으로 채택함. 그 중 하나가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 재해 위험 감소 전략을 가진 국가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라"는 것임. 이에 따라 재해 감소 전략과 정책은 모든 부문, 시간, 목표, 지표, 기간에 대해 재해 위험 감소를 이뤄야 함. 회원국들은 국가 전략에 따라 지역 재난위험감축(Disaster Risk Reduction)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방 정부 수를 세어 전체 지방 정부 수의 백분율로 표현함.
지표의의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지역 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사회, 보건, 환경 탄력성이 강화됨.
지표해설	한국, 미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 등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0%를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경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어떻게 통계화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없고 정의가 모호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비율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산식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 / 지자체 수)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개별 국가의 부처, 통계청 및 기타 담당 기관이 유엔재난위험감감기구(UNISDR)에 보고
	시계열	2015-2018(한국데이터 201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감감기구(UNISDR)
출처	http://www.preventionweb.net/files/50683_oiewgreportenglish.pdf http://www.preventionweb.net/english/hyogo/progress/ http://www.preventionweb.net/events/view/55594 <uploaded soon>	
	국내	데이터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지표번호	1.a.1
지표명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rants from all donors that focus on poverty reduction as a share of the recipient country's gross national income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고를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 동원 보장 Ensure significant mobilization of resources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through enhanc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and predictable mea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implement programmes and policies to end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지출한 ODA 총액이 수원국(또는 공여국)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공적개발원조(ODA)란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 국가와 다자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원 흐름으로서 ①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적 기구에 의해 제공되고 ②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③ 무상원조와 무상요소(증여율) 25% 이상의 양허성 차관을 말함. 수원국 빈곤감소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분야는 기본교육(CRS 코드 112xx), 기본건강(CRS 코드 122xx), 급수 및 위생(CRS 코드 140xx), 기본사회서비스에 대한 다분야 원조(CRS 코드 16050), 개발식량 원조(CRS 코드 52010)임.
지표의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은 개도국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여국의 공적 노력을 나타냄. 공적개발원조(ODA) 중 기본사회서비스와 개발식량 원조는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없음.
지표대응	지표 데이터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가 공여국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함. 국내 ODA 통계 보고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임.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통계보고 시스템을 통해 국내 49개 원조집행기관 자료를 취합, 집계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보고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서비스(https://stats.koreaexim.go.kr)와 통계자료집(https://www.edcfkorea.go.kr),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 공개 자료(http://www.odakorea.go.kr)를 통해 국내 ODA 지출 통계가 공표되고 있음. 양자간 원조,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 등 지표 정의와 산식 요건에 맞게 필터링하여 통계를 집계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공여국별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poverty reduction by donor countries(% of GNI))
	산식	공여국 ODA 비율 = $\frac{\text{수원국 빈곤감소를 위한 양자간 ODA 총액}}{\text{공여국 GNI}}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가 공여국 보고기관(외교부 또는 재무부)으로부터 수집 (http://www.oecd.org/dac/stats/methodology.htm)
	시계열	2006-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데이터	없음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지표번호	1.a.2
지표명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Proportion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essential services (education,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 동원 보장 Ensure significant mobilization of resources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through enhanc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and predictable mea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implement programmes and policies to end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 정부)의 총지출 중 교육지출의 비율임. 교육지출에는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식교육에 대한 지출과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포함)에 대한 지출이 포함 됨.
지표의의	정부의 교육투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를 보여 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음.
지표대응	정부의 교육지출 비율은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부분별 기능별 총지출에서 교육부문의 지출비중을 구하여 작성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정부 교육지출 비율(Proportion of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essential services, education)
	산식	정부 교육지출 비율 = $\frac{\text{일반정부 교육지출}}{\text{일반정부 총지출}}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또는 UOE(UNESCO-OECD-Eurostat)가 각국 정부로부터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반기(2월, 9월)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일반정부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산식	부문별 정부지출 비율 = $\frac{\text{일반정부 교육 지출}}{\text{일반정부 총지출}}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s://ecos.bok.or.kr/
	이용통계	국민계정
	자료수집방법	각 기관의 통계DB나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자료, 결산서 등을 입수하여 자료 가공
	공표주기	1년(잠정: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확정: 익익년 6월)
시계열	1970-2018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02-759-5286)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지표번호	1.b.1
지표명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Pro-poor public social spending
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세부목표명	빈곤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지적 개발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Create sound policy framework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based on pro-poor and gender-sensitive development strategies, to support accelerated investment in poverty eradication ac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정부가 의료와 교육, 빈곤층 직접이전에 지출한 비율. 직접이전은 현금 또는 현금성 이전을 말함. 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SDG 1.2.1의 국가빈곤선 기준을 따름.
지표의의	이 지표는 빈곤퇴치에 중요한 '의료' '교육' '빈곤층을 위한 직접이전'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을 측정함. 즉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이 빈곤층(monetary poor)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이 지표는 정부의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국가빈곤선(SDG 1.2.1 기준) 미만 인구의 비율보다 높은지 여부로 정의됨. 빈곤층에 대한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국가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보다 높다면, 이를 빈곤친화적(pro-poor)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 지표는 정부가 빈곤집단을 위해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빈곤친화적 발전 전략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가능할 수 있게 함. 방법론과 자료가 더 개발된다면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취약집단으로 지표를 확장할 수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음.
지표대응	지표 산출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념적 수준에 그침. 지표 개발이 더 진척된 후에 지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1.1 영양부족인구 비율

지표번호	2.1.1
지표명	영양부족인구 비율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By 2030, end hunger and ensure access by all people, in particular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including infants, to safe, nutritious and sufficient food all year roun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정상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이에너지가 공급될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임. 영양부족은 영양실조와는 다른 것으로, '영양상태'가 아닌 '불충분한 음식섭취'를 의미함.
지표의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목표와 새천년개발목표(MDG) 1C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사용해 온 지표로서 식량 가용성, 식량 접근성, 인구 특성 등의 변화에 따른 식이에너지 결핍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함. 극심한 식량부족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기아 감소라는 목표 정션에 부합하는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의 영양부족인구 비율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5% 미만의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OECD 국가 중 일부 국가(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2.5% 미만 수준임(2017년 기준).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통계가 매년 작성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은 에너지 섭취량과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을 고려한 수치로 글로벌 정의와는 차이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	영양부족인구 비율(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산식	확률밀도함수를 통해 추정된 전체 인구의 1일 규칙적 식이에너지 섭취량 확률분포를 기반으로 산출됨. 확률밀도함수가 정해지면 1일 규칙적 식이에너지 섭취량이 정상적 식이에너지 필요량 미만인 인구의 누적확률로써 계산됨 $PoU = \int_{(x < MDER)} f(x DEC, CV; Skew) dx$ MDER는 식이에너지 필요량, DEC는 식이에너지 평균 소비량임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농산물 및 축산물 생산·교역·이용에 관한 공식 자료(Food Balance Sheets(FBS)로 통합 집계), 식품 소비에 관한 가구조사 자료, 국가 인구 자료를 결합하여 작성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1-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산식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인구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동·읍·면)별, 소득수준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31&conn_path=I2
	이용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8-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043-719-7467)	

2.1.2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지표번호	2.1.2
지표명	식량불안경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Prevalence of moderate or severe food insecurity in the population, based on the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By 2030, end hunger and ensure access by all people, in particular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including infants, to safe, nutritious and sufficient food all year roun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일정 기간 동안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임. 식량불안도는 FAO가 개발한 식량불안경험척도(FIES)로 측정됨. FIES는 8개의 이분문항(dichotomous item)으로 구성됨.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충분한 음식을 장만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단지 몇 종류의 음식만 먹은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먹어야 할 양보다 적게 먹은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지난 12개월 동안, 돈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지낸 적이 있습니까?
지표의의	중간 수준의 식량불안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양부족과 같은 식사 관련 건강상태의 예측변수가 됨.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은 음식섭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기아를 포함한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지표해설	한국의 식량불안 경험인구는 2015년 209만 명(4.8%), 2016년 213만 명(5.1%), 2017년 228만 명(5.4%)으로 전체 인구의 5% 안팎으로 추정됨. 이는 일본(2.8%), 스위스(3.1%), 룩셈부르크(3.3%), 독일(3.6%) 등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로 보면 낮은 수준임(2017년 기준).
지표대응	글로벌 데이터는 FAO가 Gallup World Poll 조사로 수집한 것임.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이 산출되고 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로 계산한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은 매년 3-4% 수준으로 글로벌 데이터의 한국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 1	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불안 상태의 총인구(Total population in moderate or severe food insecurity)
	산식	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불안 상태를 경험한 가구에 사는 인구. 식량불안 경험인구는 Rasch 모형으로 추정함
	측정단위	천명
	자료수집방법	Gallup World Poll 조사에서 FIES 모듈을 사용하여 수집
	시계열	2014-2018(한국 데이터 2015-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연령(15세 이상, 전 연령)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 2	성인 중 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Prevalence of moderate or severe food insecurity in the adult population)
	산식	식량불안 경험인구 비율 = $\frac{\text{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불안 상태를 경험한 가구에 사는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식량불안 경험인구는 Rasch 모형으로 추정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Gallup World Poll 조사에서 FIES 모듈을 사용하여 수집
	시계열	2014-2018(한국 데이터 2015-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연령(15세 이상, 전 연령)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
	산식	$\text{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율} = 100 - \left[\frac{\text{식품안정성 확보가구}}{\text{전체 가구}} \times 100 \right]$ <p>식품안정성 확보가구는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가구원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구임</p>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거주지역(동·읍·면)별, 소득수준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42&conn_path=I2
	이용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가구의 식품구매 주 담당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5-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043-719-7467)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지표번호	2.2.1
지표명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Prevalence of stunting (height for age <-2 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dia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hild Growth Standards)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By 2030, end all forms of malnutrition, including achieving, by 2025,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s on stunting and wasting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and address the nutritional needs of adolescent girls,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nd older pers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12월
지표정의	5세 미만 중 신장이 세계보건기구(WHO) 아동성장표준 중위신장으로부터 -2표준편차에 미달하는 아동의 비율
지표의의	아동성장은 아동의 영양상태를 반영함. 발육부진 아동은 만성적 또는 반복적 영양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매우 부진한 아동을 말함. 발육부진은 아동사망의 위험요인이자 인간발달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임. 발육부진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의 2003년과 2010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식 통계가 아닌 것으로 보임. 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의 데이터 산출이 부진함.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로 신장 '양호' 아동수와 '정밀평가필요' 아동수를 집계하고 있음. 전체 수검 아동(4-60개월) 중 신장 '정밀평가필요' 아동의 비율로 UN 지표에 상응하는 국내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단, UN 지표는 0-59개월 아동 기준). 한국의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의 비율은 2010년 기준 2.5%임.

글로벌	데이터	발육부진 아동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moderately or severely stunted)
	산식	발육부진 아동 비율 = $\frac{\text{신장이 중위신장으로부터 -2표준편차에 미달하는 아동수}}{\text{5세 미만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 글로벌 데이터베이스(CRING) 데이터로 작성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3, 2010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nutrition/malnutrition/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children-aged-5-years-stunted-(height-for-age--2-sd)	
국내	데이터	신장 정밀평가필요 아동 비율
	산식	신장 정밀평가필요 아동 비율 = $\frac{\text{신장 정밀평가필요 판정을 받은 아동수}}{\text{4-60개월 수검 아동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월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5&conn_path=I2
	이용통계	건강검진통계
	자료수집방법	검진기관이 검진포털에 입력한 수검자 검진 결과로 작성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2-2018
통계생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033-736-2442)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지표번호	2.2.2
지표명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저체중 및 과체중별) Prevalence of malnutrition (weight for height >+2 or <-2 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dian of the WHO Child Growth Standards)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by type(wasting and overweight)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By 2030, end all forms of malnutrition, including achieving, by 2025,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s on stunting and wasting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and address the nutritional needs of adolescent girls,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nd older pers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12월
지표정의	과체중 아동 비율: 5세 미만 중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아동의 비율 저체중 아동 비율: 5세 미만 중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위값으로부터 -2표준편차에 미달하는 아동의 비율
지표의의	아동성장은 아동의 영양상태를 반영함. 과체중 아동은 키에 비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아동을 말함. 과체중은 음식 섭취량에 비해 칼로리 소비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며 비감염성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임. 저체중 아동은 키에 비해 너무 마른 아동을 말함. 저체중은 사망 위험을 높이지만 치료가 가능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의 2003년과 2010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식 통계가 아닌 것으로 보임.
지표대응	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의 데이터 산출이 부진함. 국내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로 체중 '양호' 아동수와 '정밀평가필요' 아동수를 집계하고 있음. 전체 수검 아동(4-60개월) 중 체중 '정밀평가필요' 아동의 비율로 UN 지표에 상응하는 국내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음(단, UN 지표는 0-59개월 아동 기준). 한국의 과체중 아동 비율은 2010년 기준 7.3%이고 같은 해 기준 저체중 아동 비율은 1.2%임.

글로벌	데이터 1	과체중 아동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moderately or severely overweight)
	산식	과체중 아동 비율 = $\frac{\text{신장 대비 체중이 중위값으로부터 +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아동수}}{\text{5세 미만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 글로벌 데이터베이스(CRING) 자료로 작성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3, 2010)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nutrition/malnutrition/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children-aged-5-years-overweight-(-weight-for-height-2-sd)
	데이터 2	저체중 아동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moderately or severely wasted)
	산식	저체중 아동 비율 = $\frac{\text{신장 대비 체중이 중위값으로부터 -2표준편차에 미달하는 아동수}}{\text{5세 미만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 글로벌 데이터베이스(CRING) 자료로 작성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3, 2010)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nutrition/malnutrition/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children-aged-5-years-wasted-br-(-weight-for-height--2-sd)	

국내	데이터	체중 정밀평가필요 아동 비율
	산식	체중 정밀평가필요 아동 비율 = $\frac{\text{체중 정밀평가필요 판정을 받은 아동수}}{\text{4-60개월 수검 아동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월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5&conn_path=I2
	이용통계	건강검진통계
	자료수집방법	검진기관이 검진포털에 입력한 수검자 검진 결과로 작성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2-2018
	통계생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033-736-2442)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여부별)

지표번호	2.2.3
지표명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임신여부별) Prevalence of anaemia in women aged 15 to 49 years, by pregnancy status (percentage)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개선 By 2030, end all forms of malnutrition, including achieving, by 2025,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s on stunting and wasting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and address the nutritional needs of adolescent girls,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nd older pers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15-49세 여성 인구 중 빈혈 여성으로 정의되며, 임신여부에 따른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기준은 다음과 같음. 비임신 및 수유여성 120g/L 미만, 임신 110g/L 미만
지표의의	빈혈은 세계적으로 널리 발생하며,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발생함. 빈혈은 인지 및 동기 발달, 직업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임신 여성에게 나타나는 철분 부족 빈혈은 출산 자녀를 불균형 발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기 분만, 저체중아 출산, 출산아 철분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철분 부족이지만 다른 영양적 원인과 비영양적 원인이 있음.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는 고도(해발 미터), 흡연, 임신 3개월, 나이와 성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음. 빈혈은 혈액 헤모글로빈 측정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철분 상태와 함께 사용될 때 철분 부족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 빈혈 유병률은 공중 보건 문제의 중대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하지만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에는 이 지표 데이터(1990-2016)가 공개되어 있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여성의 빈혈 유병률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파악한 한국 여성(10세 이상)의 빈혈 유병률은 2007년 16.8%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낮아져 2010년 이후로는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11.8%로 조사됨.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15-49\text{세 여성 빈혈 유병률} = \frac{15-49\text{세 여성 빈혈 인구}}{15-49\text{세 여성 인구}} \times 100$ <p>빈혈 기준은 비임신 및 수유 여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 120g/L 미만, 임신 여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 110g/L 미만임. 거주지역 해발고도와 흡연여부를 고려하여 조정함</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보건기구(WHO)가 VMNIS Micronutrients Database 자료를 이용, 계층적 베이지안 혼합 모델에 기반하여 유병률을 추정함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prevalence-of-anaemia-in-women-of-reproductive-age(-)	
국내	데이터	10세 이상 여성 빈혈 유병률
	산식	$10\text{세 이상 여성 빈혈 유병률} = \frac{10\text{세 이상 여성 빈혈 인구}}{10\text{세 이상 여성 인구}} \times 100$ <p>빈혈은 혈액 헤모글로빈(g/dL) 기준 10-11세는 11.5 미만, 12-14세는 12 미만, 15세 이상 비임신 여성은 12 미만, 15세 이상 임신 여성은 11 미만인 경우임</p>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별, 거주지역(동·읍·면)별, 소득수준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10&conn_path=I2
	이용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가구의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8-2018
	통계생산기관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과(043-719-7467)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지표번호	2.3.1
지표명	노동 단위당 생산량(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Volume of production per labour unit by classes of farming/pastoral/forestry enterprise size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By 2030, doubl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comes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in particular women, indigenous peoples, family farmers, pastoralists and fishers, including through secure and equal access to land, other productive resources and inputs, knowledge, financial services, markets and opportunities for value addition and non-farm employ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0월
지표정의	작물, 가축, 어업, 임업 분야에서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노동일수 대비 농업 생산량. 연간 노동일수에 대한 연간 생산량의 비(ratio)로 계산됨. 소규모 식량생산자는 경작면적, 가축두수, 농업수입 모두 하위 40%에 속하는 생산자를 말함.
지표의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소규모 식량생산자가 글로벌 식량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음. 이 지표는 2030년까지 농업생산성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임. 소규모 생산단위에서의 노동생산성 증대는 빈곤 감소를 의미하기도 함. 소규모 식량생산자는 대체로 빈곤하거나 심지어는 최저생활 상태에 있기 때문임.
지표해설	UN 데이터에는 캐나다, 에티오피아, 인도, 말라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나마, 우간다, 탄자니아, 부르키나 파소를 포함한 11개국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서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를 산출하고 있음. 농업노동시간 대비 농업 부가가치로 계산한 한국 농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작면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2019년 기준 0.5ha 미만 경작농가와 0.5-1ha 미만 경작농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각각 6,916원과 11,703원으로 10ha 이상 경작농가(44,067원)의 15.7%와 26.6%에 불과함.

글로벌	데이터	소규모 식량생산자 생산성(Productivity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산식	$\text{소규모 식량생산자 생산성} = \frac{\sum_j \frac{\sum_i V_{ij} P_{ij}}{L_{dj}}}{n}$ <p>V_{ij} 는 소규모 식량생산자 j의 농산물 i 생산량 P_{ij} 는 소규모 식량생산자 j의 농산물 i 판매가격(불변가격) L_{dj} 는 소규모 식량생산자 j의 노동일수, n 은 소규모 식량생산자 수</p>
	측정단위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생산량과 노동투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농업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5, 2008, 2009, 2011-2016(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231/en/
	국내	데이터
산식		$\text{시간당 노동생산성} = \frac{\text{농업부가가치액}}{\text{자영농업노동시간}}$ <p>농업부가가치액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유동재비를 뺀 금액임</p>
측정단위		원
세분화		경지규모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401&conn_path=I2
이용통계		농가경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30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3-2019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농어업동향과(042-481-2283)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소득(성 및 원주민여부별)

지표번호	2.3.2
지표명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소득(성 및 원주민여부별) Average income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by sex and indigenous status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가 By 2030, doubl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comes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in particular women, indigenous peoples, family farmers, pastoralists and fishers, including through secure and equal access to land, other productive resources and inputs, knowledge, financial services, markets and opportunities for value addition and non-farm employ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0월
지표정의	소규모 식량생산자가 식량 및 농산물 생산으로 얻는 연간 수입. 농업, 축산업, 어업 및 양식업, 임업 등이 포함됨. 소규모 식량생산자는 ① 경지면적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② 가축두수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③ 농업수입 5분위 중 하위 1, 2분위에 모두 해당하는 생산자를 말함.
지표의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소규모 식량생산자가 글로벌 식량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음. 이 지표는 2030년까지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임. 소규모 식량생산자는 빈곤하거나 심지어 최저생활에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들의 소득 증대는 곧 빈곤 감소를 의미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산출되지만 OECD 국가는 거의 포함되지 않음(2014년 멕시코, 2016년 캐나다 데이터만 포함).
지표대응	국내에서 「농가경제조사」로 농가소득(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집계하고 있지만, UN 정의에 따라 5분위 농업소득을 집계하려면 「농가경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농가가 농업 생산 활동으로 얻는 최종 보수, 즉 농업소득은 지난 2003-2019년 기간 동안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대체로 연 1000만 원 안팎 수준을 나타냄.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작규모별로 차이가 큰데, 0.5ha 미만 경작 농가와 0.5-1ha 미만 경작 농가의 연간 농업소득은 각각 202만 원과 557만 원에 불과하지만 10ha 이상 경작 농가의 경우 6,549만 원에 달함(2019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소득(Average income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산식	$\text{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소득} = \frac{\sum_j (\sum_i V_{ij} P_{ij} - C_{ij})}{n}$ <p>V_{ij} 는 소규모 식량생산자 j의 농산물 i 판매량 P_{ij} 는 소규모 식량생산자 j의 농산물 i 판매가격(불변가격) C_{ij} 는 소규모 식량생산자 j의 농산물 i 생산비, n 은 소규모 식량생산자 수</p>
	측정단위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농업모듈이 포함된 가구조사, 농업센서스, 행정자료 등으로 산출
	시계열	2004-2016(한국 데이터 전체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내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232/en/
	데이터	농업소득
	산식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측정단위	천원
	세분화	경기규모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501&conn_path=I2
	이용통계	농가경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30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3-2019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농어업동향과(042-481-2283)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지표번호	2.4.1
지표명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Proportion of agricultural area under productiv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이행 By 2030, ensure sustainable food production systems and implement resilient agricultural practices that increase productivity and production, that help maintain ecosystems, that strengthen capacit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xtreme weather, drought, flooding and other disasters and that progressively improve land and soil qualit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농지면적 중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의 비율. 농지는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집약적이고 광범위한 작물 및 가축 생산 시스템, 자급 농업, 독점적 사용이 보장되는 국가 또는 공동 농지, 식량 및 비식량 작물과 축산 제품(담배, 면화, 양모 등), 사료 또는 에너지 목적 재배 작물, 농지 임업, 농지 양식업 등을 포함함. 반면 독점적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또는 공동 농지, 유목, 정원 재배와 취미 재배, 단독 약식업, 단독 임업, 야생 수확 등은 제외함. 지속가능한 생산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데, 각 차원은 다음의 세부지표를 통해 평가됨: 헥타아르당 산출물 가치, 농업소득, 리스크 완화 기제(이상 경제적 차원), 토양 저하, 물 이용, 비료 관리, 농약 관리, 농산물 다양성 유지 관행(이상 환경적 차원), 농업근로자 임금, 식품 불안전 경험, 토지 보유권 보장(이상 사회적 차원). 각 세부지표는 해당 하위문항들로 측정됨(UN 메타데이터 부록 참조).
지표의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그것이 포함하는 범주나 평가하는 척도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일부 접근 방식은 현재의 관행이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기도 함.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988년에 개발한 다차원 접근법은 다음과 같음: 자연자원의 관리와 보존, 현재와 미래 세대 요구의 달성과 지속적 만족을 보장하는 기술 및 제도적 변화. 이러한 개발은 토지와 물, 동식물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기술적으로 적절하며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표해설	글로벌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통계청 「농업면적조사」를 통해 분모에 해당하는 농지면적이 집계되지만, 여기에는 작물 재배지(논, 밭)만 포함됨. '지속가능한 농지면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UN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모듈을 포함하여 농가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 $\frac{\text{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text{농지면적}}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농장조사(farm survey)를 통해 수집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지표번호	2.5.1
지표명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Number of plant and animal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secured in either medium or long-term conservation facilities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By 2020, maintain the genetic diversity of seeds, cultivated plants and farmed and domesticated animals and their related wild species, including through soundly managed and diversified seed and plant bank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promote access to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s internationally agree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중장기 보존시설을 이용하여 '식량농업 유전자원(GRFA)'을 보존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원 보존 방법임. 동식물 GRFA의 두 구성요소, 즉 식물유전자원과 동물유전자원은 각각 계산됨. 식물유전자원의 경우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유전자원의 accession 수로 계산되며, 여기서 'accession'은 유전자은행에 확보되어 있는 종자나 식물의 개별 샘플로 정의됨. 동물유전자원의 경우에는 멸종 시 종 복원에 필요한 양의 유전 물질이 유전자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품종의 수로 계산됨. 로컬 품종은 한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품종을 말함.
지표의의	GRFA는 식량안보의 한 요소로서 전 세계 인구의 생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 유전자은행과 같은 현지외(ex situ) 시설에서 유전물질이 얼마나 보존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유전 다양성 유지·확대 노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자연 서식지와 같은 현지내(in situ)에서 발생하는 유전 다양성의 영구적 손실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함. 유전자은행의 유전자 보유 목록은 동식물 다양성과 보존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지표해설	글로벌 데이터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국내동물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자료로 집계됨. 한국은 로컬 가축 품종 중 종 복원이 가능한 충분한 양의 유전물질이 유전자은행에 저장된 품종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동물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가축유전자원종합정보시스템(Animal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Mangement System)에서 관련 정보 접근 가능함(홈페이지 주소는 angr.nias.go.kr/index.do).

글로벌	데이터	종 복원에 필요한 충분한 유전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로컬 품종의 수(Number of local breeds for which sufficient genetic resources are stored for reconstitution)
	산식	멸종 시 종 복원이 가능하도록 유전자은행에 충분한 양의 유전물질이 저장된 로컬 품종의 수
	측정단위	종
	자료수집방법	각국 정부의 동물유전자원관리국 코디네이터가 FAO DAD-IS에 자료를 제출하며, FAO가 각국의 DAD-IS 보고 자료로 지표를 작성함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지표번호	2.5.2
지표명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Proportion of local breeds classified as being at risk of extinction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한 접근을 개선 By 2020, maintain the genetic diversity of seeds, cultivated plants and farmed and domesticated animals and their related wild species, including through soundly managed and diversified seed and plant bank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promote access to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s internationally agree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로컬 가축 품종 중 위험 상태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품종과 알려지지 않은 품종으로 구분되며,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품종은 다시 멸종위험 상태에 있는 품종과 멸종위험 상태에 있지 않은 품종으로 분류됨. '알려지지 않은' 품종은 개체수가 보고되지 않거나 가장 최근의 개체수 보고가 10년 이전인 경우를 말함(멸종위험 상태는 Critical, Endangered, Vulnerable 단계로 분류되며, 단계별 세부 분류기준은 UN 메타데이터 참조).
지표의의	동물 또는 가축 유전자원은 농업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생물다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또한 이 지표는 영양실조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됨. 식량·농업을 위한 동물유전자원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생물학적 기반에 필수적이며 10억 이상 인구의 생계에도 기여함. 다양한 자원 기반은 인간의 생존과 웰빙에 매우 중요하며, 기아 퇴치에도 기여함. 동물유전자원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도 중요함.
지표해설	글로벌 데이터는 FAO의 국내동물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자료로 집계됨. 2019년 기준 한국의 로컬 품종 49종 중 59%인 29종에 대해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86%인 25종이 멸종위험 품종으로 분류됨. OECD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국 로컬 품종의 80% 이상이 멸종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동물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가축유전자원종합정보시스템(Animal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Mangement System)에서 관련 정보 접근 가능함(홈페이지 주소는 angr.nias.go.kr/index.do).

글로벌	데이터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지역 품종 중 위험 상태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Proportion of local breeds classified as being at risk as a share of local breeds with known level of extinction risk)
	산식	$\text{멸종위험 로컬 품종 비율} = \frac{n_R}{n_R + n_{NR}} \times 100$ <p>nR :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지역 품종 중 위험 상태로 분류된 품종 수 nNR: 멸종위험 수준이 알려진 지역 품종 중 위험 상태로 분류되지 않은 품종 수</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각국 정부의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에서 국내동물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를 작성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2.a.1 농업지향지수

지표번호	2.a.1
지표명	농업지향지수 The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for government expenditures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Increase investment, including through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infrastructur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technology development and plant and livestock gene banks in order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e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정부지출 중 농업지출 비율과 GDP 중 농업부가가치 비율의 비(ratio)로 계산한 지수. 농업지향지수(AOI)가 1보다 크면 정부의 농업지출이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정부의 농업지출이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함.
지표의의	정부의 농업지출은 토양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 농업용 관개 및 배수 시설, 가축건강 관리와 축산 연구·교육, 해양 및 담수 생물학 연구, 조림과 기타 임업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출을 포함함. 이러한 농업활동에 대한 지출은 물질적 및 인적 자원을 늘리는 동시에 예산 제약(부족)을 줄임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 소득 증가에 기여함. 민간영역에서는 농업의 시장실패와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문제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함. 정부의 농업지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
지표해설	한국의 농업지향지수(AOI)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0-2.2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0.71과 0.72로 크게 낮아짐. 이는 과거에는 정부의 농업지출이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보다 상대적으로 컸으나 최근에는 농업의 국내생산 기여보다 오히려 작아졌음을 의미함. 하지만 한국의 AOI는 OECD 비교 대상 28개국 중 8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2018년 기준).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GDP'와 '일반정부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자료에 농업부가가치와 GDP, 중앙정부 총지출 통계가 각각 수록되어 있음(KOSIS 제공). 다만 정부기능분류(COFOG) 기준 농업지출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	농업지향지수(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for government expenditures)
	산식	$AOI = \frac{\text{정부지출 중 농업지출 비율}}{\text{GDP 중 농업부가가치 비율}}$ <p> $\text{정부지출 중 농업지출 비율} = \frac{\text{중앙정부 농업지출}}{\text{중앙정부 총지출}} \times 100$ $\text{GDP 중 농업부가가치 비율} = \frac{\text{농업부가가치(명목)}}{\text{GDP(명목)}} \times 100$ </p>
	측정단위	지수(Index)
	자료수집방법	각국 정부지출(COFOG) 자료와 국민계정 자료로 작성
	시계열	2001-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2a1/en/
	국내	데이터

2.a.2 농업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지표번호	2.a.2
지표명	농업부문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Total official flow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lus other official flows) to the agriculture sector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Increase investment, including through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infrastructur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technology development and plant and livestock gene banks in order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e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개도국 농업부문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공적지원금 지출총액임. ODA란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 국가와 다자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원 흐름으로서 ①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적 기구에 의해 제공되고 ②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③ 무상원조와 무상요소(증여율) 25% 이상의 양허성 차관을 말함. 기타 공적지원금(OOF)은 개발 목적이 아니거나 증여율이 낮아 OD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적지원금을 말함. 농업부문은 공여국보고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 311 시리즈로 분류됨.
지표의의	농업부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공적지원금 지출은 개도국 농업 발전을 위한 공여국의 공적 노력을 나타냄.
지표해설	UN글로벌 데이터에는 수원국별 데이터만 있고 한국을 포함한 공여국별 데이터는 없음
지표대응	이 지표는 수원국별로 작성되므로 한국을 포함한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가는 해당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	수원국별 농업부문 총공적지원금(Total official flows (disbursements) for agriculture, by recipient countries)
	산식	개도국 농업부문에 제공된 ODA와 기타 공적지원금 합계액
	측정단위	백만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공여국)이 CRS를 통해 제출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OECD에서 산출
	시계열	2000-2018년(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2.b.1 농업수출보조금

지표번호	2.b.1
지표명	농업수출보조금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보조금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 시정 Correct and prevent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in world agricultural markets, including through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ES(Export Subsidies):1 및 ES(Export Subsidies):2 양식으로 통보한 농업 분야 수출보조금 예산 지출 규모. 수출보조금 감축 약속 대상 국가의 수출보조금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9.4조에 따라 지급한 개도국의 수출보조금만 해당됨.
지표의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상품별 또는 상품군별 농업수출보조금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표해설	OECD 국가 중에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농업수출보조금은 2000년 1689만 달러에서 2010년 3407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503만 달러로 집계됨. 농업수출보조금이 통보된 OECD 국가 중 한국은 스위스(9607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보조금 규모가 큼(2017년 기준).
지표대응	한국은 농업 분야 수출보조금으로 농식품 수출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주관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보조금 액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연간 지원금 규모(380억 원)와 비슷함. 한국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4년에 폐지될 예정임.

글로벌	데이터	농업수출보조금(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산식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ES:1 및 ES:2 양식으로 통보한 농업 분야 수출보조금 예산 지출액
	측정단위	100만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WTO 회원국이 국가 관행에 따라 집계하여 WTO에 ES:1 및 ES:2 양식으로 통보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0-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지표번호	2.c.1
지표명	식품가격이상지표 Indicator of food price anomalies
목표명	기아 종식, 식량안보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세부목표명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Adopt measures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food commodity markets and their derivatives and facilitate timely access to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on food reserves, in order to help limit extreme food price volatilit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2월
지표정의	식품가격이상지표(IFPA)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식품가격을 나타냄. IFPA가 -0.5 이상 0.5 미만이면 '정상', 0.5 이상 1 미만이면 '높음', 1 이상이면 '비정상적으로 높음'으로 판단함.
지표의의	식품가격이상지표는 농업시장과 인플레이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수년간 특정 한 달 동안의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화가 비정상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음. OECD 국가 중에서는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6개국 데이터만 집계됨.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원자료로 지표를 산출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식품가격이상지표(Indicator of Food Price Anomalies, IFPA)
	산식	$1) IFPA_{yt} = \gamma QIFPA_{yt} + (1 - \gamma) AIFPA_{yt}$ <p>IFPA_{yt}는 y연도의 t월 식품가격이상지표 QIFPA_{yt}는 y연도의 t월 분기 식품가격이상지표 AIFPA_{yt}는 y연도의 t월 연간 식품가격이상지표 γ는 가중치 0.4</p> $2) IFPA_y = \frac{1}{t} \sum_{i=1}^t IFPA_{yt}$ <p>IFPA_y는 y연도의 연간 식품가격이상지표 IFPA_{yt}는 y연도의 t월 식품가격이상지표 t는 개월수</p>
	측정단위	지수(Index)
	자료수집방법	FPMA tool의 식품가격 정보와 FAOSTAT의 식품가격지수 자료로 IFPA 산출
	시계열	2016-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작물(옥수수·기장·쌀·수수·밀)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2c1/en/
	국내	데이터
산식		가중산출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측정단위		지수
세분화		품목별
출처		통계청(http://kosis.kr/)
이용통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수집방법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방문면접하여 조사
공표주기		월
시계열		1990-2017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물가동향과 (042-481-2533)	



통계청
통계개발원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1.1 모성사망비

지표번호	3.1.1
지표명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성사망비를 출생아 십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By 2030, reduce the global maternal mortality ratio to less than 70 per 100,000 live birth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출생아 십만 명당 모성사망자의 수. 모성사망자는 임신·출산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임신 관련 원인 (ICD-10)으로 사망한 여성을 말함.
지표의의	임신과 출산의 사망위험 수준을 나타냄.
지표해설	한국의 모성사망자수는 2000년 출생아 십만 명당 17명에서 2010년 15명, 2015년 12명, 2017년 1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의 모성사망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아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일본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5명 이내에 그침.
지표대응	국내에서도 통계청이 매년 모성사망비를 발표하고 있는데,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글로벌 데이터 수치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

글로벌	데이터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
	산식	$\frac{15-49\text{세 모성사망자수}^{1)}}{15-49\text{세 여성사망자수}^{1)}} \times \frac{15-49\text{세 여성사망자수}^{2)}}{\text{출생아수}^{3)}} \times 100,000$ 1)은 국가별 자료, 2)는 WHO 생명표 자료, 3)은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자료임
	측정단위	명/십만 명
	자료수집방법	MMEIG(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Interagency Group)이 각국 사망 자료와 함께 WHO 생명표 자료와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maternal-mortality-ratio-(per-100-000-live-births)	
국내	데이터	모성사망비
	산식	$\frac{\text{모성사망자수}}{\text{출생아수}}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연령별
	출처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이용통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자료수집방법	시구 및 읍면동 인구통계 사망신고 자료, 화장장 영아 및 태아 사망신고 자료, 의료기관 대상 「사망원인보완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9-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4)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지표번호	3.1.2
지표명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성사망비를 출생아 1십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By 2030, reduce the global maternal mortality ratio to less than 70 per 100,000 live birth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여성 중 숙련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참여하여 출산한 여성의 비율. 여기에서 숙련된 의료인력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능통한 전문가로서 국내 및 국제 기준의 정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를 말함.
지표의의	출산 시에 숙련된 조력자를 두는 것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임. 핵심 조력자도 없이 취약한 곳에서 출산할 경우 산모에게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지표해설	한국의 숙련 의료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은 2009년 99.9%, 2012년 99.8%로 집계되다가 2015년에는 100.0%에 도달하게 됨.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 국가들에서도 9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로 기혼여성의 분만시설별 출산 비율이 3년마다 집계되고 있음. 하지만 통계치가 100%에 육박해 지표 활용 면에서 가치가 높지 않음. UN은 의료인력에 의한 출산이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는 경우 보건시설에서의 분만(Institutional Birth)을 대리지표(proxy indicators)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다만 UN에서는 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에서는 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산식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frac{\text{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경험 여성}}{\text{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여성}}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3-5년 주기의 건강 및 출산 관련 가구조사 자료로 집계함. 일부 선진국에서는 행정자료로 집계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0, 2003, 2009, 2012, 2015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maternal-health/delivery-care/#	
국내	데이터	기혼여성 분만시설별 출산 비율
	산식	기혼여성 분만시설별 출산 비율 = $\frac{\text{분만시설별 출산 경험자}}{\text{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출산모연령별, 거주지역별, 교육수준별, 취업여부별, 소득수준별, 출생아순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403&conn_path=I2
	이용통계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가구의 15-49세 기혼여성 중 지난 2년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3년
	시계열	2015, 2018
	통계생산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044-287-8264)



3.2.1 5세 미만 사망률

지표번호	3.2.1
지표명	5세 미만 사망률 Under-5 mortality rate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천 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천 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By 2030, end preventable deaths of newborns and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ith all countries aiming to reduce neonatal mortality to at least as low as 12 per 1,000 live births and under-5 mortality to at least as low as 25 per 1,000 live birth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9월
지표정의	출생아 1천 명당 5세 미만 사망아수
지표의의	영유아 사망률은 아동 건강과 웰빙뿐만 아니라 넓게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요 결과 지표임. 아동과 공동체가 백신 접종, 감염병 치료, 적절한 영양 공급과 같은 기본적 보건 서비스에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공공보건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출생아 천명당 사망아수)은 2000년 7.5명에서 2010년 4.1명, 2018년 3.2명으로 꾸준히 감소함. 이는 OECD 국가 중 핀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일본 등에 이어 11번째로 낮은 수치임(2018년 기준).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국내에서는 「인구동향조사」 자료로 산출한 0세와 1-4세 사망률이 KOSIS에서 제공되고 있음(0-4세 사망률은 「인구동향조사」 각세별 사망자수에서 0-4세 사망자수를 별도로 집계한 후 이를 0-4세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 0세 인구 또는 출생아수가 분모로 사용되는 글로벌 데이터와 달리 국내 사망률 계산에는 분모로 0-4세 인구가 사용됨. 0세 주민등록연앙인구 또는 당해 연도 출생아수를 분모로 사용하여 계산하면 글로벌 데이터에 근접한 수치가 산출됨.

글로벌	데이터	5세 미만 사망률(Under-five mortality rate)
	산식	$5\text{세 미만 사망률} = \frac{0-4\text{세 사망아수}}{\text{출생아수(또는 0세 연앙인구)}} \times 1,000$
	측정단위	명/천 명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과 UN 아동사망률추정그룹(IGME)이 각국의 가구조사, 센서스, 출생사망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모델을 통해 추정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child-survival/under-five-mortality/
국내	데이터	5세 미만 사망률
	산식	$5\text{세 미만 사망률} = \frac{0-4\text{세 사망아수}}{0-4\text{세 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1&conn_path=I2
	이용통계	인구동향조사
	자료수집방법	시구 및 읍면동에서 접수한 사망신고서로 집계(화장장 영아 및 태아 사망신고 자료로 보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3-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9)

3.2.2 신생아 사망률

지표번호	3.2.2
지표명	신생아 사망률
	Neonatal mortality rate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천 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천 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By 2030, end preventable deaths of newborns and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ith all countries aiming to reduce neonatal mortality to at least as low as 12 per 1,000 live births and under-5 mortality to at least as low as 25 per 1,000 live birth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9월
지표정의	출생아 천 명당 생후 28일 이내 사망아수
지표의의	영유아 사망률은 아동 건강과 웰빙뿐만 아니라 넓게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요 결과 지표임. 아동과 공동체가 백신 접종, 감염병 치료, 적절한 영양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에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공공보건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사망아수)은 2000년 3.4명에서 2010년 1.8명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1.5명에 그쳐 절반 이하로 떨어짐. 국제적으로는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7번째로 낮음(2018년 기준).
지표대응	글로벌 데이터의 한국 데이터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로 산출되지만 글로벌 데이터를 작성하는 UN 아동사망률추정그룹(IGME)에서 베이지안 스플라인 회귀모델을 통해 보정한 수치이므로 국내 통계와 미세한 차이를 보임.

글로벌	데이터	신생아 사망률(Neonatal mortality rate)
	산식	$\text{신생아 사망률} = \frac{\text{생후 28일 이내 사망아수}}{\text{출생아수(또는 0세 연앙인구)}} \times 1,000$
	측정단위	명/천 명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과 UN 아동사망률추정그룹(IGME) 각국의 가구조사, 센서스, 출생사망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모델을 통해 추정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child-survival/neonatal-mortality/	
국내	데이터	신생아 사망률
	산식	$\text{신생아 사망률} = \frac{\text{생후 28일 이내 사망아수}}{\text{출생아수}} \times 1,000$
	측정단위	명/천 명
	세분화	성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conn_path=I2
	이용통계	사망원인통계
	자료수집방법	시구 및 읍면동 인구동태 사망신고 자료, 화장장 영아 및 태아 사망신고 자료, 의료기관 대상 「사망원인보완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5-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2)	



3.3.1 비감염인구 1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지표번호	3.3.1
지표명	비감염인구 1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Number of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by sex, age and key population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연간 발생한 HIV 신규 감염자의 수로, 비감염인구 1천명당으로 나타냄.
지표의의	HIV 감염 예방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를 가능하는 척도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HIV 감염자 발생 통계를 매년 작성, 공표하고 있음. SDG 지표정의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려면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연간 감염자수를 당해 연도 비감염인구(총인구 - 누적 감염자수)로 나누어야 함. 국내 HIV 감염자는 1985년 첫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과 2003년에 각각 100명과 500명을 넘어섰고 2013년부터는 매년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에 1060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7년 1008명, 2018년 98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HIV 감염자는 대부분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감염자의 대부분은 남성인데, 최근 들어 남성 감염자의 비율은 95%까지 높아짐.

글로벌	데이터	비감염인구 1천 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수(Number of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by sex and age)
	산식	비감염인구 천 명당 HIV 신규 감염자수 = $\frac{\text{HIV 신규 감염자수}}{\text{비감염인구}} \times 1,000$
	측정단위	명/천 명
	자료수집방법	의료기관 검사·진단 자료나 가구(인구)조사 자료가 사용되며, 각국 전문가팀이 UNAIDS가 지원하는 모델링 소프트웨어(Spectrum)를 활용하여 자국의 감염자 발생률을 추정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연령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에이즈프로그램(UNAIDS)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수
	산식	내국인 HIV 신규 감염자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Main.do
	이용통계	HIV/AIDS신고현황연보
	자료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5-2018
	통계생산기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043-719-7331)

3.3.2 인구 1십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지표번호	3.3.2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월
지표정의	연간 발생한 결핵 신환자와 재발환자의 수로, 인구 1십만 명당으로 나타냄.
지표의의	질병 부담 인구의 감소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의 결핵 발생률(인구 1십만 명당 환자수)은 2014년까지 80-90명 수준에 달했으나 2015년부터 70명대로 낮아졌고 2018년에는 66명으로 감소함.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 10명 이하에 불과하며, 한국 다음으로 높은 리투아니아(44.0명)나 콜롬비아(33.0명)도 한국보다는 크게 낮음(2018년 기준).
지표대응	질병관리본부가 결핵 관련 통계를 WHO(Global TB Report)에 제공하고 있음. UN의 한국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결핵신고(신환자와 재발환자) 자료로 추정된 수치임.

글로벌	데이터	인구 1십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Tuberculosis incidence(per 100,000 population))
	산식	인구 1십만 명당 결핵 발생건수 = $\frac{\text{결핵 신환자수} + \text{결핵 재발환자수}}{\text{총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결핵신고(통보) 자료, 결핵유병조사 자료, 사망신고 자료에 기반하여 결핵 발생률 추정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tb/country/data/download/en/
국내	데이터	인구 1십만 명당 결핵 신환자율
	산식	인구 1십만 명당 결핵 신환자율 = $\frac{\text{신고된 결핵 신환자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출처	http://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Main.do
	이용통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자료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1-2019
통계생산기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41)	



3.3.3 인구 1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지표번호	3.3.3
지표명	인구 1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Malaria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연간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의 수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인구 천 명당으로 나타냄.
지표의의	말라리아 유병 동향을 파악하고 말라리아 발생 위험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임. 이러한 정보는 말라리아 유행에 대응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이 배분될 수 있게 함.
지표해설	한국의 말라리아 발생률(위험지역인구 1000명당 환자수)은 2010년 1.3명에서 2010년 0.4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로는 0.1-0.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한국, 터키, 멕시코,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말라리아 발생률을 보고하지 않음. 질병관리본부가 말라리아 관련 통계를 WHO에 제공하고 있음. SDG 지표정의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려면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지정하는 위험지역의 인구정보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위험지역인구 1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Malaria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at risk)
	산식	위험지역인구 천 명당 말라리아 발생건수 = $\frac{\text{말라리아 신규 환자수}}{\text{위험지역인구}} \times 1,000$ 말라리아 환자수에는 공식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말라리아 발생 추정치가 반영됨
	측정단위	명/천 명
	자료수집방법	각국 말라리아통제프로그램(NMCP)의 말라리아 감시체계를 통해 다양한 사례(의심, 검사, 양성) 자료가 수집, 보고됨. 이 자료와 가구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지표를 산출함
	시계열	2000, 2005, 201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malaria-incidence-(per-1-000-population-at-risk)	
국내	데이터	인구 1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산식	인구 1십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 = $\frac{\text{신고된 말라리아 발생건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당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Main.do
	이용통계	감염병 감시연보
	자료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1-2019
통계생산기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043-719-7171)	

3.3.4 인구 1십만 명당 B형간염 발생건수

지표번호	3.3.4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B형간염 발생건수 Hepatitis B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9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만성 B형간염바이러스(HBV) 감염으로 발전한 5세 아동의 비율로 간접 측정됨(예: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감염 표지자 양성 반응 비율). HBsAg 검사 양성 반응은 활성 HBV 감염을 나타냄.
지표의의	이 지표의 목적은 만성 B형간염 감염의 감소를 설명하는 것임. HBV 감염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대부분 5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5세 이하 아동의 HBV 감염 예방이 중요함. UN은 5세 아동의 만성 HBV 감염의 누적 발생을 '간염 방지'라는 SDGs 목표의 지표로 선정함.
지표해설	글로벌 지표는 5세 이하 아동의 HBsAg 유병률 측정. 한국 5세 이하 아동 B형간염 유병률은 2015년 기준 0.7%로 나타남. OECD 국가의 아동 B형간염 유병률은 대부분 0.5% 이내에 그침.
지표대응	국내통계는 인구 십만 명당 급성 B형 간염 발생건수인 반면 UN SDGs는 5세 이하 B형간염 표면항원율을 제 시험. 한편, 국내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인구의 HBsAg 양성률을 집계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B형간염표면항원(HBsAg) 유병률(Prevalence of hepatitis B surface antigen(HBsAg))
	산식	$\text{HBsAg 유병률} = \frac{\text{5세 이하 HBsAg 양성 반응 아동 수}}{\text{5세 이하 아동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혈청학적 조사 자료
	시계열	2015(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hepatitis-b-surface-antigen-(hbsag)-prevalence-among-children-under-5-years	
국내	데이터	인구 1십만 명당 B형간염 발생률
	산식	$\text{인구 1십만 명당 B형간염 발생률} = \frac{\text{신고된 급성 B형간염 환자 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Main.do
	이용통계	감염병 감시연보
	자료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1-2019
통계생산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지표번호	3.3.5
지표명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소외열대질환(NTDs)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 예방적 화학요법(PC-NTD)이라고 알려진 집단치료가 필요한 사람들과 개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규 감염자를 모두 포함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세부목표 3.3 중 'NTDs 퇴치'의 달성 대상임. NTDs에 대한 다른 개입(매개체 관리, 수의공중보건, 물, 위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2030년 이후에도 유지될 목표이므로 '건강보장'이나 '물·위생에 대한 접근'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맥락의 지표로 관리되어야 함. 이 지표를 NTDs 위험에 처한 인구로 해석하면 안 됨. 이 지표는 감염 위험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염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만을 포함함. 따라서 위험지역 인구 중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로 해석되어야 함.
지표해설	한국의 소외열대질환 환자수는 2012년까지 1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13년에 259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 다시 171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257명, 2016년 323명으로 두 해 연속 늘어남. 한국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매년 200-300명의 소외열대질환 환자가 발생함.
지표대응	글로벌 데이터의 한국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WPRO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한 질병관리본부 자료(한센병·공수병· Dengue 열 환자수)임. 글로벌 데이터의 2010-2015년 수치는 국내 통계와 정확히 일치하지만 2016년(글로벌 323명, 국내 317명), 2017년(글로벌 3명, 국내 174명), 2018년(글로벌 6명, 국내 165명) 수치는 다름. 특히 2017년과 2018년 글로벌 데이터 수치는 국내 통계의 한센병 환자수와 일치함.

글로벌	데이터	소외열대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산식	PC-NTD(림프상충증(lymphatic filariasis), 회선사상충증(onchocerciasis),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토양매개성선충증(soil-transmitted helminthiasis), 트라코마(trachoma)) 집단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연평균 수와 개별치료가 필요한 NTD(부롤리 궤양(Buruli ulcer), Dengue 열(dengue), 메디나충증(dracunculiasis), 포충증(echinococcosis), 아프리카수면병(human African trypanosomiasis), 한센병(leprosy), 리슈만편모충증(leishmaniasis), 광견병(rabies), 매종(yaws)) 신규 감염자의 수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집단치료가 필요한 PC-NTD는 JRSM, JRF, EPIRF 자료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고 개별치료가 필요한 NTD는 WHO 통합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보고됨
	시계열	201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내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reported-number-of-people-requiring-interventions-against-ntds
	데이터	소외열대질환 발생건수
	산식	연간 발생 한센병·공수병·Dengue 열 환자의 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www.kdca.go.kr/npt/biz/npp/portal/nppPblctDtaMain.do
	이용통계	감염병 감시연보
	자료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1-2019	
통계생산기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043-719-7171)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사망률

지표번호	3.4.1
지표명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사망률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By 2030, reduce by one third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2월
지표정의	30세 인구 중 심혈관계질환(I00-I99), 암(C00-C97), 당뇨(E10-E14), 만성호흡기질환(J30-J98)으로 인해 70세 이내에 사망할 인구의 비율.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유지되고 다른 사망 요인이 없을 것으로 가정함.
지표의의	개도국의 인구 고령화로 비전염성 질환(NCDs)에 의한 질병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은 NCD 부담 4대 요인임. 4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NCDs에 의한 조기 사망 부담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함.
지표해설	심혈관계질환과 암, 당뇨와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한국 30세 인구의 조기(70세 이내) 사망 확률은 2000년 16.5%에서 2005년 13.5%, 2010년 10.6%, 2016년 7.8%로 꾸준히 낮아짐. 이는 스위스의 8.6%와 일본의 8.4%보다 낮은 수치로, 국제적으로 4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조기 사망할 확률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남성의 사망 확률은 10.9%에 달하지만 여성의 사망 확률은 4.7%에 그침(2016년 기준).
지표대응	통계청이 사망원인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하고 있음. UN SDGs 지표는 '30세 인구의 70세 이내 사망 확률'로 정의되며 생명표를 사용하여 계산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차이를 보임.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를 연앙인구 1십만 명당으로 나타낸 수치임.

글로벌	데이터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사망률(Mortality rate attribu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산식	지표 계산은 네 단계로 이루어짐. ① WHO 생명표 추정 ② 사망원인 분포 추정 ③ 30-70세까지의 5세 단위 연령별 4대 NCDs 사망률 계산 ④ 30-70세 기간의 사망 확률 계산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이 매년 사망원인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
	시계열	2000, 2005, 2010, 2015-2016(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까지는 5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사망률
	산식	사망원인별 사망률 = $\frac{\text{사망원인별 사망자수}}{\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2
	이용통계	사망원인통계
	자료수집방법	시구 및 읍면동 인구동태 사망신고 자료, 화장장 영아 및 태아 사망신고 자료, 의료기관 대상 「사망원인보완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3-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2)



3.4.2 자살률

지표번호	3.4.2
지표명	자살률
	Suicide mortality rate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
	By 2030, reduce by one third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2월
지표정의	인구 1십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 연간 자살 사망자수(X60-X84)를 해당 연도 연앙인구 1십만 명당으로 나타냄.
지표의의	정신 장애는 모든 지역과 문화에서 발생함.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 장애는 우울과 불안으로, 10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최악의 경우 우울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 2012년에 전 세계 80만 명 이상이 자살한 것으로 추산됨. 자살은 15-29세 사망에서 도로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임.
지표해설	한국인의 자살률(1십만 명당 자살자수)은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34.1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8.3명과 26.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자살률은 남성(38.4명)이 여성(15.4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음. 한국은 OECD 국가 중 리투아니아(3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임(2016년 기준).
지표대응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됨. WHO의 통계 보완(미확인 사망, 즉 Y10-Y34, Y872가 자살로 분류되거나 사망등록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보정 및 보완)으로 국내 수치와 차이가 발생함.

글로벌	데이터	자살률(Suicide mortality rate)
	산식	$\text{자살 사망률} = \frac{\text{자살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자료수집방법	각국이 매년 사망원인통계를 WHO에 제출
	시계열	2000, 2005, 2010, 2015-2016(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까지는 5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crude-suicide-rates-(per-100-000-population)
국내	데이터	자살률
	산식	$\text{자살률} = \frac{\text{자살 사망자수}}{\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2
	이용통계	사망원인통계
	자료수집방법	시구 및 읍면동 인구동태 사망신고 자료, 화장장 영아 및 태아 사망신고 자료, 의료기관 대상 「사망원인보완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3-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2)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지표번호	3.5.1
지표명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범위 Coverage of treatment interventions (pharmacological, psychosocial and rehabilitation and aftercare services) for substance use disorder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하여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Strengthe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cluding narcotic drug abuse and harmful use of alcoho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9월
지표정의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인구 중 지난 1년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약물은 향정신성 물질을 말하며, 향정신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세부지표로 나누어짐: (1) 약물 (2) 알코올과 기타 향정신성 물질. 이 지표는 약물치료 개입, 심리사회적 개입, 재활 개입의 세 가지 치료개입 유형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음.
지표의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15-64세 인구 2억 7100만 명이 불법 약물을 한 번 이상 사용하였고 23억 명이 현재 음주자임. 35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으며 2억 8900만 명이 알코올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약물사용장애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심각한 건강상태를 말함. 약물사용장애를 치료하지 않으면 생산성 손실, 의료지출 증가, 형사사법 및 사회복지 관련 비용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 효과적인 약물사용장애 치료법이 존재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음.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인구집단이 포괄적 증거기반 개입(국제 표준 및 지침에 규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이 지표는 약물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증거기반 개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는 한국을 제외한 29개국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사업과, 02-2204-0331)가 전국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집계하여 2018년부터 국가정신건강현황 통계(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통계에 '물질중독장애 치료 환자수'가 포함되어 있음.

글로벌	데이터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범위(Coverage of treatment interventions (pharmacological, psychosocial and rehabilitation and aftercare services) for substance use disorders)
	산식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 보장률 = $\frac{\text{1년에 한 번 이상 약물사용장애 치료를 받는 인구}}{\text{약물사용장애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 기록을 보고받아 집계
	시계열	2015-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약물종류(암페타민류·코카인·오피오이드)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지표번호	3.5.2
지표명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Alcohol per capita consumption (Aged 15 years and older) within a calendar year in litres of pure alcohol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하여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Strengthe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cluding narcotic drug abuse and harmful use of alcoho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6월
지표정의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으로, 정부가 주세 등의 목적으로 집계하는 공식 소비량과 정부 통제 밖의 비공식 소비량을 모두 포함하며 관광객 소비량(국내거주자 해외소비량 - 해외거주자 국내소비량)도 반영함.
지표의의	알코올 소비는 질병과 상해 발생뿐만 아니라 장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침. 알코올은 200종 이상의 질병을 유발하고 다양한 상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인구의 알코올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지표이자 알코올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망 수준을 가능케 하는 핵심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의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은 2000년 12.3l, 2005년 10.6l, 2010년과 2015년 10.0l, 2018년 9.7l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00년 18.6l에서 2018년 14.7l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여성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도 6.2l에서 4.8l로 감소함.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l를 소비하는 일본보다 많지만 대부분 10l 이상을 소비하는 유럽 국가들보다는 적은 편임(2018년 기준).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의 주종별 출고량 자료를 이용하여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통계를 매년 산출하고 있음. UN 데이터와 달리 국내 통계에는 비공식 알코올 소비량이 반영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	15세 이상 연간 알코올 소비량(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aged 15 years and older) within a calendar year (litres of pure alcohol))
	산식	1인당 순 알코올 소비량 = $\frac{\text{공식 순 알코올 소비량(3년 평균)} + \text{비공식 순 알코올 소비량(1년)} + \text{관광객 조정 소비량}}{15세 이상 국내거주자 연안인구}$
	측정단위	리터(l)
	자료수집방법	공식 소비량은 정부 통계, 주류 산업 통계, 유엔식량농업기구통계(FAOSTAT) 등으로 집계하고 비공식 소비량은 표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으로 집계
	시계열	2000, 2005, 2010, 2015, 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apps.who.int/gho/data/view.main.1800?lang=en	
국내	데이터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산식	1인당 알코올 소비량(l) = $\frac{\text{출고량(kl)} \times \text{도수(\%)} \times 1,000}{15세 이상 인구}$ - 출고량은 국내분 출고량과 수입분 출고량, 수출분을 제외한 면세 주류 출고량을 포함함 - 주종별 도수는 국세청 훈령 기준에 따라 적용함(탁주 7%, 약주 11%, 맥주 4%, 청주 16%, 과실주 12%, 증류식소주 35%, 희석식소주 25%, 위스키 40%, 브랜디 40%, 일반증류주 40%, 리큐르 35%, 기타주류 25%). - 15세 이상 인구는 추계인구임
	측정단위	리터(l)
	세분화	주종별
	출처	https://www.khealth.or.kr/acs/acsStat/result?menuId=MENU01162&tableGubun=DATA040202
	이용통계	국세통계연보
	자료수집방법	국세청이 주류 제조업자로부터 신고받아 집계한 주종별 출고량에 주종별 기준도수를 적용하여 총 알코올 소비량을 계산함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5-2018
	통계생산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지표번호	3.6.1
지표명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Death rate due to road traffic injurie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감소 By 2020, halve the number of global deaths and injuries from road traffic acciden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인구 1십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지표의의	도로교통사고는 15-29세 연령층 사망의 첫 번째 사망원인임.
지표해설	한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1십만 명당 사망자수)은 2000년 25.6명에서 2005년 16.1명, 2010년 13.7명, 2016년 9.8명으로 꾸준히 감소함.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콜롬비아(18.5명), 멕시코(13.1명), 칠레(12.5명), 미국(12.4명), 터키(12.3명)에 이어 6번째로 높음. 노르웨이(2.7명), 스위스(2.7명), 스웨덴(2.8명)과 같은 나라들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3명 이내에 불과함(2016년 기준).
지표대응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자료로 사망률을 집계함(UN 추정 인구로 계산). 국내에서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육상운수사고 사망률도 사용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도로교통사고 사망률(Death rate due to road traffic injuries)
	산식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frac{\text{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text{총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자료수집방법	각국이 공식 사망신고 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에 매년 제출
	시계열	2000, 2005, 2010, 2013, 2016(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3년(2010년까지는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내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estimated-road-traffic-death-rate-(per-100-000-population)
	데이터 1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산식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53&conn_path=I2
	이용통계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자료수집방법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교통사고 통계원표)를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5-2018
	통계생산기관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0645)
	데이터 2	육상운수사고 사망률
	산식	육상운수사고 사망률 = $\frac{\text{육상운수사고 사망자수}}{\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
	이용통계	사망원인통계
자료수집방법	시구 및 읍면동 인구통계 사망신고 자료, 화장장 영아 및 태아 사망신고 자료, 의료기관 대상 「사망원인보완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3-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2)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지표번호	3.7.1
지표명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Proportion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aged 15-49 years) who have their need for family planning satisfied with modern method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및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 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By 2030,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including for family plann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of reproductive health into n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m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미루려는 가임기(15-49세) 여성 중 현대적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를 나타냄.
지표의의	이 지표는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인구에게 제공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함. 효과적인 피임수단 사용은 여성과 그 파트너로 하여금 자녀의 수와 출산 간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줌.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수요가 충족되는 것은 나쁜 산과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출산과 잘못된 출산을 예방함으로써 모성 건강과 아동 건강에 기여함.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여성의 비율이 75% 이상이면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50% 이하이면 충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피임실천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 지표의 대리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음. 현대적 피임법 사용이 보편화된 선진국에서는 지표 함의가 크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Proportion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aged 15-49 years) who have their need for family planning satisfied with modern methods)
	산식	$\frac{\text{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피임법을 사용하는 15-49세 기혼 또는 동거 여성 인구}}{\text{피임법을 사용 중이거나 가족계획이 필요함에도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15-49세 기혼 또는 동거 여성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전국 단위 가구조사 자료로 지표 산출
	시계열	2000-2020(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유엔인구기금(UNFPA)
국내	데이터명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실천율
	산식	$\frac{\text{현재 피임중인 15~49세의 유배우 여성 또는 현재 피임을 중단했지만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 15~49세의 유배우 여성}}{\text{15~49세의 유배우 여성}}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 거주지별, 교육수준별, 취업여부별, 출생아수별, 가구소득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403&conn_path=I2
	이용통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가구의 15-49세 기혼여성(이혼, 별거(이혼전제) 혹은 사별한 경우를 제외) 중 현재 피임중이거나 현재 피임을 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3년
시계열	2000~2012(피임수용실태), 2015~2018(피임 실천)	
통계생산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044-287-8264)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천 명당 출산율

지표번호	3.7.2
지표명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천 명당 출산율
	Adolescent birth rate (aged 10-14 years; aged 15-19 years) per 1,000 women in that age group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및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 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By 2030,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including for family plann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of reproductive health into n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m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5월
지표정의	10-14세 또는 15-19세 여성 인구 1,000명당 해당 연령집단 모가 낳은 출생아수. 10-14세 또는 15-19세 연령 별 출산율(ASFR)임.
지표의의	청소년 출산율을 줄이고 이들의 출산 요인을 밝히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 향상에 매우 중요함.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합병증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망의 위험도 높아지며 출산 자녀도 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기 출산 방지는 모성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임.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는 여성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발전 기회가 줄어들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가 어려움. 또한 청소년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성교 생식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 청소년의 의료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함.
지표해설	한국의 15-19세 청소년 출산율(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1-2.6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2013년까지 1.7-1.8명대로 낮아짐. 2014년부터는 매년 감소해 2017년에 1.0명까지 떨어짐.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임(2017년 기준).
지표대응	한국 데이터는 인구동향조사의 15-19세 ASFR 자료임. 인구동향조사는 국제기준(UN)에 따라 등록신고(출생, 혼인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UNSD(유엔통계국)에 연간 자료가 제출됨. 글로벌 데이터와 국내 통계 수치는 2008년부터 일치함.

글로벌	데이터	여성 청소년(15-19세) 출산율(Adolescent birth rate (per 1,000 women aged 15-19 years))
	산식	여성 청소년 출산율 = $\frac{15-19세\ 모의\ 출생아수}{15-19세\ 여성\ 인구} \times 1,000$
	측정단위	명/천 명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등록신고 자료로 작성(등록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센서스 또는 가구조사 자료로 작성)
	시계열	2000-2018, 2020(한국 데이터 2000-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adolescent-birth-rate-(per-1000-women-aged-15-19-years)	
국내	데이터	여성 청소년(15-19세) 출산율
	산식	여성 청소년 출산율 = $\frac{15-19세\ 모의\ 출생아수}{15-19세\ 여성\ 인구} \times 1,000$
	측정단위	명/천 명
	세분화	지역(광역시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2
	이용통계	인구동향조사
	자료수집방법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자료를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3-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2)	



3.8.1 필수보건서비스 보장범위

지표번호	3.8.1
지표명	필수보건서비스 보장범위 Coverage of essential health service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including financial risk protection,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nd access to safe, effective, quality and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p>0-100점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보건서비스 보장에 관한 14개 세부지표의 기하평균으로 계산됨. 14개 지표는 아래와 같음.</p> <p>I. 생식,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계획: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기혼 또는 동거 여성의 비율 2. 임신 및 출산 관리: 산전 건강 관리를 4회 이상 받은 15-49세 출산 여성의 비율 3. 아동 예방접종: DTP3 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비율 4. 아동 치료: 조사 시점 2주 이내에 폐렴 의심 증상으로 적절한 의료시설에 보내진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p>II. 전염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결핵 치료: 결핵 환자 중 완치자의 비율 6. HIV/AIDS 치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중인 HIV 감염자의 비율 7. 말라리아 예방: 살충제 처리를 한 모기장에서 자는 말라리아 풍토성 지역 인구의 비율 8. 식수와 위생: 최소 기본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 <p>III. 비전염성 질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고혈압: 정상혈압(수축기 140mmHg 미만, 이완기 90mmHg 미만)인 18세 이상 인구의 비율(연령표준화) 10. 당뇨: 18세 이상 인구의 평균 공복혈당(연령표준화) 11. 흡연: 지난 30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연령표준화) <p>IV. 보건서비스 역량 및 접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병원 접근: 인구당 병상수 13. 보건 인력: 인구당 내과정신과외과 의사수 14. 보건 안전: IHR 13개 핵심역량 달성률 평균
지표의의	SDG 3.8은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SDG 3.8.1과 SDG 3.8.2는 각각 보건서비스 보장 수준과 의료지출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선정됨. 단일 지표로는 보건서비스 보장 수준을 모니터링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4개 지표로 지수를 구성함. 14개 지표에는 기존 SDGs 지표들도 포함됨.
지표해설	한국의 필수보건서비스 보장지수는 2000년 73점에 그쳤으나 2005년 78점, 2010년 81점, 2015년 85점으로 꾸준히 높아짐. 2017년에는 86점으로 집계되어 OECD 국가 중 캐나다(89점), 노르웨이·뉴질랜드·영국·호주(87점)에 이어 6번째로 높게 평가됨.
지표대응	지수 산출에 필요한 14개 지표 중 지표 1(SDG 3.7.1), 3(SDG 3.b.1), 8(SDG 6.2.1), 11(SDG 3.a.1), 13(SDG 3.c.1), 14(SDG 3.d.1)는 기존 SDGs 지표이거나 기존 SDGs 관련 지표임. 지표 9, 10, 11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 가능하고, 지표 12, 13은 「건강보험통계」로 산출 가능함. 지표 7은 한국에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	필수보건서비스 보장지수(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service coverage index)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지표 값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변환(UN 메타데이터 참조) - 변환된 지표 값의 기하평균을 4개 영역별로 계산: 예) (지표 1 × 지표 2 × 지표 3 × 지표 4)^{1/4} - 4개 영역 값의 기하평균을 계산: 예) (영역 1 × 영역 2 × 영역 3 × 영역 4)^{1/4}
	측정단위	지수(Index)
	자료수집방법	<p>지표 1. 가족계획: 인구 기반 건강조사</p> <p>지표 2. 임신 및 출산 관리: 가구조사, 의료시설 정보체계</p> <p>지표 3. 아동 예방접종: 가구조사, 의료시설 정보체계</p> <p>지표 4. 아동 치료: 가구조사</p> <p>지표 5. 결핵 치료: 의료시설 정보체계, 감시체계, 인구 기반 건강조사</p> <p>지표 6. HIV/AIDS 치료: 의료시설 보고체계, 감시체계, 인구 기반 조사</p> <p>지표 7. 말라리아 예방: 가구조사</p> <p>지표 8. 식수와 위생: 인구 기반 가구조사, 센서스</p>

	자료수집방법	지표 9. 고혈압: 인구 기반 조사, 감시체계 지표 10. 당뇨: 인구 기반 조사, 감시체계 지표 11. 흡연: 가구조사 지표 12. 병원 접근: 행정체계, 의료시설 보고체계 지표 13. 보건 인력: 국가보건인력등록데이터베이스, 협회등록부, 의료시설 센서스 지표 14. 보건 안전: 핵심 정보원 대상 조사
	시계열	2000, 2005, 2010, 2015, 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명	없음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지표번호	3.8.2
지표명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large household expenditures on health as a share of total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서비스 제공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including financial risk protection,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nd access to safe, effective, quality and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가구의 총 지출(또는 소득)에서 의료비지출이 일정 수준(10%, 25%)을 초과하는 인구의 비율
지표의의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서비스의 보장 범위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Out-Of-Pocket)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은 자신이 쓰거나 버는 돈의 상당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보여 줌. 의료체계가 의료지출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 주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됨.
지표해설	한국의 의료비과부담 인구, 즉 의료비를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인구는 2003년 14.1%에서 2015년 21.8%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총 지출의 25%를 넘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인구도 같은 기간 1.6%에서 3.9%로 늘어남.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2010년 기준).
지표대응	이 지표 데이터는 지표 1.1.1 데이터 산출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구 소비지출 및 소득 자료)로 산출됨. 국내 데이터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소비지출 자료로 의료비과부담 인구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1	가구 총지출 또는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10%)(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large household expenditures on health (greater than 10%) as a share of total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산식	$\frac{\text{총 지출 대비 의료비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의 가구원수}}{\text{총 가구원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로 집계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3-2015 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population-with-household-expenditures-on-health-greater-than-10-of-total-household-expenditure-or-income-(sdg-3-8-2)-(-)
	데이터 2	가구 총지출 또는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25%)(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large household expenditures on health (greater than 25%) as a share of total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산식	$\frac{\text{총 지출 대비 의료비지출이 25\%를 초과하는 가구의 가구원수}}{\text{총 가구원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로 집계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3-2015 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population-with-household-expenditures-on-health-greater-than-25-of-total-household-expenditure-or-income-(sdg-indicator-3-8-2)-(-)
국내	데이터	없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지표번호	3.9.1
지표명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household and ambient air pollution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구 1십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자수
지표의의	대기오염은 아동의 급성호흡기감염과 성인의 뇌혈관질환(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역학 연구를 통해 알려짐. 대기오염은 산업활동, 가정(요리용 연료), 자동차와 트럭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함. 이러한 오염물질은 건강에 유해하며, 그중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대기오염은 건강의 가장 큰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저소득 국가 국민이 받고 있음.
지표해설	한국의 실내 및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인구 1십만 명당 20명으로 추산됨(2016년 기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7-16명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는 WHO가 국제 역학 연구 모델링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한 자료임. 이 지표의 국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WHO 방법론에 기반한 별도의 추정 연구 자료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연령표준화한 인구 1십만 명당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 사망률(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household and ambient air pollution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text{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자수}}{\text{총인구}} \times 100,000$ <p>사망자수는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질병 위험 정보와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질병의 인구기여위험분율(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로 추정함</p>
	측정단위	명/십만 명
	자료수집방법	가정 내 요리용 오염연료 의존인구 비율(지표 7.1.2),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지표 11.6.2), 대기오염 노출위험도, 질병 사망자수 등의 자료를 결합하여 추정
	시계열	2016(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ENVHEALTHJOINTAAPHAP?lang=en	
국내	데이터	없음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지표번호	3.9.2
지표명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safe water, unsafe sanitation and lack of hygiene (exposure to unsaf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WASH) service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인구 1십만 명당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자수. 설사, 장선충 감염, 단백질-에너지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을 포함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WASH 서비스 개선으로 예방될 수 있는 사망자의 수를 나타냄. 즉 WASH 서비스 제공 수준과 이로 인한 건강 성과를 동시에 측정함. 세부목표 6.1, 6.2, 6.3에서 측정되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지표해설	수질오염과 위생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십만 명당 사망자수)은 한국이 1.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집계됨.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명 미만에 그침(2016년 기준).
지표대응	현재 해당지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데이터는 없으나, 사망원인통계에서 장감염질환(KCD-7 질병분류 코드 A00, A01-A08, A09), 영양실조(KCD-7 질병분류 코드 E40-E46 포함)로 인한 사망자수 자료를 공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safe water, unsafe sanitation and lack of hygiene)
	산식	인구 1십만 명당 설사, 장선충 감염, 단백질-에너지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자수. 설사는 ICD 코드 A00, A01, A03, A04, A06-A09, 장선충 감염은 ICD 코드 B76-B77, B79, 단백질-에너지 영양결핍은 ICD 코드 E40-E46임
	측정단위	명/십만 명
	자료수집방법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의 보고 자료와 다양한 보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시계열	2016(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mortality-rate-attributed-to-exposure-to-unsafe-wash-services-(per-100-000-population)-(sdg-3-9-2)	
국내	데이터	없음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지표번호	3.9.3
지표명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인구 1십만 명당 불의의 유해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사망자수
지표의의	한 나라 안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시스템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임.
지표해설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의 등록신고 자료를 주로 사용함(필요한 경우 보정). 유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사망률(인구 1십만 명당 사망자수)은 2000년 1.0명에서 2005년 0.7명, 2010년 0.6명, 2016년 0.5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유해물질 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남성(0.7명)이 여성(0.3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0.9명), 라트비아(0.8명), 리투아니아(0.7명), 에스토니아(0.5명), 프랑스(0.5명) 등과 함께 불의의 중독 사망률이 높은 나라에 속함(2016년 기준).
지표대응	한국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공함. WHO와 통계청의 중독 사망률 수치가 약간 다름.

글로벌	데이터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s)
	산식	$\frac{\text{유해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사망자수}}{\text{전체 인구}} \times 100,000$ ICD 코드 X40, X43-X44, X46-X49 사망자임
	측정단위	명/십만 명
	자료수집방법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이 확인된 등록신고 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추정
	시계열	2000, 2005, 2010, 2015-2016(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까지는 5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mortality-rate-attributed-to-unintentional-poisoning-(per-100-000-population)
국내	데이터	불의의 중독 사망률
	산식	$\frac{\text{유독성 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사망자수}}{\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KCD 코드 X40-X49 사망자임.
	측정단위	명/십만 명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2
	이용통계	사망원인통계
	자료수집방법	시구 및 읍면동 인구동태 사망신고 자료, 화장장 영아 및 태아 사망신고 자료, 의료기관 대상 「사망원인보완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집계
	공표주기	1년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2)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지표번호	3.a.1
지표명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current tobacco use among persons aged 15 years and older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in all countries, as appropriat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1월
지표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최근 30일 이내에 흡연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 이용자를 포함하고, 매일 흡연자가 아닌 흡연자도 포함함.
지표의의	흡연은 비전염성 질환(NCDs)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요인임. 흡연과 간접흡연이 어디까지 안전한지는 증명된 바 없음. 매일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흡연자는 생애 전반에서 NCDs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됨. 현재 흡연율을 줄이는 것은 NCDs로 인한 조기 사망률(세부목표 3.4)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함. 이 지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영향 평가와 FCTC 미가입국 금연정책 평가에 필수적임.
지표해설	한국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은 2000년 35.0%에서 2005년 30.7%, 2010년 26.9%, 2015년 23.8%, 2018년 22.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흡연율 수준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남성 흡연율(38.2%)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지만 여성 흡연율(5.9%)은 콜롬비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2016년 기준). 이는 한국 여성의 흡연이 과소 보고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지표대응	글로벌 데이터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구에 맞게 연령 표준화한 값임.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로 19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을 측정하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13-18세(중1-고3) 인구의 현재 흡연율을 측정하고 있음. SDGs 정의에 따라 지표를 작성하려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을 별도로 산출해야 함.

글로벌	데이터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current tobacco use among persons aged 15 years and older)
	산식	$15\text{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frac{\text{최근 30일 이내에 흡연한 적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15\text{세 이상 인구}} \times 100$ <p>각국의 성-연령별 흡연율을 WHO 기준인구에 적용하여 연령 표준화</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의 공식 흡연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
	시계열	2000, 2005, 2010, 2015-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까지는 5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age-standardized-prevalence-of-current-tobacco-smoking-among-persons-aged-15-years-and-older	
국내	데이터 1	성인 현재 흡연율
	산식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매일' 또는 '가끔' 흡연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동-읍-면)별, 소득수준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
	이용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가구의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8-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043-719-7467)	

데이터 2	청소년 현재 흡연율
산식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 지역(광역시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03&conn_path=I2
이용통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5-2019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043-719-7469)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지표번호	3.b.1
지표명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covered by all vaccines included in their national programme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medicines for the 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in accordance with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hich affirms the right of developing countries to use to the full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flexibiliti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provid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홍역이 포함된 백신, 폐렴구균 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률
지표의의	각국의 백신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DTP3 예방접종은 영유아 백신 보급 체계 전반을, 홍역 포함 예방접종은 생후 1년 이후의 정례적 백신 보급 능력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신종 백신 적용 여부를, HPV 예방접종은 생애주기 백신 보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최근에서야 접종되고 있는 HPV 백신을 제외하면 100%에 가까운 완전 접종 수준에 도달해 있음. OECD 국가들 대부분이 9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을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글로벌 통계 수치와 일치하지는 않음.

글로벌	데이터 1	DTP3 예방접종 보장률(Propor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ith access to 3 doses of diphtheria-tetanus-pertussis (DTP3))
	산식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을 3회차까지 접종 완료한 영유아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자료나 예방접종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조사 자료로 집계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www.who.int/immunization/monitoring_surveillance/data/en/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_explorer/unicef_f/?ag=UNICEF&df=GLOBAL_DATAFLOW&ver=1.0&dq=.IM_DTP1+IM_DTP3..&startPeriod=2016&endPeriod=2019
	데이터 2	홍역이 포함된 백신 2차 예방접종 보장률(Propor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ith access to measles-containing-vaccine second-dose (MCV2))
	산식	홍역이 포함된 백신을 2회차까지 접종 완료한 아동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자료나 예방접종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조사 자료로 집계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www.who.int/immunization/monitoring_surveillance/data/en/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_explorer/unicef_f/?ag=UNICEF&df=GLOBAL_DATAFLOW&ver=1.0&dq=.IM_DTP1+IM_DTP3..&startPeriod=2016&endPeriod=2019
데이터 3	PCV3 예방접종 보장률(Propor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ith access to pneumococcal conjugate 3rd dose (PCV3))	
산식	폐렴구균 백신을 국가 권장 회차까지 접종 완료한 영유아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자료나 예방접종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조사 자료로 집계	

	시계열	2008-2018(한국 데이터 201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www.who.int/immunization/monitoring_surveillance/data/en/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_explorer/unicef_f?ag=UNICEF&df=GLOBAL_DATAFLOW&ver=1.0&dq=.IM_DTP1+IM_DTP3..&startPeriod=2016&endPeriod=2019
	데이터 4	HPV 예방접종 보장률(Propor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with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and vaccines on a sustainable basis, human papillomavirus (HPV))
	산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권장 회차까지 접종 완료한 15세 여성청소년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자료나 예방접종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조사 자료로 집계
	시계열	2010-2018(한국 데이터 2016-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www.who.int/immunization/monitoring_surveillance/data/en/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_explorer/unicef_f?ag=UNICEF&df=GLOBAL_DATAFLOW&ver=1.0&dq=.IM_DTP1+IM_DTP3..&startPeriod=2016&endPeriod=2019
국내	데이터 1	DTP3 예방접종률
	산식	접종대상 아동 중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 권장횟수는 기초접종 3회(생후 2, 4, 6개월)와 추가접종 2회(생후 15-18개월, 만 4-6세)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지역(시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3N_171&conn_path=I3
	이용통계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자료수집방법	전국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접종기록을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하여 작성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7-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3)
	데이터 2	MMR 예방접종률
	산식	접종대상 아동 중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 권장횟수는 2회(생후 12-15개월, 만 4-6세)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지역(시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3N_171&conn_path=I3
	이용통계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자료수집방법	전국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접종기록을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하여 작성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7-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3)
데이터 3	PCV 예방접종률	
산식	접종대상 아동 중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장횟수는 기초접종 3회(생후 2, 4, 6개월)와 추가접종 1회(생후 12-15개월)임.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지역(시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93N_171&conn_path=I3	
이용통계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자료수집방법	전국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접종기록을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하여 작성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7-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3)
데이터 4	HPV 예방접종률
산식	만 12세 여성청소년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차 예방접종 완료자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별, 지역(시도)별
출처	https://nip.cdc.go.kr/irgd/introduce.do?MnLv1=3&MnLv2=6&MnLv3=4
이용통계	HPV 예방접종 현황
자료수집방법	전국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접종기록을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하여 작성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8-2019, 2019-2020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3)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지표번호	3.b.2
지표명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Total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medical research and basic health sector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medicines for the 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in accordance with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hich affirms the right of developing countries to use to the full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flexibiliti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provid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개도국 의학연구와 기초보건 부문에 제공한 ODA 지출총액임. ODA란 DAC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 국가와 다자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원 흐름으로서 ①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적 기구에 의해 제공되고 ②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③ 무상원조와 무상요소(증여율) 25% 이상의 양허성 차관을 말함. 의학연구부문은 CRS 코드 12182, 기초보건부문은 CRS 코드 122 시리즈로 분류됨.
지표의의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에 대한 ODA 지출은 개도국 보건으로 발전을 위한 공여국의 공적 노력을 나타냄.
지표해설	ODA 수원국별로 작성되므로 한국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한국을 포함한 DAC 회원국(공여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표임.

글로벌	데이터	수원국별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medical research and basic health sectors, net disbursement, by recipient countries)
	산식	개도국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에 제공된 ODA 순지출액
	측정단위	백만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DAC 회원국(공여국)이 OECD/DAC에 보고하는 CRS 데이터로 작성
	시계열	201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지표번호	3.b.3
지표명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시설 비율 Proportion of health facilities that have a core set of relevant essential medicines available and affordable on a sustainable basi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medicines for the 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in accordance with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hich affirms the right of developing countries to use to the full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flexibiliti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provid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p>조사대상 전체 의료시설 중 품질이 보증된 핵심 필수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비율로서 다차원 복합 지수로 작성됨. 의료시설은 공공 및 민간 약국과 병원, 클리닉, 1차 진료센터 등을 말함. 이 지표에는 3가지 핵심 개념이 사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 구입가능성: 조사 당일 면접원이 의료시설에서 해당 의약품을 발견할 수 있을 때를 말하며, 이분변수로 측정됨. 의약품 발견 시 = 1, 의약품 미발견 시 = 0 2. 의약품 가격경제성: 비숙련 최저임금 공무원(LPGW)이 자신의 급여로 국가빈곤선(NPL)의 기본 생활을 충족하고도 한 달 치 약 구입에 추가적인 일급(EDW)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가격경제성은 LPGW 급여에 대한 1일 복용(DDD) 약값과 NPL을 합한 금액의 비(ratio)로 측정됨. 이 비율은 LPGW의 급여가 NPL 수준의 생활과 DDD 약 구입에 충분한지, 즉 EDW가 필요한지를 나타냄. 이 비율은 EDW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이분변수(가격경제성 있음, 가격경제성 없음)로 변환됨. 3. 필수 의약품 핵심 세트는 1차 건강 관리에서 급성 및 만성 질환과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에 필요한 32종의 의약품 목록을 말함(UN 메타데이터 부록 1 Table 1). 이 목록은 글로벌 기준으로 사용됨. 하지만 지역과 국가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에는 지역별 질병부담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 글로벌 질병부담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대한 평가임. 구체적으로 질병부담은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조기사망, 장애, 건강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질병부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요약 척도는 장애 조정 수명, 즉 건강수명임.
지표의의	<p>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의약품의 구입가능성과 가격경제성으로 구성된 다차원 복합 개념임. 2001년 HAI와 WHO의 의약품 가격 및 구입가능성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데이터 수집과 측정에 관한 방법론이 제안됨. 현재까지 이 방법론은 의약품 구입가능성과 가격경제성에 대한 유용한 분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지만 두 차원은 별도로 평가되어 왔음.</p> <p>한 국가가 의약품 구입가능성 보장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격경제성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임.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구입가능성 보장에 정책 노력을 집중한 결과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음. 반대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일부 제약업자들에게 너무 큰 규제가 되어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의약품 접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의약품의 구입가능성과 가격경제성을 동시에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 지표에 제안된 방법론은 두 차원을 단일 지표로 결합하여 의약품의 구입가능성과 가격경제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게 함. 또한 이 방법론은 두 차원을 분리하여 각 차원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도 함으로써 전체 지수의 부진 요인을 알 수 있게 함</p> <p>필수 의약품 핵심 세트에 대한 모니터링은 WHO의 필수 의약품 모델 목록(EML)에 기반을 두고 있음. 2017년 WHO EML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중 보건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433종의 약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지수는 1차 건강 관리에서 급성 및 만성 질환과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의 치료-예방-관리에 필요한 32종의 의약품을 기반으로 계산됨.</p>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의약품청구현황」 통계(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frac{\text{필수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시설 수}}{\text{조사대상 전체 의료시설 수}} \times 100$

		지수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8단계의 작업이 필요함: 1) 1차 진료에 필요한 핵심 의약품 검토 및 선정 2) 지역별 질병부담(유병률)을 고려한 개별 의약품 가중치 추정 3) 의약품 구입가능성 및 가격경제성 측정 4) 구입가능성 차원과 가격경제성 차원 결합(의약품 접근성) 5) 지역별 유병률에 따른 의약품 가중치 부여 6) 조사대상 의료시설의 필수 의약품 구입가능성 및 가격경제성 여부 확인 7) 필수 의약품에 접근 가능한 의료시설 비율 계산 8) 접근 가능한 의약품의 품질 검토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HAI/WHO가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의약품 가격과 구입가능성 데이터, HAI/WHO와 동일한 정보를 수집하는 SARA 조사 데이터, HAI/WHO 데이터 수집 도구의 업데이트 버전인 EMP MedMo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집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함. 2018년까지는 HAI/WHO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SARA 데이터와 EMP MedMon 데이터를 사용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3.c.1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지표번호	3.c.1
지표명	보건의료인력 밀도 및 분포 Health worker density and distribution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을 상당 수준 증가 Substantially increase health financing and the recruitment, development, training and retention of the health workforce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p>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밀도 의사 밀도: 인구 일만 명당 일반의와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의 수. ISCO-08 코드는 221, 2211, 2212. 간호 및 조산 인력 밀도: 인구 일만 명당 간호인력과 조산인력의 수. ISCO-08 코드는 2221, 2222, 3221, 3222. 치과의사 밀도: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의 수. ISCO-08 코드는 2261. 약사 밀도: 인구 1만 명당 약사의 수. ISCO-08 코드는 2262.</p> <p>보건의료인력 성별 분포 성별 의사 비율: 전체 의사 중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비율. ISCO-08 코드는 221, 2211, 2212. 성별 간호인력 비율: 전체 간호인력 중 남성 간호인력과 여성 간호인력의 비율. ISCO-08 코드는 2221, 3221.</p>
지표의의	국가 인구 대비 보건의료인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부족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함.
지표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OECD Health Statistics에 자료를 제공하고 WHO가 OECD 데이터를 활용함. UN 지표는 WHO 데이터로 작성됨. 한국의 의사수는 2005년과 2017년 사이 인구 일만 명당 17.5명에서 23.6명으로 증가함. 같은 기간 간호사와 조산사는 38.3명에서 71.2명, 치과의사는 3.6명에서 5.0명, 약사는 6.3명에서 7.2명으로 각각 증가함. 하지만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와 치과의사 수는 각각 OECD 32개국 중 30위와 28개국 중 25위에 머물러 있음(2017년 기준). 한국의 여성 의사 비율도 2008년 19.3%에서 2017년 23.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음.
지표대응	국내 의료인력 통계는 현재 2종으로 작성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로 작성하는 통계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자료로 작성하는 통계가 있음. 전자는 면허 기준 의사수이고 후자는 활동 기준 의사수에 가까움. 전자가 후자보다 과대 집계됨. 또한, 국내 간호인력 통계의 경우 임상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WHO의 글로벌 데이터는 임상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인력을 간호인력 통계로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1	보건의료인력 밀도(Health worker density)
	산식	$\text{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밀도} = \frac{\text{보건의료 직종별 인력수}}{\text{국가별 인구}} \times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치과의사·약사의 수는 활동인력만 포함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모든 면허인력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도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조산 기술을 갖춘 간호사가 간호사로 보고됨. 이로 인해 간호인력과 조산인력의 구분이 어려워짐 - 국가별 인구는 UN 세계인구전망 추정치를 사용함.
	측정단위	명/일만 명
	자료수집방법	세계보건기구(WHO)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자료로 작성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4-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직종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HWFGRP_0020?lang=en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HWFGRP_0040?lang=en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HWFGRP_0060?lang=en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HWFGRP_0080?lang=en	

	데이터 2	보건의료인력 분포(Health worker distribution)
	산식	$\text{성별 보건의료인력 비율} = \frac{\text{성별 보건의료인력수}}{\text{전체 보건의료인력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WHO National Health Workforce Accounts 자료로 작성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8-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직종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HWFGRP_BYSEX?lang=en
국내	데이터명	보건의료인력수
	산식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조산사의 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직종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4&conn_path=I3
	이용통계	건강보험통계
	자료수집방법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자료로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3-2019년
	통계생산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033-739-4806)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지표번호	3.d.1
지표명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능력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capacity and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Strengthen the capacity of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for early warning,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nd global health risk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국제보건규정(IHR)에서 요구하는 13개 핵심역량 항목의 달성 비율. 13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음: (1) Legislation and financing (2) IHR Coordination and National Focal Point Functions (3) Zoonotic events and the Human-Animal Health Interface (4) Food safety (5) Laboratory (6) Surveillance (7) Human resources (8) National Health Emergency Framework (9) Health Service Provision (10) Risk communication (11) Points of entry (12) Chemical events (13) Radiation emergencies. 13개 핵심역량 달성 수준은 24개 세부 지표(변수)로 측정함.
지표의의	개정 국제보건규정(IHR,2005)에 따르면 IHR 당사국은 국제적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감시와 대응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음. 이 지표는 IHR 당사국이 합의한 핵심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각국의 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은 2018년 IHR 핵심역량 평가에서 13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한 데 그쳤으나 2019년에는 2번과 10번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함. 이는 캐나다, 일본, 덴마크, 영국 등과 함께 최상위 수준임.
지표대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정(IHR) 당사국의 자체 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지표이므로 국내에는 상응하는 통계가 없음.

글로벌	데이터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capacity)
	산식	역량 수준은 세부 지표의 평균으로 계산되고, 세부 지표는 5점 만점에 대한 평가점수의 백분율로 계산됨. 지표 1의 평가점수가 3점이고 지표 2의 평가점수가 4점일 경우, 역량 수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역량 수준(%) = $\{(3 \div 5 \times 100) + (4 \div 5 \times 100)\} \div 2 = 7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IHR 당사국이 자체 시행한 평가설문(13개 핵심역량에 대한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 조사결과를 e-SPAR 플랫폼(https://extranet.who.int/e-spar/)에 보고하고, WHO가 이 데이터를 집계하여 분석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2010, 2012-2014, 2017-2019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IHR 핵심역량별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extranet.who.int/e-spar/
국내	데이터	없음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지표번호	3.d.2
지표명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Percentage of bloodstream infections due to selected antimicrobial-resistant organisms
목표명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세부목표명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Strengthen the capacity of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for early warning,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nd global health risk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9월
지표정의	혈액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및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을 가진 대장균에 의한 혈류 감염 환자의 비율임.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급성 인간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세균임. 대장균은 인간과 동물, 환경 모두에서 널리 번식하며, 항생제 내성을 모니터링하기에 이상적인 지표임.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을 가진 대장균은 전 세계 병원 내 인간 감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며 지역사회에서도 점점 더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음. 항생제 내성에 의한 감염은 새로운 유형의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최후 수단 약물 사용의 증가로 이어짐.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항생제 내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솔루션이 개발되는 동안 기존의 사용 가능한 항균제로 감염 치료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음.
지표의의	항생제 내성은 건강, 생계,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SDGs의 여러 목표 달성에도 위협 요소임.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구충제, 항진균제 등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내성이 발달하여 점차 비효율적으로 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식품생산과 환경,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항생제 내성은 내성 병원체 감염에 대한 치료 옵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표 3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축산물 생산을 포함한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목표 2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AMR 증가로 경제성장이 하락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해 24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목표 1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이 지표는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 확립을 통해 목표 3.d의 중요한 요소를 해결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안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음.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GLASS에 보고되는 데이터를 지표 통계로 권장함.
지표대응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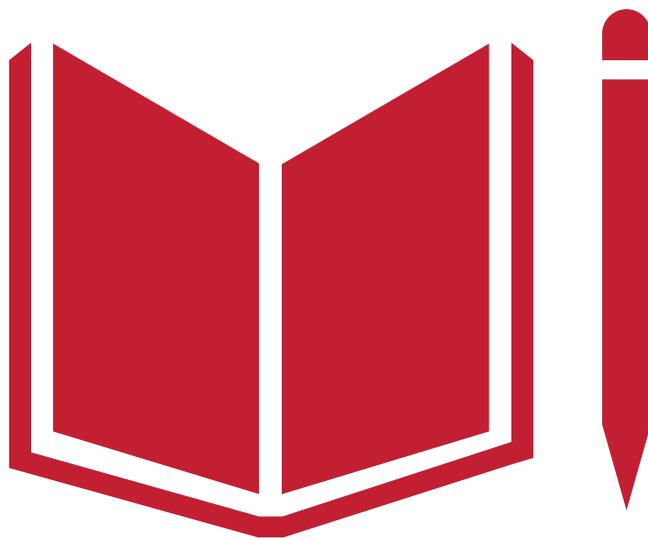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 $\frac{\text{혈액 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또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내성을 가진 대장균 성장이 확인된 환자 수}}{\text{혈액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대장균 성장이 확인된 환자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를 통해 수집되고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GLASS)에 보고된 데이터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1.1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지표번호	4.1.1
지표명	(a) 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i) 읽기와 (ii) 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 in grades 2/3; (b) at the end of primary; and (c) at the end of lower secondary achieving at least a minimum proficiency level in (i) reading and (ii) mathematics, by sex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8월
지표정의	초등학교에서 2학년 혹은 3학년 이상을 마치거나 졸업 학년에 있거나, 중학교 졸업 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 (i) 읽기와 (ii) 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 읽기분야에서의 최소숙달수준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지식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텍스트를 이해, 활용, 평가, 성찰하고 다양한 텍스트 읽기 활동에 관여하는 능력을 말함. 수학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이용하고, 해석하는 개인적인 능력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과 수학적 개념, 절차, 사실,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함. 각 분야의 최소숙달수준은 6수준으로 구분되며 2단계 이상을 성취 시 최소수준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함.
지표의의	아동 및 청소년의 특정 시점에서의 읽기와 수학 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 측정을 통해 학습의 질을 파악할 수 있음. 2018년 9월, 2학년 혹은 3학년 이상을 마친 단계의 최소 수준(분야별 학년/연령 단계에서의 평가)에 대한 정의가 합의됨으로써 이 시점에서의 최소 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을 각 국가별로 파악할 수 있음. 중학교 졸업 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읽기 소양의 최소수준은 모든 국가에 대해 PISA를 활용하여 비교 가능함. 다만, 수학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PISA(3년 주기)를 활용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TIMSS(4년 주기)를 활용하기도 함.
지표해설	2011년과 2015년 초등학교 2/3학년 단계에서 수학 분야의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OECD 평균-각각 74.5%, 78.4%, 한국- 각각 96.6%, 96.9%). 다만 OECD국가 평균의 증가폭에 비해 한국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중학교 졸업 학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읽기와 수학 소양의 최소수준 달성 비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함. 다만, 2000년부터 2012년까지는 90% 이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수학 분야 각각 84.5%와 85.0%로, 읽기 분야 각각 86.3%와 84.9%로 두 분야 모두 비율이 다소 줄어들음.
지표대응	유엔교육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S)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읽기와 수학 소양의 최소 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을 산출하고 있음. 다만,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2/3학년 시점의 자료는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TIMSS)만을 통해 산출함에 따라 읽기 분야의 자료가 없음. OECD 국가들에서 초등학교 2/3학년 시점의 읽기분야 평가 자료는 주로 PIRLS이 활용됨. 이후 교육단계에 대해서는 OECD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초등학교 말의 자료는 산출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초등학교 말 시점에 대한 자료가 산출되지 않음.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부에서 매년 전수조사로 시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의 성취 수준 평가는 2013년부터 폐지되었음. 또한,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2/3 학년이 4학년의 자료를 통해 산출됨에 따라 초등학교 말의 시점 조건을 굳이 충족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봄. 다만, 2/3학년의 읽기 분야의 최소숙달수준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참여 중인 PISA, TIMSS, ICILS 이외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	읽기와 수학 소양이 최소수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chieving a minimum proficiency level in reading and mathematics)
	산식	$\frac{\text{해당 분야에서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수}}{\text{해당 분야에서 모든 수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수}} \times 100$ 평가 분야(읽기, 수학)와 성별로 분리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2학년 혹은 3학년 이상을 마친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수학 분야에 대해 4학년 시점의 자료인 TIMSS를 통해 산출하며, 중학교 말 시점의 읽기, 수학 평가자료는 PISA를 통해 산출함
	시계열	2000-2019 / TIMSS 2011-2015(한국 데이터 기준) / PISA 2000-2018(한국 데이터 기준)
	공표주기	1년 / TIMSS 4년(한국 데이터 기준) / PISA 3년(한국 데이터 기준)
	세분화	교육단계, 분야별(읽기, 수학),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09
국내	데이터	없음



4.1.2 초중고 교육 완수율

지표번호	4.1.2
지표명	초중고등학교 교육 완수율 completion rate(primary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각 교육 단계를 완수한 최종 학년의 아동 및 청소년 코호트 비율 각 교육 단계의 최종 학년의 연령은 공식적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학교를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참여하고, 학년을 반복하거나 건너뛰지 않았을 때 학년에 들어가는 학생의 연령임.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연령이 6세이고, 초등교육이 6학년이라면, 초등교육의 최종 학년의 연령은 11세임. 이 경우, 14~16세가 초등교육 완수율의 계산을 위한 기준 연령 그룹임.
지표의의	이 지표는 세부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 100%에 가까운 완수율은 모든 혹은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교육 단계를 완료했음을 의미하며, 낮은 완수율은 높은 중퇴율, 재진학율, 완수의 지연, 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교육 수준에의 진입이 늦거나 지연됨을 의미함 해당 교육 수준의 최종 학년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연령보다 3-5년 위의 연령 그룹으로 하는 것은 일부 입학의 지연이나 재진학 등을 감안하여 완수율 계산하기 위한 것임.
지표해설	OECD 국가 중 초등교육의 완수율이 제공되는 국가는 6개국(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터키)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완수율을 경우 30개국 이상의 완수율이 산출됨. 다만, 모든 해의 모든 세분화 정보(성별, 자산5분위, 지역 등)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초등교육 완수율을 95.5%, 중등교육 완수율은 평균 94.6%이며, 고등교육 완수율은 80.9%임.
지표대응	현재 한국의 완수율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교육통계의 '학년별 학생 수'에서의 졸업 학년 수와 '입학상황'에서의 졸업자 수를 매칭하면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교육 완수율 (Completion rate, by sex, location, wealth quintile and education level)
	산식	$\frac{\text{해당 교육 단계를 완수한 최종 학년 연령의 3-5세 위 연령의 인구}}{\text{해당 교육 단계의 최종 학년 연령의 3-5세 위 연령의 인구}} \times 100$ 교육 수준: 국제표준교육 분류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가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데이터나 국가수준의 가구조사, 센서스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완수율을 산출하고 각국의 교육부나 통계청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검토 및 피드백을 받음. 국제비교를 위해 국가별 데이터는 국제표준교육 분류에 맵핑됨. 자료는 가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최종 완수한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가능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2회
	세분화	성별, 지역, 자산 및 기타 차원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15
국내	데이터	없음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지표번호	4.2.1
지표명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Proportion of children aged 24-59 months of age who are developmentally on track in health, learn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by sex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5월
지표정의	24~59개월 아동 중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웰빙에서 정상발달에 있는 아동의 비율로 다음의 다음의 영역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함. - 건강: 대근육발달, 소근육발달 및 자조발달 - 학습: 언어, 독해, 수리, 예비작문 및 실행 기능 - 심리사회적 웰빙: 감정적, 사회적 기술, 내재화, 외현화 행동 위 영역에 관한 20개 측정항목에서 몇 개 항목을 실질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지수화한 것이 영유아발달지수(th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2030: ECDI2030)임. 24~29개월은 최소 7개, 30~35개월은 최소 9개, 36~41개월은 최소 11개, 42에서 47개월은 최소 13개, 48~59개월은 최소 15개를 성취해야 정상발달로 분류됨.
지표의의	영유아발달은 평생에 걸친 번영의 기반으로 이 시기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인적자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인의 건강, 교육, 생산성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투자 중 하나임. 다만, 영유아발달지수(th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2030: ECDI2030)가 2020년 3월에 발표되어, 충분한 도입과 시행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36~59개월 아동 중 1) 언어-수리 독해력, 2) 발육성장, 3) 사회감정발달 및 4) 학습 중 최소 3개 부분에서 정상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비율을 대리 지표로 사용. 이 대리지표와 ECDI2030은 측정 연령대가 다르며, 개발영역에도 차이가 있어 전체 비교는 어려움.
지표해설	다만, UN의 메타데이터는 대리 지표가 아닌 본 지표를 설명하고 있어, 글로벌 데이터에서 대리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기 어려움.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는 대리지표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2019)와 터키(2018), 그리고 북한(2017)의 지표가 산출됨. 영유아발달지수(th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2030: ECDI2030)의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약 80개국의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표대응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의 성별 비율 지표 생산을 위해 2020년 개발된 ECDI2030에 따라 자료 수집을 시작해야 할 것임. 관련된 국내조사로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종합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774호)가 있음. 이 조사는 아동을 만3세-만5세, 만6세-만8세, 만9세-만11세, 만12세-만18세 미만으로 연령 구간을 나누며, 만8세 이하는 보호자가 응답함. 보호자의 조사표 항목 중 발달과 관련 문항은 개별별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나, 주로 인지과 언어 발달 관련 항목임.

글로벌	데이터	36~59개월 아동 중 1) 언어-수리 독해력, 2) 발육성장, 3) 사회감정발달 및 4) 학습 중 최소 3개 부분에 정상발달에 있는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aged 36–59 months who are developmentally on track in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domains: literacy-numeracy, physical development,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learning (% of children aged 36-59 months))
	산식	$\frac{24\sim 59\text{개월의 아동 중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웰빙이 정상발달에 있는 아동 수}}{24\sim 59\text{개월의 전체 아동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각국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취함 ECDI2030 모듈에 따라 24~59개월 아동의 어머니나 주양육자에게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나 기술, 지식 등에 대해 20개의 문항을 조사함 (https://data.unicef.org/resources/early-childhood-development-index-2030-ecdi2030/)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연령 (추가 고려: 성별, 거주지, 가구자산, 지리적 위치, 양육자 교육 등)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37



국내	데이터1	인지 및 언어발달 수준
	산식	4점 만점으로 측정
	측정단위	점
	세분화	성, 연령별(0-2세, 3-5세), 소득계층별, 지역별, 가구유형(양부모, 한부모 및 조손)
	출처	http://www.mohw.go.kr
	이용통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5년
	시계열	2008, 2013, 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8)
	데이터2	아동의 주관적 웰빙
	산식	4점 만점으로 측정
	측정단위	점
	세분화	성, 연령별(0-2세, 3-5세), 소득계층별, 지역별, 가구유형(양부모, 한부모 및 조손)
	출처	http://www.mohw.go.kr
	이용통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5년
	시계열	2008, 2013, 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8)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지표번호	4.2.2
지표명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Participation rate in organized learning (one year before the official primary entry age), by sex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 체계적인 교육(학습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비율
지표의의	초등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조직적인 학습 활동의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렛값이 높다는 것은 정규 초등교육 입학 전에 조직적 학습활동에 참여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국가별 정규 초등교육의 입학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지표는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강도가 아닌 노출 정도를 측정함.
지표해설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의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89.5%)부터 2018년(99.2%)까지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하였음.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참여율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값은 각각 98.1%, 93.5%, 90.4%, 95.3%, 95.9%로 평균 94.6%의 참여율을 보임.
지표대응	유치원 연령별 원아수(교육기본통계)와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아동수(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자료 활용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정규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체계화된 학습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Participation rate in organized learning (one year before the official primary entry age), by sex (%))
	산식	$\frac{\text{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해당 연령대(정규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아동 수}}{\text{해당 연령대(정규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아동 인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는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에 따라 교육부 또는 통계청이 보고한 등록 데이터와 UN인구국의 인구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출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13-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38
국내	데이터1	유치원 연령별 원아수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연령, 성별, 지역
	출처	https://kess.kedi.re.kr/publ/list?itemCode=02&survSeq=&menuSeq=0&division=&word=
	이용통계	교육기본통계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65-2019
	통계생산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유초중등교육통계팀 (043-530-9631)
	데이터2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연령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2&conn_path=I2
이용통계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2-2019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9)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지표번호	4.3.1
지표명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Participation rate of youth and adults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sex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and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특정 연령 범위(예: 15-24세, 25-64세 등)의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형식 교육 및 훈련: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기타 공식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5-7세부터 20~25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속성 있는 전일제 정규 교육 비형식 교육 및 훈련: 형식 교육의 정의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활동으로 국가에 따라 성인 문해력, 일과 삶의 기술, 일반 문화 등의 프로그램 포함
지표의의	모든 유형의 교육·훈련에 대한 청소년 및 성인의 참여 수준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연령 그룹의 인구 중 상당수가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은 학교, 대학, 직장 환경 등 다양한 환경과 기간에 걸쳐 제공될 수 있음. 행정 데이터는 학교나 대학과 같은 공식적 기관에서만 제공되며, 참여율은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의 강도나 질, 결과를 포착하지 못함.
지표해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은 평균적으로 37%에서 47%로 증가 추세임.
지표대응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 비율 산출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유럽의 성인교육 조사(Adult Education Survey: AES) 자료를 활용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 성인역량평가(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자료를 활용함. 현재 한국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으나, PIAAC에 참여 중이며, kosis에서 제공되는 한국의 2012년의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은 49.7%임.

글로벌	데이터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 (Participation rate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by sex)
	산식	$\frac{\text{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연령대별 인구수}}{\text{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수}} \times 100$ 연령대: 15-24세, 15세 이상, 25-64세 등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가 각국의 교육부나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취합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 AES: 2007-2016(OECD 통계 기준) / PIAAC: 2012-2017(OECD 통계 기준)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행정 자료: 연령, 성별 / 가구조사: 연령, 성별, 지역, 수입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41
국내	데이터	평생학습 참여율
	산식	$\frac{\text{최근 12개월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참여자 수}}{\text{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 수}} \times 100$ [산출조사항목] 형식교육: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졸업장이나 학위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비형식교육: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 유형의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p>* 이외에 무형식 교육에 대한 조사항목 무형식학습 9항목: 가족, 친구, 직장동료나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지식 습득,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나 기술 습득, 학습을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 습득, 인쇄매체를 활용해서 지식 습득, 역사적·자연적·산업적 장소를 방문해서 지식 습득, 도서관 등을 방문해서 새로운 사실 습득, 축제, 박람회, 음악회 등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깊이 있게 알게 됨, 스포츠, 등산 등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깊이 있게 알게 됨, 기타)</p>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별, 월가구소득별, 막내자녀연령별, 고용형태별, 지역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33409N_001&vw_cd=MT_ZTITLE&list_id=334_33409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p>조사대상: 전국 만 25~79세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 약 9,600명 표본조사 (1차: 조사구(확률비례계통추출법) / 2차: 가구(계통추출법) /3차: 가구내 적격가구원 전원조사), 면접 조사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경향만 살필 뿐 시도별이나 직업군 등 세부적으로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p>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7-2019
통계생산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평생교육통계팀 (043-530-9680)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지표번호	4.4.1
지표명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Proportion of youth and adult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kills, by type of skill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전문, 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relevant skill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for employment, decent jobs and entrepreneurship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6월
지표정의	<p>지난 3개월 동안 컴퓨터 관련 활동을 수행한,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ICT 기술능력의 측정을 위한 컴퓨터 관련 활동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파일과 폴더의 복사 및 이동 - 문서 간 정보 복사 및 이동 -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기 -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산술 계산하기 - 모뎀, 카메라, 프린터 등 기기를 연결하고 설치하기 - 소프트웨어를 탐색하여 찾고 내려받아 설치하기 -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프레젠테이션 작성하기 - 컴퓨터와 다른 기기 사이에서 파일을 전환하고 옮기기 -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 변경된 기술 측정 범주 (2020년부터 수집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정보, 콘텐츠의 복사 및 이동 (문서 내, 기기 간, 클라우드 상) - 첨부파일(문서,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메시지(이메일, 문자서비스, SMS) 보내기 -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산술 계산하기 - 유무선 장비들을 이용해 모뎀, 카메라, 프린터 등 기기를 연결하고 설치하기 - 소프트웨어와 어플을 탐색하여 찾고 내려받아 설치하기 -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프레젠테이션 작성하기 - 컴퓨터와 다른 기기 사이에서 파일을 전환하고 옮기기(클라우드 스토리지 경우 포함) - 기기와 온라인계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보안 설정하기(강력한 암호, 로그인 시도 알림) - 계정 또는 앱에서 개인의 데이터와 정보(이름, 연락처, 사진)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기기의 개인 설정 변경하기 -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의 신뢰성 검증하기 -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과 코딩하기(컴퓨터 소프트웨어, 앱개발)
지표의의	<p>ICT기술은 정보통신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지표는 ICT의 이용과 영향 사이를 연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지표를 통해 ICT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주력해야 하는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포용적 정보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020년부터 이 지표는 다른 범위 및 응답 범주로 수집될 예정임.</p>
지표해설	<p>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퍼값이 산출되는 국가에서 매년, 모든 범주의 수치를 제공하지는 않음. 따라서 2014년부터 2019년의 추세를 보는 것이 어려움. OECD 국가들의 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산술 계산하기(ARSP)는 42.1%, 한국 51.2%, 컴퓨터 파일과 폴더의 복사 및 이동(CMFL) 58.4%, 한국 85.0%, 문서 간 정보 복사 및 이동(COPA) 58.3%, 한국 71.4%,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기(EMAIL) 60.0%, 한국 63.9%,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프레젠테이션 작성하기(EPRS) 36.1%, 한국 37.2%, 모뎀, 카메라, 프린터 등 기기를 연결하고 설치하기(INST) 45.8%, 한국 48.0%,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PCPR) 7.6%, 한국 5.0%, 소프트웨어를 탐색하여 찾고 내려받아 설치하기(SOFT) 43.9%, 한국 55.2%, 컴퓨터와 다른 기기 사이에서 파일을 전환하고 옮기기(TRAF) 53.3%, 한국 51.5%로 나타남. 한국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와 컴퓨터와 다른 기기 사이에서 파일을 전환하고 옮기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기술유형별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p>
지표대응	<p>현재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기술유형별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항목이 조사되고 있으며 이 자료가 국제기구에 제공되고 있음. 변경 기술 측정 항목에 따라 조사 항목의 내용변경이 필요함.</p>

글로벌	데이터	ICT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Proportion of youth and adult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kills, by sex and type of skill (%))
	산식	지난 3개월 동안 각 활동을 수행한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수준의 가구조사 (응답대상자가 기준 기간 동안 수행한 특정 활동에 대한 응답 수집)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국가별 가구조사 수행기관으로부터(통계청 및 정부부처 포함) 데이터 취합 및 집계하여 제공
	시계열	2014-2019(한국 데이터 201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사회조사 기반의 수집 방법으로 성별, 아동/성인(연령), 취업 및 실업 등)
	지표소관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38
국내	데이터	컴퓨터 활용능력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성별, 연령, 직업
	출처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70&bcIdx=22082&parentSeq=22082
	이용통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25,000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3세 이상 가구원 대상,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5-2019
	통계생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디지털산업제도(044-202-6145)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지표번호	4.5.1
지표명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Parity indices (female/male, rural/urban, bottom/top wealth quintile and others such as disability status, indigenous peoples and conflict-affected, as data become available) for all education indicators on this list that can be disaggregated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By 2030,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e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SDG4 교육 지표들에 대한 성별/지역/소득/장애 등의 분류에 따른 상대적 비율, 즉 형평지수 값이 '1'인 경우 두 그룹이 동등함을 나타냄
지표의의	각 해당 지표 분야에서의 성별, 도농, 소득, 장애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그룹 간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지표 분야 전 범위의 형평성을 개선
지표해설	<p>목표4의 각 지표에 대한 동등성 값으로 산출됨. 본 지표는 13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이 포함된 데이터는 성취도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체계화된 학습 참여율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 성취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형평지수, 성취도에 대한 지역 형평지수, 성취도에 대한 토착민 형평지수, 성취도에 대한 언어테스트별 형평지수, 6종임.</p> <p>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의 OECD국가 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살펴보면, 성취도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에서 초등학교 2/3학년 시점 아동 및 청소년의 수학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1.003이며,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0.979, 중학교 졸업 학년의 수학분야/읽기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각각 1.012, 1.072,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각각 0.975, 1.153으로 나타남.</p> <p>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체계화된 학습 참여율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0.9994,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0.9999로 나타남.</p> <p>성취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형평지수에서 초등학교 2/3학년 시점 아동 및 청소년의 수학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0.938,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0.745, 중학교 졸업 학년의 수학분야/읽기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각각 0.847, 0.882,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각각 0.659, 0.710으로 나타남.</p> <p>성취도에 있어 지역 형평지수에서 초등학교 2/3학년 시점 아동 및 청소년의 수학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0.949,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0.946, 중학교 졸업 학년의 수학분야/읽기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각각 0.864, 0.900,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각각 0.875, 0.890으로 나타남.</p> <p>성취도에 대한 토착민 형평지수는 초등학교 2/3학년 시점 아동 및 청소년의 수학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1.026,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1.307, 중학교 졸업 학년의 수학분야/읽기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각각 0.676, 0.516,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각각 0.839, 0.809로 나타남.</p> <p>성취도에 있어 언어테스트별 형평지수에서는 중학교 졸업 학년의 수학분야/읽기분야에서 한국의 지수평균은 각각 0.752, 0.792, OECD국가들의 전체 평균은 각각 0.766, 0.769로 나타남.</p>
지표대응	목표4의 각 지표에 대한 균형값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므로, 목표4 중 해당되는 각 지표의 산출에 더하여 동등성 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로 확장해야 함.

글로벌	데이터1	교육완수율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 (Adjusted gender parity index for completion rate, by sex, location, wealth quintile and education level)
	산식	<p>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의 지릿값을 덜 취약한 집단의 지릿값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p> $DPI = \frac{[Indi]d}{[Indi]a}$ <p>- DPI: 형평지수 차원; 예를 들어 성별, 소득, 지역, 장애 등 - Indi = 형평지수 산출이 필요한 교육2030 지표 i (*지표는 해당 데이터 자료수집방법 참조) - d = 취약그룹; 예를 들어 여자, 사회경제적지위 하위 25%, 시골 등 - a = 비교그룹; 예를 들어 남자,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25%, 시골 등</p>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릿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 교육완수율(4.1.2.)은 UIS가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데이터나 국가수준의 가구조사, 센서스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 완수율을 산출함. 국제비교를 위해 국가별 데이터는 국제표준교육분류에 대응됨. 자료는 가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최종 완수한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 가능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교육수준별, 지역별, 자산5분위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교육완수율에 대한 지역 형평지수 (Adjusted location parity index for completion rate, by sex, location, wealth quintile and education level)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데이터 1과 동일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교육수준별, 성별, 자산5분위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3	교육 완수율에 대한 자산 형평지수 (Adjusted wealth parity index for completion rate, by sex, location, wealth quintile and education level)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데이터 1과 동일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교육수준별, 성별, 지역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4	최소속달수준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Gender parity index for achievement (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p>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p> <p>- 성취도(4.1.1)는 UIS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읽기와 수학분야의 최소속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을 산출</p>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0-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 PISA 3년(한국 통계 기준)
세분화	교육수준별, 기술유형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UIS에서 취합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PISA, TIMSS, PIRLS, LLECE, PIAAC, SACMEQ 등)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5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율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공식, 비공식 교육 및 훈련 참여)(Gender parity index for participation rate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ratio))
산식	<p>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을 상대 그룹의 지푃값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p> $DPI = \frac{[Ind]d}{[Ind]a}$ <p>- DPI: 동등성 지표의 차원; 예를 들어 성별, 재산, 지역 등 - Indi = 동등성 지표 산출이 필요한 교육2030 지표 i - d = 사회적 약자 그룹; 예를 들어 여성, 빈곤층 등 - a = 사회적 기득권 그룹; 예를 들어 남성, 부유층 등</p> <p>* 다른 지표들에 대한 성별/도농 간/소득/장애/ 등 분류에 따른 상대적 비율로서, 각 지표들의 내용 참고</p>

글로벌



글로벌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율(4.3.1)은 각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수집.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유럽의 성인교육 조사(AES) 자료를 활용,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 자료 활용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UIS에서 취합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AES, PIAAC 등)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6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체계화된 학습 참여율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Gender parity index for participation rate in organized learning (one year before the official primary entry age), (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초등학교 입학 1년 전 체계화된 학습참여율(4.2.2 지표)는 UIS는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에 따라 교육부 또는 통계청이 보고한 등록 데이터와 UN인구국의 인구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출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5-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7	ICT 보유 기술별 수준에 따른 성별 형평지수(Gender parity index for youth adults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kills, by type of skill (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4.4.1은 국가수준의 가구조사를 통해 수집됨(응답대상자가 기준 기간 동안 수행한 특정 활동에 대한 응답 수집)	
시계열	2014-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기술유형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UIS에서 취합하여 산출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ITU, Eurostat 등)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8	훈련된 교사 비율에 대한 성별 형평지수(Gender parity index of trained teachers, by education level (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훈련된 교사비율(4.c.1 지표)은 국가별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교육수준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글로벌	데이터9	이주상태에 다른 형평지수(언어/수리 역량별 고정된 숙련도 달성여부)(Immigration status parity index for achieving at least a fixed level of proficiency in functional skills, by numeracy/literacy skills (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4.6.1은 성인 인구에 대한 기술평가 설문조사(예: PIAAC, STEP, LAMP, RAMAA) 및 국가 성인 문해력 조사 등을 통해 수집
	시계열	2012-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기술유형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UIS, PIAAC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10	최소숙달수준에 대한 언어테스트별 형평지수(Language test parity index for achievement (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 4.1.1 지표는 UIS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읽기와 수학분야의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을 산출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3-2018 수록)
	공표주기	3년(한국 데이터 기준, PISA 2015 누락)
	세분화	교육수준별, 기술유형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UIS에서 취합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PISA, TIMSS, PIRLS, LLECE 등)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11	최소숙달수준에 대한 사회경제적 형평지수(Low to high socio-economic parity status index for achievement (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성취도(4.1.1 지표)는 UIS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읽기와 수학분야의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을 산출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TMSS 4년(한국 데이터 기준) / PISA 3년(한국 데이터 기준)	
세분화	교육수준별, 기술유형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UIS에서 취합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PISA, TIMSS, PIRLS, LLECE 등)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12	최소숙달수준에 대한 토착민 형평 지수(Native parity index for achievement(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푃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성취도(4.1.1 지표)는 UIS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읽기와 수학분야의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을 산출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글로벌	공표주기	PISA 3년(한국 데이터 기준)
	세분화	교육수준별, 기술유형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E)
	출처	UIS에서 취합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PISA, TIMSS, PIRLS 등)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13	최소속달수준에 대한 도농 형평지수(Rural to urban parity index for achievement(ratio))
	산식	데이터 1과 동일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형평지수 산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그룹의 지릿값에 대한 비교 그룹의 상대적 비율을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산출방법, 관련기관, 데이터 출처 등은 각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을 따름 성취도(4.1.1 지표)는 UIS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읽기와 수학분야의 최소속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 비율을 산출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PISA 3년(한국 데이터 기준)
	세분화	교육수준별, 기술유형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E)
	출처	UIS에서 취합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PISA, TIMSS, PIRLS, LLECE 등)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4.6.1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지표번호	4.6.1
지표명	특정 연령 집단에서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Proportion of population in a given age group achieving at least a fixed level of proficiency in functional (a) literacy and (b) numeracy skills, by sex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ve literacy and numerac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청소년 15-24세와 성인 15세 이상) 인구 비율
지표의의	문해력과 수리력의 성취는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최소숙달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새로운 문해력 및 수리력 공통 척도가 개발 중임. 현재는 국가 간 학습 평가에 전문 기관이 발표한 데이터로 지렛값을 산출함.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평가가 필요하나, 가구조사로 학습 측정시, 표준화된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을 과소 평가할 수 있음. 지표의 데이터에서 세분화는 메타데이터와 달리 지역과 수입을 제외한, 연령(16-65세 한 그룹), 성별, 기술 유형으로 구성함.
지표해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문해력과 수리력에서의 최소 일정 수준의 도달률을 제공하고 있으나, OECD 국가의 75% 이상 국가에서 2012년 한 해의 자료만 산출되고 있으며. 이는 PIAAC 자료를 통해 그 값을 산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지표에서의 OECD 국가의 2012년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일정 수준을 달성하거나 넘어서 16-65세의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은 각각 평균 84.4%와 81.5%임.
지표대응	최소 일정 수준의 역량(문해력, 수리력)에 도달한 인구의 비율의 산출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국제성인 역량평가(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자료를 활용함. 현재 한국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으나, kosis에서 제공되는 한국의 2012년의 (a) 문해력과 (b) 수리력이 일정 수준을 달성하거나 넘어서 16-65세의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은 각각 87.1%와 81.0%임.

글로벌	데이터	최소 일정수준의 역량(언어, 수리)에 도달한 인구의 비율(성, 연령 및 역량별) (Proportion of population achieving at least a fixed level of proficiency in functional skills, by sex, age and type of skill (%))
	산식	$MPL_{t,a,d} = \frac{MP_{t,a,d}}{P_{t,a,d}} =$ $\frac{\text{해당 분야의 학습평가에서 최소 수준을 달성한 연령 그룹의 인구수}}{\text{해당 분야의 학습평가에 참여한 연령 그룹의 전체 인구수}}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그룹: 15~24세(청소년) 또는 15세 이상(성인) - 평가 영역: 문해력, 수리력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S)가 각국의 교육부나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취합 성인 인구에 대한 기술평가 설문조사(예: PIAAC, STEP, LAMP, RAMAA) 및 국가 성인 문해력 조사 등을 통해 수집
	시계열	2006-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연령 그룹, 성별, 지역, 수입, 기술 유형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S)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81	
국내	데이터1	문해능력수준
	산식	<p>수준별 응답자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수준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수준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수준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중학 학력 이상 수준)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고용형태별, 종사상지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20&tblId=DT_42001N_001&vw_cd=MT_ZTITLE&list_id=H1_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성인문해능력조사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 성인, 표본조사(가구 4,000명, 1차 추출 단위 (PSU): 국가기초구역(확률비례계통추출 적용) / 2차 추출단위 (SSU): 가구(계통추출법 적용)), 면접조사
공표주기	3년
시계열	2014-2017
통계생산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02-3780-9984)

4.7.1 (i) 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 평가 영역에서 주류화 된 정도

지표번호	4.7.1 (=12.8.1, 13.3.1)
지표명	(i) 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 된 정도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mainstreamed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 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전 세계가 i) 세계 시민 교육(GCED)과 (ii)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ESD)이 (a) 국가 교육 정책, (b)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에 주요점을 두고 있는 정도 지표의 네 가지 요소(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각각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을 책정하고, 이 기준을 결합하여 각 요소에 대해 0과 1 사이의 단일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이를 지수화함. 최종적으로 0부터 1까지의 척도로 평가되며, 1에 가까울수록 그 구성 요소에서 ESD와 GCED가 더 잘 구현되는 것을 의미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국가가 학습자에게 양질의 ESD와 GCED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목적으로 함.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 적절한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및 학생평가는 GSD와 ESD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유익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헌신과 노력의 핵심적 요소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현재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모호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에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 교육관련 통계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지표의 네 가지 요소(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학생 평가) 각각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책정하고, 이 기준을 결합하여 각 요소에 대해 0과 1 사이의 단일 점수를 부여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개별국가 설문조사 실시 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보고
	시계열	2020년부터 수집 예정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 유형별)

지표번호	4.a.1
지표명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 (서비스 유형별) Proportion of schools offering basic services, by type of service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Build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child, disability and gender sensitive and provide safe, non-violent, inclus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을 가진 교육 수준별(기본 교육) 학교 비율 - 시설: 전기, 교육목적의 인터넷, 교육목적의 컴퓨터,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기반 시설 및 자원, 기본적인 식수 시설, 성별로 구분되는 기본적인 위생시설,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
지표의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본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학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는 관련 서비스와 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상적으로 각 학교는 이러한 모든 서비스와 시설이 이용가능해야 함. 본 지표는 학교에서의 서비스나 시설 유무를 측정하지만, 시설의 품질이나 운영 상태는 측정하지 않음. 국가교육시스템과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의 차이 혹은 교육 유형에 대한 적용 범위의 차이로 국가의 공식수치와 다를 수 있음.
지표해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 세부 통계별로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 들에서 100%의 비율을 보임. 다만,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마련된 시설과 교육자료 접근성의 경우, OECD 국가 중 3개국(핀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만 지פות값이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항목별로 80%를 미충족하는 국가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마련된 시설과 교육자료 접근성; 라트비아 (초등, 17.7%, 중등 17.3% 고등 17.2%), 슬로바키아 (초등 14.5%, 21.4%, 고등 9.4%) - 식수 접근성: 멕시코(고등, 49.0%) - 교육목적의 인터넷 접근성: 초등; 멕시코(평균 43.12%), 이탈리아(70%), 콜롬비아(평균 42.2%) / 중등; 멕시코 (평균 44.5%), 콜롬비아(평균 69.0%) / 고등; 멕시코(50.8%), 콜롬비아(평균 75.1%) - 성별 위생시설의 접근성: 멕시코 (초등 74.7%) - 교육목적의 컴퓨터 접근성: 초등; 멕시코(63.8%) / 고등; 멕시코 (66.5%) - 손씻기 시설: 멕시코 (고등 76.9%)
지표대응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마련된 시설과 교육자료 접근성 자료의 경우 3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산출(2000-2016년 데이터)되는 모든 서비스 유형별 제공하는 학교 비율이 100%이므로, 지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다소 낮음. 다만 현재 산출되고 있지 않은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마련된 시설과 교육자료 접근성 지표의 경우, 대체지표가 없는 상태임. 이는 장애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학습자료(교육 및 평가자료, 오디오, 점자 등)와 시설이용(접근성, 진입, 대피, 안전 등)에 관한 정보들로, 현재로는 전체 초등/중등/고등의 전체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1	1.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시설과 교육자료 접근성이 있는 학교의 비율 (Proportion of schools with access to adapted infrastructure and material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y education level (%)) 2.식수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Schools with access to basic drinking water, by education level (%)) 3.교육목적의 인터넷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Schools with access to the internet for pedagogical purposes, by education level (%)) 4.성별 위생시설의 접근이 가능한 학교 비율(Schools with access to access to single-sex basic sanitation, by education level (%)) 5.교육목적의 컴퓨터 접근이 가능한 학교 비율(Schools with access to computers for pedagogical purposes, by education level (%)) 6.전기가 보급되는 학교비율(Schools with access to electricity, by education level (%)) 7.손씻기 시설이 비치된 학교 비율(Proportion of teachers who have received at least the minimum organized teacher training (e.g. pedagogical training) pre-service or in-service required for teaching at the relevant level in a given country, by sex and education level (%))
	산식	$\frac{\text{관련 시설에의 접근성이 있는 학교급별 학교 수}}{\text{학교급별 학교 수}} \times 100$ $PS_n, f = \frac{S_n \cdot f}{S_n}$

		PS_n, f = 시설(f)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학교급별 학교 비율 S_n, f = 시설(f)에 접근 가능한 학교급별(n) 학교 S_n = 해당 학교급별(n) 총 학교 수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가 각국의 교육부나 통계청으로부터 행정 자료 취합하여 시계열 자료 구축. 각 국가는 국제적 비교를 위해 국제교육표준분류(SCED)에 정의된 교육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제출함. 데이터의 수집은 매년 시행하는 정규 교육 조사(전기, 식수, 위생 및 손씻기 시설 이용)와 교육분야의 ICT 조사(전기, 인터넷과 컴퓨터 이용)를 통해 수집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0-2016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학교급 (초등, 중등, 고등)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IS)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83
국내	데이터명	없음



4.b.1.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부문 및 연구유형별)

지표번호	4.b.1
지표명	장학금의 ODA 금액(연구부문 및 연구유형별) Volum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for scholarships by sector and type of study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By 2020, substantially expand globally the number of scholarship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for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ica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gramm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공적개발원조에서 장학금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
지표의의	개도국가의 교육 상황 개선 및 증진을 위한 공공 노력의 지표화. OECD의 DAC 통계에 장학금 원조 관련 새로운 분류 체계는 2010년부터 제공됨.
지표해설	수원국별 장학금 명목의 원조 규모로 OECD 국가 중 수원국으로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가 있으며, 북한 역시 수원국에 속함. 각 국가들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학금 명목 원조 규모의 평균은 칠레 (2017년까지) 3.63백만불, 콜롬비아는 6.39백만불, 멕시코 9.25백만불, 터키 8.87백만불, 그리고 북한은 0.33백만불임
지표대응	OECD DAC에서 발표한 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의 원조 유형 및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구분에 개도국 및 유학생 연수생 지원 중 직접비용이 포함됨. 다만, 기술협력 이하의 기타 기술협력에도 개도국 내 장학금 지원 항목이 있어 공적개발원조 내에서 장학금 항목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수원국별 장학금 명목의 원조 규모(Total official flows for scholarships, by recipient countries (millions of constant 2017 United States dollars))
	산식	공적개발원조에서 장학금을 위해 지원되는 총액
	측정단위	백만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OECD DAC에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대한 ODA 지원액(총지출기준)을 지표로 산출
	시계열	2006-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수원국 (공여국, 자금 유형)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86
국내	데이터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산식	-
	측정단위	백만 달러(USD)
	세분화	대륙별, 지역별, 수원국별
	출처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이용통계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 OECD)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6-2018
	통계생산기관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044-215-8714)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지표번호	4.c.1
지표명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교육단계별) Proportion of teachers with the minimum required qualifications, by education level
목표명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supply of qualified teacher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eacher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교사 임용 전 또는 임용 중에 최소한의 체계적 교사 훈련을 받은 비율 (교육단계별)
지표의의	교사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상적으로는 모든 교사가 교육과 관련된 적절한 교사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과목에 대해 학문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렛값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 훈련이 잘 되어있는 교사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의미함. 국가별 최소 교사 훈련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국가 간 적용 가능한 교사 훈련에 대한 공통 기준에 대한 작업이 필요함.
지표해설	교사 중 임용 전 또는 임용 중에 최소한의 체계적 교사 훈련을 받은 비율 지표는 OECD 국가 중 2개 국가(콜롬비아, 멕시코)만 지렛값이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콜롬비아의 경우 모든 교육수준에서 96%이상이었으며, 멕시코는 학령전 단계의 교사 훈련 비율이 82.0%로 가장 낮고, 초등 단계가 95.7%로 가장 높은 교사 훈련 비율을 보임.
지표대응	교원자격증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으로 교사 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 본 지표에 대한 한국의 상황은 100%로 추정할 수 있음. 다만, 교육기본통계에는 교원연수 현황과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 자격 연수 실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교원자격 관련 다양한 통계는 생산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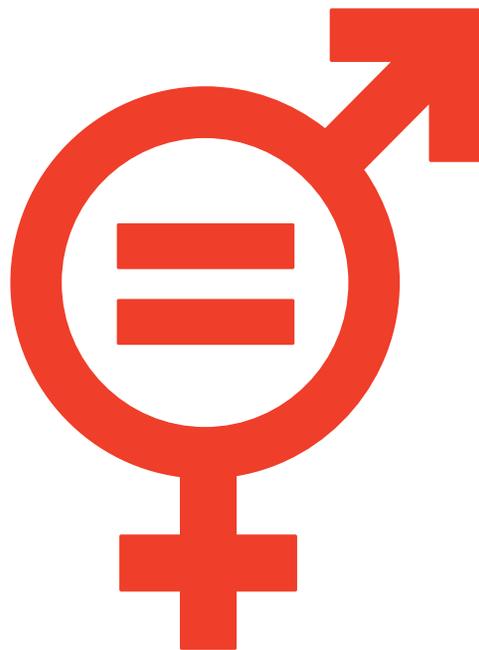
글로벌	데이터	교사 중 임용 전 또는 임용 중에 최소한의 체계적 교사 훈련을 받은 비율(Proportion of teachers who have received at least the minimum organized teacher training (e.g. pedagogical training) pre-service or in-service required for teaching at the relevant level in a given country, by sex and education level (%))
	산식	해당 교육단계에서 훈련된 교사 비율 = $\frac{\text{해당 교육단계에서 훈련된 교사 수}}{\text{해당 교육단계의 전체 교사 수}} \times 100$ - 교육수준: 취학전(02), 초등(1), 중등(2), 고등(3), 중고등(23)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UIS가 국가별 통계청 및 교육부의 교사 관련 데이터(국제표준교육분류 정의에 따른 데이터) 취합 후 작성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교육수준별, 기관유형별(공공/민간)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87
국내	데이터1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교육단계별, 자격증별, 발급기관별
	출처	https://kess.kedi.re.kr/publ/list?itemCode=02&survSeq=&menuSeq=0&division=&word=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334001&inputYear=2020
	이용통계	교육기본통계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65-2019
통계생산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유초중등교육통계팀 (043-530-9631)	



통계청
통계개발원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체계 존재여부

지표번호	5.1.1
지표명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체계 존재여부 Whether or not legal frameworks are in place to promote, enforce and monito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all women and girls everywher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성평등을 증진, 이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수립 관련 정부의 노력 측정 4개의 영역(전체적인 법령 프레임워크와 공공생활,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과 경제, 결혼과 가족)에 해당 법령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요소(예산, 정책계획 등)가 있어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로 정의됨.
지표의의	차별적 법률을 없애고, 성평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임. 이 지표는 성평등을 증진, 집행,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평가에 기초하며, 4개 영역별로 증진과 집행 및 추적 관련 항목으로 나누어 총 45개 문항의 설문으로 평가함.
지표해설	OECD 국가(15개국 데이터 수록)를 중심으로 지렛값의 분포는 영역별로 다음과 같음. 영역 1 평균은 78.0%이며, 스페인이 100%로 가장 높음. 영역 2 평균은 84.5%이고 호주가 100%로 가장 높음. 영역 3은 평균은 93.3%이며, 15개국 중 호주를 포함한 8개국이 100%이며,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가 80.0%로 가장 낮음. 영역 4 평균은 83.0%이며, OECD 15개국 중 프랑스를 포함한 7개국이 90.9%로 가장 높으며, 칠레가 63.6%로 가장 낮음 종합적으로는 전체적인 법령 프레임워크와 공공생활 영역에서 성평등 증진, 강화, 모니터링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달성 정도가 가장 낮으며, 고용과 경제적 혜택 영역의 법적 프레임워크 달성도가 가장 높음.
지표대응	UN Women, World Bank Group, OECD Development Centre에서 각 국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통계청 총괄하에 법무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응답 제출함. 한국데이터도 곧 국제기구에서 제공 예정임.

글로벌	데이터1	1.성평등 증진, 강화, 모니터링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달성도(%): (영역1)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 생활에 대한 개괄(overarching)(Legal frameworks that promote, enforce and monitor gender equality (percentage of achievement, 0-100) - Area 1 overarching legal frameworks and public life) 2.성평등 증진, 강화, 모니터링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달성도(%): (영역2) 여성에 대한 폭력(Legal frameworks that promote, enforce and monitor gender equality (percentage of achievement, 0-100) - Area 2 violence against women) 3.성평등 증진, 강화, 모니터링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달성도(%): (영역3) 고용과 경제적 혜택(benefits)(Legal frameworks that promote, enforce and monitor gender equality (percentage of achievement, 0 - 100) - Area 3 employment and economic benefits) 4.성평등 증진, 강화, 모니터링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달성도(%): (영역4) 결혼과 가족(Legal frameworks that promote, enforce and monitor gender equality (percentage of achievement, 0 - 100) - Area 4: marriage and family)
	산식	$\text{영역} = \frac{\text{문항의 코드화된 응답 값의 합}}{\text{영역의 총 문항 수}}$ 45개 항목에 대한 응답에 대해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코딩하여 각 영역별로 평균값 계산(가중치 없음). 영역에서의 전체 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N/A로 채점 가능 4개 영역의 결과는 대쉬보드로 백분율 보고되며, 이는 해당 국가의 지표에 대한 달성 비율을 나타냄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통계청 혹은 국가여성기구) 설문 결과를 UN Women, World Bank Group, OECD Development Centre 취합 및 검토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2년, 정보의 일부는 세계은행의 '여성 기업과 법률' 이니셔티브 및 OECD 개발센터의 '사회제도와 젠더 지수(Women Business and the Law Initiative, and the OECD Development Center's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에 포함되어 발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세계은행(WB), OECD Development Centre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지표번호	5.2.1
지표명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Proportion of ever-partnered women and girls aged 15 years and older subjected to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violence by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form of violence and by age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cluding trafficking and sexual and other types of exploit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의 비율 - 신체적 폭력: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 - 성적 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해롭거나 원하지 않는 모든 종류(접촉 혹은 비접촉 행위 포함)의 성적인 행동 - 정서적 폭력: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로 인해 두려움이나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 대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성적 폭력과 함께 수반되어 나타남
지표의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폭력이며, 성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폭력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출발점임. 다만,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조사방법, 파트너 혹은 배우자 폭력에 대한 정의, 조사항목의 구성, 연령대 등의 차이들로 인해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가용성에는 문제가 있음. 또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의 3가지 유형 중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있거나 심리적 폭력은 여전히 Tier III에 속함. 마지막으로 보고되는 데이터의 연령 범위 일관성 문제로, 일반적인 조사들에서 15세에서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샘플링이 되고 있어, 글로벌 지표는 현재 파트너가 있는 15세에서 49세의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보고함.
지표해설	OECD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2년 23개국, 2018년 15개국의 지פות값이 산출되었으나, 2012년의 경우 EU-wide Survey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신체적, 성적 폭력의 정의가 다르며, 18-7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메타데이터 정의와는 차이가 있음. 2018년의 지פות값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콜롬비아, 프랑스가 90.9%로 가장 높고, 칠레가 63.6%로 가장 낮음(OECD국가 전체 평균 83.0%).
지표대응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에서 성적 폭력의 유형별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15-18세 연령이 제외됨. 지표의 친밀한 파트너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관계 유형을 친인척,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크게 나누고, 하위 항목 중에는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애인 등이 포함됨. 성폭력을 주요 이슈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련된 문항도 포함되어 있음.

글로벌	데이터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한 15세 이상 여성과 여아 비율 (%) (Proportion of ever-partnered women and girls subjected to physical and/or sexual violence by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age (%))
	산식	<p>1. 신체적 폭력 =</p> $\frac{\text{최근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의 수}}{\text{15세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수}} \times 100$ <p>2. 성적 폭력 =</p> $\frac{\text{최근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 파트너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의 수}}{\text{15세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수}} \times 100$



	<p>3. 정신적 폭력 =</p> $\frac{\text{최근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 파트너로부터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의 수}}{\text{15세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수}} \times 100$ <p>4.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p> $\frac{\text{최근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의 수}}{\text{15세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수}} \times 100$ <p>5.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p> $\frac{\text{최근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의 수}}{\text{15세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수}} \times 100$ <p>현재,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위해 "4.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으로 계산한 데이터만 산출되며. 가급적 15-49세의 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수치를 계산하도록 권고</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통계청 또는 여성의 폭력에 대한 국가조사를 수행한 부처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통계처(UNSD),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가 공동으로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수집, 검토	
시계열	2000-2018/2012-2018(OECD 국가통계 기준)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연령(제한: 폭력형태, 소득/자산, 교육, 민족, 장애, 결혼/배우자 상태, 가해자와의 관계(현재/이전 파트너), 지역, 폭력 빈도 등)	
지표소관기구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통계처(UNSD),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산식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 경험/ 유배우자 전체)×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 및 성
	출처	www.kosis.kr
	이용통계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하에 응답자 자기기입식으로 진행
	공표주기	3년
	시계열	2010, 2013, 2016, 2019
	통계생산기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권익보호 (02-2100-6422)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지표번호	5.2.2
지표명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Proportion of women and girls aged 15 years and older subjected to sexual violence by persons other than an intimate partner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age and place of occurrence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cluding trafficking and sexual and other types of exploit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 - 성적 폭력: 성적 폭력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해롭거나,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동으로, 가학적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동에의 강제적 참여,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이나 성적 행동에 대한 시도, 성희롱 등을 포함
지표의의	성적 폭력에의 범위와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 성폭력에 대한 정의나 연령의 차이, 조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지표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향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한 성적 폭행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친밀한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의 비율을 조사하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국제적 정의와 합의가 필요함.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안전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에서 성적 폭력의 유형별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 연령이 19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15-18세 연령이 제외됨. 지표의 친밀한 파트너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조사에서 가해자의 관계 유형을 친인척(가족포함),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범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의 구체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산식	(성폭력 피해 경험 인구 / 19-64세 인구)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피해유형별
	출처	www.kosis.kr
	이용통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공표주기	3년
	시계열	2019
	통계생산기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기회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395)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지표번호	5.3.1
지표명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Proportion of women aged 20-24 years who were married or in a union before age 15 and before age 18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Eliminate all harmful practices, such as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로, 공식적 결혼과 비공식적 동거가 모두 집계될 수 있음. 비공식적 동거는 공식적인 종교 의례나 관습 의례 없이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지표의의	18세 이전의 결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른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짐으로써 조혼 여성은 사회적 고립과 교육 과정에서의 단절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움. 아동 혹은 이른 조혼은 매우 직접적인 성 불평등 현상이며, 더 나아가 조혼 근절은 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의 보호, 해로운 관습적 의례로부터의 보호 등의 권리 보호와 관련되어 있음.
지표해설	OECD 국가들 중 터키(2018년 15세 이전: 2.0%, 18세 이전: 14.7%), 콜롬비아(2015년 15세 이전: 4.9%, 18세 이전: 23.4%), 멕시코(2015년 15세 이전: 3.8%, 18세 이전: 26.1%)의 지퓏값만 산출되고 있음.
지표대응	지퓏값의 측정을 위한 가용통계로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음.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초혼부부의 연령별 혼인통계가 있으나 행정통계로 동거의 정보가 누락되며 국내법상 혼인연령 18세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실질적) 초혼 시기를 묻는 조사항목이 있으나 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글로벌	데이터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 결혼 또는 동거(union)를 했던 비율(%) (Proportion of women aged 20-24 years who were married or in a union before age 15 (%))
	산식	$\frac{\text{15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한 20-24세 여성의 수}}{\text{20-24세 총 여성 인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이 각국의 통계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채택하며, 관련 피드백의 제공/검토
	시계열	2004-2019/2015-2018(OECD 국가통계 기준)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연령, 소득, 거주지, 지리적 위치, 교육, 민족(일부 국가)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child-protection/child-marriage/
	데이터2	20-24세 여성 중 18세 이전 결혼 또는 동거(union)를 했던 비율(%) (Proportion of women aged 20-24 years who were married or in a union before age 18 (%))
	산식	$\frac{\text{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한 20-24세 여성의 수}}{\text{20-24세 총 여성 인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지원하는 MICS나 인구 및 건강조사 등의 가구조사를 통해 조혼에 관한 데이터 수집
	출처	UNICEF가 각국의 통계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채택하며, 관련 피드백의 제공/검토 https://data.unicef.org/topic/child-protection/child-marriage/

국내	데이터	20-24세 기혼 여성 중 초혼 연령이 15세 미만인 비율
	산식	$(\text{초혼 연령이 15세미만} / \text{20-24세 기혼 여성})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
	출처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이용통계	인구총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표본조사)
	공표주기	5년
	시계열	1980-2015(일부 시점은 데이터 세분화가 안되어 접근 불가)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인구총조사과(042-481-3730)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지표번호	5.3.2
지표명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Proportion of girls and women aged 15-49 years who have undergone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by age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Eliminate all harmful practices, such as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한 인구의 연령별 비율로 정의함. 여성성기절제(FGM/C)란, 여성 외부 성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 또는 의료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생식기관에 대해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상해를 말함.
지표의의	여성성기절제는 많은 연구와 문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이 지표 산출은 여성성기절제 관습에 대항하는 목적을 가짐.
지표해설	OECD 국가 중 지פות값을 산출하는 국가 없음.
지표대응	한국은 여성성기절제의 관습이 없으므로, 해당 경험을 한 인구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자료 역시 없음.

글로벌	데이터	15-49세 여성과 여아 중 성기절제를 한 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girls and women aged 15-49 years who have undergone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by age (%))
	산식	$\frac{15\sim 49\text{세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한 여아와 여성의 수}}{15\sim 49\text{세 여아와 여성의 총 인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각국의 통계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채택하며, 관련 피드백의 제공/검토
	시계열	2004-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연령(제안: 소득, 거주지, 지리적 위치, 교육, 민족)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data.unicef.org/topic/child-protection/female-genital-mutilation/
국내	데이터	없음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지표번호	5.4.1
지표명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Proportion of time spent on unpaid domestic and care work, by sex, age and location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호정책의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촉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도 높이고 가치를 부여 Recognize and value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throug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frastructure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the promotion of shared responsibility within the household and the family as nationally appropriat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6월
지표정의	남녀의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로, 자급적 소비를 위한 재화 생산 활동을 포함하여, 무급으로 제공되는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 자가최종소비를 위한 무급 생산 활동(자가소비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무급 노동과 공동체와 환경,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외의 타인을 위해 무급으로 수행되는 봉사활동 포함)
지표의의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여성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이 지표는 생활시간통계를 사용함에 따라 몇 가지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음. 1) 자료수집방식, 2) 생활시간 활동 분류, 3)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표기하는데 따른 중복 활동의 축소 보고, 4) 대상 연령 차이 등
지표해설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 노동에의 소요시간 비율의 연령대별 주요 세분화 변수(15+, 15-24, 25-44, 45-54, 55-64 and 65+) 중 15세 이상에 대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표 값이 산출되고 있는 23개국 모두에서 여성의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 노동에의 소요시간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멕시코가 20.2%로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벨기에가 0.4%로 그 차이가 가장 낮음. OECD 23개국의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 노동에의 소요시간 비율의 성별 차이에 평균은 8.76%이며, 한국은 10.97%의 차이로 여성의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 노동에의 소요시간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통계청이 산출하여 유엔통계처(UNSD)에 제출함.

글로벌	데이터1	무급 돌봄 소요시간 비율(Proportion of time spent on unpaid care work, by sex, age and location (%))
	산식	$\frac{\text{하루 중 무급 돌봄 소요 시간}}{24} \times 100$ 하루 중의 시간 비율로, 주간 데이터의 경우 7일 동안의 평균으로 계산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로 수행된 생활시간조사(시간일지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시간 사용 데이터 수집) 각국의 통계청이 검증하고 제공한 데이터를 UNSD가 수집 후 검토/피드백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4, 2009, 2014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연령, 지역, 성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 소요시간 비율(Proportion of time spent on unpaid domestic chores and care work, by sex, age and location (%))
	산식	$\frac{\text{하루 중 무급 가정관리 소요시간}}{24} \times 100$ 하루 중의 시간 비율로, 주간 데이터의 경우 7일 동안의 평균으로 계산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로 수행된 생활시간조사(시간일지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시간 사용 데이터 수집) 각국의 통계청이 검증하고 제공한 데이터를 UNSD가 수집 후 검토/피드백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4, 2009, 2014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연령, 지역,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3	무급 가정관리 소요시간 비율(Proportion of time spent on unpaid domestic chores, by sex, age and location (%))
	산식	$\frac{\text{하루 중 무급 가정관리 + 돌봄 소요 시간}}{24} \times 100$ <p>하루 중의 시간 비율로, 주간 데이터의 경우 7일 동안의 평균으로 계산</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로 수행된 생활시간조사(시간일지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시간 사용 데이터 수집) 각국의 통계청이 검증하고 제공한 데이터를 UNSD가 수집 후 검토/피드백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4, 2009, 2014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연령, 지역, 성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요일 평균시간
	산식	가정관리에 소요 시간+가족 및 가구원 돌봄에 소요 시간 (요일평균)
	측정단위	시간:분
	세분화	연령, 성 (시도, 직업, 학력)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04_1TM1021X&vw_cd=MT_ZTITLE&list_id=B_9_0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생활시간조사의 연령대별 평균시간
	자료수집방법	조사통계(면접조사), 조사시점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층화 2단 집락추출
	공표주기	5년
	시계열	1999-2019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042-481-2234)

5.5.1 (a) 여성 국회의원 비율 (b) 여성 지방의원 비율

지표번호	5.5.1
지표명	(a) 여성 국회의원 비율 (b) 여성 지방의원 비율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a) national parliaments and (b) local governments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Ensure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a) 2020년 2월 (b) 2018년 1월
지표정의	국회와 지방정부 두 영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a) 보고연도의 1월 1일 현재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로, 전체 의석에서 단원제 의회의 여성의 원과 양원제 의회의 여성 하원의원의 의석 수로 측정 (b)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직위에 대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심의기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선출직의 비율
지표의의	(a) 여성의 의회 의사결정에 접근성이 동등한가에 대한 측정으로 여성의 의회 참여는 국가 정책과 정치 영역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대한 핵심적 측면이며, 여성의 권한으로 이어짐. 여성과 남성이 동일할 경우 지פות값은 50%임. 여성이 국가 정책과 정치 영역에서 차지하는 대표성을 파악하여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와 평등한 리더십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b) 지방정부에서 젠더균형의 달성과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 접근에 동등한 정도를 측정. 지방정부는 행정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세·입법·행정 권한이 미치는 가장 작은 지역의 제도적 단위'로서, 각 국별로 헌법, 선거법, 지방정부법 등에 명시된 법제에 따라 정의됨. 지표는 지방정부의 입법/심의기관에서 선출된 직위 중 여성대표를 나타내며, 선출직은 지방정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의석을 확보한 경우와 후보할당제나 의석보장제를 통해 선출된 경우를 포함함.
지표해설	OECD 가입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0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의 전체 평균은 24.2%이며, 이 중 스웨덴이 4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핀란드(40.1%), 노르웨이(38.5%) 순으로 높으며, 일본이 8.8%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터키와 헝가리(9.9%), 한국(12.9%) 순으로 낮음. 북한의 국회 여성의석 비율의 평균은 17.9%임.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에서 OECD 국가들의 데이터(34개국)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2016년은 멕시코, 2017년은 에스토니아, 일본, 체코, 폴란드에 대해서만 지פות값이 제공되고 있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정부의 여성의석비율의 전체 평균은 30.0%이며, 이 중 아이슬란드가 4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웨덴(43.8%), 멕시코(41.2%), 프랑스(40.4%) 순으로 높으며, 터키가 10.1%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일본(12.9%), 이스라엘(17.1%), 콜롬비아(17.8%), 한국(18.6%) 순으로 낮음.
지표대응	두 지표 모두 한국 통계가 제공 중. 지방정부의 여성의석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당선인 통계를 통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인 통계를 살펴볼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1	지방정부 심의기구(deliberative bodies) 여성 선출직(elected seats) 비율 (%) (Proportion of elected seats held by women in deliberative bodies of local government (%))
	산식	$\frac{\text{여성}이\ \text{차지}하는\ \text{의석}수}{\text{남}녀\ \text{총}\ \text{의석}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b) 유엔여성기구(UN-Women, UN Regional Commissions 지원)이 각국의 선거관리기구나 통계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조정
	시계열	2006-2019/2016-2019(OECD국가 통계 기준)(한국 데이터 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b) 유엔여성기구(UN-Women)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여성 국회의원 비율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of total number of seats))
산식	$\frac{\text{국회}에서\ \text{여성}이\ \text{차지}하는\ \text{총}\ \text{의석}수}{\text{의회}의\ \text{총}\ \text{의석}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a) 국제의회연맹(IPU) 회원국의 의회로부터 자료 수집
	시계열	2000-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 의회유형, 선출방법, 특별 정책이나 법적 조치 등
	지표소관기구	(a) 국제의회연맹(IPU)
	출처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9&year=2020
국내	데이터1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비율
	산식	$\frac{\text{여성 국회의원 수}}{\text{총 국회의원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archive.ipu.org/wmn-e/classif-arc.htm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588&stts_cd=158801&freq=Y
	이용통계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자료수집방법	IPU 홈페이지 발표 내용을 분석(행정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5-2020
	통계생산기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4)
	데이터2	지방선거 당선 의원 수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이용통계	당선인통계
	자료수집방법	행정통계
	공표주기	4년
시계열	1995-2018	
통계생산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5.2 여성 관리자 비율

지표번호	5.5.2
지표명	여성 관리자 비율 Proportion of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Ensure 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전체 관리직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로 전체 관리자에서의 여성과 시니어-중간관리자급의 여성의 비율을 함께 측정하는 것을 권고함. 관리직 전체에서의 여성의 비율만을 측정할 경우, 하위 관리직에 분포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보다 여성의 책임 정도나 의사결정력을 확대해석 할 수 있음
지표의의	정부, 대기업 등 기관에서 의사결정과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력을 가능하고자 함.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에 따르되 관리직 전체에서의 여성의 비율과 시니어-중간관리자급의 여성의 비율 분리. 이 지표에서는 고위직 혹은 중간관리자급의 여성의 책임 수준 차이나 고용된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은 반영하지 않음 (시니어-중간관리자급의 여성: ISCO-08에 11,12,13그룹, ISCO-88에 11,12그룹).
지표해설	여성 관리자 비율 지표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7개국의 전체 평균(2000-2018년)은 31.3%이며, 콜롬비아(2009년 자료만 제공)가 53.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라트비아(42.9%), 리투아니아(41.0%), 미국(38.4%), 뉴질랜드(38.3%)순으로 높으며, 한국은 9.1%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일본, 터키(12.0%), 룩셈부르크(23.0%) 순으로 낮음. 시니어-중간관리자급의 여성의 비율 지프값이 산출되는 OECD 국가(30개국)를 중심으로 전체 평균(2000-2018년)은 30.9%이며, 라트비아가 4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리투아니아(40.9%), 슬로베니아(39.7%), 헝가리(38.2%) 순으로 높으며, 룩셈부르크가 15.5%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터키(16.7%), 이탈리아(21.6%), 덴마크(23.4%) 순으로 낮음.
지표대응	여성 관리자 비율 지표는 ILO의 제공통계에 한국이 포함됨. 다만, 시니어-중간관리자급의 여성의 비율 산출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기준에 연계하여 지프값을 산출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1	여성 관리자 비율 (Proportion of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
	산식	- ISCO-08 분류 이용시, 관리자급의 여성비율= $\frac{\text{ISCO-08 분류 1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text{ISCO-08 분류 1번 카테고리 모든 취업자 수}} \times 100$ - ISCO-88 분류 이용시, 관리자급의 여성비율= $\frac{\text{ISCO-88 분류 1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text{ISCO-88 분류 1번 카테고리 모든 취업자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표준직업분류 최소 2자리 수준의 성별과 직업별 고용에 관한 데이터로 국가수준의 고용조사(혹은 고용 모듈을 포함하는 가구조사)를 통해 수집됨.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의 통계청 또는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매년 고용통계에 관한 설문을 보내 데이터 수집/검토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0-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1/?lang=en&segment=indicator&id=SDG_0552_OCU_RT_A
	데이터2	중고위직 여성 관리자 비율(Proportion of women in senior and middle management positions(%))
산식	- ISCO-08 분류 이용시 시니어-중간관리자급의 여성비율= $\frac{\text{ISCO-08 분류 1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 - 14\text{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text{ISCO-08 분류 1번 카테고리 모든 취업자 수} - 14\text{번 카테고리 모든 취업자 수}} \times 100$ 또는,	



	$\frac{\text{ISCO-08 카테고리 11+12+13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text{ISCO-08 카테고리 11+12+13 속하는 모든 취업자 수}} \times 100$ <p>- ISCO-88 분류 이용시 시니어-중간관리자급의 여성비율=</p> $\frac{\text{ISCO-88 분류 1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 - \text{13번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text{ISCO-88 분류 1번 카테고리 모든 취업자 수} - \text{13번 카테고리 모든 취업자 수}} \times 100$ <p>또는,</p> $\frac{\text{ISCO-88 카테고리 11+12 속하는 여성 취업자 수}}{\text{ISCO-88 카테고리 11+12 속하는 모든 취업자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표준직업분류 최소 2자리 수준의 성별과 직업별 고용에 관한 데이터로 국가수준의 고용조사(혹은 고용 모듈을 포함하는 가구조사)를 통해 수집됨. 국제노동기구(ILO)가 각국의 통계청 또는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매년 고용통계에 관한 설문을 보내 데이터 수집/검토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1/?lang=en&segment=indicator&id=SDG_0552_OCU_RT_A	
국내	데이터	여성 관리자 비율
	산식	(여성 관리자/전체관리자)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s://kosis.kr
	이용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월, 분기, 연
	시계열	2013-2020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고용통계과 042-481-2266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지표번호	5.6.1
지표명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s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ir review conferen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 여성의 비율로, 다음 세 질문에 모두 '예'로 대답한 여성을 집계하여 그 비율 산출 1) 여성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이 여성의 의사에 기반하여 이뤄짐 2) 피임 도구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여성의 의사에 기반하여 이뤄짐 3)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그의 배우자 또는 성적 상대방에게 싫다고 말할 수 있음 * 1)과 2)는 배우자 또는 성적 상대방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기반하여 성관계, 피임, 생식보건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집계함.
지표의의	여성 자신이 의사에 기반하여 성적 및 출산 행위와 그 관리, 관련 서비스 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 지표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소녀가 제외된다는 한계점이 있음.
지표해설	OECD 국가 중 지פות값 산출 국가 없음.
지표대응	메타데이터에서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 여부를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질문을 포함한 조사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 조사에 신규항목을 추가로 확장하여 지표를 산출해야 함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기혼여성(만15~49세)과 미혼남녀(만20세~44세)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나, 메타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 조사 문항 포맷은 누락되어 있으며[피임관련 항목은 있으나 질문형식의 차이로 지פות값 산출 어려우며, 15-49세 미혼의 파트너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제외되는 연령대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1	피임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성(15-49세) 비율(Proportion of women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contraceptive use (% of women aged 15-49 years))
	산식	$\frac{\text{피임에 대한 결정을 배우자나 파트너가 하지 않는 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수}}{\text{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관련 가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05-2020(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3~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연구기금(UNFPA)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1/?lang=en&segment=indicator&id=SDG_0552_OCU_RT_A
	데이터2	생식보건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성(15-49세) 비율(Proportion of women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reproductive health care (% of women aged 15-49 years))
	산식	$\frac{\text{생식보건에 대한 결정을 배우자가 파트너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내리지 않는 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수}}{\text{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관련 가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05-2020(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3~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구기금(UNFPA)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1/?lang=en&segment=indicator&id=SDG_0552_OCU_RT_A
데이터3	성관계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성(15-49세) 비율(%) (Proportion of women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 of women aged 15-49 years))
산식	$\frac{\text{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수}}{\text{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전체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관련 가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05-2020(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3~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구기금(UNFPA)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1/?lang=en&segment=indicator&id=SDG_0552_OCU_RT_A
데이터4	성관계, 피임, 생식보건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여성(15-49세) 비율(%) (Proportion of women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 of women aged 15-49 years))
산식	$\frac{\text{여성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을 배우자가 파트너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내리지 않고, 피임에 대한 결정을 배우자나 파트너가 하지 않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수}}{\text{결혼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15-49세 여성의 전체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관련 가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05-2020(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3~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구기금(UNFPA)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1/?lang=en&segment=indicator&id=SDG_0552_OCU_RT_A
국내	데이터 없음

5.6.2.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지표번호	5.6.2
지표명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guarantee full and equal access to women and men aged 15 years and older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information and education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s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ir review conferen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측정								
지표의의	<p>100%는 국가가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갖추었음을 의미함. 이 지표는 법과 제도의 유무만을 측정하며 시행은 측정하지 않음. 국제적 합의와 인권기준에 따라 성 및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4가지 주요 영역에 걸쳐 법과 제도 환경을 측정. 4개 영역은 13개 요소로 구성. 아래의 13개 구성요소에 대해 특정 법적 요소(실정법과 제도)와 특정 법적 제한(장벽)이 있는지 측정함(Component2와 Component9는 법적 제한(장벽) 비 해당).</p> <p>- 4개 영역: 모성보건(Maternity care), 피임 및 가족계획(Contraception and family planning), 성 관련 교육과 정보(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HIV와 HPV(HIV and HPV)</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Maternity care</td> <td>Component1. Maternity care Component2. Life-saving commodities Component3. Abortion Component4. Post-abortion care</td> </tr> <tr> <td>Contraception and family planning</td> <td>Component5. Contraception Component6. Consent for contraceptive services Component7. Emergency contraception</td> </tr> <tr> <td>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information</td> <td>Component8. CSE law Component9. CSE curriculum</td> </tr> <tr> <td>HIV and HPV</td> <td>Component10. HIV testing and counselling Component11. HIV treatment and care Component12. Confidentiality of health status for men and women living with HIV Component13. HPV vaccine</td> </tr> </table>	Maternity care	Component1. Maternity care Component2. Life-saving commodities Component3. Abortion Component4. Post-abortion care	Contraception and family planning	Component5. Contraception Component6. Consent for contraceptive services Component7. Emergency contraception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Component8. CSE law Component9. CSE curriculum	HIV and HPV	Component10. HIV testing and counselling Component11. HIV treatment and care Component12. Confidentiality of health status for men and women living with HIV Component13. HPV vaccine
Maternity care	Component1. Maternity care Component2. Life-saving commodities Component3. Abortion Component4. Post-abortion care								
Contraception and family planning	Component5. Contraception Component6. Consent for contraceptive services Component7. Emergency contraception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Component8. CSE law Component9. CSE curriculum								
HIV and HPV	Component10. HIV testing and counselling Component11. HIV treatment and care Component12. Confidentiality of health status for men and women living with HIV Component13. HPV vaccine								
지표해설	13개 구성요소의 총 산술평균인 최종 지릿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6.2. 지표에서는 OECD국가 중 그리스, 체코, 라트비아, 일본, 리투아니아, 덴마크, 스위스, 영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13개 국가와 북한의 지릿값이 산출됨. 북한을 포함한 14개국의 평균은 86.36%이며, 스웨덴이 1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98%, 콜롬비아가 97%로 높게 나타남. 그리스는 54%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코와 라트비아가 70%, 북한과 일본이 83%로 낮게 나타남.								
지표대응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에 관련 법률과 규정이 존재함. 이를 통해 각 4개 영역(모성보건, 피임 및 가족계획, 성 관련 교육과 정보, HIV와 HPV)의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과 제도의 국제적 집계 항목에 대한 국가차원의 자료 제공을 위해서 관련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15세 이상 남녀가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정보와 교육에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Extent to which countries have laws and regulations that guarantee full and equal access to women and men aged 15 years and older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information and education (%))
	산식	4개 영역, 13개 구성요소에 대한 특정 법적 조력 요소와 장벽을 측정. 계산시, 모든 13개 구성요소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13개 구성요소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 각 영역별 지릿값도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산술평균으로 산



		$\text{구성요소}i = \left(\frac{\text{구성요소}i \text{ 중 구축되어 있는 조력요인 수}}{\text{구성요소의 조력요인 총 수}} - \frac{\text{구성요소}i \text{ 중 존재하는 제한 수}}{\text{구성요소의 총 제한 수}} \right)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 관련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조사항목에 응답 제공. 유엔인구기금(UNFPA) 취합 및 검토	
시계열	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4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구기금(UNFPA)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 형태별)

지표번호	5.a.1
지표명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 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 형태별) (a) Proportion of total agricultural population with ownership or secure rights over agricultural land, by sex; and (b) share of women among owners or rights-bearers of agricultural land, by type of tenure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Undertake reforms to give women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financial services, inheri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0월
지표정의	농경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성별 비율과 성평등에 초점을 두고, 토지소유자/농지소유권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여성 현황 파악. 이를 위해 1) 전체 농업 종사자 중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의 성별 비율을 파악하고 2) 농경지를 소유한 사람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전체 인구수에 대한 해당 여성의 비율 파악함.
지표의의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유와 접근 보장. 지표는 농지에 초점을 두고, 농업으로 간주 되지 않는 형태의 토지 제외. 농업 인구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정의되는데, 농업관련 조사의 경우, 계절의 영향이 커서 조사기간에 따라 조사대상이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성인 농업인구는 농업활동의 최종 목적이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이 지난 12개월 동안 주로 농업에 종사한 가구에 속함.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취득, 사용, 양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3가지 중 하나에 해당: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이름으로 된 문서, 판매권, 유증권).
지표해설	OECD 국가 중 지푃값 산출 국가 없음.
지표대응	헌법법상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등 분야에서 양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로 판단됨.

글로벌	데이터1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인구 비율(전체 농업인구 대비)(Proportion of people with ownership or secure rights over agricultural land (out of total agricultural population), by sex (%))
	산식	$\frac{\text{농지에 대한 법적 인정문서 혹은 판매권 혹은 유증권을 가진 농업인구 수}}{\text{총 농업인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통계청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농업 관련 부처가 산출한 자료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제출
	시계열	2009-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5.a.1/en/
	데이터2	농경지 소유자 중 여자의 비율(Share of women among owners or rights-bearers of agricultural land, by type of tenure(%))
	산식	$\frac{\text{농지에 대한 법적 인정문서 혹은 판매권 혹은 유증권을 가진 여자 농업인구 수}}{\text{농지에 대한 법적 인정문서 혹은 판매권 혹은 유증권을 가진 농업인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통계청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농업 관련 부처가 산출한 자료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제출
	시계열	2009-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5.a.1/en/	
국내	데이터	없음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지표번호	5.a.2
지표명	토지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Proportion of countries where the legal framework (including customary law) guarantees women's equal rights to land ownership and/or control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Undertake reforms to give women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financial services, inheri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0월
지표정의	해당 국가에서 토지 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이 갖추어졌는지로 정의됨
지표의의	여성의 토지 소유 및 통제권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 기반 현황에 대한 6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충족하는가를 판단함. a. 공동명의로 강제되거나 경제적 이점을 통해 권장되는가 b.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의무 등의 c. 여성과 소녀에 대한 동등한 상속권 d. 여성의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원 배분 e. 관습적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률 체계에서 여성의 토지권리 명시적 보호 존재 f. 토지 관련 관리 및 행정 기관에 여성 참여 의무할당
지표해설	OECD 국가 중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콜롬비아, 포르투갈 6개국의 지פות값이 제공됨(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지פות값 분포는 콜롬비아가 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웨덴과 포르투갈이 5점, 스위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가 4점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국별 설문지를 통해 지표를 산출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작업을 검토할 필요는 없음.

글로벌 산식	데이터	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보장없음 ~ 6=높은수준의 보장) (including customary law) guarantees women's equal rights to land ownership and/or control (1=No evidence to 6=Highest levels of guarantees))																
	산식	<p>국가의 1차(primary legislation) 또는 1차 및 2차 법률(primary and secondary legislation)이 아래 기준에 해당 정도에 따라 여섯 단계 중 하나로 분류</p> <p>a. 공동명의로 강제되거나 경제적 이점을 통해 권장되는가 b.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의무 등의 c. 여성과 소녀에 대한 동등한 상속권 d. 여성의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원 배분 e. 관습적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률 체계에서 여성의 토지권리 명시적 보호 존재 f. 토지 관련 관리 및 행정 기관에 여성 참여 의무할당</p> <p>관습적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e항목은 비해당 처리하며, 모든 항목은 가중치 없이 동일</p> <p>분류 카테고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e가 적용되는 경우</th> <th>e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th> <th>분류</th> </tr> </thead> <tbody> <tr> <td>6가지 중 어느 것도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없음</td> <td>5가지 중 어느 것도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없음</td> <td>Band1: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증거 없음</td> </tr> <tr>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한 가지 해당</td>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한 가지 해당</td> <td>Band2: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td> </tr> <tr>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두 가지 해당</td>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두 가지 해당</td> <td>Band3: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td> </tr> <tr>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세 가지 해당</td>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세 가지 해당</td> <td>Band4: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중간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td> </tr> </tbody> </table>			e가 적용되는 경우	e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분류	6가지 중 어느 것도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없음	5가지 중 어느 것도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없음	Band1: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증거 없음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한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한 가지 해당	Band2: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두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두 가지 해당	Band3: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세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세 가지 해당
e가 적용되는 경우	e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분류																
6가지 중 어느 것도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없음	5가지 중 어느 것도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없음	Band1: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증거 없음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한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한 가지 해당	Band2: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두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두 가지 해당	Band3: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세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세 가지 해당	Band4: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중간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table border="1"> <tr>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네 가지 해당</td>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네 가지 해당</td> <td>Band5: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td> </tr> <tr> <td>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다섯 가지 이상 해당</td> <td>5가지 모두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해당</td> <td>Band6: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td> </tr> </table>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네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네 가지 해당	Band5: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다섯 가지 이상 해당	5가지 모두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해당	Band6: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네 가지 해당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네 가지 해당	Band5: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다섯 가지 이상 해당	5가지 모두 1차 또는 1차 및 2차 법률에 해당	Band6:토지 소유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로 토지나 젠더 관련 부처, 또는 법무부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국가별 책임기관은 설문지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제출. FAO는 국가별 조사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지표 계산							
시계열	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지표번호	5.b.1
지표명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Proportion of individuals who own a mobile telephone, by sex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사용 강화 (특히 ICT) Enhance the use of enabling technology, in particula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promote the empowerment of wome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성별로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휴대폰 보유율) 개인용으로 최소 1개의 활성화된(지난 3개월 동안 사용한) SIM 카드와 휴대폰 기기가 있다면 휴대폰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적용도로 사용가능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대폰도 포함. 다만, 활성화된 SIM 카드만 가지고 있고 휴대폰 기기가 없는 개인은 제외되며,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보유자로 포함
지표의의	휴대폰 네트워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용이 보장된 것은 아님. 휴대폰은 개인적 기기로서, 공유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여성에게 일정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몇몇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과 사회 참여능력 간에도 상관관계를 가짐. 따라서 이 지표의 산출과 관리는 양성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음.
지표해설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14개 가입국의 지릿값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칠레(8.9%p), 콜롬비아(2.5%p), 덴마크(0.7%p), 리투아니아(0.4%p), 슬로베니아(0.1%p)에서는 여성의 휴대폰 보유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경우 남성의 휴대폰 소유율이 여성에 비해 3.7%p 높음. 국가별 여성의 휴대폰 보유율의 전체 평균은 86.4%이며, 핀란드가 98.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칠레(98.0%), 슬로베니아(97.5%), 리투아니아(96.1%) 순으로 높으며, 멕시코가 65.9%로 가장 낮고, 한국은 90.3%임.
지표대응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만6세이상 인구의 스마트폰 보유율 자료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	휴대폰 소유 비율(Proportion of individuals who own a mobile telephone, by sex (%))
	산식	$\frac{\text{특정 지역 내(in-scope) 휴대폰 보유자 수}}{\text{지역 내 전체 인구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국가별 통계청에 연례질문지를 통해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검토
	시계열	2013-2018/2014-2018(한국 포함 OECD통계 기준)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제안: 지역,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직업)
	지표소관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스마트폰 보유 비율
	산식	$\frac{\text{스마트폰 보유 비율}}{\text{만 6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s://www.msit.go.kr
	이용통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25,000가구 및 가구내 상주하는 만3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약63,000명)으로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3-2019	
통계생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산업제도과(044-202-6145)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지표번호	5.c.1
지표명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Proportion of countries with systems to track and make public allo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목표명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세부목표명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Adopt and strengthen sound policies and enforceable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월
지표정의	공공재정관리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 예산 배분 및 지출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정부의 노력 측정
지표의의	정부와 정책이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예산을 할당하고 지출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함. 3가지 기준을 두고 예/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13문항)하여 자료 수집. 3가지 기준의 가중치는 동일함. (1)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정책과 자원 할당에 있어서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위한 정부의 취지에 중점, (2) 공공재정관리 전반에 걸쳐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위한 예산 배분 및 지출을 추적할 수 있는지 평가, (3)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에 대한 배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관련 조항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명성에 중점 기준 충족: 기준1의 3문항 중 2개에, 기준2의 7문항 중 4개에, 기준3의 3문항 중 2개에 '예'일 경우 3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요건 충족' / 1개-2개 기준 충족할 경우, '요건 근접' / 충족한 기준이 없을 경우, '요건 미달'로 평가
지표해설	OECD 국가 중 지פות 산출 국가 없음.
지표대응	국별 설문지를 통해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작업을 검토할 필요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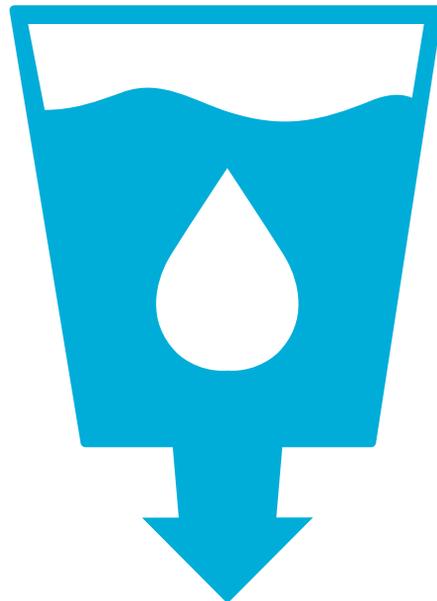
글로벌	데이터	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 관련 공공자원 할당 및 추적 시스템 갖춘 국가 비율(%) (Proportion of countries with systems to track and make public allocation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
	산식	$\frac{\text{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수}}{\text{전체 국가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UN Women, UNDP가 국가별 재정부나 통계청 또는 여성부 및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설문지 취합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요건충족 수준별, 지역의 요건 분류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개발계획(UNDP)-OEC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지표번호	6.1.1
지표명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services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By 2030, achieve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drinking water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9월
지표정의	식수공급시설이 직접 설치(주택, 마당이나 공터에 공급되는 수도관, 공공수도나 급수탑, 우물, 굴착정*, 보존되고 있는 샘, 빗물 등 포함하여 물 공급원이 내부에 있는 것을 의미함)되어 필요할 때 이용가능(가정에서 필요할 때 충분한 양의 물에 접근)하고 배설물 오염(화학적 오염 포함)이 없는 개선된 기본 식수원(drinking water source)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지표의의	MDG** 기간 초반부터 개도국의 식수 '이용 가능성'과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됨. 기존의 통계자료에는 식수 안전성에 대한 국가 수준의 자료가 매우 부족했지만 JMP(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에서 '개선된' 식수원의 이용에 관한 지표를 개발했고, 본 지표를 '안전한 물의 대체지표로' 이용함.
지표해설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보급률은 2000년 61.3%에서 2017년 70.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96.8%에서 98.2%로 상승함.
지표대응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에 대한 통계로서 상수도 통계에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세분화되어 급수현황이 잘 구축되어있으나, 많은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반영되지는 않고 국가 단위의 식수보급률만 반영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보급률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JMP가 각 국가에서 제공되는 특정 시점의 가계동향조사, 센서스 등의 자료를 수집, 회귀선을 추정하여 구성
	시계열	2000-2017(한국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도시, 농촌
	지표소관기구	JMP(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출처	https://washdata.org/data/household#!/
국내	데이터	상수도 보급 및 급수량
	산식	(급수인구 계 +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 소규모급수시설인구) / 총인구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환경부, 상수도 급수현황승인
	이용통계	상수도통계
	자료수집방법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상의 자료를 통해 계산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74-2018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수도정책과	
각주설명	*굴착정	집수정을 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투수층까지 판 후 투수층 사이에 긴 피압 지하수를 양수하는 우물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밀레니엄 개발 목표). UN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6.2.1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지표번호	6.2.1
지표명	(a)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 시설과 (b)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a) safely managed sanitation services and (b) a hand-washing facility with soap and water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 청결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금지 By 2030, achieve access to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and end open defe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9월 29일
지표정의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다른 가구와 공유하지 않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사용하며 배설물이 제자리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절하게 버려지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개선된' 위생 시설이란 하수 시스템, 오수정화조, 구덩이 등과 연결된 수세식 변기, 환기가 개선된 재래식 화장실, 판자가 덧대어진 재래식 화장실, 자연발효 화장실 등을 포함함.
지표의의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을 목표로 하는 해당 지표는 인간의 배설물과 인간의 접촉을 위생적으로 분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위생적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된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을 포함함. 그러나 비누를 활용하여 손을 씻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손을 씻는 장소에 물과 비누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측정함.
지표해설	한국의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비율은 2000년 85.9%에서 2017년 99.9%로 증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와 함께 99%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여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노상배변 비율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0%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세부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 편으로 보임.
지표대응	기본적인 손씻기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의 경우 70개국의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는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데이터만 제공되고 있음. 한편 노상배변 비율과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비율 모두 도시/농촌을 구분하여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자료만 제공되고 있음.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비율의 경우 「하수도통계」의 하수처리구역내 미접속인구와 하수처리구역외 미처리인구를 더한 인구의 비율을 통해 계산할 수 있지만 UN의 데이터와 값이 조금씩 차이남.

글로벌	데이터1	노상배변 비율(도시/시골)(Proportion of population practicing open defecation, by urban/rural (%))
	산식	노상배변 비율 = $\frac{\text{위생시설이 없는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마이크로데이터를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능하다면 다른 문헌 및 자료를 참조하여 국가 별 데이터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하여 수집한 후, 인구에 따른 가중치를 바탕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특정 연도가 비어있다면 외삽법, 내삽법, 연장 등의 규칙에 기반한 "JMP 추정"을 활용하여 도출.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도시/농촌)별
	지표소관기구	JMP(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비율(도시/시골)(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sanitation services, by urban/rural (%))
산식	<p>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 비율 = 하수도 연결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해 처리되는 인구 비율 + 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해 처리되는 인구 비율 + 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먼 곳에서 버려지는 있는 인구 비율</p> <p>이 때, 하수도 연결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해 처리되는 인구 비율 = $\frac{S_2 * RS_2 * RS_3}{\text{전체 인구}} \times 100$</p> <p>$S_2$ = 하수도 연결을 활용하는 인구 RS_2 = $\frac{\text{하수도 연결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하는 인구}}{\text{하수도 연결 인구}}$</p>	



	$RS_3 = \frac{\text{하수도 연결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하여 처리되는 인구의 비율}}{\text{하수도 연결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하는 인구}}$ <p>이며,</p> $\text{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해 처리되는 인구 비율} = \frac{(S_2 + S_3) * RS_4 * RS_5}{\text{전체 인구}} \times 100$ <p>S_3 = 오수 정화조를 활용하는 인구 S_4 = 개선된 변소 혹은 개선된 현장위생시설을 활용하는 인구의 비율(전체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에서 하수도 처리시설과 오수 정화조를 사용하는 인구를 제외한 인구의 비율) $RS_4 = \frac{\text{하수도 연결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하는 인구}}{\text{개선된 현장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 $RS_5 = \frac{\text{개선된 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해 처리되는 인구}}{\text{개선된 현장위생시설로 오수가 처리시설에 도달하는 인구}}$</p> <p>이며,</p> $\text{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먼 곳에서 버려지는 있는 인구 비율} = \frac{(S_3 + S_4) * RS_6}{\text{전체 인구}} \times 100$ $RS_6 = \frac{\text{개선된 현장위생시설로 하수가 처리되고, 먼 곳에 버려지는 인구}}{\text{개선된 현장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 <p>임</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마이크로데이터를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능하다면 다른 문헌 및 자료를 참조하여 국가 별 데이터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하여 수집한 후, 인구에 따른 가중치를 바탕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특정 연도가 비어있다면 외삽법, 내삽법, 연장 등의 규칙에 기반한 "JMP 추정"을 활용하여 도출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도시/농촌)별	
지표소관기구	JMP(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3	기본적인 손씻기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인구 비율(도시/시골)(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basic handwashing facilities on premises, by urban/rural (%))	
산식	$\text{기본적인 손씻기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인구 비율} = \frac{\text{물과 비누가 있는 손씻기 시설을 구비한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마이크로데이터를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능하다면 다른 문헌 및 자료를 참조하여 국가 별 데이터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하여 수집한 후, 인구에 따른 가중치를 바탕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특정 연도가 비어있다면 외삽법, 내삽법, 연장 등의 규칙에 기반한 "JMP 추정"을 활용하여 도출.	
시계열	2000-2017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도시/농촌)별	
지표소관기구	JMP(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하수도보급현황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지역별(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6_0100042&conn_path=i3
	이용통계	상수도통계
	자료수집방법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상의 자료를 통해 계산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8-2018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수도정책과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구 하·폐수 비율

지표번호	6.3.1
지표명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Proportion of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water flows safely treated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By 2030, improve water quality by reducing pollution, eliminating dumping and minimizing release of hazardous chemicals and materials, halving the proportion of untreated wastewater and substantially increasing recycling and safe reuse globall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11월
지표정의	가정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폐수량 대비 IRWS(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Water Statistics)에서 지정한 SEEA(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의 처리 단계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처리(국가별 '안전한 처리'에 대한 정의가 다른 관계로 JMP에서는 MDG의 데이터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WHO와 UNICEF 국가사무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통계 값을 생산하며, 국가데이터가 없는 국가는 게시하지 않음)되는 가정과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수 비율임.
지표의의	수질관리에 관한 측정을 통해 국가별로 하·폐수 수집과 처리에 노력을 경주하고 하·폐수처리가 국제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지표해설	2017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6.2.1의 가구의 하·폐수 지표와 산업에서 발생한 하·폐수를 합산하여 측정함.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하·폐수가 많은 국가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OECD 국가의 평균은 80.4%이며, 한국의 경우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폐수 비율이 98.5%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함.
지표대응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에서 한국의 인구 총조사, 하수도통계,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생활 하수, 가축 분뇨, 산업폐수의 발생량에 대한 국내통계는 구축되어있음.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생활하수 등은 방류수 수질기준, 산업폐수는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전량 처리하고 있지만 메타데이터 상 안전하게 처리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폐수 비율(Proportion of safely treated domestic wastewater flows (%))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이 각국의 가구 하·폐수 처리량과 산업 하·폐수 처리량을 이용하여 추정
	시계열	2017(한국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UN Water,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
출처	https://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monitoring/coverage/wastewater-country-files/en/	
국내	데이터1	하수 및 분뇨발생량
	산식	-
	측정단위	세제곱 미터(m³)
	세분화	-
	출처	하수 및 분뇨발생량 (KOSIS-국가통계포털), 환경부 하수도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7_0100044&ww_cd=MT_ZTITLE&list_id=T_3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환경부, 하수도 통계
	자료수집방법	행정보고내용을 집계 (기초지방자치단체 → 시·도 → 환경부)
	공표주기	2004-2016
	시계열	1년
	통계생산기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데이터2	사업장수, 폐수 발생량, 폐수 방류량, 유기물질 부하량	
산식	-	
측정단위	개, 세제곱 미터(m³), 킬로그램(kg)	



세분화	사업장수(개), 폐수발생량(m^3 /일), 폐수방류량(m^3 /일), 유기물질부하량(kg/일)
출처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1_0100069&ww_cd=MT_ZTITLE&list_id=T_1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환경부, 환경오염 배출업소 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 사업장(폐수배출 사업장)→wems입력 또는 지자체의 환경과에 조사표 작성 제출) - 구·시·군(사업장폐기물배출실적보고, 처리실적보고), 환경청, 전산시스템(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보고→사·도 → 환경부
공표주기	1996-2017
시계열	1년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데이터3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산식	-
측정단위	호, 천두, 세제곱 미터(m^3)/일
세분화	-
출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e-나라지표), 환경부 가축분뇨처리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5
이용통계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통계
자료수집방법	전국의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축산폐수 관련 영업자 현황 등을 시·군·구에 서 법정동리별로 조사활용
공표주기	1992-2018
시계열	1년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유역총량과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지표번호	6.3.2
지표명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Proportion of bodies of water with good ambient water quality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By 2030, improve water quality by reducing pollution, eliminating dumping and minimizing release of hazardous chemicals and materials, halving the proportion of untreated wastewater and substantially increasing recycling and safe reuse globall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5월
지표정의	국가 내 전체 수계와 비교할 때 좋은 주변 수질(ambient water quality, 하천, 호수, 지상의 자연 처리되지 않은 물을 의미함)을 확보한 수계의 비율을 의미함. 다만, 모든 지표면과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은 대표적인 하천, 호수, 지하수를 선정하여 수질 데이터가 국가에서 정의한 목표 값과 핵심 파라미터를 준수하는지에 근거하여 분류함. 평가된 수역의 수질이 규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모니터링 목표 값 80%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좋은” 수질 상태를 갖는 것으로 분류하며 이렇게 분류된 수역의 비율로 계산(백분율로 표시)하여 나타냄.
지표의의	수질은 모든 오염의 실제 결과와 오염 저감 활동이 반영된 환경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변 수역 수질에 있어서 인간의 개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들이 (깨끗한 식수, 생물다양성, 식량 생산에 필요한 물 등) 물 관련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서비스들을 평가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질 관리 처리가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지표해설	2017년부터 48개국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각 국가 별 좋은 수질을 가진 수계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지하수, 개방수역,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전반적인 수역의 수질을 계산함. 총 48개 국가에서 좋은 수질을 가진 수계의 비율의 평균은 64%이며, 한국의 경우 87.3%로 14위를 차지함.
지표대응	유엔의 지구환경감시시스템에서 세계수질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나, 현재 UN 메타데이터의 기준과 환경부 통계 조사내용 중 오염기준이 다른 부분이 존재함. 이는 용존고형물총량(TDS)**을 현탁성부유물질(SS)***등으로 대응하는 등, UN 요구 내용 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질을 검사하는 요소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Proportion of bodies of water with good ambient water quality (%))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과 유엔의 GEMS/Water 지구환경감시시스템에서 세계수질정보시스템(GEMStat) 전자보고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시계열	2017(한국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GEMS Water, UN Environment
출처	https://gemstat.org/data/data-portal/	
국내	데이터	하천수의 수질현황
	산식	-
	측정단위	밀리그램/리터(mg/l), 섭씨(°C), 피에이치(pH), 세제곱 미터/초(m³/sec) 등
	세분화	권역별: 금강권역, 낙동강권역, 영산강섬진강권역, 한강권역 수질현황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수온,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음이온계면활성제, 페놀, 카드뮴, 시안,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트리클로로에틸렌,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인산염인, 클로로필, 용존총질소, 용존총인, 사염화탄소 등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1_0100059&vw_cd=MT_ZTITLE&list_id=T_1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수질오염실태보고
	자료수집방법	수질측정망에 의한 측정내용을 집계 (조사기관(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환경부)
	공표주기	매월
	시계열	2007-2019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각주설명	*수계	어느 하천과 거기에 합류하는 다른 하천·내수면을 총칭한 것
	**용존고형물 총량	물에 녹아 있는 고형물질의 총량
	***현탁성 부유물질	입경 2mm 이하의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지표번호	6.4.1
지표명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Change in water-use efficiency over time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water-use efficiency across all sectors and ensure sustainable withdrawals and supply of freshwater to address water scarcity and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water scarcit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물 사용 효율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량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의 변화를 USD/m ³ 로 표현함. 여기에 물 사용은 물이 서비스 되는 특정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며 관개농업* 용수, 주요 산업 부문, 서비스 용수 등의 효율성을 포함함.
지표의의	'모든 부문에서 물 이용 효율성의 상당한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수자원의 사회적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지표가 "모든 부문에 걸쳐 물 이용 효율성의 상당한 증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의 물 이용 상황을 완벽하게 살펴보는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들이 본 지표에서 제공된 정보를 보완할 것임. 특히, 이 지표는 목표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물 스트레스 지표인 6.4.2와 통합될 필요가 있음.
지표해설	물이용 효율성은 각 국가 별 경제성장이 수자원 활용에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나타내며, 각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비교하여 이해하여야 함. 경제에 비해 지표가 느리게 성장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잠정적으로 잠재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지표대응	관개농업과 기업 개별 산업용수에 대한 국내 통계확인이 어렵고, 소규모 급수 시설에서 취수한 수량, 공업용 수도에서 추수한 수량, 농업용, 산업용, 발전용 등 주요 부문별로 환원수량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함.

글로벌	데이터	물 이용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 (United States dollars per cubic meter))
	산식	$WUE = A_{we} \times P_A + M_{we} \times P_M + S_{we} \times P_s$ <p>WUE = 물 사용 효율 Awe = 관개 농업용수의 효율성[USD/m³] Mwe = MIMEC(광업, 산업, 제조, 전기, 건설) 물 공급의 효율성[USD/m³] Swe = 서비스 용수의 효율성[USD/m³] Pa = 전체 사용에 대한 농업 분야의 물 비율 Pm = 전체 사용에 대한 시 물 공급량 비율 Ps = 전체 사용에 대한 서비스 분야의 물 비율</p>
	측정단위	USD/m ³
	자료수집방법	AQUASTAT이 각국의 물이용, 경제성장
	시계열	2000-2015(한국 데이터 2000 수록)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AQUASTAT
출처	http://www.fao.org/nr/water/aquastat/data/query/index.html?lang=en	
국내	데이터1	수자원 현황
	산식	-
	측정단위	억 세제곱미터(m ³)/년
	세분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출처	수자원 현황(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14
	이용통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수집방법	전국 강수량 관측자료 및 용도별 용수이용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산정(행정통계)
	공표주기	부정기
	시계열	1965, 1980, 1994, 1998, 2003, 2011, 2016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데이터2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산식	-
측정단위	십억 원
세분화	-
출처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명목, 연간),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63&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이용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수집방법	추정기법: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작성 경제활동별 순부가가치 계산: (경제활동별 국내 총부가가치 - 고정자본소모)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70-2016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02-759-4372)
데이터3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에너지원별 발전비율(국가주요지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unify/idx-info.do?idxCd=4292
이용통계	에너지수급통계
자료수집방법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출,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고한 자료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1-2018
통계생산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052-714-2191)
데이터4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산식	-
측정단위	백만 세제곱미터(m ³)/년
세분화	-
출처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e-나라지표), 환경부 상수도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9
이용통계	상수도통계
자료수집방법	연간취수량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등의 수원에서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취수한 수량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6-2018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수도정책과
각주설명	*관개농업 인공적으로 물 관리시설을 만들어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의 농업

6.4.2 물 스트레스 수준 :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지표번호	6.4.2
지표명	물 스트레스 수준 :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Level of water stress: freshwater withdrawal as a proportion of available freshwater resources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water-use efficiency across all sectors and ensure sustainable withdrawals and supply of freshwater to address water scarcity and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water scarcit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물 스트레스 수준이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로서 환경적 요구 수량을 고려한 이후 모든 주요 부문에서의 담수 취수 대비 전체 재생가능한 담수 자원의 비율(환경유지용수를 제외한 전체 담수 수자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끌어 쓰는지 비율(%))을 뜻함. 주요 부문은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기준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공업, 전기, 서비스 등을 포함함. 해당 지표는 물 취수 강도로도 표현할 수 있음.
지표의의	특정 국가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자원이 이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국가가 수자원에 가하는 압력을 의미하고, 따라서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내포하고 있음. 다시 말해, 지표 값이 증가하면 물 스트레스의 증가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발전에 대해 잠재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본 지표를 통해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담수의 취수 및 공급"에 관한 진행사항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국가 별로 효과적인 공급과 수요관리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지표해설	물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물 이용과 이용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 증가하는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자원이 이미 활용된 정도와 효율적인 수요와 공급 관리 정책에 신호를 제공할 수 있음. 물의 취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자원 중 하나인 수자원에 대한 압박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관련된 이슈를 부분적으로만 다룸. 다차원적인 물 관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물 수요관리, 물 이용과 관련한 행동 변화, 적절한 인프라의 이용가능성, 특히 인구 성장, 경제 성장과 관련한 물 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증가에 대한 측정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보완하여야 함.
지표대응	재생가능한 전체 담수자원(TRWR)은 장기간 유역 평균유량과 지하수 유출량으로 정의되어있는데, 연평균 유량 대신에 수원별(하천수, 지하수, 댐) 공급능력으로 살펴보기에는 어려움. 또한 환경적 요구수량(Env.)은 우리나라에도 개념은 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 취수된 전체담수량(TWW)은 현재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취수량' 통계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및 개인 관정 등에서 취수한 수량과 농업용수도에서 취수한 수량은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글로벌 데이터 대응을 위해서는 지표 산출에 필요한 세 수치 모두 신규항목 개발 및 조사대상의 확장이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물 스트레스 수준 : 가용한 담수 중 취수 비율(Level of water stress: freshwater withdrawal as a proportion of available freshwater resources (%))
	산식	물 스트레스(%) = 취수된 전체 담수량 / (재생가능한 전체 담수 자원 - 환경적 요구수량)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차원에서 수자원부와 통계청이 수집한 품질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2000-2014 수록)
	공표주기	1년(한국 데이터 기준)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nr/water/aquastat/data/query/index.html?lang=en
국내	데이터1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산식	-
	측정단위	백만 세제곱미터(m³)/년
	세분화	-
	출처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e-나라지표), 환경부 상수도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9
	이용통계	상수도통계
	자료수집방법	연간취수량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등의 수원에서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취수한 수량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6-2018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수도정책과



데이터2	용도별 이용량 및 수원별 공급능력
산식	-
측정단위	억 세제곱미터(m ³), 퍼센트(%)
세분화	-
출처	용도별 이용량 및 수원별 공급능력(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MLTM_982&vw_cd=MT_ZTITLE&list_id=T_1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수자원현황
자료수집방법	행정집계 (관련부처,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국토교통부) 수자원이용현황은 댐, 하천수, 지하수 등의 모든 수자원을 이용한 양임 생활용수 이용량의 상수도 미 급수지역 이용량은 임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추정하는 자료로 정확한 파악에 는 한계가 있음 유지용수는 갈수량, 염해방지유량, 수질보전유량 등으로 산정됨
공표주기	부정기
시계열	2003, 2011, 2016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각주설명	*취수 상수도와 농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필요한 수량을 받아들이는 것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지표번호	6.5.1
지표명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Degree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By 2030, impl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t all levels, including through transboundary cooperation as appropriat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7월
지표정의	<p>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란 “핵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평한 방식으로 경제 및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관련 자원의 협력적 개발 및 관리를 증진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지표는 통합수자원관리의 진행 정도를 0(아직 시행되지 않음)부터 100(충분히 시행됨) 사이의 퍼센트 값으로 나타냄. 통합수자원관리의 개념은 네 가지 주요 요소를 가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에 대한 권리부여(enabling environment): 이는 통합수자원관리에 관한 '환경에 대한 권리부여'를 만들어내는 정책, 법, 계획, 전략을 포괄함 2. 제도: 통합수자원관리의 시행을 지지하는 정치, 사회, 경제, 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을 포함 3. 관리 도구: 의사결정자와 사용자가 대안적인 수단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도구와 활동 4. 자금조달: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이용되는 예산과 자금조달
지표의의	<p>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접근은 전 세계의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관리와 상충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전통적으로 단편화된 접근법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으며 물 관리에 대해 좀 더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함.</p> <p>해당 지표는 통합수자원관리의 직접적인 진전수준을 측정하여 목표에 대한 특정 국가의 진척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합수자원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음. 지표의 이해와 비교를 돕기 위해 지표의 값들은 설문 문항과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음. 측정의 주요 대상은 통합 수자원관리(IWRM)와 관련한 환경, 제도, 관리도구, 재정 등 4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시행 정도로서 설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구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낮음(0 ~ 9.9) · 낮음(10 ~ 29.9) · 다소 낮음(30 ~ 49.9) · 다소 높음(50 ~ 69.9) · 높음(70 ~ 89.9) · 매우 높음(90 ~ 100)
지표해설	한국의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는 68%로서, 범주로는 다소 높음의 정도에 위치함. OECD 기준으로는 22위이며, 세계 36위를 차지하여, 전 세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OECD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지표대응	자료가 정기적으로 작성된다기보다 임시적으로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 자료의 통계 작성과 전달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Degree of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mplementation (%))
	산식	각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수준에서 네 개의 주요 요소와 관련된 32개의 설문조사에 응답하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음(0), 낮음(20), 다소 낮음(40), 다소 높음(60), 높음(80), 매우 높음(100)의 주요 범주를 갖는 10점 단위 100점 만점의 평가 점수를 받게 됨. 각 평점들은 요소 내에서 가중치 없이 계산되며, 최종적으로는 0점부터 100점 사이의 퍼센트로 표현되는 지표 점수로 산출됨. 설문에 대한 국가 별 응답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공되어 정부 부처, 비정부단체 등의 투명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음.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수록, 현재 2020년 데이터 수집 중)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iwrmdataportal.unepdhi.org/countrydatabase



데이터2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 범주별 국가 비율
산식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 범주별 국가 비율 = $\frac{\text{국가 범주 내 이행 정도 등급 별 국가의 수}}{\text{국가 범주 내 국가의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
시계열	2018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지역별(대륙 등), 등급별(매우 낮음, 낮음, 다소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지표소관기구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출처	http://iwrmdataportal.unepdhi.org/country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지표번호	6.5.2
지표명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Proportion of transboundary basin area with an operational arrangement for water cooperation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 이행
	By 2030, impl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t all levels, including through transboundary cooperation as appropriat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11월
지표정의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은 한 국가 내에서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의 비율로 정의됨. 이는 국가의 접경 지표수 유역과 접경 대수층(즉, '접경 지역')의 표면적 중 운영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과 해당 면적을 해당 국가의 모든 접경 지역(지표수와 대수층을 포함)의 총 면적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함.
지표의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공유 유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월경성*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세계의 상당부분 수자원은 공유되고 있음. 현재까지 592개의 접경 대수층이 확인되었고, 호수와 강을 포함한 접경 지표수 유역은 지구 표면의 절반을 차지하며, 담수의 60%로 추정됨. 세계 인구의 약 40%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의해 공유된 접경 지표수 유역에 거주하며, 해당 국가 인구 기준으로는 90% 이상이 해당 유역에 거주함. 물 자원의 개발은 잠재적인 해안 공동소유권 국가를 포함하여 접경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표수와 지하수의 활용은 상호 연결된 다른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과도한 물 사용, 유량 조절, 오염 등은 해안 공동소유권 국가들의 개발 욕구를 침해하는 위험을 지고, 따라서 접경 지역의 협력이 필수적임.
지표해설	해당 지표를 산출할 수 없는(접경 지표수와 접경 대수층이 없음) 국가를 제외하고, 총 153개 국가 중 자료를 제출한 67개국의 물 협력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은 59.16%임. OECD 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모든 접경 지역이 운영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다른 대륙, 혹은 지역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음. 특히 한국은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비율이 0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지표의 정의가 모호하여 산출결과물이 분명하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한강을 공유하고 있음. River Basins Technical Report(TWAP River Basins Technical Report): "Basins by cluster group"에서는 한강이 6번째 클러스터 그룹으로 평가됨. 6번째 클러스터 그룹의 유역은 1인당 Water Availability가 낮고 영양분 오염과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이 높으며 수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독립성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음. 한강이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고서에서는 평가함. 한강유역 통합관리시스템 있음(http://river.nier.go.kr/hbomis/). 하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관리만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표에서 요구하는 월경성 물협력을 위한 운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글로벌	데이터	수자원협력 운영체계를 갖춘 국가간 대수층(강, 호수 등) 비율(Proportion of transboundary basins (river and lake basins and aquifers) with an operational arrangement for water cooperation)
	산식	$\frac{\text{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중 운영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text{국가 내 모든 접경 지역의 총 면적}}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1단계: 접경 지표수와 접경 대수층을 정의. 2단계: GIS를 통해 각 접경 지역의 표면적과 그 총합을 계산 3단계: 물 관리에 대한 국경 간 협력을 검토하고, 협력이 적용되는 접경 지역을 확인 4단계: 기존 물관리 업무협조 업무협약 중 어느 것이 운영 가능한지 확인 5단계: 산식에 따라 지숫값을 도출
	시계열	2017 또는 2018(한국 데이터 2017 수록)
	공표주기	3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출처	http://www.unece.org/water/transboundary_water_cooperation_reporting.html
	국내	데이터
각주설명	*월경성	초국가적, 즉 국가간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지표번호	6.6.1
지표명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Change in the extent of water-related ecosystems over time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 By 2020 protect and restore water-related ecosystems, including mountains, forests, wetlands, rivers, aquifers and lak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5월
지표정의	<p>본 지표는 1) 식물성 습지, 2) 강과 지류, 3) 호수, 4) 대수층, 5) 인공 수역 등 5개 범주로 구분하며, 본 지표의 목적상 위 5가지 생태계 범주 용어만을 고려함. 식물성 습지란 람사르 협약의 정의를 참조하여 늪, 소택지, 습지, 이탄지*, 논, 맹그로브 숲 등을 포함하며, 인공 수역은 저수지, 운하, 항만, 광산, 채석장과 같은 인간이 만든 수역을 의미함.</p> <p>지표의 구성요소 모니터링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출처와 방법론을 포착하기 위해 5개의 하위 지표로 구분됨. 원 자료는 지상의 시료 채취와 관측 자료의 조합을 통해 얻어짐. 생태계의 형태와 측정 정도의 형태에 따라 자료 수집 방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다음의 두 가지 수준의 모니터링 접근법이 제안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1: 2개의 하위지표는 각 국가 자체 방법론과 데이터 셋에 대해 검증할 지구 관찰의 전 지구적 가용 데이터에 기반한 하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지표1: 물 관련 생태계의 공간 범위 · 하위지표2: 호수 및 인공 수역의 수질 - 수준 2: 3개 하위지표를 통해 국가가 수집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지표3: 강 및 강 유역의 물 양 · 하위지표4: SDG 지표 6.3.2에 보고된 수질 · 하위지표5: 대수층 내 지하수량
지표의의	<p>지표 6.6.1은 시간에 따라 생태계가 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며, 이는 목표 6.6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p> <p>6.6.1의 다양한 요소들은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상을 수립하는 데 중요함. 그러나 2017년 파일럿 조사를 이후로 국가 내에 지표 6.6.1을 지원하는 지표가 부재함을 확인하여 국가 자료와 위성 이미지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제안됨. 모든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과 시간적 수준에서 높은 품질의 국제 데이터 셋을 구성함.</p> <p>특히 습지의 경우 습지의 자원을 보존하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조약인 람사르 습지 협약에 의해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 람사르 협약 상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국가들은 국가 보고서에 습지 “규모”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기로 함.</p>
지표해설	<p>영구적, 혹은 영구적일 것으로 보이는 수역의 전체 땅 면적에 대한 비율은 2005년 전 세계 2.15%에서 2018년 2.18%로 증가하여, 수역의 총 면적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남. 해당 수치는 국가의 지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체로 일정 정도의 변동 폭을 가지되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반면 한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p>
지표대응	<p>현재 국내 통계상에서 연안습지(갯벌)의 면적, 유역 면적, 산림 면적 등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음.</p> <p>습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정의하는 것이 애매하고, 연안습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함. 이 지표는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가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함.</p> <p>추가적으로 이 지표는 Living Planet Index 방법론으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구축 및 새로운 조사가 요구됨: 담수시스템 크기 변화, 유량수심의 변화, 부영양화**, 염도·기타수질 변수, 수 생태계 상태(습지 건강성, 식생 등), 위험 지도 등</p>

글로벌	데이터	수역 (Water body extent (permanent and maybe permanent) (% of total land area))
	산식	다섯 가지의 하위 지표들은 각각 계산되므로, 지표 6.6.1은 5개의 개별 방법론으로 이루어짐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p>하위지표1, 2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국가와 공유됨. 하위지표3, 4, 5는 국가 내에서 수집되며 검토 및 보증 확인을 위해 관리기관에 제출됨</p> <p>하위지표1: 물 관련 생태계의 공간 범위</p> $\text{공간 범위의 변화 비율} = \frac{(\beta - \gamma)}{\beta} \times 100$ <p>여기서, β = 2001-2005년 사이의 국가 공간 범위의 평균 여기서, γ = 최근 5년 기간 동안의 국가 공간 범위의 평균</p>

		<p>하위지표2: 호수 및 인공 수역의 수질 전 세계 호수 내 엽록소(Chlorophyll a, Chl)와 총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TS)의 데이터의 집합. 각 지표는 전체 호수가 포착된 위성사진의 1년 평균값을 통해 도출해냄.</p> <p>하위지표3: 강 및 강 유역의 물 양 물 양의 변화 비율 = $\frac{(\beta - \gamma)}{\beta} \times 100$ 여기서, β = 지난 5년 참고 배출량 여기서, γ = 관심 5년 기간 평균 배출량</p> <p>하위지표4: SDG 지표 6.3.2에 보고된 수질 본 지표는 6.3.2에 설명되어 있음.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역의 시간에 따른 변화 비율을 나타냄.</p> <p>하위지표5: 대수층 내 지하수량 지하수량의 변화 비율 = $\frac{(\beta - \gamma)}{\beta} \times 100$ 여기서, β = 지난 5년 참고 지하수 수위 여기서, γ = 관심 5년 기간 평균 지하수 수위</p>
	시계열	2005~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sdg661.app/downloads
국내	데이터1	산림-국유림 면적 및 임목축적
	산식	-
	측정단위	백만 세제곱미터(m ³), 천 헥타르(ha)
	세분화	소유구분(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00&board_cd=INDX_001
	이용통계	산림기본통계
	자료수집방법	행정 및 조사통계로써 산림과학원에서 10년 단위로 조사하는 전국산림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도 중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작성하는 행정통계자료(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의 증감 상태를 가감하여 작성
	공표주기	2010년 이후 5년 주기(기존 1년)
	시계열	2005~2015
	통계생산기관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042-481-4167)
	데이터2	수계별 유역면적
	산식	유역의 유출에 기여하는 분수계의 면적의 총합
	측정단위	킬로미터제곱(km ²)
	세분화	북한면적 포함 여부별
	출처	http://www.river.go.kr/WebForm/sub_03/sub03_06.aspx
	이용통계	한국하천일람
	자료수집방법	각 하천관리청이 제출하는 자료를 수집
	공표주기	부정기
	시계열	2001~2018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30)
	데이터3	연안습지면적현황
	산식	-
	측정단위	킬로미터제곱(km ²)
	세분화	지역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1362&conn_path=I3
	이용통계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면적현황
자료수집방법	행정조사	
공표주기	5년	
시계열	1987~2018	
통계생산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4)	
각주설명	*이탄지	해안습지, 배후습지 등에서 수생식물, 정수식물의 유해가 미분해되거나 약간 분해된 상태로 두껍게 퇴적된 토지
	**부영양화	하천과 호수에 유기물과 영양소가 들어와 물 속의 영양분이 많아지는 것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지표번호	6.a.1
지표명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Amount of water- and sanitation-rel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at is part of a government-coordinated spending plan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개도국가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을 확대 By 2030,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water- and sanitation-related activities and programmes, including water harvesting, desalination, water efficiency, wastewater treatment, recycling and reuse technolog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금액은 정부 예산에 포함된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의 총 지출액의 비율로 정의됨. "국제 협력과 역량 개발 지원"은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무상 혹은 차관 형태의 원조를 의미함. "개도국"은 공적개발원조를 받기에 적합한 국가들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 제한함. 식수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은 물 공급, 위생 및 청결(목표 6.1, 6.2), 폐수와 수질(6.3), 물 효율성(6.4), 수자원관리(6.5), 물 관련 생태계(6.6)에 관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포함함. 목표 6.a 문구에 의하면 이 지표는 취수, 탈염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이용 기술에 대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포함함.
지표의의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은 재정적 형태의 "국제 협력과 역량 개발 지원"에 적합한 대리변수임. 개도국에 대한 물과 위생 관련 ODA 지출을 점점 늘려가고, 그 기여주체가 정부 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ODA가 정부 예산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지표해설	<p>정부 예산 중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은 유엔-물 국제 위생 및 식수분석 및 평가보고서(UN-Water Glob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Sanitation and Drinking-Water, GLAAS)의 서버이를 통해 획득할 예정이며, 해당 금액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총 ODA 규모만을 제시함.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되어 제 공될 예정임.</p> $\text{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의 비율} = \frac{\text{정부 예산 중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text{전체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 <p>본 지표의 낮은 값(0%에 가까움)은 국제 기부자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물과 위생에 대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국가 정부의 권한 외부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높은 값(100%에 가까움)은 기부자들이 국가 정부, 국가의 정책 및 물과 위생에 대한 계획에 잘 조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됨.</p>
지표대응	현재 국내 통계 상에서 식수공급 및 위생 관련 ODA 지출액에 대한 현황은 있으나, 메타데이터와 국제통계를 검토해 볼 때 '수원국'의 차원에서 '정부 예산에 포함된 물 및 위생관련 공적개발원조 총 지출액의 비율'로 파악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지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다만, ODA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CRS)에 제공하여 SDG 지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물과 위생분야 총 ODA 규모(수원국별)(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산식	각 수혜국에 대한 활동 수준에서 집계된 원조금 중 물과 위생분야 관련 원조금의 총 합
	측정단위	달러(Constant USD)
	자료수집방법	전체 물과 위생분야 관련 ODA 금액은 OECD 공여국보고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를 통해 수집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monitoring/investments/glaas/en/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탈염화	토양 속에 집적된 가용성 염류가 토층 내의 아래쪽층으로의 수분이동에 의해 제거되는 것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지표번호	6.b.1
지표명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Proportion of local administrative units with established and operational policies and procedures for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water and sanitation management
목표명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세부목표명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Support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improving water and sanitation manage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해당 지표는 개인과 커뮤니티가 물과 위생관리의 방향성과 결정에 대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메커니즘을 가진 지방행정단위의 비율을 측정함.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해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은 현재 농촌 식수공급 기획프로그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지역)의 참여를 위한 절차가 법과 정책에 명시된 국가의 비율과 수자원 기획 및 관리에서 서비스 이용자(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절차가 법과 정책에 명시된 국가의 비율을 통해 측정됨. 여기서 지방행정단위(local administrative units)는 겹쳐지지 않는 하위 지구, 지자체, 당국, 주민공동체, 또는 그 외에 정부에 의해 규정되는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단위를 의미하고 식수 및 위생관리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참여에 관한 정책과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 for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water and sanitation management)는 식수 및 위생 활동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 메커니즘을 의미함.
지표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stakeholder participation)는 장기적인 식수 및 위생관리수단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임.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정책과 법률의 과정을 정의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곳을 포함하여 모든 커뮤니티의 요구가 충족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며,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시킴. 본 지표의 낮은 값은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높은 값은 강한 주인의식과 물과 위생관리의 지속가능한 실천과 관리의 높은 확률을 포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의미함.
지표해설	해당 지표는 국가별로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있는지,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해당 목표를 달성한 국가의 비율을 제시함. 현재 유엔-물 국제 위생 및 식수 분석 및 평가 보고서(UN-Water Glob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Sanitation and Drinking-water, GLAAS)는 총 94개국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에 대한 맥락은 국가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한국의 데이터는 자료에서 제외되어 계산되고 있어, 해당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지표대응	메타데이터 상에서 제시된 '물 관리 정책에서의 지역사회 참여'를 정책결정과정에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통계를 어떻게 구축해야하는지 검토하여 관련 조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국제지표 자료는 GLAAS와 SDG 지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1	농촌 식수공급 기획프로그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지역)의 참여를 위한 절차가 법과 정책에 명시된 국가의 비율(Proportion of countries with clearly defined procedures in law or policy for participation by service users/communities in planning program in rural drinking-water supply)
	산식	관심 지역 내 농촌 식수공급 기획프로그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지역)의 참여를 위한 절차가 법과 정책에 명시된 국가의 수를 관심 지역 내 자료를 제출한 전체 국가로 나눈 후 100을 곱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GLASS 설문을 통해 "계획 프로그램에 서비스 이용자(즉, 이해당사자)와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법과 정책상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격년으로 수집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지역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glaas/en/	



데이터2	수자원기획 및 관리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절차가 법과 정책에 명시된 국가의 비율 (Proportion of countries with clearly defined procedures in law or policy for participation by service users/communities in planning program in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산식	관심 지역 내 수자원기획 및 관리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절차가 법과 정책에 명시된 국가의 수를 관심 지역 내 자료를 제출한 전체 국가로 나눈 후 100을 곱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물 국제 위생 및 식수 분석 및 평가 보고서(UN-Water Global Analysis and Assessment of Sanitation and Drinking-Water, GLAAS) 설문을 통해 "계획 프로그램에 서비스 이용자(즉, 이해당사자)와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법과 정책 상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지역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who.int/water_sanitation_health/glaas/en/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지표번호	7.1.1
지표명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electricity
목표명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By 2030, ensure universal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energy servi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7월
지표정의	총인구 중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지표의의	전기접근성은 지속가능한 발전 상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전기 접근을 통해 가구 소득 증대 활동을 촉진하고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범위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가짐. 동일한 에너지 접근이라는 글로벌 목표 하에서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명확한 지표 값을 얻기 위해서, 접근률은 지역 전기 공급자, 태양광, 소규모그리드, 독립형 시스템일 경우에만 고려됨. 이 시나리오에서 전기 접근은 고려된 지역에서 일정한 전기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가리킴.
지표해설	세계은행의 글로벌 전기화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조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표적인 가계조사 데이터를 수집함. 우리나라의 전기 접근성을 갖고 있는 인구비율은 1990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100%를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한국전력통계 상에서 '고객호수(Number of Customers)'는 전기요금에 청구된 전기사용계약 구좌수로, 종합 계약아파트와 같이 고압 아파트 단지 전체를 1개의 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고객 호수는 1호로 계상되는 등 직접 대응시 고려할 사항은 있지만 전기접근성 여부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함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국의 전기접근성 지표가 구축되어 있어 이 지표의 산식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하고, SDG 지표 대응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전기접근성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electricity)
	산식	$(\text{전기접근성이 있는 인구} / \text{총인구}) \times 100$ * "0%"는 전기접근성이 있는 인구가 없음을 뜻하고 "100%"는 모든 인구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음을 의미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은행이 국가별 인구 및 가계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제공하고 있음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도시, 농촌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www.worldbank.org
국내	데이터	한국전력공사 고객호수추이(주택용 전력)
	산식	한국전력 고객호수
	측정단위	호
	세분화	-
	출처	https://kosis.kr
	이용통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자료수집방법	한국전력공사 자체 집계 이후 전력통계시스템 이용 데이터 가공 및 편집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61-2019
통계생산기관	한국전력공사 전력시장처 시장지원실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지표번호	7.1.2
지표명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primary reliance on clean fuels and technology
목표명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By 2030, ensure universal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energy servi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가구 단위에서 청정 연료와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로서 요리, 난방, 그리고 조명을 위해 청정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인구를 요리, 난방, 그리고 조명을 사용하는 전체 인구로 나누어 계산되며 퍼센트로 표시됨 "청정"이라는 개념은 '실내 공기질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표준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배출량 목표 및 구체적 연료 권고안(즉, 가공되지 않은 석탄이나 등유를 쓰지 않음)으로 정의함.
지표의의	조리, 조명과 난방은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들에 걸쳐 가정 에너지 이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조리과 난방에 있어서 고품 연료(뿔갈, 숯,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거나 비효율적인 기술(뿔갈이 없는 난로불, 스토브, 실내난방기 또는 램프 등)과 함께 경우에 의존함. 이 같은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조리과정에서 이용하는 결과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연간 4백만 명 사망에 이룸. 이러한 보건상의 부정적 영향은 모든 가정용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청정 연료와 기술의 채택 혹은 진보된 조리 스토브(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조리 스토브)의 채택, 그리고 이러한 조리 기구와 청정 연료들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엄격한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음. 인간개발 이슈로서 청정하고 안전한 가정 내 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은 조리, 난방, 조명에 대한 전기와 청정 연료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지표해설	요리 연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House Energy Database를 통해 157개국의 정보가 제공됨. 조명 연료와 난방 연료의 경우 WHO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76개국 16개국의 정보 제공됨.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은 "95% 이상"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 측정 지표가 공개된 2000년부터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국내 통계에서는 에너지 총조사, 인구 총조사에서 난방과 조리과정에 쓰이는 에너지원 정보가 나와 있음. 인구 총조사에서는 가정부문의 난방시설 이용 자료가 있고, 에너지 총조사에서는 가정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량, 취사에너지의 변화추이가 나와 있음. 그렇지만 난방시설별 가구통계는 10% 표본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전수조사가 아님. 국내가구의 대부분(95% 이상)이 청정연료를 취사 및 난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 또는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다만, 이것이 정책적 이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청정 연료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primary reliance on clean fuels)
	산식	요리, 난방, 그리고 조명을 위해 청정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인구/ 요리, 난방 그리고 조명을 사용하는 전체인구 ×100 특정 국가 및 연도의 총 도시 및 농촌 인구의 "청정 연료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추정치는 단일 다변량 계층 모델을 사용하여 구함. 이 모델은 가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1. 처리되지 않은 바이오매스(예: 목재), 2. 숯, 3. 석탄, 4. 등유, 5. 가스 연료(예: LPG), 6. 전기 등 6가지 특정 연료 유형과 기타 청정 연료(예: 알코올)를 포함한 최종 범주에 대한 주요 의존도를 공동으로 추정한 후, 청정 연료 및 기술에 대한 일차 의존도가 있는 인구의 비율 추정치(SDG 지표 7.1.2)는 모델에서 청정 연료 유형에 대한 일차 의존도 추정치를 통합하여 도출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요리 연료의 경우 WHO Global House Energy Database를 통해 157개국의 정보가 제공. 조명 연료와 난방 연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76개국 16개국의 정보 제공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apps.who.int/gho/data/node.main.SDGFUELS712?lang=en	



국내	데이터	가정부문 원별 소비
	산식	(요리, 난방, 그리고 조명을 위해 청정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인구 / 요리, 난방, 그리고 조명을 사용하는 전체 인구) X 100
	측정단위	연탄(장), 등유(리터(L)), 중질중유(리터(L)), 프로판(킬로그램(kg)), 부탄(킬로그램(kg)), 도시가스(밀리줄(MJ)), 전력(킬로와트(kWh)), 지역난방(메가칼로리(Mcal), 제곱미터(m ²)), 임산연료(킬로그램(kg))
	세분화	성, 연령, 가구원수, 소득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이용통계	에너지총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가정부문별 연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온수, 임산연료에 대한 소비물량 및 소비열량에 대한 정보)
	공표주기	3년
	시계열	1995~2016
	통계생산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지표번호	7.2.1
지표명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Renewable energy share in the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목표명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상당히 증가 By 2030, increase substantially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global energy mix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전체 에너지 대비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율 *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수력, 고체 생물연료, 풍력, 태양에너지, 액체 생물연료, 생물가스, 지열, 바다 및 폐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포함
지표의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들은 전 세계 등지의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기후변화를 막는 전략의 주요한 요소임.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재생가능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미래의 이용가능성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 정의들은 태양광, 풍력, 해양, 수력, 지열 자원, 바이오 에너지 등을 포함함. 무엇보다도 이 지표는 항상 충분히 이용될 수 없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량보다 실제로 소비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양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의 상당한 증가"라는 세부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음.
지표해설	이 지표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에너지 통계에 기초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에너지 통계 방법론은 유엔 통계 위원회가 채택한 "에너지 통계에 대한 국제 권고안"(IRES)에 기술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0.7에서 시작하여 2018년 2.84로 꾸준한 상승 추세에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보다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지표대응	한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에너지와 다른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수소, 연료전지, 부생가스*, 대수력,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 등은 한국에서 신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구분되어 통계가 생산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Renewable energy share in the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산식	(모든 재생 에너지원 / 최종 에너지 소비량)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균형 및 UN 에너지 통계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현존 데이터 출처 사이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연간 총 및 재생 에너지 소비량을 수집 가능
	시계열	2000-2017(한국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에너지기구(IEA)(for around 150 countries), 유엔통계처(UNSD)
출처	http://wds.iea.org/wds/pdf/WORLDBAL_Documentation.pdf unstats.un.org/unsd/energystats/data	
국내	데이터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산식	(재생에너지 / 최종에너지 소비) X 100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여기에 해당 현 국가통계에서 전력과 열에너지는 한전 및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양만 최종에너지소비에 포함 자가생산자가 생산한 전력과 열에너지는 생산부문 및 업종의 연료소비로 최종소비에 포함되나, 전력거래소에 판매된 자가발전은 전력으로 최종소비에 포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9&tblId=DT_F_Y170&conn_path=I3 , 에너지통계연보
	이용통계	에너지수급통계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1-2018
통계생산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각주설명	*부생가스	제품 생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 원료 외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지표번호	7.3.1
지표명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Energy intensity measured in terms of primary energy and GDP
목표명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을 두 배 증가 By 2030, double the global rate of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경제 생산 단가 당 경제에 공급되는 에너지
지표의의	에너지 집약도는 하나의 단위의 경제적 산출이 생산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지를 나타내는 표시임. 이것은 경제가 한 단위의 경제적 산출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지를 알려줌 에너지 집약도는 해당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에너지 집약도가 낮을수록 에너지의 효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지표해설	2000년 한국의 에너지 집약도는 8.07이며 2017년 기준 6.39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 수치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지표대응	지표의 정의가 명확하고 의미에 부합하는 에너지원단위라는 국내통계가 통용되고 있지만 국내 1차 에너지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 1차 에너지 통계의 생성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1차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 level of primary energy)
	산식	국제 에너지 통계 권고(IRES)에서 정의한 총 에너지 공급량은 ((생산) + (총 수입) - (국제 해양 및 항공 병커 양의 축적 변화))로 계산 국내총생산(GDP): 경제 생산량 척도이며, 국제 비교를 위해 GDP는 구매력 평가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측정
	측정단위	mega-joules/USD
	자료수집방법	국제에너지기구(IEA)와 UN이 모든 국가로부터 연간 기준의 총 에너지 공급 데이터를 제공받음
	시계열	2000-2017 (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에너지통계기구(IEA), 유엔통계처(UNSD)
출처	http://wds.iea.org/wds/pdf/WORLDBAL_Documentation.pdf unstats.un.org/unsd/energystats/data/	
국내	데이터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
	산식	1차 에너지소비량을 연간 GDP로 나누어 산출
	측정단위	toe/백만원, toe/천 달러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9&tblId=DT_F_Y110&vw_cd=MT_ZTITLE&list_id=339_33901_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에너지수급통계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1-2018
통계생산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지표번호	7.a.1
지표명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clea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luding in hybrid systems
목표명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By 2030,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acilitate access to clea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includ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advanced and cleaner fossil-fuel technology, and promote investment in energy infrastructure and clean energy technolog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4월
지표정의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명단에 있는 국가가 수령한 관련 자금의 흐름으로, 여기서 자금이란, 외국 정부 및 다국적 기관으로부터 청정 에너지 연구 개발 및 재생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공식 대출, 보조금 및 지분 투자로 정의됨.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보고시스템(CRS)상의 다음과 같은 섹터 코드를 포함함. 23210 에너지 생성, 재생 가능 소스 / 23220 수력 발전소 / 23230 태양 에너지 / 23240 풍력 에너지 / 23250 해양 에너지 / 23260 지열 에너지 / 23270- 바이오연료 화력발전소
지표의의	개도국으로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및 기타공적자금(OOF)의 흐름은 기부자가 개도국에 재생에너지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재정 노력(수출 신용 제외)을 정량화할 수 있음. 에너지 접근은 많은 개도국에서 주요한 개발 제약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기반에서 출발하는 한편, 이러한 국가들 중 많은 나라에서 향후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개도국이 적절한 기술과 전문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정 및 재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제공됨.
지표해설	OECD 국가 중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등이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지원을 받고 있음.
지표대응	현재 지표 대응을 위하여 참고할 메타데이터 내용이 없고 공여국으로서 ODA 및 민간투자를 측정하여야 함.

글로벌	데이터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n support of clea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luding in hybrid systems (millions of constant 2016 United States dollars)
	산식	-
	측정단위	100만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OECD의 경우, 개별국가의 담당 기관이 OECD에 보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경우, 직접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집
	시계열	2005-2018 (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OECD,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출처	http://www.oecd.org/dac/stats/methodology.htm https://unstats.un.org/unsd/dnss/gp/fundprinciples.aspx	
	국내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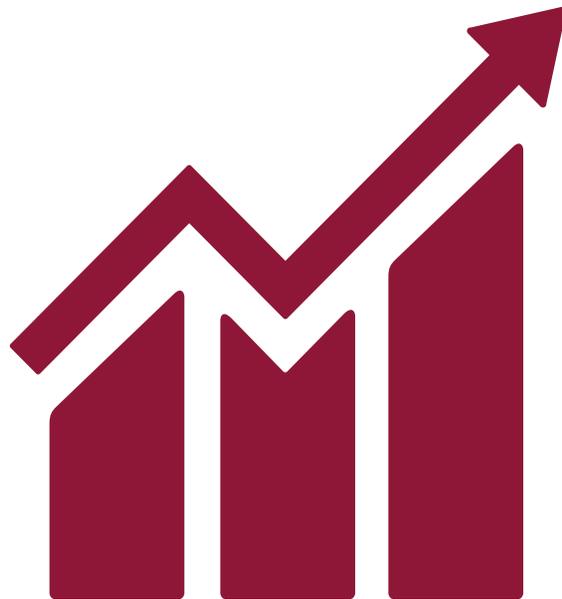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지표번호	7.b.1 (=12.a.1)
지표명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Installed renewable energy- generating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Watts per capita)
목표명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By 2030, expand infrastructure and upgrade technology for supplying modern and sustainable energy services for all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programmes of suppor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05월
지표정의	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소의 설치 용량을 국가 전체 인구로 나눈 값. 용량은 연말에 설치된 순수 최대 전기 용량으로 정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지침에서 정의하는데 이에 따르면 수력 발전, 해양 에너지(해양, 조수 및 파력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광전압 및 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지열 에너지가 포함됨.
지표의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현재 사용량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가용성을 고갈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속한 에너지 공급 형태라고 간주함. 전기에 대한 이 지표의 초점은 현대적인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목표를 강조함. 특히 전력 수요가 많고 가용성이 제약되는 개도국과 관련이 깊음. 재생 에너지에 대한 초점은 재생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특히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전기 발전 하위 분야)이 일반적으로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함. 재생 가능 전력 용량을 인구로 나누는 데이터는 용량 데이터를 측정하여 국가 간 수요의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정보이며 한 국가에서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수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GDP보다는 인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제안됨. 이 지표는 지표 7.1.1과 7.2의 보완지표로서 전기 접근성과 관련하여,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이용 가능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전기 접속 인구 비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개도국 지표로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지표번호	8.1.1
지표명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Annual growth rate of real GDP per capita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을 유지 Sustain per capita economic growth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and, in particular, at least 7 per cent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per annum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연속한 두 해 사이의 1인당 실질 GDP 변화의 백분율
지표의의	1인당 실질 GDP는 특정 국가 거주자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임. 따라서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은 한 국가에서 평균적인 삶의 수준 개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지표해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 평균이 3%를 넘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 1.5% 수준으로 낮아짐. 한국 역시 2008년 이후 2.5% 수준으로 낮아짐.
지표대응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는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제공함.

글로벌	데이터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Annual growth rate of real GDP per capita)
	산식	$t+1$ 년의 GDP 연 성장률 = $[G(t+1) - G(t)] \times 100 / G(t)$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 국가에서 자료 수집
	시계열	2000-2018 (한국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출처	https://unstats.un.org/unsd/snaama/Index
국내	데이터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Annual growth rate of real GDP per capita)
	산식	$t+1$ 년의 GDP 연 성장률 = $[G(t+1) - G(t)] \times 100 / G(t)$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용통계	국민계정
	자료수집방법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에 따라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산식에 따라 추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53-2019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지표번호	8.2.1
지표명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Annual growth rate of real GDP per employed person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노동집약적 산업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Achieve higher levels of economic productivity through diversification, technological upgrading and innovation, including through a focus on high-value added and labour-intensive sector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백분율의 변화
지표의의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의 노동 생산성의 지표로서 노동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발전도, 효율성 그리고 질적 수준을 보여줌.
지표해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 평균이 2%를 넘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 1.5% 수준으로 낮아짐. 한국 역시 2008년 이전 3~4% 였으나, 이후 1.5~2% 사이로 낮아짐.
지표대응	국민계정에서 국내총생산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수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Annual growth rate of real GDP per employed person)
	산식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이하 K) = 불변가격 GDP / 전체 취업자 수 K의 성장률 = (N년의 K - N-1년의 K) / N-1년의 K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가 국가별 GDP 자료를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로부터 입수하고, 국가별 취업자수는 가구조사 자료 혹은 ILO의 TEM(Transport Equipment Manufacturing)으로부터 추출
	시계열	2000-2019(한국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19/?lang=en&segment=indicator&id=SDG_B821_NOC_RT_A
국내	데이터	국내총생산, 경제활동인구
	산식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이하 K) = 불변가격 GDP / 전체 취업자 수 K의 성장률 = (N년의 K - N-1년의 K) / N-1년의 K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경제통계시스템(국민계정),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용통계	국민계정,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수집방법	국민계정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각각 국내총생산과 취업자 수를 추출하여 산식에 따라 가공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53-2019, 1999-2020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통계청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지표번호	8.3.1
지표명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Proportion of informal employment in total employment, by sector and sex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이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Promote development-oriented policies that support productive activities, decent job creation,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encourage the formalization and growth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luding through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전체 경제에서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크기
지표의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에서 사회보장은 부족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기도 함. 또한 임금과 연금이 낮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비공식 부문에 취업함.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 같은 통계는 고용의 질은 간과한 채, 노동시장에 대해 불완전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음. 비공식 부문에 대한 통계는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데 핵심적임. 비공식 고용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 비공식 부문 기업에 고용된 자영자, 고용주,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원. 가족의 소비를 위한 생산활동을 하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된 부문에 상관없이 비공식 직업을 가진 노동자.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공식 부문에 속함. 1) 비법인 기업, 2) 시장 기업, 3) 기업 자체나 고용원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 또는 지속적인 종사자의 수가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경우
지표해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표대응	현재 한국에서 비공식 고용에 대한 국가통계는 없음.

글로벌	데이터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률(Proportion of informal employment in total employment, by sector and sex)
	산식	$(\text{비공식 고용} / \text{총 고용})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 통계에 관한 연간 설문지를 각 국가(국가 통계청, 노동부 등)에 보내 최신 연간 데이터를 수집함
	시계열	국가별로 상이(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국가별로 상이
	세분화	성, 부문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4/?lang=en&segment=indicator&id=SDG_A831_SEX_RT_A
국내	데이터명	없음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지표번호	8.4.1 (=12.2.1)
지표명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Material footprint, material footprint per capita, and material footprint per GDP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Improve progressively, through 2030, global resource efficiency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endeavour to decouple economic growth from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aking the lea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은 특정 국가의 자원에 대한 최종적인 소비가 국제적 자원 추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임. 총 물질발자국은 바이오매스, 화석 연료,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석에 대한 물질발자국의 합계임.
지표의의	소비 물질발자국은 최종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일차적인 자원 양을 나타냄. 해당 지표는 자원과 관련된 삶의 질, 혹은 경제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인당 물질발자국은 최종 소비수요에 대한 평균적인 자재 사용량을 나타냄. 국내물질소비량(DMC)과 물질발자국은 생산과 소비라는 두 측면을 다루는 지표로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수출을 위한 생산 부문이 큰 국가는 물질 소비량이 높은 반면, 생산 부문을 외국으로 이전한 국가는 물질소비량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에서 사용(소비)되는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물질소비량과 최종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가상적인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물질발자국은 함께 고려되어야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는 세계(world)지표 값 만 포함하고 있음. 해당 지표 개산을 위해서는 I-O(투입 산출) 분석에 근거한 계산이 요구되며, 다지역 투입 산출 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이 이용될 수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by type of raw material) - 1인당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 GDP당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per unit of GDP,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 원자재 수입량(RMEIM)에 국내 원자재 생산량(DE)을 더한 후, 원자재 수출량(RMEEX)을 뺀 값 - 물질발자국/총 인구 - 물질발자국/GDP
	측정단위	톤, 톤, USD 당 킬로그램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원료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8.4.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지표번호	8.4.2 (=12.2.2)
지표명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capita, and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GDP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Improve progressively, through 2030, global resource efficiency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endeavour to decouple economic growth from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aking the lea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국내물질소비량(DMC)은 물질흐름회계(MFA)의 지표로 국내소비를 위해 유입되는 물질의 양을 나타냄. 물질 흐름회계는 경제와 환경 사이의 물질대사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계정체계임.
지표의의	국내물질소비량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자원 총량으로 경제의 물질적 측면을 보여줌. 따라서 수출을 위한 생산 부문이 큰 국가는 물질소비량이 높은 반면, 생산 부문을 외국으로 이전한 국가는 물질소비량이 낮음.
지표해설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2000년부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국가가 하향세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UN 글로벌 데이터는 EUROSTAT의 MFA 가이드의 2013년 판본에 기재된 회계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자료임. 해당 지표는 공식적인 경제 통계에 근거하며 MFA 측정 방식에 맞추어서 원자료를 가공하기 위한 모델링 작업이 필요함. 한국의 국내물질소비량 추산을 위해 필요한 주요 물질의 종류는 크게 화석연료, 산업광물, 건설용 광물, 바이오매스이며, 화석연료 부문은 에너지통계연감(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광물 부문은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천일염 통계(대한염업조합), 건설용 광물 부문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와 산업총조사보고서(통계청), 바이오매스 부문은 농림통계연보(농림부), 임업통계연보(산림청), 축산물수급자료(농협중앙회), 해양수산연보(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산출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by type of raw material)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GDP당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M(\text{직접 수입된 물질재화량}) + DE(\text{국내에서 추출된 물질재화량}) - EX(\text{직접 수출된 물질재화량})$ 국내물질소비량/인구 수 국내물질소비량/GDP
	측정단위	톤, 톤, USD 당 킬로그램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지표번호	8.5.1
지표명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Average hourly earnings of employees, by sex, age, occupatio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By 2030,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women and men, including for young peopl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성별, 직업, 연령 및 장애 상태에 따른 유급 고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지표의의	임금은 고용과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임. 다양한 특성(성, 연령, 직업, 장애 상태)에 따른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는 임금에 있어서 평등이 달성되는 수준을 보여줌. 여기서 임금이란 연차휴가, 기타 유급휴가, 공휴일 등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와 함께 일한 시간 또는 작업에 대해 일정 간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 총보수임. 퇴직금, 해고수당, 연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지표해설	2018년 한국에서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남성의 68.5%이며, 2009년 64.9%에 비해 큰 개선이 없었음. 한국의 수치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임.
지표대응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성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정액급여가 제시됨.

글로벌	데이터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Average hourly earnings of employees, by sex, age, occupatio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산식	성별 임금 격차 = (시간당 남성평균임금-시간당 여성평균임금) / 시간당 남성평균임금 × 100
	측정단위	국가별 화폐단위
	자료수집방법	각 국 통계청이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수집하여 제공
	시계열	2000-2018(한국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 직업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ilostat.ilo.org/
국내	데이터명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산식	월임금총액/총근로시간
	측정단위	원
	세분화	성, 고용부문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이용통계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0-2019
통계생산기관	고용노동부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지표번호	8.5.2
지표명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Unemployment rate,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을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By 2030,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women and men, including for young peopl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지표의의	실업률은 공급된 노동력의 저활용도를 보여주는 유용한 척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고용을 창출해 줄 수 없는 경제의 무능성을 반영함. 따라서 실업률은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경제의 효율성 및 노동시장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임.
지표해설	전세계적으로 2010년대 후반 25세 이상 실업률의 경우 4% 수준인 것에 비하여, 한국은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반면 OECD 국가 중 일본은 동기간에 2% 초반까지 내려왔음. 장애여부에 따른 실업률에 대한 한국 데이터는 부재함.
지표대응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실업률은 조사되고 있으나 장애상태에 따른 실업률은 조사되고 있지 않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년주기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1	실업률(Unemployment rate, by sex and age)
	산식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선호하는 공식 국가 데이터 출처는 가구기반 노동력 조사임. 가구기반 노동력 조사가 없을 경우, 적절한 고용 모듈을 갖춘 인구 조사 및/또는 기타 유형의 가계 조사를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음
	시계열	2000-2018(한국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 직업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ilostat.ilo.org/
	데이터2	실업률(Unemployment rate, by sex and disability)
	산식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선호하는 공식 국가 데이터 출처는 가구기반 노동력 조사임. 가구기반 노동력 조사가 없을 경우, 적절한 고용 모듈을 갖춘 인구 조사 및/또는 기타 유형의 가계 조사를 사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음
	시계열	2000-2018(한국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 직업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ilostat.ilo.org/	
국내	데이터	실업률
	산식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 연령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용통계	성/연령별 실업률(시계열 보정 前 자료)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월
	시계열	2000-2017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지표번호	8.6.1
지표명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Proportion of youth (aged 15-24 year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By 2020, substantially reduce the proportion of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전체 15-24세의 청년 중에서 고용,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인구(NEET) 비율
지표의의	취업·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NEET)의 비율은 교육 제도와 직업 훈련 그리고 고용에서도 빠져있는 청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청년 실업률보다 잠재적 청년 노동시장 진입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척도임. 여기에는 취업을 포기한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나 가사노동 등으로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청년들도 포함됨.
지표해설	2005년 기준 전 세계 평균으로 남성은 13.4%, 여성은 33.6%가, 2019년에는 남성 13.9%, 여성 31.1%가 NEET에 해당함. 거의 변화 없음. 한국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표대응	지표소관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개념 합의 여부에 따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산출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성별, 연령별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Proportion of 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by sex and age)
	산식	$(\text{전체 청소년} - \text{고용된 청소년} - \text{교육 혹은 훈련 중인 청소년}) \times 100 / \text{전체 청소년}$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부가 연간 ILOST 설문지를 각 국가(통계청, 노동부 등)의 모든 관련 기관에게 최신 연간 데이터를 요청하여 획득함. 가계 기반 노동력 조사가 가장 적절하며, 없을 경우 적절한 고용 모듈을 갖춘 인구 조사 또는 기타 유형의 가계 조사를 사용할 수 있음
	시계열	2000-2019(한국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ilostat.ilo.org/resources/methods/description-youth-neet/
국내	데이터	없음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지표번호	8.7.1
지표명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Proportion and number of children aged 5-17 years engaged in child labour, by sex and age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radicate forced labour, end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and secure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ncluding recruitment and use of child soldiers, and by 2025 end child labour in all its form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지난 일주일 동안 노동에 참여한 5-17세 아동의 비율
지표의의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억 5천 2백만 명의 아동 (6,400만 명의 소녀와 8,800만 명의 소년)이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게 하는 아동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 이는 아동 인구의 거의 10%를 차지함.
지표해설	주로 개발대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노동의 특성 상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지표대응	글로벌 개념에 대응하는 아동노동인구 비율을 산출할 수 없음. 다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17세 노동 인구에 대한 데이터 접근 가능함.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12-17세에 대해 아르바이트 경험 인구 데이터 접근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경제 활동과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and household chores)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Proportion of children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by sex and age)
	산식	- (경제 활동 참여 아동 + 가사 노동 참여 아동 - 두 활동 모두 참여 아동) × 100 / 전체 아동 - (경제활동참여 아동 / 전체 아동)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노동력 조사, 국가 다목적 가구 조사, 유니세프 주관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국제노동기구지원(ILO) 지원 아동 노동 통계 정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OC), 세계은행(WB) 주관 생활 표준 측정 조사(LSMS)와 같은 가계 조사 자료가 개도국에서 아동 노동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됨
	시계열	2000-2019 (한국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국가 별로 상이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data.unicef.org
	국내	데이터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상태별)

지표번호	8.8.1
지표명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상태별) Fatal and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by sex and migrant status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및 이주근로자(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Protect labour rights and promote safe and secure working environments for all work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women migrants, and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근로자 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의 수로 각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직업상의 부상, 질병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현을 감시하고, 특정 직업, 산업, 입지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의 증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지표해설	치명적 산업 재해의 경우, 성, 그리고 이주상태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세분화 없이 통합 자료만 제공함. 한국은 2000년 10만 명 당 14.3명에서 2018년 5.1명까지 감소해옴. 그러나 여전히 2015년 기준 프랑스 2.6명, 폴란드 1.9명, 포르투갈 3.5명, 독일 1.0명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미국 5.2명(2016), 멕시코 7.5명(2017)과 비슷한 수준임. 반면 비치명적 재해의 경우 한국 데이터가 없음.
지표대응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통해 관련 통계 제공, 그러나 이주상태별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건수(Fatal occupational injuries among employees, by sex and migrant status (per 100,000 employees)) 근로자 1십만 명당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mong employees, by sex and migrant status (per 100,000 employees))
	산식	- (치명적 재해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100,000 - (비치명적 재해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100,000
	측정단위	십만 명당 명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는 연간 ILOST 설문지를 각 국가(통계청, 노동부 등)의 모든 관련 기관에 보내 데이터를 수집. 권장되는 데이터 출처는 직업상 재해 통계에 대한 국가 시스템 기록(조사 기록 및 연간 보고서, 보험 및 보상 기록, 사망 기록부)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행정 기록이며, 가계 조사(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로 보완
	시계열	2000-2018(한국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 이주 상태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ilostat.ilo.org/resources/methods/description-occupational-injuries/
국내	데이터명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
	산식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 = 사망자 × 100,000 / 전체 근로자 근로자 1십만 명당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 = (재해자 - 사망자) × 100,000 / 전체 근로자
	측정단위	십만 명당 명
	세분화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이용통계	전체 재해 현황 및 분석
	자료수집방법	행정집계
	공표주기	분기
	시계열	2001-2018
통계생산기관	고용노동부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지표번호	8.8.2
지표명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Level of national compliance of labour right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based 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textual sources and national legislation, by sex and migrant status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및 이주근로자(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촉진
	Protect labour rights and promote safe and secure working environments for all work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women migrants, and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2월
지표정의	ILO 원문 및 국가법 조항들에 의거한 각 국가별 노동권 준수 현황으로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노동권 준수가 높음을 의미함.
지표의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은 ILO의 규범적 기반임. 1998년 ILO 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이러한 기본 원칙 및 권리의 증진과 실현은 모든 ILO 회원국의 의무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관련 국제기구가 다수의 항목을 전문가의 논의에 따라 점수를 산출함.

글로벌	데이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 (성 및 이주 상태별) (Level of national compliance with labour right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based 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textual sources and national legislation)
	산식	-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국가별로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료가 수집되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코딩 및 검증 작업을 수행함
	시계열	2015-2017(한국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ilostat.ilo.org/about/standards/icls/
국내	데이터	없음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지표번호	8.9.1
지표명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Tourism direct GDP as a proportion of total GDP and in growth rate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By 2030, devise and implement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tourism that creates jobs and promotes local culture and produc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1월
지표정의	총 GDP 대비 관광분야 GDP의 비율. 관광분야의 GDP(Tourism Direct GDP)는 내부 관광소비에 대응하여 모든 산업에서 창출되는 총 부가가치(기본가격) 부분과 이 지출의 가치 내에 포함된 상품과 수입에 대한 순세액을 합한 금액임.
지표의의	이 지표에 의해 포착된 관광의 경제적 기여 가치와 그것의 증감은 관광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이 지표는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보다 포괄적인 측정을 제공하므로 국가 수준의 관광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지표해설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스페인은 2017년 11.8%, 일본은 2% 수준임.
지표대응	GDP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해야하나, 국민계정 자료에서는 관광분야가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음. 반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를 활용해서는 GDP가 아닌 관광산업의 매출액 파악 가능하며, 현재 관광위성계정 시범 작성 중임.

글로벌	데이터	총 GDP 대비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Tourism direct GDP as a proportion of total GDP)
	산식	(관광 분야 GDP / 총 GDP)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TDGDP(Tourism direct gross domestic product)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 (공식 간행물 및 공식 웹 사이트의 데이터 포함)를 국가에 보내서 자료를 수집함. 단, 국가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UNWTO는 OECD로부터 데이터를 받음
	시계열	1년
	공표주기	2008-2018 (한국 데이터 미수록)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8.10.1 (a)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인 1십만 명당 ATM의 개수

지표번호	8.10.1
지표명	(a)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인 1십만 명당 ATM의 개수 (a) Number of commercial bank branches per 100,000 adults and (b) number of automated teller machines (ATMs) per 100,000 adults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Strengthen the capacity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encourage and expand access to banking,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ATM 수
지표의의	공식적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의 경제적 삶에서 필수적임. 은행은 공식적 금융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관이고, ATM은 이를 보완함으로 이 두 지표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음. 국가별 비교를 가능토록하기 위하여 인구 10만 명 당 지점 수와 ATM수로 조정하였음.
지표해설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당 시중은행 지점의 수는 2010년, 2015년, 2018년 각각 14.6, 15.1, 14.6개로 홍보. 한국은 2008년 18.7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5.4개까지 낮아짐. 전 세계적으로 10만명 당 ATM 수는 2010년 45.3개, 2015년 64.7개, 2018년 69개로 소폭 상승 중. 한국은 2013년 288.6개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272개. 그러나 OECD내에서 가장 많음.
지표대응	시중은행 지점 수와 ATM 수가 각각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의해 별도로 관리됨. 두 자료 모두 전체 수의 형태로 제공됨으로 글로벌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10만 명 당 수로 가공해야함. 통합된 ATM 수가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과 증권으로 분리되어 제공되기에 가공하여 통합함.

글로벌	데이터	-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 (Number of commercial bank branches per 100,000 adults) - 성인 1십만 명당 ATM 수 (Number of automated teller machines (ATMs) per 100,000 adults)
	산식	- (전체 시중은행 지점 수 / 전체 인구) × 100,000 - (전체 ATM 수 / 전체 인구)
	측정단위	개
	자료수집방법	매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융접근성조사가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IMF에 보고
	시계열	2004-2017(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sk=E5DCAB7E-A5CA-4892-A6EA-598B5463A34C&slid=1460055200236	
국내	데이터명1	시중은행 지점 수
	산식	-
	측정단위	개
	세분화	-
	출처	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이용통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수집방법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정리
	공표주기	분기
	시계열	1999-2020
	통계생산기관	금융감독원
	데이터명2	ATM 수
	산식	-
	측정단위	개
	세분화	은행/증권
	출처	http://ecos.bok.or.kr/
	이용통계	지급결제통계
자료수집방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전자금융업자로 부터 한국은행이 자료 수집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9-2018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지표번호	8.10.2
지표명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Proportion of adults (15 years and older) with an account at a bank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 or with a mobile-money-service provider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Strengthen the capacity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encourage and expand access to banking,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지표의의	공식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등에 상관없이 개인이 자신의 삶, 미래,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는데 필수적 요소임. 계좌를 보유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폭 넓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임.
지표해설	전 세계적으로 2011, 2014, 2017년 동안 각각 50.6, 60, 68.5%로 상승 중. 한국 역시 동기 간에 93, 94.4, 94.9%로 점차 상승 중임.
지표대응	-

글로벌	데이터	금융 기관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계좌 보유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 (Proportion of adults (15 years and older) with an account at a financial institution or mobile-money-service provider, by sex (% of adults aged 15 years and older))
	산식	(금융기관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계좌 보유 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각의 국가에서 개인 대상 서베이를 통해 자료 수집
	시계열	3년
	공표주기	2011-2017(한국 데이터 수록)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http://www.worldbank.org/globalindex	
국내	데이터	없음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지표번호	8.a.1
지표명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Aid for Trade commitments and disbursements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포함) Increase Aid for Trade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rough the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1월
지표정의	무역원조를 위한 모든 공여국으로부터의 ODA 및 약정 금액
지표의의	개도국에 대한 ODA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OOF (Other Official Flows)는 공여국들이 무역 원조를 위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공공 노력을 정량화함.
지표해설	한국의 약정 및 지급 금액은 2006년 각각 2.2억 달러, 1.7억 달러에서 2018년 16억, 6.5억 달러까지 증가해 옴. OECD 최대 지원 국가는 일본으로 2018년 각각 125억, 74억 달러 수준임.
지표대응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ODA에 대한 수치를 제공. 그러나 약정 금액과 지불 금액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음.

글로벌	데이터	공여국별 무역원조에 대한 총 자금 흐름(지급 및 약정) (Total official flows (commitments/disbursement) for Aid for Trade, by donor countries) 수원국별 무역원조에 대한 총 자금 흐름(지급 및 약정) (Total official flows (commitments/disbursement) for Aid for Trade, by donor countries)
	산식	-
	측정단위	100만 달러 (USD)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국가원조기관 또는 외교부에서 통계를 수집하여 보고
	시계열	1년
	공표주기	2002-2018 (2002-2005년은 합산, 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세분화	지급 및 약정
	지표소관기구	OECD
국내	출처	www.oecd.org/dac/stats
	데이터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
	산식	ODA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측정단위	100만 달러
	세분화	-
	출처	www.moef.go.kr
	이용통계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자료수집방법	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2-2018	
통계생산기관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4)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지표번호	8.b.1
지표명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Existence of a developed and operationalized national strategy for youth employment, as a distinct strategy or as part of a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목표명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By 2020, develop and operationalize a global strategy for youth employment and implement the Global Jobs Pac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2월
지표정의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여부에 대한 평가 점수 0점: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 개발, 또는 채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점: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 2점: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 3점: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운용
지표의의	이 수치는 국가별 청년 고용 문제를 다루는 수준을 보여줌. 청년 고용을 위한 구조화된 전략을 공식적으로 개발, 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청년 노동 시장 과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함.
지표해설	한국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3점임.
지표대응	한국은 다수의 청년 고용 정책을 운용 중으로 임으로 3점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됨, 지표소관기구와 데이터 제공 협의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Existence of a developed and operationalized national strategy for youth employment, as a distinct strategy or as part of a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산식	-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는 2년 주기로 설문 조사를 개발 및 관리하여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국가별로 책임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 및 지원 문서 제공을 요청. 이는 매년 ILO 국가 사무소의 청년 고용 정책 개발, 채택 및 시행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와 업데이트로 보완됨
	시계열	2019년 1회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지표번호	9.1.1
지표명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Proportion of the rural population who live within 2 km of an all-season road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Develop quality, reliable, sustainable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including regional and trans-border infrastructure,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with a focus on affordable and equitable acces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2월
지표정의	한 국가의 농촌 인구 중 사계절 도로 2km 이내에 거주하는 비율
지표의의	교통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임.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지역 또는 세계 시장에 대해 접근이 제한된 소규모 농장에서 이루어짐. 제한된 교통 연결은 사회 및 행정 서비스, 특히 빈곤층 대다수가 살고 있는 시골 지역에서 접근함에 있어 중요한 제약조건이 됨. 따라서 시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많은 개도국에서 미개발된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내어 빈곤을 근절하는 열쇠임. 이 지표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방법론적 일관성, 이해의 단순성, 기본 데이터의 생성 및 집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운영 관련성 등 4가지 이점을 가짐.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는 주로 도로시설이 잘 정비되지 않은 저개발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고 있음.
지표대응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 데이터는 없으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Proportion of the rural population who live within 2 km of an all-season road)
	산식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전체 농촌 인구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지표소관기구인 세계은행(WB)와 각 국의 통계청, 도로관련기관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각 국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공
	시계열	2009-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https://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tableView.aspx
국내	데이터	없음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지표번호	9.1.2
지표명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Passenger and freight volumes, by mode of transport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Develop quality, reliable, sustainable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including regional and trans-border infrastructure,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with a focus on affordable and equitable access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2월
지표정의	승객과 화물 운송량은 각각 승객-km(p-km)와 톤-km(t-km)로 측정되며, 운송 방식에 따라 승객 데이터는 항공, 도로(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철도로 나누고, 화물데이터는 항공, 도로, 철도 및 내륙 수로로 구분함.
지표의의	기반시설 개발은 국가 및 지역 간 이동하는 승객 및 운송량에 의해 가장 잘 포착됨. 승객 및 화물 운송량의 증가는 해당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기반시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항공은 경제적, 직업적 혜택뿐만 아니라 응급상황과 질병 발생 시 식품, 의약품, 의료인, 백신 및 기타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지표해설	해상으로 운송된 컨테이너의 경우, 한국은 2010년 19,456,000 TEU에서 2018년 28,945,400 TEU로 증가하여 세계 2위 수준. 일본은 동기간 19,547,865에서 22,433,824 TEU로 증가하여 세계 3위. 세계 1위는 미국으로 동기간 42,058,000에서 54,688,353 TEU로 증가함. 운송수단별 화물량의 경우 2018년 한국은 항공 119억, 철도 178억, 도로 1,796억 t-km. 운송수단별 승객량은 항공 1,782억, 철도, 1,383억, 도로 4,140억 p-km로 나타남.
지표대응	관세청의 '수출입물류통계'에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제공되며, 국토교통부의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를 통해 운송수단별 화물량과 승객량을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1	해상 운송된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Container port traffic, maritime transport)
	산식	-
	측정단위	TEU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을 통해 자료 수집
	시계열	201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출처	https://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tableView.aspx
	데이터2	운송수단별 화물량(Freight volume, by mode of transport)
	산식	-
	측정단위	t-km
	자료수집방법	항공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통계부와 회원국들이 승인한 ICAO 항공 운송 보고 양식을 통해 항공 데이터를 수집. 도로와 철도는 국제교통포럼(ITF)과 UNECE는 공동으로 데이터를 수집
	시계열	항공 2017-2018/도로·기차·내륙수로 2018 (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운송수단
	지표소관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운송근로자연합(ITF)
	출처	https://www.icao.int/safety/iStars/Pages/API-Data-Service.aspx https://data.oecd.org/transport/passenger-transport.htm
데이터3	운송수단별 승객량(Passenger volume (passenger kilometres), by mode of transport)	
산식	-	
측정단위	p-km	
자료수집방법	항공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통계부와 회원국들이 승인한 ICAO 항공 운송 보고 양식을 통해 항공 데이터를 수집. 도로와 철도는 국제교통포럼(ITF)과 UNECE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수집	
시계열	항공 2017-2018/도로·기차·내륙수로 2018 (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운송수단
	지표소관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운송근로자연합(ITF)
	출처	https://www.icao.int/safety/iStars/Pages/API-Data-Service.aspx https://data.oecd.org/transport/passenger-transport.htm
국내	데이터1	컨테이너 화물실적
	산식	-
	측정단위	TEU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4&tblId=DT_134002_002&vw_cd=MT_ZTITLE&list_id=S2_1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이용통계	수출입물류통계
	자료수집방법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신고인이 세관한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7-2018
	통계생산기관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042-481-7846)
	데이터2	운송수단별 화물량
	산식	-
	측정단위	톤
	세분화	운송수단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
	이용통계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자료수집방법	사업체의 전산입력자료 집계, 국가교통조사 통행량 자료 가공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0-2017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044-201-3789)
	데이터3	운송수단별 승객량
	산식	-
	측정단위	p(백만인)-km
	세분화	운송수단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	
이용통계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자료수집방법	사업체의 전산입력자료 집계, 국가교통조사 통행량 자료 가공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0-2017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044-201-3789)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지표번호	9.2.1
지표명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Manufacturing value added as a proportion of GDP and per capita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by 2030, significantly raise industry's share of employment and gross domestic product, in lin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and double its share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GDP 중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 및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지표의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한 국가의 산업화 수준을 가리키는 척도로 GDP 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율은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크기를 보여줌.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경제규모에 따라 조정된 한 국가의 산업화 수준을 보여주는 기본 지표임.
지표해설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세계적으로는 2000년 15.3%에서 2019년 16.6%까지 조금씩 성장 중. 한 국내 동기간 21.6%에서 27.5%로 상승함.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편임.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세계에서 평균적으로 2000년 1,197\$(2015 \$기준)에서 2019년 1,7989 \$로 증가한 가운데 한국은 3,520\$에서 8,252\$로 증가함.
지표대응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GDP 중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항목이 있음.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1인 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인구로 나누어 계산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Manufacturing value added as a proportion of GDP)
	산식	(제조업 부가가치 / GDP)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통계처(UNSD)를 통해 수집한 국민계정설문(NAQ)에 기초하여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와 GDP 계산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출처	https://stat.unido.org/database/MVA%202020,%20Manufacturing
	데이터2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Manufacturing value added per capita (constant 2015 United States dollars))
	산식	제조업 부가가치 / 인구수
	측정단위	미국달러(USD)
	자료수집방법	UNSD를 통해 수집한 국민계정설문(NAQ)에 기초하여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와 GDP 계산. 국가별 인구는 UN DESA로부터 자료 획득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출처	https://stat.unido.org/database/MVA%202020,%20Manufacturing	
국내	데이터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산식	(제조업 부가가치 / GDP)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
	이용통계	국민계정
	자료수집방법	가공통계를 170여 종의 기초통계(단순자료를 포함하면 300여종)를 토대로 총산출, 중간투입액을 구하고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 산출
	공표주기	1년(잠정: 익년 4-5월, 확정: 익익년 4-5월)
시계열	1953-2020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02-759-4372)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지표번호	9.2.2
지표명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Manufacturing employment as a proportion of total employment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by 2030, significantly raise industry's share of employment and gross domestic product, in lin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and double its share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총 고용인구 중에서 제조업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
지표의의	이 지표는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의 기여도를 나타냄. 농업 및 기타 전통 부문에서 발생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제조업의 능력을 보여주나, 선진국에서는 자본집약적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제조업의 노동력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지표해설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 15%에서 2019년 14%까지 소폭이지만 점차 감소해 왔음. 한국은 2000년 20.3%에서 2009년 16.4%까지 감소하였고, 이후부터 유지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16.8%임. 일본도 한국과 유사하게 2000년 20.5%에서 2018년 16.3%까지 조금씩 감소해옴.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4.2%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체코로 27.6%임.
지표대응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를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Manufacturing employment as a proportion of total employment)
	산식	$(\text{제조업 고용 인구} / \text{전체 고용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부가 각국의 모든 관련 기관(통계청, 노동부 등)에 연례 ILOSTAT 설문지를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함. 또한 국가 노동력 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도 계산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3/	
국내	데이터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산식	$(\text{제조업 취업자 수} / \text{전체 취업자 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C06&vw_cd=MT_ZTITLE&list_id=B17&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이용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 실업, 노동력 등을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4-2017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고용통계과 (042-481-2266)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지표번호	9.3.1
지표명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Proportion of small-scale industries in total industry value added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Increase the access of small-scale industrial and other enterprise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o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affordable credit, and their integration into value chains and marke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총 산업 부가가치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지표의의	소규모 산업은 적은 자본, 상대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 및 현지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 될 수 있음. 전체 산업 생산량에 대한 적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도국에서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잉여 노동력을 흡수함. 또한 소규모 산업은 식품, 의류, 가구 등 기본 소비재의 내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함.
지표해설	한국은 2000년 11.2%에서 2017년 7.9%로 감소했고, 일본은 2001년 11.2%에서 2015년 10%로 변함. 이탈리아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7년 20.4%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2017년 1.5%로 나타남.
지표대응	20인 이하의 기업을 소규모 산업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체 산업에 대한 규모별 부가가치 데이터가 없음. 다만, 광업제조업 부문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 10~19인 규모의 부가가치 데이터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	총 산업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Proportion of small-scale industries in total industry value added)
	산식	$(\text{소규모 산업부가가치} / \text{총 산업부가가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 국가의 공식 발간물 및 공식 웹 사이트, OECD(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및 EUROSTAT(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database)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함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2000-2006, 2011-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출처	http://www.oecd.org/sdd/business-stats/structuralanddemographicbusinessstatisticsssdbsoecd.htm
국내	데이터	없음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지표번호	9.3.2
지표명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Proportion of small-scale industries with a loan or line of credit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특히 개도국) Increase the access of small-scale industrial and other enterprise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o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affordable credit, and their integration into value chains and marke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금융기관의 신용거래나 대출이 활발한 '소규모 산업'의 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표의의	소규모 산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개도국에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임. 근로자의 능력과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산업체는 우대 대출, 신용 등의 형태로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 지표는 금융 기관이 소규모 산업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규모 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해설	UN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음. OECD 중 가장 수치가 높은 국가는 2013년 슬로베니아(72.3%)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라트비아(9.2%)로 나타남.
지표대응	부채비율, 대출금액 현황 등은 존재하나 소규모 기업과 관련된 세분화된 데이터는 없음.

글로벌	데이터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Proportion of small-scale industries with a loan or line of credit)
	산식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기업 / 전체 소규모 기업)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에 대한 주요 출처 중 하나는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 조사인데, 이 조사는 공식 부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만을 위한 데이터(5인 이상)를 포함하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미등록 기업에 대한 비공식 조사 및/또는 5인 미만 등록 기업에 대한 미시 조사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함. 기업 조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 표본을 바탕으로 함. 이 조사에서는 금융, 부패, 인프라, 범죄, 경쟁 및 성과 대책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비즈니스 환경 주제를 다룸. 2002년부터 세계은행은 135개국의 13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와 사업주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 옴
	시계열	2006~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약 4년(국가별로 다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출처	https://www.enterprisesurveys.org/en/data/exploretopics/finance
	국내	데이터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번호	9.4.1
지표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CO ₂ emission per unit of value added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함 By 2030, upgrade infrastructure and retrofit industries to make them sustainable, with increased resource-use efficiency and greater adoption of clean and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and industrial processes, with all countries taking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apabil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이후 CO ₂) 배출은 연료 연소로 인한 CO ₂ 배출량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부가가치 사이의 비율로 계산된 지표임. 이 지표는 전체 경제(총 CO ₂ 배출량/GDP) 또는 특정 부문, 특히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CO ₂ 배출량(제조업 부가가치당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CO ₂ 배출량)에 대해 계산할 수 있음. GDP 단위당 CO ₂ 배출량은 USD 상수 2010 PPP GDP당 CO ₂ kg로 표시되며, MVA 단위당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CO ₂ 배출량은 MVA 단위당 CO ₂ kg로 측정됨.
지표의의	CO ₂ 배출량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함. 제조업에서의 CO ₂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각국 산업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도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표해설	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에는 232억톤에서 2017년 328억톤으로 증가함. 한국은 동기간 4.3억톤에서 6억톤으로 증가함.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10년 기준 달러 당 kg)의 경우, 전 세계는 동기간 0.38에서 0.29로 감소. 한국은 0.44에서 0.32로 감소. 제조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10년 기준 달러 당 kg)의 경우 0.51에서 0.46으로 감소. 한국은 0.57에서 0.17로 감소함.
지표대응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통계」에서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 활용 가능함.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 GDP를 나누어 계산하고 제조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조업 부가가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1	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산식	-
	측정단위	100만 톤
	자료수집방법	에너지 데이터는 UN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 권장 사항에 설명에 따라 국제적 정의와 설문지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수집됨. 연료 연소로 인한 CO ₂ 배출량 추정치는 IEA 에너지 데이터와 2006 년 국가 온실 가스 인벤토리를위한 IPCC 지침의 기본 방법 및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IEA에서 계산함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에너지기구(IEA)
	출처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ountry=WORLD&fuel=Energy%20supply&indicator=Total%20energy%20supply%20(TES)%20by%20source
	데이터2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Carbon dioxide emissions per unit of GDP)
	산식	(이산화탄소 배출량 / GDP) ×100
	측정단위	킬로그램/달러(kg/USD)
	자료수집방법	에너지 데이터는 UN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 권장 사항에 설명에 따라 국제적 정의와 설문지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수집됨. 연료 연소로 인한 CO ₂ 배출량 추정치는 IEA 에너지 데이터와 2006 년 국가 온실 가스 인벤토리를위한 IPCC 지침의 기본 방법 및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IEA에서 계산함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에너지기구(IEA)	
출처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ountry=WORLD&fuel=Energy%20supply&indicator=Total%20energy%20supply%20(TES)%20by%20source	



	데이터3	제조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Carbon dioxide emissions per unit of manufacturing value added)
	산식	(이산화탄소 배출량 / 제조업 부가가치) × 100
	측정단위	킬로그램/달러(kg/USD)
	자료수집방법	에너지 데이터는 UN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 권장 사항에 설명에 따라 국제적 정의와 설문지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수집됨. 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배출량 추정치는 IEA 에너지 데이터와 2006 년 국가 온실 가스 인벤토리를위한 IPCC 지침의 기본 방법 및 배출 계수를 기반으로 IEA에서 계산함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에너지기구(IEA)
	출처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ountry=WORLD&fuel=Energy%20supply&indicator=Total%20energy%20supply%20(TES)%20by%20source
국내	데이터2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식	(이산화탄소 배출량 / GDP) × 100
	측정단위	톤 CO2eq./10억원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
	이용통계	국가온실가스통계
	자료수집방법	5개 관장기관이 활동자료, 배출량·흡수량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매년 공문 또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0-2017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02-6943-1345)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지표번호	9.5.1
지표명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Enhance scientific research, upgrad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industrial sectors in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by 2030, encouraging innovation and substanti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ers per 1 million people and public and private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한 해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 총액을 당해 연도 GDP로 나누어 산출
지표의의	연구개발비용은 인류,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새로운 응용을 위해 수행되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으로서 이 지표는 연구개발의 직접적 척도가 됨.
지표해설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 1.51%에서 2017년 1.72%까지 증가함. 한국의 경우 동기간 2.18%에서 4.55%로 증가. 이는 OECD국가 중 최대치임.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동기간 3.94%에서 4.54%로 증가함.
지표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함.

글로벌	데이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산식	(연구개발비 / GDP)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 통계청 또는 관련 부처(과학기술부)에서 국가 연구개발비 (R&D) 조사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DataSetCode=SCN_DS&popupcustomise=true&lang=en	
국내	데이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산식	(연구개발비 / GDP)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
	이용통계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수집방법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편(팩스)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76-2018
통계생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국 과학기술정보과 (044-202-6962)	



9.5.2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지표번호	9.5.2
지표명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Researchers (in full-time equivalent) per million inhabitant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Enhance scientific research, upgrad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industrial sectors in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by 2030, encouraging innovation and substanti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ers per 1 million people and public and private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인구 백만 명당 연구개발 상근상당 연구원 수
지표의의	연구원은 새로운 지식의 개념이나 창조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연구를 수행하고 개념, 이론, 모델, 기술 도구, 소프트웨어 또는 운영 방법을 개선하거나 발명하면서 연구개발에 종사함.
지표해설	한국은 백만 명당 연구자의 수는 2000년 2,287명에서 2017년 7,498명까지 증가함. 2017년한국은 덴마크(7,899명), 스웨덴(7,59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가장 낮은 국가는 88명인 콜롬비아인데 그 다음으로 낮은 터키(1,379명)와도 크게 차이남.
지표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데이터를 제공함.

글로벌	데이터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Researchers (in full-time equivalent) per million inhabitants)
	산식	((상근상당) 연구원 수/ 전체 인구) × 1,000,000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국가별 통계청 또는 관련 부처(과학기술부)에서 국가 연구개발비 (R&D) 조사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출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DataSetCode=SCN_DS&popupcustomise=true&lang=en
국내	데이터	인구 1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산식	(상근상당 연구원 수/전체 인구) × 10,000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electStatsBoxDiv
	이용통계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수집방법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편(팩스)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88-2018
	통계생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국 과학기술정보과 (044-202-6962)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지표번호	9.a.1
지표명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Total official international suppor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lus other official flows) to infrastructure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Facilitate sustainable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enhanced financial, technological and technical support to African countries,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기반시설을 위해 지원되는 모든 공여국으로부터의 총 ODA 및 기타 공적 자금의 총 지출
지표의의	개도국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총 ODA 및 OOF(기타공적자금)의 흐름은 개도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려는 공공의 노력(수출 크레딧 제외)을 정량화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는 개도국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데이터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표대응	한국은 공적지원을 받는 국가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Total official flows for infrastructure, by recipient countries)
	산식	-
	측정단위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국가별 행정부(원조 기관, 외교부 또는 재무부 등)을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보고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www.oecd.org/dac/stats
국내	데이터	없음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지표번호	9.b.1
지표명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Proportion of medium and high-tech industry value added in total value added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추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하여 개도국가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Support domestic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and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by ensuring a conducive policy environment for, inter alia,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value addition to commod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에서 중고급기술산업(MHT)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
지표의의	산업 개발은 일반적으로 자원 및 낮은 기술 기반에서 MHT로 구조적 전환을 수반함. 현대적이고 매우 복잡한 생산 구조는 기술 혁신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 MHT 부문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혁신의 수준을 보여줌.
지표해설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에서 2017년까지 46.7%에서 44.9%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 한국은 2000년 58.9%에서 2011년에 69%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2017년 63%으로 나타남. 스위스(64.6%) 보다 낮고 독일(61.7%)보다 높은 수준임.
지표대응	국내에는 MHT 분류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가 없음.

글로벌	데이터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Proportion of medium and high-tech industry value added in total value added)
	산식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 제조업 총 부가가치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매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일반 산업 통계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통계청을 통해 수집. OECD 국가에 대한 데이터는 OECD에서 직접 획득하고, 각 국가 데이터는 공식 간행물과 공식 웹 사이트에서도 수집함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출처	www.unido.org/statistics
국내	데이터	없음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지표번호	9.c.1
지표명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Proportion of population covered by a mobile network, by technology
목표명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세부목표명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Significantly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trive to provide universal and affordable access to the Internet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by 2020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동 통신망이 적용되는 인구 비율(2G, 3G, 4G로 세분화)은 이동전화 가입자 혹은 사용자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이동전화 신호 범위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임. 즉, 핸드폰 신호 범위 내의 거주자 수를 총 인구로 나눈 값임.
지표의의	무선 네트워크가 적용되는 인구의 비율은 사람들이 통신을 위해 모바일 셀룰러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ICT 접근성에 대한 최소 지표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인프라 장벽을 극복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됨.
지표해설	2018년 기준 전세계에서 2G 범위 내의 인구비율은 96.4%, 3G는 91.6%, 4G는 79.9%임. 한국의 경우, 셋 모두 99.9%로 사실상 전 인구가 포함되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지표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2015년까지 조사했으나, 그 이후 중단됨. 최근 한국데이터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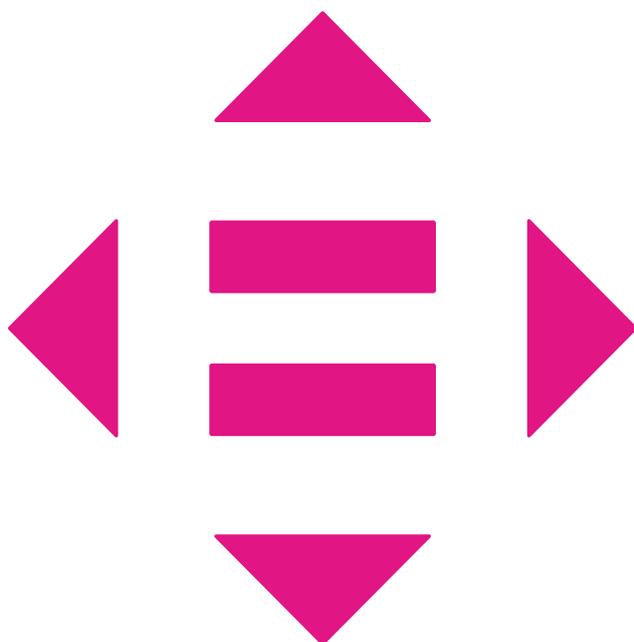
글로벌	데이터	무선 네트워크 사용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covered by at least a 2G/3G/4G mobile network)
	산식	$(\text{무선 네트워크 신호 범위 내 거주 인구} / \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정보통신 관련 부처, ICT 및 통신 규제 당국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매년 데이터를 수집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G: 2000-2018/3G: 2007-2018/4G: 2014-2018)
	공표주기	1년
	세분화	2G/3G/4G
	지표소관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출처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default.aspx
국내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지표번호	10.1.1
지표명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Growth rates of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per capita among the bottom 40 per cent of the population and the total population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By 2030, progressively achieve and sustain income growth of the bottom 40 per cent of the population at a rate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한 국가의 전체 인구 또는 후생(소비 또는 소득) 하위 40% 인구의 실질 소비 또는 소득의 연간 평균 성장률. 약 5년 주기의 가구조사 자료로 계산함. 목표 인구를 하위 40%로 정한 것은 현실적 절충안임. 하위 40% 기준은 후생 분포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 내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별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정의된 수치적 목표가 없음.
지표의의	공동 번영의 향상에는 경제성장과 형평성 모두 필요함. 경제적 후생의 향상을 위해 성장이 필요하지만 그 이익이 최빈곤층에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따라 발전이 측정된다는 것을 공동 번영으로 인식함. 포용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경제성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층의 번영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소득이나 소비에 기초하여 공동 번영을 측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많은 복지 차원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소통하기 쉬우며 측정하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임. 실제로 공동 번영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웰빙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맥락에서 공동 번영을 분석할 때는 다양한 후생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지표해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한 최근 5년간(2014-2019년) 1인당 처분가능소득 성장률은 연평균 4.4%로 나타남. 1인당 소득 성장률은 소득분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사회보장 제도 확대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 소득계층은 각각 21.6%와 12.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3분위 이상 소득계층은 4%대 성장에 그침.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지표 산출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소득 5분위 또는 10분위 단위로 평균 소득을 제공하고 있음. UN 정의에 따라 지표를 작성하려면 소득 하위 40% 집단의 평균 소득과 평균 가구원수 자료가 필요함. 아울러 성장률 계산에는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이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Growth rates of household expenditure or income per capita)
	산식	1인당 평균 실질소득(소비)의 연간 성장률로, 두 시점의 소득(소비) 분포 하위 40% 인구의 평균 소득(소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함. 전체 인구의 1인당 평균 소득(소비) 성장률 계산에는 전체 인구 데이터를 사용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은행(WB) PovcalNet 데이터로 산출
	시계열	2015-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https://www.worldbank.org/en/topic/poverty/brief/global-database-of-shared-prosperity
국내	데이터	소득분위별 1인당 소득 성장률
	산식	소득분위별 1인당 처분가능소득의 연평균(2014-2019) 성장률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소득분위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BA10&conn_path=I2
	이용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4-2019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6943)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지표번호	10.2.1
지표명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Proportion of people living below 50 per cent of median income,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By 2030, empower and promot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clusion of all, irrespective of age, sex, disability, race, ethnicity, origin, religion or economic or other statu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1월
지표정의	국가 소득 또는 소비 분포 중위값의 50%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율. 국가 중간 소득 또는 소비의 50% 임계값을 추정하고 이 임계값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추정함. 소득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사용됨.
지표의의	사회적 포용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글로벌 개발 의제에서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국가 발전 의제에서도 중요함. 국가 중간 소득의 50%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중은 한 나라의 사회적 포용, 상대적 빈곤, 불평등의 수준과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한 척도임.
지표해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0년 12%, 2012년 13%로 12-13% 수준을 나타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스라엘·콜롬비아(22%), 그리스(18%), 멕시코·스페인·터키(16%), 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탈리아·포르투갈(14%) 등에 이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함(2012년 기준). 한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6.7%임. 같은 자료로 계산한 66-75세와 7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34.6%와 55.1%로 은퇴 연령 이후에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음.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2006-2012년)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연도로 업데이트되지 않음. UN 데이터의 한국 수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비슷함. 국내에서도 UN 정의에 부합하는 상대적 빈곤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작성, 공표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의 비율(Proportion of people living below 50 percent of median income)
	산식	$\frac{\text{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은행(WB) PovcalNet 데이터로 산출함. 세계은행(WB) 내 글로벌빈곤워킹그룹(GPWG)이 추정에 사용되는 각국 가구조사 데이터를 수집, 검증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6, 2008, 2010, 2012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내 글로벌빈곤워킹그룹(GPWG)
국내	출처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
	데이터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산식	$\frac{\text{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text{전체 인구}} \times 100$ 소득은 가구균등화 처분가능소득임.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연령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2
	이용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6943)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지표번호	10.3.1 (=16.b.1)
지표명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reporting having personally felt discriminated against or harassed in the previous 12 months on the basis of a ground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Ensure equal opportunity and reduce inequalities of outcome, including by eliminating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and promoting appropriate legislation, policies and action in this regar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2월
지표정의	국제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이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함. 이 지표는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을 측정함.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사유 목록은 다음과 같음: 성별, 연령, 장애, 인종 혹은 언어, 이주민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종교, 혼인 및 가족 상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정치적 의견, 기타 사항
지표의의	이 지표의 목적은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차별의 유병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인구 집단에 대한 비 차별적 법률, 정책 및 관행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 지표임. 성,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법이나 정책이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측정 가능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표대응	국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에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을 묻고 있음. 그러나 아직 데이터는 미공개. 이외 고용, 장애, 여성 관련 사회조사들에 차별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들이 일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해당 지표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조항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음.

글로벌	데이터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 성별, 장애에 대해 차별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reporting having felt discriminated against, by grounds of discrimination, sex and disability)
	산식	(지난 12 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금지 된 차별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 / 전체 응답자 수)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OHCHR의 설문모듈에 따라 진행된 각국의 설문 결과를 OHCHR에서 수집함. 각국의 가구 및 사회 설문조사가 해당 지표의 주요한 데이터 출처임
	시계열	2014-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출처	www.ohchr.org
국내	데이터	없음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지표번호	10.4.1
지표명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Labour share of GDP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Adopt policies, especially fiscal, wage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progressively achieve greater equalit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GDP에서 피고용자의 보수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용자의 보수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현금성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후 급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이 포함됨.
지표의의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산출이 자본 대비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상대적 몫을 나타냄. GDP가 성장하더라도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실질소득 분배가 늘어나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성장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이기도 함. 노동소득 분배는 임금과 근로소득, 고용구조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비율은 2006년 56.4%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과 2011년에 52.6%와 52.9%로 낮아진 후 최근까지 54%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53.8%)은 일본(54.2%)과는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2017년 기준).
지표대응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과 국민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 보수 ÷ 요소비용 국민소득 × 100)을 공표하고 있음. 2010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혼합소득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고려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Labour share of GDP, comprising wages and social protection transfers)
	산식	$\frac{\text{피고용자 보수} + \text{자영업자 노동소득}}{\text{GDP}}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GDP와 피고용자 보수는 국민계정으로 측정되고,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대체(imputation)값을 추정
	시계열	2004-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ilostat.ilo.org/
국내	데이터	노동소득분배율
	산식	$\frac{\text{피용자 보수}}{\text{요소비용 국민소득}}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s://ecos.bok.or.kr/
	이용통계	국민계정
	자료수집방법	한국은행이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초 통계와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작성(가공통계)
	공표주기	분기 및 연간
	시계열	1953-2019년
통계생산기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02-759-4378, niteam@bok.or.kr)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지표번호	10.4.2
지표명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Redistributive impact of fiscal policy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을 달성 Adopt policies, especially fiscal, wage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progressively achieve greater equalit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5월
지표정의	세전 1인당(또는 가구균등화) 소득 지니계수에서 세후 1인당(또는 가구균등화) 소득 지니계수를 뺀 세전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 세전 소득은 시장소득을 말하고, 세후 소득은 세전 소득에서 직간접세를 빼고 이전소득과 간접보조금을 더한 처분가능소득 또는 소비가능소득을 말함. 소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간접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한 소득임.
지표의의	회계 프레임워크 내에서 현재의 불평등 총량이 현재의 재정 정책(직간접세, 사회보험 및 노령연금, 현금 또는 현금성 이전소득 등) 집행을 통해 감소 또는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냄. 만약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면 재정 정책 집행 이전보다 지니계수가 낮아질 것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없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8년 0.345로 낮아졌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18에서 0.402로 낮아져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기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로부터 각각 0.030과 0.057로 감소함.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처분가능소득 및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산출, 공표하고 있음.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을 사용하여 이 지표에 상응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산식	지니계수 = $\frac{\text{완전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text{완전균등선 아래 전체 면적}}$
	측정단위	지수(Index)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Id=DT_1HDLF05&conn_path=I2
	이용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수집방법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1-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6943)

10.5.1 금융건전성지표

지표번호	10.5.1
지표명	금융건전성지표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Improve the regulation and monitoring of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and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gula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2월
지표정의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 총자산 대비 부실채권충당금 비율, 총채권 대비 부실채권 비율, 총자산순이익률, 단기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외환종합포지션 비율 등을 포함하는 7개 금융건전성 지표
지표의의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예금기관(은행)의 자본 적절성을 나타냄. 자본 적절성은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결정함. 총자산 대비 부실채권충당금 비율은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은행 자본력을 나타냄. 총채권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자산의 질을 측정하는 대리 지표로서 채권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을 알려 줌. 총자산순이익률은 예금기관(은행)의 수익성, 즉 자산 활용 효율성을 측정함. 단기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미스매치로 인한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기 위한 지표임. 총자산 대비 외환종합포지션 비율은 외환자산과 외환부채 포지션의 미스매치를 측정함으로써 예금기관(은행)의 환율 변동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함.
지표해설	지난 10년(2008-2017년) 사이 한국 금융기관의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6.3%에서 8.0%,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8.8%에서 13.1%로 높아짐. 같은 기간 총자산 대비 부실채권충당금 비율은 3.2%에서 1.7%, 총채권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0.6%에서 0.4%로 낮아짐. 이 외에 총자산순이익률은 1% 이내, 단기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100% 수준, 총자산 대비 외환종합포지션 비율은 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낮은 편이면서 동시에 부실채권 비율도 낮음. 아울러 유동자산 비율은 높지만 순이익률과 종합포지션 비율이 낮음.
지표대응	현재 공표된 국내 데이터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기준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집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산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글로벌	데이터1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Regulatory Tier 1 capital to assets)
	산식	$\text{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 = \frac{\text{기본자본}}{\text{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위험가중자산 등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8-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404589
	데이터 2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Regulatory Tier 1 capital to risk-weighted assets)
	산식	$\text{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 = \frac{\text{기본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위험가중자산 등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8-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404589	



데이터 3	총자본 대비 부실채권충당금 비율(Nonperforming loans net of provisions to capital)
산식	총자본 대비 부실채권충당금 비율 = $\frac{\text{부실채권충당금}}{\text{총규제자본}}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위험가중자산 등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8-2017년)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404589
데이터 4	총채권 대비 부실채권 비율(Nonperforming loans to total gross loans)
산식	총채권 대비 부실채권 비율 = $\frac{\text{부실채권}}{\text{총채권}}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위험가중자산 등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8-2017)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404589
데이터 5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산식	총자산순이익률 = $\frac{\text{특별항목을 제외한 세전 순이익}}{\text{비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위험가중자산 등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8-2017)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404589
데이터 6	단기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Liquid assets to short-term liabilities)
산식	단기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단기부채}}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위험가중자산 등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8-2017)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404589

데이터 7	총자본 대비 외환종합포지션 비율(Net open position in foreign exchange to capital)
산식	총자본 대비 외환종합포지션 비율 = $\frac{\text{외환종합포지션}}{\text{총규제자본}}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위험가중자산 등의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8-2017)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출처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1404589
국내	데이터 없음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지표번호	10.6.1 (=16.8.1)
지표명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Proportion of members and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도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Ensure enhanced representation and voi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decision-making in glob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deliver more effective, credible, accountable and legitimate institu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국제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갖춘 개도국의 비율과 투표권을 가진 개도국의 비율을 측정함. 몇몇 국제기구에서는 두 요소가 겹치는 경우가 있음. 본 지표에 해당되는 11개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음: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위 11개 국제기구에서 UN M.49 통계 기준에 의해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회원권이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함.
지표의의	UN은 회원국들의 주권 평등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서로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국가들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함.
지표해설	각 기구의 연간 보고서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개도국 회원국의 수를 모두 집계하고 전체 회원국의 숫자로 나누고, 또는 투표권을 가진 개도국의 수를 모두 집계하여 전체 투표권을 가진 국가의 수로 나누어 지표 값을 산출함.
지표대응	해당 지표는 국제기구에서 총괄하는 부분으로,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1	국제기구별 개도국 회원국 비율(Proportion of member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산식	국제기구 가입된 개도국 수 / 해당 국제기구의 총 회원국 수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 기구에서 개별적으로 개도국 회원국의 수를 집계한 후 UN-DESA에 제출
	시계열	2000, 2005, 2010, 2014-2019
	공표주기	국제기구별로 상이함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
	데이터2	국제기구별 개도국 투표권 비율(Proportion of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산식	투표권을 가진 개도국 수 / 해당 국제기구의 총 회원국 수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 기구에서 개별적으로 개도국 회원국의 수를 집계한 후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제출
	시계열	2000, 2005, 2010, 2014-2019
	공표주기	국제기구별로 상이함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
	국내	데이터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지표번호	10.7.1
지표명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Recruitment cost borne by employee as a proportion of monthly income earned in country of destination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1월
지표정의	국제 이주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자부담 취업비용의 비(ratio). 국제 이주근로자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한 근로자를 말함. 국내 이주근로자와 국가 간 통근 노동자, 선박 등 거주 확인이 어려운 이주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취업비용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함. 브로커 중개수수료, 비자 발급비, 국내 교통비, 국제 교통비, 여권 발급비, 의료비, 보험료, 통관 수수료, 출국 전 브리핑 비용, 언어 교육비, 기술 평가 수수료, 계약승인 수수료, 복지 기금비, 채용에 소요된 비용의 대출 이자 등을 포함함. 월소득은 이주국가의 첫 직장에서 지난달에 번 실소득을 말함.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은 포함하고,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및 고용주의 채용비용 공제 등을 반영함. 월소득에 대한 고용비용의 배수로 나타냄.
지표의의	이민자가 부담하는 높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국제 이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성과를 실현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 이민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이주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줄여 주는 것임. 고용주가 지불하는 수수료 외에도 이주근로자가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가난한 이주근로자의 소득과 송금액을 낮추는 요인임. 이주근로자는 가족에게 보내야 할 돈을 불법 에이전트나 대부업자에게 보내게 되는 것임. 매년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취업 이주를 위해 정규 채널을 사용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이주근로자가 지불하는 높은 취업비용은 특히 저숙련 근로자의 강제 노동, 부채 속박, 인신 매매 등의 위험을 높임. 이주근로자는 작업장 내 폭력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높은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함. 제3차 유엔개발금융국제회의의 아디스 아바바 행동 어젠다(4A)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고용비용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함.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도 채용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노동자 또는 구직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것을 핵심 원칙의 하나로 강조함. 이 지표는 이주근로자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자신이 해외에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나타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음. KNOMAD(the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on Migration and Development)와 국제노동기구(ILO)가 10.7.1 지표 데이터 산출을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국제조사(Migration and Recruitment Costs Surveys)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https://www.knomad.org/data/recruitment-costs).
지표대응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취업비용 관련 항목이 있으나 취업소개료만 측정하고 있어 UN 지표 정의에 맞지 않으며, 자료도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부가조사에서 수집된 것임.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이주근로자 월소득 대비 고용비용 비율 = (이주근로자 채용비용/이주근로자 월소득)×100
	측정단위	배수
	자료수집방법	가구 설문조사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B)
국내	출처	-
	국내 지표명	직장(사업체) 구할 때 취업소개료 지불 유무 및 수준
	산식	(항목별 응답자/전체 응답자) × 100 * 항목 : 취업소개료 지불함, '~15만원 미만', '15만원~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취업소개료 지불한 적 없음'
	측정단위	비율(%)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R008R&conn_path=I3
	이용통계	이민자체류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대상 면접조사
	공표주기	3년
	시계열	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고용통계과 (042-481-2339)	



10.7.2 질서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지표번호	10.7.2
지표명	질서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with migration policies that 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9월
지표정의	<p>SDG 10.7.2는 국가 이주정책의 실태와 그 변화를 설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이 지표는 개선과 격차를 드러냄으로써 SDG 목표 10.7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권장 사항의 증거기반이 되며,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미래 주제 검토에도 도움을 줌. SDG 10.7.2의 개념적 틀은 국제이주기구(IOM)의 이주거버넌스프레임워크(MiGOF)임. MiGOF에는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목표가 있음. SDG 10.7.2는 이들 6가지 원칙과 목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을 측정하는 6개의 대리척도(proxy measure)가 제안됨. 각 영역의 대리척도는 아래와 같음.</p> <p>영역 1. 이주권의 실현: 이주자의 사회서비스(의료, 교육, 양질의 일자리, 사회 보장 및 복지 등) 접근 공평성 영역 2. 정부주도 및 증거기반 이주정책: 이주 관리를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 여부 영역 3.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협력적 파트너십: 이주정책에서의 협력 조장과 이해관계자 포용 및 참여 촉진 방안 유무 영역 4.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웰빙: 이주의 긍정적 영향과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웰빙 극대화 방안 유무 영역 5. 이동 위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 난민과 강제추방자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 유무 영역 6.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 정규 또는 비정규 이주를 다루기 위한 방안 유무</p> <p>각 대리척도(문항)에는 5개씩의 하위항목이 있음. 영역 1의 각 하위항목은 1(모든 이민자가 해당), 0.5(합법 이민자만 해당), 0(No)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영역 2-6의 각 하위항목은 1(Yes)과 0(No)의 응답범주를 가짐. 영역별 하위항목 응답 합계점수를 항목 수로 나눈 백분율(%), 즉 영역별 지표 점수가 40 미만이면 개선 필요, 40-80 미만이면 부분 충족, 80-100 미만이면 충족, 100이면 완전 충족으로 해석함.</p> <p>IOM 용어집에 의하면 '질서 있는 이주'는 법률과 규정을 따르는 합법적 출국과 입국을 말하며, '정규적 이주'는 공인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이주를 말함. 이주 관리는 계획적 정책개발, 이주 이슈에 대한 입법적 및 행정적 대응을 의미함. 이주 거버넌스는 이주를 규제하고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과 법적 프레임워크와 메커니즘과 관행 체계로 정의됨. 용이한 이주는, 예컨대 간소화된 비자 신청 절차를 통해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는 것을 말함.</p>
지표의의	제안된 방법론의 주된 목표는 이주정책의 주요 동향과 격차를 보여 주는 단순 명료한 지표를 만드는 데 있음. 제안된 지표는 SDG 목표 10.7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합성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IOM 이주거버넌스지표(MGI)를 포함한 다른 이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지표 데이터는 UN이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및 개발 조사 모듈 III 자료임.
지표대응	지표소관국제기구에서 각 국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비통계적 지표임.

글로벌	데이터	질서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Countries with migration policies to 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산식	$\text{영역별 점수} = \frac{\text{응답 합계점수}}{\text{하위항목 수}} \times 100$ <p>영역 1은 1, 0.5, 0으로, 영역 2-6은 1, 0으로 코딩됨. 영역별 하위항목 수는 5개임.</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UN이 각국 정부의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Inquiry among Governments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조사의 모듈 III(국제 이주) 자료로 지표 산출
	시계열	2019 (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MiGOF 영역별
	지표소관기구	유엔경제사회국(UN DESA), 국제이주기구(IOM),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0.7.3 국제 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지표번호	10.7.3
지표명	국제 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Number of people who died or disappeared in the process of migra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destination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9월
지표정의	MMP(Missing Migrants Project) 데이터로 집계한 국경 밖이나 그 외의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한 이민자의 수. MMP 데이터는 거주지 국가에서 목적지 국가로 이동하는 중에 사망한 이주자 정보 기록 자료임. MMP 데이터는 사망·실종 발생지역, 사망자수, 실종추정자수, 성별 사망·실종자수, 아동 사망·실종자수, 사망원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국경장벽 추락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해상사고(난파) 사망, 폭력적 공격에 의한 사망, 의학적 합병증에 의한 사망 등 국제이주 경로에서 발생한 이민자 사망을 포함함.
지표의의	MMP 데이터는 이민자 사망의 글로벌 현상을 입증함으로써 국제이주의 안전, 특히 안전하지 않은 '비정상(irregular)' 이주의 위험을 알 수 있게 함. 이주 중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데이터 소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데이터는 전 세계 이민자 사망자의 최소 추정치로 이해해야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음. 이 지표는 국제이주기구(IOM) MMP 데이터로 집계함.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상 밀입국자 검거 실적을 나타내는 「밀입국자 밀출국자 단속 현황」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 지표를 작성하려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밀입국자 사망 사고를 집계해야 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지표번호	10.7.4
지표명	난민 인구 비율(출신국별)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ho are refugees, by country of origin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Facilitate orderly, safe, regular and responsible migration and mobility of people,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and well-managed migration polic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9월
지표정의	출신국 인구 대비 난민 인정 인구의 수로, 출신국 인구 10만 명당으로 나타냄. 난민은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UNHCR)에서 인정하는 사람 또는 난민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함. 각국 정부와 UNHCR에서 인정하는 난민은 다음과 같음. (a) 1951년 UN 난민 지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비준한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들 (b) 1969년 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관한 OAU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 (c) 카르타헤나 선언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 (d) UNHCR가 법령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들(UNHCR 'mandate' 난민이라고도 함) (e) 상호 보완적 형태의 보호를 인정받은 사람들 (f) 집단 기반으로 임시 보호를 인정받은 사람들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국 밖에서 난민과 유사한 보호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함.
지표의의	분쟁이나 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 추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특히 이웃 국가에 난민이 받아들여질 때 지역 불안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난민, 추방자, 이민자들은 가장 취약한 집단의 하나로 인도주의적 위급 상태에 있는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이 지표는 박해, 분쟁, 폭력,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한 사건의 결과로 국경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수를 추적하며, 난민 출신국의 전체 인구에서 난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함.
지표해설	-
지표대응	국내에는 출신국별 난민 인구비율 자료는 없음. 한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수 및 인정자 수 관련 데이터만 존재함.

글로벌	데이터	난민 인구비율(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ho are refugees, by country of origin(%))
	산식	난민인구비율 =(연말 기준 출신국 난민 수/(연말 기준 난민 출신국 인구수+난민수)×100,000
	측정단위	십만명 당 명
	자료수집방법	각국의 난민지위결정 행정자료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등록자료로 집계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출처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download/
국내	국내 지표명	국적별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산식	신청자 및 인정자 수 합계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
	이용통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자료수집방법	보고통계
	공표주기	분기, 연
시계열	2011-2019	
통계생산기관	법무부 이민정책과(02-2110-4094), 난민정책과(02-2110-4165)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지표번호	10.a.1
지표명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Proportion of tariff lines applied to impor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zero-tariff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Implement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0% 관세선의 비율. 관세선 또는 국가관세선(NTL)은 개별 국가가 상품에 적용하는 분류코드를 말함. 면세되는 국가관세선의 비율로 산출함.
지표의의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의 생산품이 선진국 시장에 얼마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 관세 수준에 따라 비슷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의 상품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무관세 비율은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에 부여되는 특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더 나아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함.
지표해설	한국은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비율을 2005년 28.9%에서 2010년 33.7%, 2017년 49.4%로 꾸준히 높이고 있음. 하지만 한국의 무관세 비율은 OECD 국가 중 미국(42.1%) 터키(43.6%) 일본(44.0%) 캐나다(46.0%) 뉴질랜드(47.8%)에 이어 6번째로 낮음(2017년 기준).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국내 데이터는 없으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서 정한 대상국가와 대상물품 및 특혜세율 정보를 활용하여 지표 값을 산출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비율(Proportion of tariff lines applied to imports with zero-tariff)
	산식	국가관세선 중 면세가 적용되는 관세선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제무역센터(ITC),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산출
	시계열	2005, 2010, 2015, 2016, 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품목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센터(ITC),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0.b.1 개발자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지표번호	10.b.1
지표명	개발자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Total resource flows for development, by recipient and donor countries and type of flow (e.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flows)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도움이 필요한 국가(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개발국)에 ODA, 자원 지원, 직접투자 권장 Encourag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financial flows, includ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tates where the need is greatest,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African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plans and programm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ODA와 기타 공적지원(OOF), 민간 지원 및 투자를 포함하는 개발자원 총액임. 개발도상국에 제공된 공적 및 민간의 유·무상 재원을 모두 포함함. 공적재원은 ODA와 OOF로 구분되고, 민간재원은 시장투자와 자선지원으로 나누어짐. 다자개발기구에 제공된 기여금도 포함됨.
지표의의	개발자원 총액은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 또는 투자한 전체 지출 규모를 나타냄.
지표해설	한국의 개발원조 총액은 2005년 45억 달러에서 2007년 113억 달러로 늘어난 이후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2018년에는 131억 달러로 34개 공여국 중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원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글로벌 데이터는 ODA에 OOF와 민간 공여 재원이 더해진 금액임. 글로벌 데이터와 같이 통계를 산출하려면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외에 OOF와 민간 공여 재원에 대한 별도 집계도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공여국별 개발원조 총액(Total assistance for development, by donor countries)
	산식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공적 및 민간 유·무상 자원
	측정단위	백만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OECD/DAC가 공여국 보고기관(외교부 또는 재무부)으로부터 수집 (http://www.oecd.org/dac/stats/methodology.htm)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지표번호	10.c.1
지표명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Remittance costs as a proportion of the amount remitted
목표명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By 2030, reduce to less than 3 per cent the transaction costs of migrant remittances and eliminate remittance corridors with costs higher than 5 perc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이주민이 200달러(또는 200달러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를 송금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의 송금금액 대비 비율. 송금비용에는 송금 수수료 외에 환율 마진도 포함됨.
지표의의	SDG 10.c.1은 G8과 G20 국가의 송금비용 감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계은행(WB)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성하는 지표임. 2009년 G8이 '5년 이내 5% 감축' 목표를 채택함. 세계은행(WB)의 RPW (Remittance Prices Worldwide)는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송금비용을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국가 간 송금 비용의 감축과 그로 인한 수혜를 모니터링하는 핵심 자료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는 세계은행(WB) RPW 자료로 산출됨. RPW 자료는 세계은행(WB)DL 수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로 수집됨. RPW 데이터베이스(http://remittanceprices.worldbank.org)에서는 48개 송금국과 105개 수신국을 포함하는 367개 송금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음. 여기에서 한국 송금기관의 송금비용 비율도 제공되고 있음(한국-중국, 한국-베트남).
지표대응	지표에 대응하는 데이터 없음.

글로벌	데이터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Remittance costs as a proportion of the amount remitted)
	산식	$\text{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 \frac{200\text{달러 송금에 드는 비용}}{200\text{달러}}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송금기관(RSP)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11, 2015, 2017, 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http://remittanceprices.worldbank.org
국내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지표번호	11.1.1
지표명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informal settlements or inadequate housing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By 2030,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전체 도시 인구 중에서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지표의의	주택 부문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개발부문과 연결되어 국가의 경제의 모든 측면을 보여줌. 적절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더 나은 건강, 인적 자본의 개선 가능성, 그리고 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기회를 보유함. 동시에 더 나은 주택부문은 '개발승수' 역할을 하여 경제발전, 고용창출, 서비스 제공, 전반적인 빈곤감소에 기여함으로써 도시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반면 주거 환경이 평균 이하인 도시환경은 형평성과 포용성이 떨어지고, 도시안전과 생계기회가 감소하며, 공적 공간 연계가 부족함. 따라서 주택 부문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있어 도전이자 기회임.
지표해설	현재 UN자료에서는 빈민가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통계만이 제공되며, 임시거처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음. 전 세계적으로 빈민가 거주 인구는 2000년 28%에서 2014년 23%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18년에는 24%로 담보상태에 있음. OECD 국가 중 독일,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은 0.1% 미만 이나, 헝가리, 콜롬비아, 멕시코는 10% 이상임. 한국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국내 데이터는 없지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자료 활용 가능함.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자료도 활용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빈민가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
	산식	빈민가 거주 도시인구 / 전체 도시인구 x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 국가 통계청이 인구조사 및 전국가구조사를 통해 빈민가 및 임시거처 인구에 대한 통계를 구성하고, 부적절한 주거 구성요소에 대한 데이터는 주택 관련 지출비용 포착할 수 있는 소득 및 가구 조사를 통해 작성 가능
	시계열	2000, 2005, 2010, 2014, 2016, 2018 (한국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2년(2014년 이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간주거계획(UHABITAT)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산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전체 가구) x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수도권, 광역시등, 도지역
	출처	https://kosis.kr
	이용통계	주거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표본 6만여 가구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6, 2010, 2014, 2016-2019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국 주택정책과 (044-201-3328)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지표번호	11.2.1
지표명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has convenient access to public transport,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By 2030, provide access to saf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all, improving road safety, notably by expanding public transpor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rder pers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집, 학교, 직장, 시장 등 기준 지점에서 0.5km 이내로 대중교통 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을 때 편리하다고 간주
지표의의	교통 시스템은 경제 활동과 사회 통합의 중요한 원동력임. 교통 시스템은 자원에 대한 접근과 고용 기회를 제공함. 특히 대중교통은 소득, 소비, 공간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핵심 요소로 도시를 더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은 일자리, 의료, 교육 서비스 및 기타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므로 도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국내 통계자료 중 대중교통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으나,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 지표에 행정 구역, 시설, 시간대, 교통수단별 접근 가능 인구 비율 자료가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

지표번호	11.3.1
지표명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By 2030, enhance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capacity for participatory, integrated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in all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일정기간 동안 증가한 인구 비율 대비 도시면적(도시지역에 포함된 토지면적)이 증가한 비율
지표의의	세계적으로 토지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변해가고 있음. 평균적으로 도시 면적의 확대는 도시 인구 성장의 세 배에 달함. 즉 토지 사용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증가와 토지소모율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지표해설	지표 소관기구인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 웹사이트에는 일부 국가의 데이터가 있지만 UN 글로벌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지표대응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데이터가 없으나, 도시 정의에 따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지표번호	11.3.2
지표명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Proportion of cities with a direct participatio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that operate regularly and democratically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By 2030, enhance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capacity for participatory, integrated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in all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1월
지표정의	정책 수립자 및 도시 관리 기획자가 다양한 수준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 및 시민 사회 참여하는 정도
지표의의	지속가능한 거주지 개발은 개발 계획의 수혜자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함. 도시계획에 있어 시민사회와 대중의 참여는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적 갈등해결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함. 반면 도시계획이 이러한 협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 자원 배분 및 이용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개발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하는 것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비계량지표로 지표소관기구인 유엔인간주거계획(UHABITAT)에서 설문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지표번호	11.4.1
지표명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Total per capita expenditure on the preservation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al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by source of funding(public and private), type of heritage (cultural, natural), level of government (national, regional and local/municipal)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1월
지표정의	일정 기간 동안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할당된 정부(중앙, 지역, 지역)와 민간(가구, 기업 및 후원, 국제 지원)로부터의 1인당 총 자금 지원
지표의의	각 국가에서 자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현황'을 통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 파악이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1.5.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지표번호	11.5.1 (=1.5.1, 13.1.1)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directly affected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and substantially decrease the direct economic losses relative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caused by disasters, including water-related disasters, with a focus on protecting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3월
지표정의	인구 일십만 명당 사망, 실종, 재해의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의 수를 의미함. 직접적 피해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대피, 피난, 이주를 경험했거나 생계,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포함함. 지표 값은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의 지표(사망, 실종자, 영향자)를 전 세계 인구데이터(국가 인구조사, 세계은행, 유엔 통계위원회 정보)로 나누어 계산함.
지표의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Sendai) 프레임 워크 2015-2030”이 2015년 3월 UN 회원국에 의해 글로벌 정책으로 채택됨.
지표해설	한국은 2018년에는 십만 명당 사망/실종자 수는 0.3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는 26.5명 수준임. 이 수치는 매년 큰 폭으로 달라짐.
지표대응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재해연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1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 (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text{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 + \text{재난으로 인한 실종자 수}) / \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 데이터는 관계 부처에서 수집하고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재난 관리 기관, 시민 보호 기관 및 기상 기관을 포함한 특수 목적 기관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됨. 이 자료는 센다이 프레임 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됨
	시계열	2005-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Number of directly affected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text{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text{전체 인구 수} \times 100,000$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 데이터는 관계 부처에서 수집하고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재난 관리 기관, 시민 보호 기관 및 기상 기관을 포함한 특수 목적 기관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됨. 이 자료는 센다이 프레임 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Id=DT_15603N_004&conn_path=I3
	이용통계	자연재해현황
	자료수집방법	시군구, 시도로부터 자료 수집(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6-2018
통계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복구지원과(044-205-5313)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지표번호	11.5.2
지표명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Direct economic loss in relation to global GDP, damage to critical infrastructure and number of disruptions to basic services, attributed to disasters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and substantially decrease the direct economic losses relative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caused by disasters, including water-related disasters, with a focus on protecting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손실로 재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발생한 물리적 자산의 파괴된 화폐 가치의 비율
지표의의	재난은 여러 지표에 특이점(outlier)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이 포함되었을 때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분석 결과가 다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표 산출이 필요함.
지표해설	한국의 재난 경제손실 규모는 2010년과 2011년이 가장 컸는데, 이는 글로벌 GDP의 0.00031%와 0.00027%에 해당하는 규모임. 국제적으로 한국의 재난 피해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됨. 글로벌 데이터는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집됨.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현황」 통계로 자연재해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음. 국내 GDP 대비 피해액 비율을 산출하면 재해 피해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손실(Direct economic loss attributed to disasters relative to GDP (%))
	산식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손실 / 전체 GDP x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별로 OEIWG(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Working Group)의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계열	2005-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시도별 피해현황
	산식	-
	측정단위	천 원
	세분화	시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5603N_001&conn_path=I3
	이용통계	자연재해현황
	자료수집방법	시군구, 시도로부터 자료 수집(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4-2018
통계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복구지원과(044-205-5313)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지표번호	11.6.1
지표명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Proportion of municipal solid waste collected and managed in controlled facilities out of total municipal waste generated, by cities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 By 2030, reduce the adverse per capita environmental impact of cities, including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ir quality and municipal and other waste manage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도시 고형 폐기물 총 발생량 중 정기적으로 수집되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비율
지표의의	도시의 가정과 기업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고형 폐기물들이 정기적으로 수집, 재활용되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많은 도시들이 급속한 도시화와 기술적, 재정적 능력의 부족, 그리고 정책 상의 문제로 인해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25년에는 고형 폐기물 발생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없음. OECD내 호주, 프랑스, 핀란드, 일본,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95% 이상의 처리율을 보임.
지표대응	환경부의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통계를 통해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한 처리량을 파악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지자체별 고형 폐기물 수집 비율 (Municipal Solid Waste collection coverage, by cities)
	산식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 처리되는 고형 폐기물의 양 / 도시별 전체 고형 폐기물 발생량 x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데이터가 이미 있는 국가와 도시의 경우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자료가 없는 국가나 도시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을 파악하기 위한 가계조사를 적어도 1년에 2회, 계절별로 실시해야 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가용한 자료에 따라 1년 혹은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간주거계획(UHABITAT)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명	폐기물 처리 현황
	산식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측정단위	톤/일
	세분화	처리방법별
	출처	https://kosis.kr
	이용통계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자료수집방법	각 사업체에서 올바른시스템 실적보고 또는 서면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시도에서 조사결과 취합(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6-018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

지표번호	11.6.2
지표명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 가중)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e.g. PM _{2.5} and PM ₁₀) in cities (population weighted)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대기의 질과 지자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 By 2030, reduce the adverse per capita environmental impact of cities, including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ir quality and municipal and other waste manage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PM _{2.5} 이하의 연평균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일반적 측정 지표로, 평균값은 도시 인구를 고려한 인구 가중치로 산출
지표의의	대기오염은 다양한 종류의 미세입자로 구성되는데 이 입자는 호흡기 깊숙이 침투하여 호흡기 감염 및 질병, 폐암 및 일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함.
지표해설	2016년 기준으로 세계는 도시지역 39.6, 전지역 38.5 수준임. 한국은 각각 24.7, 24.6 수준으로 제공된 자료 상에서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음. 일본은 각각 11.8, 11.4 수준임.
지표대응	환경부가 '대기오염도현황' 조사를 매달 발표하고 있음. 다만 인구수에 대한 가중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 (Annual mean levels of fine particulate matter in cities, urban population (micrograms per cubic meter))
	산식	PM _{2.5} 의 연간 도시 평균 농도는 위성 원격 감지, 인구 추정, 지형 및 지면 측정의 데이터 통합을 사용한 모델링 향상으로 추정
	측정단위	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mu\text{g}/\text{m}^3$)
	자료수집방법	전 세계 3,000개의 도시 및 지역에 대하여 수집한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지상 측정, 위성 원격 감지, 인구 추정, 지형, 지역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및 특정 대기 오염 요인이 데이터를 추정하는데 사용됨
	시계열	2016(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2016년 1회 공표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www.who.int/gho/phe	
국내	데이터	연도별 도시별 대기오염도(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산식	-
	측정단위	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mu\text{g}/\text{m}^3$)
	세분화	시도별
	출처	https://library.me.go.kr/#/search/org-statistical/si?all=0&rq=PUBLISHER
	이용통계	대기환경연보
	자료수집방법	전국 측정소의 측정 자료에 대하여 관할기관(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확정된 후, 국가대기오염 정보관리시스템(NAMIS)으로 전송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5-2019 (초미세먼지는 2015부터 조사)	
통계생산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032-560-7283,7267)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지표번호	11.7.1
지표명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By 2030, provide universal access to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green and public spaces, in particular for women and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2월
지표정의	도시가 공공 공간 (열린 공간 및 거리)을 위해 할당한 토지의 양의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공공 공간이란, 공공이 소유하거나 공공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수익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 모든 장소
지표의의	공원, 광장 등 도시의 개방된 공용 공간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행자 통행,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관리되는 곳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SDG는 처음으로 공공 공간을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도시에 있는 공공 공간의 양을 측정하고자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국토부 도시계획현황통계를 통해 시도별로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면적을 구하고 각 시도에서 차지하는 토지 비율을 구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공간시설
	산식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면적의 합 / 시의 전체 면적) × 100
	측정단위	퍼센트 (%)
	세분화	-
	출처	https://kosis.kr
	이용통계	도시계획현황통계
	자료수집방법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이 통계자료를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입력하고,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력자료를 검증하여 통계를 최종 생산
	공표주기	1년(작성기준 년도 익년 9월)
	시계열	2006-2019
	통계생산기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정보처(055-922-3428)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지표번호	11.7.2
지표명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Proportion of persons victim of physical or sexual harassment, by sex, age, disability status and place of occurr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By 2030, provide universal access to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green and public spaces, in particular for women and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1월
지표정의	해당 지역 전체 인구 대비 신체적 괴롭힘 및 성희롱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수
지표의의	신체적 및 성희롱의 경험은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괴롭힘은 정서적, 심리적 피해 외에도 피해자가 공적 생활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국내에는 지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데이터가 없지만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범죄유형별 피해건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명	폭력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
	산식	(폭력범죄 유형별 추정 피해 건수/만 14세 이상 인구수) × 100,000
	측정단위	건
	세분화	범죄유형(성폭력, 강도, 폭행, 괴롭힘)
	출처	https://kosis.kr
	이용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중 6,710명(2019년 기준)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공표주기	2년
	시계열	2012-2018
	통계생산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02-3460-5149)

11.a.1 (a) 인구다양성, (b) 토지균형개발, (c) 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 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지표번호	11.a.1
지표명	(a) 인구다양성, (b) 토지균형개발, (c) 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national urban policies or regional development plans that (a) respond to population dynamics, (b) ensure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c) increase local fiscal space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를 지원
	Support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inks between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6월
지표정의	국가 도시정책은 장기적으로 변혁적, 생산적, 포용적, 탄력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를 조정하고 결집하는 신중한 정부 주도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일관성 있는 일련의 의사결정원칙으로 (a) 인구다양성, (b) 토지균형개발, (c) 지방재정강화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함.
지표의의	국가도시정책과 지역개발계획은 도시개발의 조정과 연계성을 촉진함. 국가도시정책과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정부의 노력은 부문별 정책 연계, 중앙 정부와 및 지방 정부 정책 연계, 균형적 국토 개발을 통한 도시와 도시 근교 그리고 지방 간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비계량지표로 지표소관기구인 유엔인간주거계획(UNHABITAT)에서 설문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지표번호	11.b.1 (=1.5.3, 13.1.2)
지표명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By 202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ies and plans towards inclusion, resource effici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silience to disasters, and develop and implement,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holistic disaster risk management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란, 효고행동계획(HFA)* 이후의 재난관리 전략계획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후적 복구에서 사전적 예방을 강조하여 재해에 의한 사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위험경감 지침이며 본 지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함.
지표의의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국가 및 지방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면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적극적인 재난위험감소 전략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것임.
지표해설	전 세계 국가 중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85개로 보고됨.
지표대응	이 지표는 센다이 모니터(Sendai Monitor) 국가별 진행 보고서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계산되는 국제기구 소관 지표로 한국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SDGs 웹페이지에서 최근 자료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음. 재난 위험 감소전략에 대하여 통계로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수립되고 있고, 2016년 7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보다 고려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 종합계획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가 재해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 수(Number of countries that reported having a National DRR Strategy which is aligned to the Sendai Framework)
	산식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가 재해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 수의 합
	측정단위	개
	자료수집방법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OEIWG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재난위험감축(DRR)전략을 보고
	시계열	2015-2019 (국별 자료가 아닌 세계 수준의 자료만 제공, 한국 데이터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점수 항목으로 2015-2018 제공)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감축사무국(UNISDR)
	출처	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indicator=13.1.1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효고행동 계획(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의 약어로, 2005년 일본 고베시 효고현에서 열린 재난감축국제회의에서 수립된 것으로, 2005~2015년까지 재해감소 실행을 위한 효고 프레임워크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지표번호	11.b.2 (=1.5.4, 13.1.3)
지표명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목표명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시행함 By 202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ies and plans towards inclusion, resource effici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silience to disasters, and develop and implement,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holistic disaster risk management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센다이 재해 위험 감소 프레임 워크 2015-2030은 2015년 3월 유엔 회원국들이 세계 재해 위험 감소 정책으로 채택함. 그 중 하나가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 재해 위험 감소 전략을 가진 국가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라"는 것임. 이에 따라 재해 감소 전략과 정책은 모든 부문, 시간, 목표, 지표, 기간에 대해 재해 위험 감소를 이뤄야 함. 회원국들은 국가 전략에 따라 지역 DRR(Disaster Risk Reduction)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방 정부 수를 세어 전체 지방 정부 수의 백분율로 표현됨.
지표의의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지역 재해 위험 저감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사회, 보건, 환경 탄력성이 강화됨.
지표해설	한국, 미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 등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0%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경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어떻게 통계화할 것인지, 메타데이터 상의 1차, 2차, 3차 과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현재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없고 정의가 모호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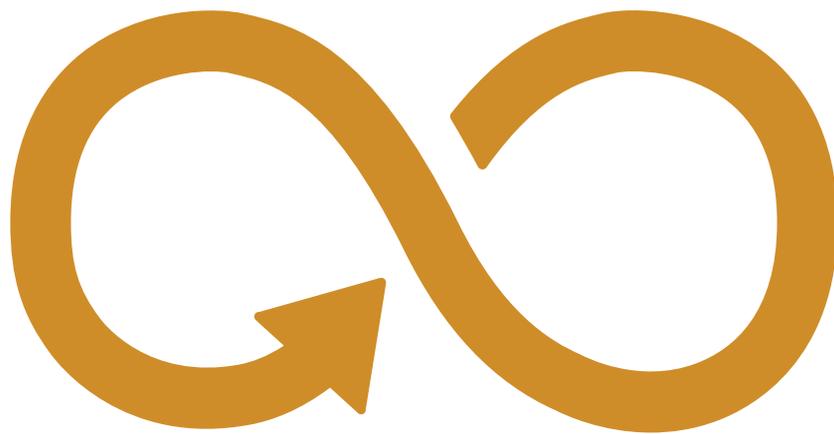
글로벌	데이터	국가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비율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산식	(국가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 / 지자체 수)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개별 국가의 부처, 통계청 및 기타 담당 기관이 유엔재난위험감축사무국(UNISDR)에 보고
	시계열	2015-2019(한국 데이터 201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감축사무국(UNISDR)
국내	출처	http://www.preventionweb.net/files/50683_oiewgreportenglish.pdf http://www.preventionweb.net/english/hyogo/progress/ http://www.preventionweb.net/events/view/55594 <uploaded soon>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지표번호	12.1.1
지표명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Number of countries developing, adopting or implementing policy instruments aimed at supporting the shift to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Implement 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ll countries taking ac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aking the lead,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란 천연 자원과 독성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및 제품의 사용을 의미하며, 서비스 또는 제품의 사용 기간 동안 폐기물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미래 세대의 소비 및 생산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은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소비와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계 및 구현되는 모든 조치 또는 개입을 의미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목표 혹은 계획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임. 이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의 유형, 초점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정책수단의 진행 상황과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음. 해당 지표는 정책수단의 이행 상황을 수량화하고 모니터링하는 반면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성적 정보와 정책이 잘 설계되었는지 여부, 적절한 배경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구현의 질과 시행 수준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지속가능소비생산에 대한 정책, 제도적 기제가 있는 국가, 지속가능소비생산에 대한 정책수단이 있는 국가, 지속가능소비생산 이행계획 및 국가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여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지속가능소비생산을 위한 조정기제와 지속가능소비생산에 대한 다른 이행 활동이 있는 이행계획 및 국가 주요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데이터는 없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는 국제기구 관리 지표로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1	지속가능소비생산(SCP) 위한 조정기제가 있는 국가 (Countries with coordination mechanism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산식	-
	측정단위	1=예, 2=아니오
	자료수집방법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2015년 10YFP에서 실행한 글로벌 SCP 정책 설문 조사 데이터 활용 가능
	시계열	2017-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eplive.unep.org/downloader
	데이터2	SCP에 대한 정책, 제도적 기제가 있는 국가 (Countries with policies, instruments and mechanism in place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산식	-
	측정단위	1=예, 2=아니오
	자료수집방법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2015년 10YFP에서 실행한 글로벌 SCP 정책 설문 조사 데이터 활용 가능
	시계열	2017-2019(한국데이터 2019 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eplive.unep.org/downloader	

	데이터3	SCP에 대한 정책수단이 있는 국가 (Countries with policy instrument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산식	-
	측정단위	1=예, 2=아니오
	자료수집방법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2015년 10YFP에서 실행한 글로벌 SCP 정책 설문 조사 데이터 활용 가능
	시계열	2017-2019
	공표주기	2년(한국데이터 2019 수록)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eplive.unep.org/downloader
	데이터4	SCP 이행계획 및 국가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여부 (Countries with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national action plans or SCP mainstreamed as a priority or target into national policies)
	산식	-
	측정단위	1=예, 2=아니오
	자료수집방법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2015년 10YFP에서 실행한 글로벌 SCP 정책 설문 조사 데이터 활용 가능
	시계열	2017-2019
	공표주기	2년(한국데이터 2019 수록)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eplive.unep.org/downloader
	데이터5	SCP에 대한 다른 이행 활동이 있는 이행계획 및 국가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여부 (Country with Other implementing activiti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산식	-
	측정단위	1=예, 2=아니오
	자료수집방법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2015년 10YFP에서 실행한 글로벌 SCP 정책 설문 조사 데이터 활용 가능
	시계열	2017-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eplive.unep.org/downloader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지표번호	12.2.1 (=8.4.1)
지표명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Material footprint, material footprint per capita, and material footprint per GDP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By 2030, achieve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은 특정 국가의 자원에 대한 최종적인 소비가 국제적 자원 추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바이오매스, 화석 연료,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석 물질발자국의 합계임.
지표의의	물질발자국은 최종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일차적인 자원 양을 나타냄. 해당 지표는 자원과 관련된 삶의 질, 혹은 경제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인당 물질발자국은 최종 소비 수요에 대한 평균적인 자재 사용량을 나타냄. 국내물질소비량(DMC)과 물질발자국은 생산과 소비라는 두 측면을 다루는 지표로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수출을 위한 생산 부문이 큰 국가는 물질소비량이 높은 반면, 생산 부문을 외국으로 이전한 국가는 물질소비량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에서 사용(소비)되는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물질소비량과 최종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가상적인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물질발자국은 함께 고려되어야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는 세계(world)지표 값만 포함하고 있음. 해당 지표 계산을 위해서는 I-O(투입 산출) 분석에 근거한 계산이 요구되며, 다지역 투입 산출 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이 이용될 수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1	1인당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물질발자국/총 인구수
	측정단위	톤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원료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데이터2	GDP당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per unit of GDP,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물질발자국/GDP
	측정단위	USD 당 킬로그램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원료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데이터3	총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원자재 수입량(RMEIM)에 국내 원자재 생산량(DE)을 더한 후, 원자재 수출량(RMEE)을 뺀 값	
측정단위	톤	
자료수집방법	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원료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지표번호	12.2.2 (=8.4.2)
지표명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capita, and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GDP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By 2030, achieve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국내물질소비량(DMC)은 물질흐름계정(MFA)의 지표로 국내소비를 위해 유입되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며 이를 인구 및 GDP로 나누어 계산함. 물질흐름계정은 경제와 환경 사이의 물질대사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계정 체계임. 실제 경제 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원양만을 측정하며 추출되었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자원은 제외함.
지표의의	국내물질소비량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자원 총량으로 경제의 물질적 측면과 함께 환경적 부담의 정도를 보여줌. 국내물질소비량과 물질발자국(MF)은 생산과 소비라는 두 측면을 다루는 지표로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수출을 위한 생산 부문이 큰 국가는 물질소비량이 높은 반면, 생산 부문을 외국으로 이전한 국가는 물질소비량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에서 사용(소비) 되는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물질소비량과 최종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가상적인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물질발자국은 함께 고려되어야 함.
지표해설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2000년부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국가가 하향세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UN 글로벌 데이터는 EUROSTAT의 MFA 가이드의 2013년 판본에 기재된 회계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자료임. 해당 지표는 공식적인 경제 통계에 근거하며 MFA 측정 방식에 맞추어서 원자료를 가공하기 위한 모델링 작업이 필요함. 한국의 국내물질소비량 추산을 위해 필요한 주요 물질의 종류는 크게 화석연료, 산업광물, 건설용 광물, 바이오매스이며, 화석연료 부문은 에너지통계연감(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광물 부문은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천일염 통계(대한염업조합), 건설용 광물 부문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와 산업총조사보고서(통계청), 바이오매스 부문은 농림통계연보(농림부), 임업통계연보(산림청), 축산물수급자료(농협중앙회), 해양수산연보(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산출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1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물질소비량/총 인구수
	측정단위	톤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원료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데이터2	GDP당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물질소비량/GDP
	측정단위	USD 당 킬로그램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원료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데이터3	국내물질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by type of raw material)	
산식	IM(직접 수입된 물질재화량) + DE(국내에서 추출된 물질재화량) - EX(직접 수출된 물질재화량)	



	측정단위	톤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의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원료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www.resourcepanel.org/global-material-flow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2.3.1 (a) 식량손실지수 및 (b) 식량폐기지수

지표번호	12.3.1
지표명	(a) 식량손실지수 및 (b) 식량폐기지수 a) Food loss index and b) food waste index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1/2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By 2030, halve per capita global food waste at the retail and consumer levels and reduce food losses along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including post-harvest loss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0월
지표정의	식량손실지수는 직·간접적으로 폐기, 소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확 및 도축 후 생산/공급망을 빠져나가는 모든 작물 및 가축 식용상품의 양을 나타냄. 이는 저장, 운송 및 가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과 수입 수량에 대해서도 해당됨. 식량폐기지수는 폐기과정(level 1)과 공급망(level 2)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되어 측정됨. 폐기과정에서의 식량폐기지수는 전체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지역 계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모델을 통해 추정되며, 공급망에서의 식량폐기지수는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국가 데이터를 통해 수집됨.
지표의의	식량손실지수는 식량 공급망의 구조적 손실의 추세를 나타냄. 2030년 유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농업 생산물의 비중이 기준 기간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측정하여, 공급측면의 사슬(유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 할 수 있음. 식량 공급망의 효율성 향상은 수출 시장을 위한 대규모 생산자와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소규모 생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농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천연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통해 식량이 손실되는 과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는 2016년 대륙별 식량손실지수만을 포함하고 있음. 전 세계의 식량손실지수는 13.8%,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식량손실지수는 7.8%로 집계되었음. 국가의 생산 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손실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요 상품의 종류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5개 그룹(곡물, 과일&채소, 뿌리.줄기.기름함유 작물, 동물 제품, 생선 제품)으로 범주화하여 지표 값을 국제비교 하도록 함.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식품손실(food loss) 비율 (Food loss percentage (%))
	산식	현재 연도의 국가 평균 식품손실비율 / 기준 연도의 국가 평균 식품손실비율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FAO의 연례 농업생산설문을 통해 수집
	시계열	2016(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231/en/
국내	데이터	도시규모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원단위
	산식	-
	측정단위	g/일/인
	세분화	도시규모(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출처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rrs/mai.do)
	이용통계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자료수집방법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폐기물,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원단위 및 처리현황에 대해 면접 조사로 진행
	공표주기	5년
	시계열	2006, 2011, 2016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환경보건연구과 (044-201-7350)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지표번호	12.4.1
지표명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Number of parties to international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chemicals that meet their commitments and obligations in transmitting information as required by each relevant agreement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By 2020, achieve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and all wastes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n accordance with agreed international frameworks, and significantly reduce their release to air, water and soil in order to minimize their adverse impa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국제 협약은 Basel, Rotterdam, Stockholm, Minamata 5가지이며,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당사국에서 행하는지가 평가됨. 각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1)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 2)로테르담 협약(유해화학물질사전통보승인조약): 살충제와 특정 종류의 화학물질의 국제 거래에 대한 절차적 합의. 또한 유해물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 정보의 교환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스톡홀름 협약: 각종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 4)몬트리올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보고 요건 준수 5)미나마타 협약: 수은과 관련된 협약으로 한국의 경우 가입을 검토 중임.
지표의의	해당 지표는 유해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국가 내 관리 및 국제적 관리를 위하여 합의되었거나 합의중인 국제협약들에 해당 국가가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었다면 현재 어떠한 이행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임.
지표해설	한국의 경우 미가입된 미나마타협약을 제외한 4가지 협약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바젤협약 이행 점수는 2020년 20%(데이터 제공된 OECD 국가 평균 84%), 한국의 로테르담협약 이행 점수는 2020년 67.24%(데이터 제공된 OECD 국가 평균 91%), 한국의 스톡홀름협약 이행점수는 2020년 50%(데이터 제공된 OECD 국가 평균 68%)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몬트리올프로토콜의 경우 데이터를 제출한 모든 국가가 100%의 지렛값을 가지고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1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바젤협약이 요구한 정보제공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의 점수 (Parties meeting their commitments and obligations in transmitting information as required by Basel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chemicals)
	산식	담당 국가 기관 지정 (1점), 보고 기간 동안 연간 국가 보고서 제출 (보고서 당 1점)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점수는 협약 사무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에 근거하여 계산 됨
	시계열	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의 점수 (Parties meeting their commitments and obligations in transmitting information as required by Minamata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chemicals)
	산식	담당 국가 기관 지정 (5점), 국가 보고서 제출 (15점)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점수는 협약 사무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에 근거하여 계산 됨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3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몬트리올프로토콜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의 점수 (Parties meeting their commitments and obligations in transmitting information as required by Montreal Protocol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chemicals)
	산식	몬트리올 의정서 (제 7조)에 따른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보고 요건 준수(15점). 몬트리올 의정서 (4B 조)에 따른 라이선싱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출(5점)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점수는 협약 사무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에 근거하여 계산 됨
	시계열	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UNEP(유엔환경계획)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4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의 점수 (Parties meeting their commitments and obligations in transmitting information as required by Rotterdam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chemicals)
	산식	담당 국가 기관 지정(1점), 보고 기간 동안 응답 제출 (응답 당 0.2점)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점수는 협약 사무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에 근거하여 계산 됨
	시계열	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5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의 점수 (Parties meeting their commitments and obligations in transmitting information as required by Stockholm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 and other chemicals)
	산식	담당 국가 기관 지정(1점), 국가 실행 계획 제출 (1점)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점수는 협약 사무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의 양에 근거하여 계산 됨
	시계열	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2.4.2 (a)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지표번호	12.4.1
지표명	(a)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a) Hazardous waste generated per capita and (b) proportion of hazardous waste treated, by type of treatment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By 2020, achieve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and all wastes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n accordance with agreed international frameworks, and significantly reduce their release to air, water and soil in order to minimize their adverse impa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1월
지표정의	유해폐기물이란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로, 산업 제조 공정 폐기물에서 배터리와 같은 가정용 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로 생성되며 액체, 고체, 가스, 슬러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유해폐기물은 수거된 유해폐기물과 발전기가 처리 또는 처리시설에 제공하는 유해폐기물 그리고 미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폐기물의 합.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이란 수집, 재사용, 처리, 회수(재활용 또는 수출 포함)와 같은 활동 이전에 보고된 유해폐기물의 양을 의미함.
지표의의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경우 국제 표준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관리함에 있어 제한된 인력, 재정 및 기술 자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음. 대부분의 유해폐기물은 산업 및 제조 작업에서 생산되지만, 의료 부문의 슬러지를 포함하여 폐수, 폐유 및 폐배터리 처리공장 등 비산업 부문에서도 상당한 양의 유해폐기물이 생성되고 있음. 해당 지표는 화학 물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환경 친화적인 유해폐기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각국의 유해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수치를 알아보고, 유형별(매립, 소각, 재활용)별 유해폐기물 처리비율을 진단할 수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포함되어 있지 않음. 환경부의「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18년도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5,616,847톤으로 전년도(5,440,290톤) 대비 3.2%증가하였으며, 지정폐기물 방법별 처리 현황을 보면, 재활용으로 3,369,284톤(60.0%)을 차지하며, 뒤이어 매립 1,136,989톤(20.2%), 소각 829,254톤(14.8%), 기타 281,320톤(5.0%) 순으로 각각 나타남.
지표대응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통계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1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Hazardous waste generated, per capita)
	산식	유해폐기물 배출량 / 총 인구
	측정단위	킬로그램(KG)
	자료수집방법	유엔통계처(UNSD), 유엔환경계획(UNEP) 의 환경 통계 설문지(폐기물 부문)을 통해 국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유해폐기물의 처리 및 폐기비율 (Hazardous waste treated or disposed, rate)
	산식	(보고 연도 중 처리된 유해폐기물량/유해폐기물 총 발생량)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통계처(UNSD),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 통계 설문지(폐기물 부문)을 통해 국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투기, 기타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8#quick_05
	이용통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수집방법	1년마다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보고자료 등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공표주기	매년
	시계열	2010-2018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한국환경공단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지표번호	12.5.1
지표명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National recycling rate, tons of material recycled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감소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waste generation through prevention, reduction, recycling and reus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9월
지표정의	국가 재활용 비율은 국내에서 재활용된 물질의 양과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이지만 재활용을 위해 해외로 수출된 물질의 양을 더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 수입된 물질의 양을 뺀 값을 활용함.
지표의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순환 경제 개념의 핵심이지만 현재 재활용 비율은 낮은 편임. 국가가 폐기물 생성, 수집 및 재활용 과정을 더 잘 이해해야 함.
지표해설	글로벌 데이터는 2020년부터 데이터 생산 예정임.
지표대응	국내에는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통계 폐기물 처리현황에 처리량 중 재활용 항목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frac{(\text{재활용된 물질} + \text{재활용을 위해 수출된 물질} - \text{재활용을 위해 수입된 물질})}{\text{전체발생된폐기물}}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통계처(UNSD),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 통계 설문지(폐기물 부문)을 통해 국가 데이터 수집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unsd/envstats/questionnaire
국내	데이터	폐기물 처리현황(재활용)
	산식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중 재활용되는 양
	측정단위	톤/일
	세분화	-
	출처	https://kosis.kr
	이용통계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자료수집방법	각 사업체에서 울바로시스템 실적보고 또는 서면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시도에서 조사결과 취합(보고통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6-2018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0)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지표번호	12.6.1
지표명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Number of companies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s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Encourage companies, especially large and transnational companies, to adopt sustainable practices and to integrate sustainability information into their reporting cycl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9월
지표정의	지속가능성보고서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GRI,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는 각국의 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발간하는 모든 형태의 지속가능성 관련(지속 가능 경영 관련) 보고서를 의미함. 기업의 독립적인 지속가능 관련 보고서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 연례 보고서의 일부 및 중앙 정부 제출용 보고서 등도 포함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SDGs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실질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유일한 지표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를 집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업의 연간보고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행을 장려함. 기업의 새로운 보고 표준이나 형식을 만들기 보다는, 해당 지표의 최소 요구 사항이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존 보고 양식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유엔통계처(UNSD), 유엔환경계획(UNEP)가 기존 글로벌 및 국가 수준 보고서를 조사하여 집계함.
지표대응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업 수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한국표준협회의 지속가능성 보고 통계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현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내 기업은 총 110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지속가능성 보고서 통계
	산식	-
	측정단위	개
	세분화	누적, 신규
	출처	https://www.ksa.or.kr/ksi/5011/subview.do#
	이용통계	-
	자료수집방법	해당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개 여부를 조사하여 집계
	공표주기	매년
	시계열	2000-2020
	통계생산기관	한국표준협회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지표번호	12.7.1
지표명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Degree of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policies and action plans implementation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Promote public procurement practices that are sustainabl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9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의 정도를 복합 지수로 나타낸 것임. 공공 조달 정책 정도를 지수화하기 위해서 아래 5가지 주요 내용이 필요함 관련 업무 관계자의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에 대한 헌신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 실행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 선택 기준과 우선순위
지표의의	공공 조달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 국내 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며, 개도국에서는 GDP의 최대 30%까지 차지하기도 함.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력을 활용하면 시장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지표해설	2020년부터 데이터 생산 예정임.
지표대응	메타데이터 검토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 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지표번호	12.8.1 (=4.7.1, 13.3.1)
지표명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mainstreamed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By 2030, ensure that people everywhere have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awaren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ifestyles in harmony with natur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전 세계가 i) 세계 시민 교육(GCED)과 (ii)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ESD)이 (a) 국가 교육 정책, (b)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도 지표의 네 가지 요소(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각각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을 책정하고, 이 기준을 결합하여 각 요소에 대해 0과 1 사이의 단일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이를 지수화함. 최종적으로 0부터 1까지의 척도로 평가되며, 1에 가까울수록 그 구성 요소에서 ESD와 GCED가 더 잘 구현되는 것을 의미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국가가 학습자에게 양질의 ESD와 GCED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목적으로 함.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 적절한 교육 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및 학생 평가는 GSD와 ESD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유익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헌신과 노력의 핵심적 요소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현재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모호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교육관련 통계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지표의 네 가지 요소(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학생 평가) 각각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책정하고, 이 기준을 결합하여 각 요소에 대해 0과 1 사이의 단일 점수를 부여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개별국가 설문조사 실시 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보고
	시계열	2020년부터 수집 예정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지표번호	12.a.1 (=7.b.1)
지표명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Installed renewable energy generating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Watts per capita)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city to move towards more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5월
지표정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설비 용량을 한 국가의 총 인구로 나눈 값. 용량은 연말에 설치된 최대 전기 용량을 의미하며, 재생가능 에너지원은 IRENA 법령 정의에 따라 해양에너지(해양조력 및 파도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태양 광 및 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지열 에너지로 구분됨.
지표의의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은 수많은 경제 부문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기기들을 포괄함.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장비 및 기기들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여도를 수집, 집계 및 측정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음. 전기 생산 설비용량을 측정하는 해당 지표의 초점은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인프라의 경우 에너지 공급원을 비교적 쉽게 측정 가능하다는 점과, 전기 수요가 높고 가용성이 제한적인 개도국의 상황, 재생가능 전기 생산 기술이 재생 불가능한 전기 생산 기술보다 일반적으로 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영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는 개도국 대상이므로,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설비 용량 / 총 인구 수
	측정단위	인당 와트
	자료수집방법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연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출처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툴 이행

지표번호	12.b.1
지표명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툴 이행 Implementation of standard accounting tools to monitor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ourism sustainability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Develop and implement tools to monit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s for sustainable tourism that creates jobs and promotes local culture and produc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6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관광위성계정(TSA)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이 각 국에서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함.
지표의의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위원회는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각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측면에서 경제환경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준 회계 툴이 이행된 단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제안함. 이는 UN 통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현재 개발 중인 관광 지속 가능성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SF-MST)와 관련이 있음. SF-MST는 관광 통계를 다른 경제, 사회 및 환경 정보와 통합하고 관광 지속가능성을 분석 하는데 관련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일관된 기반을 제공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위성계정 시범 작성 중임.

글로벌	데이터명1	1. 관광의 경제 및 환경적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표준화된 회계 툴 이행 여부(SEEA표) (Implementation of standard accounting tools to monitor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ourism (SEEA tables)) 2. 관광의 경제 및 환경적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표준화된 회계 툴 이행 여부(관광위성계정표) (Implementation of standard accounting tools to monitor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ourism (Tourism Satellite Account tables)) 3. 관광의 경제 및 환경적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표준화된 회계 툴 이행 여부(표의 수) (Implementation of standard accounting tools to monitor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ourism (number of tables))
	산식	1. SEEA 물 흐름 표, 에너지 흐름 표, GHG 배출량 표, 고형 폐기물 표 중 국가가 생성한 총 표 개수 2. TSA 표 1,2,3,4,5,6,7 중 국가가 생성한 총 표 개수 3. 국가가 생성한 SEEA표와 TSA표의 개수의 합
	측정단위	개
	자료수집방법	세계관광기구(UNWTO)가 각 국가에 보내는 설문을 통해 자료 수집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지표번호	12.c.1
지표명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Amount of fossil-fuel subsidies per unit of GDP (production and consumption)
목표명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세부목표명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하여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이행 (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Rationalize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by removing market distort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by restructuring taxation and phasing out those harmful subsidies, where they exist, to reflect their environmental impacts, taking fully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and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minimizing the possible adverse impacts on their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protects the poor and the affected commun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1월
지표정의	화석연료란 석탄·석유·천연가스 같은 지하매장 자원을 이용하는 연료를 뜻하며 화석연료로 제조된 모든 2차 연료(전기와 열 포함)도 포함함. 화석연료 보조금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한 보조금을 모두 포괄하며, 1)직접 보조금 2)간접 보조금(요금지원 등) 3)(선택적)기타 보조금(세금감면, 세액공제,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하)으로 나누어 측정할 것을 권장함.
지표의의	화석연료 보조금의 규모와 영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도모하기도, 저해하기도 함. 보조금으로 인한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의 증대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기도 하며, 시장왜곡,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악화의 배경이 되기도 함. 다른 한편으로,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복지 수준을 높이기도 함.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함 사안으로 세밀한 분석과 적응조치가 필요함.
지표해설	한국의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역시 2013년 0.013%에서 2015년 0.008%로 감소하였다 2017년 0.015%로 증가하였음. OECD 국가 중 UN 글로벌 데이터에 포함된 20개 국가의 2017년 기준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평균은 0.061%로, 한국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냄. 하지만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0.1%보다 낮은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어 중간값은 0.006%임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보조금 비율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보조금폐지계획'을 제출했고,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이 모두 폐지될 예정.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소비자 대상 화석 연료 보조금의 국제 통계는 IADB, IEA, 그리고 IMF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집계된 바 있지만, 그 외의 화석연료 보조금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국제 데이터베이스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 간접 보조금에 대한 국제 데이터만 구축이 되었으며, 직접 보조금과 기타 보조금에 대한 국제 데이터는 2020년까지 구축될 예정임. 직접보조금의 경우 정부예산 혹은 재정부서의 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간접보조금의 경우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화석연료의 금액 차이를 통해 유추 가능함.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국내 지표는 없음.

글로벌	데이터	GDP 대비 화석연료 가격격차 보조금(소비 및 생산) (Fossil-fuel pre-tax subsidies (consumption and production) as a proportion of total GDP)
	산식	각국의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통계는 1)직접보조금 2)간접보조금(가격 규제 총액) 3)세금 지출, 기타 정부 수입에 대한 포기,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 (선택사항)의 하위 지표로 구분되어 보고할 것이 권장됨. 국가 통화 또는 미국 달러로 보고된 각 하위 지표를 UNEPI 시장 환율을 사용하여 재계산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각국의 통계청과 OEC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
	시계열	2013-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3.1.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지표번호	13.1.1 (=1.5.1, 11.5.1)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directly affected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Strengthen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to climate-related hazards and natural disasters in all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3월
지표정의	인구 1십만 명당 사망, 실종, 재해의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의 수를 의미함. 직접적 피해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대피, 피난, 이주를 경험했거나 생계,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포함함. 지표 값인 X는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의 지표(사망, 실종자, 영향자)를 전 세계 인구데이터(국가 인구조사, 세계은행, 유엔 통계위원회 정보)로 나눈 단순식으로 계산함.
지표의의	센다이 재난 위험 감소 프레임워크 2015-2030은 2015년 3월 유엔 회원국들이 세계 재해 위험 감소 정책으로 채택한 것임. 글로벌 목표 중 "목표 A : 2030년까지 전 세계 재해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2005-2015년 대비 2020-2030년 전 세계 10만 명당 사망률 평균 감소"와 "목표 B: 2005-2015년 대비 2020-2030년 10만 명당 피해 인구 평균 감소"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사회, 보건, 환경 복원력을 강화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관점은 빈곤 퇴치, 도시의 탄력성, 기후 변화 적응을 포함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Sendai) 프레임 워크 2015-2030이 2015년 3월 UN 회원국에 의해 글로벌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지표는 이 정책의 결과를 보여줌.
지표해설	한국은 2018년에는 십만 명당 사망/실종자 수는 0.3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는 26.5명 수준임. 이 수치는 매해 재난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짐.
지표대응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행정안전부가 매해 발간하는 '재해연보'에 자세한 통계치가 제공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자 수 (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X = \frac{(A_2 + A_3 + B_1)}{GlobalPopulation} \times 100,000$ <p>A1 = 재난 사망자 수(재난이 일어나는 도중, 또는 그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 A2 = 재난 실종자 수(재난이 발생한 이후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의 수. 이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포함함.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의 데이터는 상호배타적임) B1 = 재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재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p>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 데이터는 관계 부처에서 수집하고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재난 관리 기관, 시민 보호 기관 및 기상 기관을 포함한 특수 목적 기관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됨. 이 자료는 센다이 프레임 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Number of directly affected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 전체 인구 수) × 100,000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 데이터는 관계 부처에서 수집하고 국가 재난 손실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재난 관리 기관, 시민 보호 기관 및 기상 기관을 포함한 특수 목적 기관에 의해 구축 및 관리됨. 이 자료는 센다이 프레임 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고됨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5-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자 수 및 이재민 수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5603N_004&conn_path=I3
	이용통계	자연재해현황
	자료수집방법	시군구, 시도로부터 자료 수집(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6-2018
	통계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복구지원과(044-205-5313)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지표번호	13.1.2 (=1.5.3, 11.b.1)
지표명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Strengthen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to climate-related hazards and natural disasters in all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란, 효고행동계획(HFA)* 이후의 재난관리 전략계획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후적 복구에서 사전적 예방을 강조하여 재해에 의한 사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위험경감 지침이며 본 지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함.
지표의의	센다이 프레임 워크가 요구하는 국가 및 지방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 나면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적극적인 재난위험감소 전략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것임.
지표해설	전 세계 국가 중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85개로 보고됨.
지표대응	이 지표는 센다이 모니터(Sendai Monitor) 국가별 진행 보고서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계산되는 국제기구 소 관 지표로 한국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SDGs 웹페이지에서 최근 자료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음 재난 위험 감소전략에 대하여 통계로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2010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에 의하여 수립되고 있고, 2016년 7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보다 고려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 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 종합계획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가 재해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 수(Number of countries that reported having a National DRR Strategy which is aligned to the Sendai Framework)
	산식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가 재해 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 수의 합
	측정단위	개
	자료수집방법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OEIWG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DRR 전략을 보고
	시계열	2015-2019(국별 자료가 아닌 세계 수준의 자료만 제공, 한국 데이터는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점수 항목으 로 2015-2018 제공)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감축사무국(UNISDR)
	출처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indicator=13.1.1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각주설명	*효고행동 계획(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의 약어로, 2005년 일본 고베시 효고현에서 열린 재난감축국제회의에서 수립된 것으로, 2005~2015년까지 재해감소 실행을 위한 효고 프레임워크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지표번호	13.1.3 (=1.5.4, 11.b.2)
지표명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Strengthen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to climate-related hazards and natural disasters in all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센다이 재해 위험 감소 프레임 워크 2015-2030은 2015년 3월 유엔 회원국들이 세계 재해 위험 감소 정책으로 채택함. 그 중 하나가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 재해 위험 감소 전략을 가진 국가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라"는 것임. 이에 따라 재해 감소 전략과 정책은 모든 부문, 시간, 목표, 지표, 기간에 대해 재해 위험 감소를 이뤄야 함. 회원국들은 국가 전략에 따라 지역 DRR(Disaster Risk Reduction)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방 정부 수를 세어 전체 지방 정부 수의 백분율로 표현됨.
지표의의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지역 재해 위험 저감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사회, 보건, 환경 탄력성이 강화됨.
지표해설	한국, 미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 등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0%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경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어떻게 통계화할 것인지, 메타데이터 상의 1차, 2차, 3차 과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현재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없고 정의가 모호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국가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비율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dopt and implement loc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산식	(국가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 / 지자체 수)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개별 국가의 부처, 통계청 및 기타 담당 기관이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에 보고
	시계열	2015-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UNISDR)
출처	http://www.preventionweb.net/files/50683_oiewgreportenglish.pdf http://www.preventionweb.net/events/view/55594 <uploaded soon>	
국내	데이터	없음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지표번호	13.2.1 (=13.b.1)
지표명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Number of countries with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long-term strategies, national adaptation plans, strategies as reported in adaptation communications and national communications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Integrate climate change measures into national policies, strategies and plann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없음
지표정의	<p>식량생산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시키고, 회복탄력성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을 증진하는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국가 적응 계획, 국가 감축 기여 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전략/계획의 수립 혹은 시행을 언급한 국가들의 수를 의미함.</p> <p>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의 감축 기여 목표): 파리협정은 각 당사자가 완화, 적응, 지원 대책을 포함한 국가의 자발적 감축 기여 목표(NDC)를 준비, 전달 및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규정함. 당사자들은 이러한 공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완화 대책을 추진해야 함. 정부는 2023년부터 5년마다 협정 이행을 재고하여 협정 취지와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적 진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함.</p> <p>국가적응계획(NAP): NAP 프로세스는 CAF(칸쿤결정문, Cancun Adaptation Framework)**하에서 수립됨. 당사자들이 중장기 적응 요구를 확인하고 그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적응계획(NAP)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주도적이고 젠더 감수성이 풍부하며 참여적이며 완전히 투명한 접근 방식을 따르는 지속적이고 진보적이며 반복적인 프로세스임.</p> <p>장기전략 : 파리 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은 NDC에 통합된 장기적 관점과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을 수립하고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공통적이지만 각각의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책임과 장기적인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p>
지표의의	<p>파리협약의 핵심 목표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고, 온도상승률을 1.5도로 더욱 제한하는 것임. 기후 변화 영향에 대처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p> <p>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해야 하며 동시에 적절한 적응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지역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보고, 업데이트해야 함.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각 당국의 특정 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함.</p> <p>이 협약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의 행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음. 파리 협약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싸우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노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는 의의를 가짐.</p>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p>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및 중앙부처별 대응 종합계획 등 발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이 지표는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비교적 정확하여 향후에 정부정책과 계획을 활용할 수 있음. 하지만 국제기구에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가진 국가 수를 합산하는 국제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소관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에 해당 사항이 없음.</p>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해당없음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지표번호	13.2.2
지표명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year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Integrate climate change measures into national policies, strategies and plann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없음
지표정의	총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CO2 환산 단위로 측정되는 직접적 GHG 배출량의 총합으로 계산됨.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화황(SF6)을 포함하며 각 기체가 가지는 지구온난화 지수(GWP)를 가중하여 CO2양으로 환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함.
지표의의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유엔 기후변화체제의 진화에 있어 가장 최근의 단계를 의미하며, 협약에 따라 수행된 작업에 기초함. 금세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고, 기온 상승 폭을 1.5도까지 더 제한하는 노력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목표임. 또한 이 협정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온실가스별 배출량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온실가스별 배출 추이
	산식	-
	측정단위	백만tCO ₂ eq
	세분화	온실가스 유형별
	출처	환경부
	이용통계	국가온실가스통계
	자료수집방법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수집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0-2017
	통계생산기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 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지표번호	13.3.1 (=4.7.1, 12.8.1)
지표명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Extent to which (i)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i)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mainstreamed in (a) national education policies, (b) curricula, (c) teacher education, and (d) student assessment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Improve education, awareness-raising and human and institutional capacity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adaptation, impact reduction and early warning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전 세계가 i) 세계 시민 교육(GCED)과 (ii)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ESD)이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도 지표의 네 가지 요소(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평가) 각각에 대해 여러가지 기준을 책정하고, 이 기준을 결합하여 각 요소에 대해 0과 1 사이의 단일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이를 지수화함. 최종적으로 0부터 1까지의 척도로 평가되며, 1에 가까울수록 그 구성 요소에서 ESD와 GCED가 더 잘 구현되는 것을 의미함.
지표의의	GCED와 ESD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르고,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며, 지구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함. 또한 학습자가 보다 책임감 있고, 활발한 세계 시민이자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도움. 이 지표는 국가가 학습자에게 양질의 ESD와 GCED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함.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 적절한 교육 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및 학생 평가는 GSD와 ESD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유익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헌신과 노력의 핵심적 요소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현재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모호하여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에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 교육관련 통계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지표의 네 가지 요소(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학생 평가) 각각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책정하고, 이 기준을 결합하여 각 요소에 대해 0과 1 사이의 단일 점수를 부여 (a) 법과 정책, (b) 커리큘럼, (c) 교사 교육, (d) 학생 평가 부문에 대하여 각각의 질문 항이 있으며 4가지 문항에 대해서 하나의 점수로 결합하지 않으며 각각의 점수가 제시됨.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구성 요소에서 GSED와 ESD가 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줌.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구성요소 영역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간단한 평가를 할 수 있음.
	측정단위	점
	자료수집방법	개별국가 설문조사 실시 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보고
	시계열	2020년부터 수집 예정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계연수소(UIS)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세계시민 교육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및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주요 교육 의제로,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세계화, 지속가능 발전 등의 핵심 주제를 다룸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지표번호	13.a.1
지표명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Amount provided and mobilized in United States dollars per year in relation to the continued existing collective mobilization goal of the \$100 billion commitment through to 2025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동원 즉각 이행 Implement the commitment undertaken by developed-country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a goal of mobilizing jointly \$100 billion annually by 2020 from all sources to address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meaningful mitigation actions and transparency on implementation and fully operationalize the Green Climate Fund through its capitalization as soon as possibl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없음
지표정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절차에 따라 매년 1천억 달러 자원 모금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다만 현재 1천억 달러 투입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의 데이터는 2년에 한 번 부속서 당사자들이 보고한 개도국에 대한 기후별 재정 지원 자료가 있지만 이 자료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총동원 목표 달성과 관련한 지표로 해석되어선 안 됨.
지표의의	1천억 공약에 대한 진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가 없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현재 지표 대응을 위하여 참고할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없고 한국은 1천억 달러 의무공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표 적용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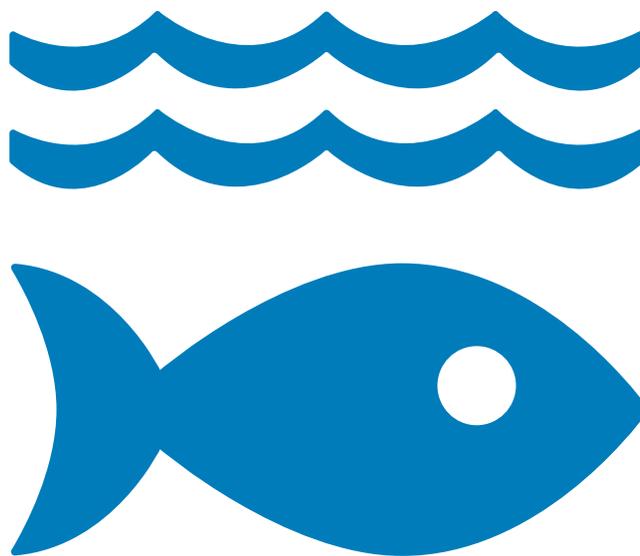
지표번호	13.b.1 (=13.2.1)
지표명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Number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ith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long-term strategies, national adaptation plans, strategies as reported in adaptation communications and national communications
목표명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세부목표명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Promote mechanisms for raising capacity for effective climate change-related planning and management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cluding focusing on women, youth and local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없음
지표정의	식량 생산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하고, 회복탄력성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을 증진하는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국가 적응 계획, 국가 감축 기여 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전략/계획의 수립 혹은 시행을 언급한 국가들의 수를 의미함. 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의 감축 기여 목표): 파리협정은 각 당사자가 완화, 적응, 지원 대책을 포함한 국가의 자발적 감축 기여 목표(NDC)를 준비, 전달 및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규정함. 당사자들은 이러한 공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완화 대책을 추진해야 함. 정부는 2023년부터 5년마다 협정 이행을 재고하여 협정 취지와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적 진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함. 국가적응계획(NAP): NAP 프로세스는 CAF(칸쿤결정문, Cancun Adaptation Framework)하에서 수립됨. 당사자들이 중장기 적응 요구를 확인하고 그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적응계획(NAP)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주도적이고 젠더 감수성이 풍부하며 참여적이며 완전히 투명한 접근 방식을 따르는 지속적이고 진보적이며 반복적인 프로세스임 장기전략 : 파리 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은 NDC에 통합된 장기적 관점과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을 수립하고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공통적이지만 각각의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책임과 장기적인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파리협약의 핵심 목표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고, 온도상승률을 1.5도로 더욱 제한하는 것임. 기후 변화 영향에 대처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해야하며 동시에 적절한 적응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지역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보고, 업데이트해야 함.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각 당국의 특정 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함. 이 협약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의 행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음. 파리 협약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싸우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노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는 의의를 가짐.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한국은 해당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4.1.1 (a) 연안해양 부영양화지수 및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지표번호	14.1.1
지표명	(a) 연안해양 부영양화지수* 및 (b)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a) Index of coastal eutrophication; and (b) floating plastic debris density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5년까지 해양 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By 2025, prevent and significantly reduce marine pollution of all kinds, in particular from land-based activities, including marine debris and nutrient pollu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0월																																							
지표정의	<p>본 지표는 세부지표 14.1.1a 연안해양 부영양화지수(Index of coastal eutrophication, ICEP)와 세부지표 14.1.1b, 부유성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밀도를 포함하고 있음. 각 지표들에 대해 총 세 가지 수준에서 지표가 제안되었으나, 활용가능한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표가 구성됨.</p> <p>수준 1. 지표 관측과 모형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 수준 2. (지역해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을 통해 수집가능한) 국가 별로 직접 수집되는 국가 자료 수준 3. 국가 별 수집을 고려해볼 수 있는 부가 지표(본 문서에서 논의되지 않음)</p> <p>14.1.1a 연안해양 부영양화지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준</th> <th>측정도구</th> <th>보고 빈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연안해양 부영양화 잠재도 지표(N과 P 적재)</td> <td>5년</td> </tr> <tr> <td>1</td> <td>엽록소-a 편차(원격 감지)</td> <td>매년</td> </tr> <tr> <td>2</td> <td>국가 별 ICEP 모델링</td> <td rowspan="4">4년 (지역해 프로그램과 일치)</td> </tr> <tr> <td>2</td> <td>엽록소-a 농도(원격 감지 및 현장)</td> </tr> <tr> <td>2</td> <td>용해된 무기질소(DIN)의 총 질소</td> </tr> <tr> <td>2</td> <td>용해된 무기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의 총 인</td> </tr> <tr> <td>2</td> <td>총 이산화규소</td> <td></td> </tr> </tbody> </table> <p>14.1.1b 부유성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밀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준</th> <th>측정도구</th> <th>보고 빈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0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조각</td> <td>매년</td> </tr> <tr> <td>1</td> <td>국가별로 지상의 원인에서 유래한 해변 쓰레기</td> <td>격년</td> </tr> <tr> <td>2</td> <td>해변 쓰레기(해변 조사)</td> <td rowspan="4">4년 (지역해 프로그램과 일치)</td> </tr> <tr> <td>2</td> <td>부유 플라스틱(시각 관찰, 만타 트롤)</td> </tr> <tr> <td>2</td> <td>수면주 플라스틱(해저 트롤)</td> </tr> <tr> <td>2</td> <td>해저 쓰레기(해저조사(어류 측량 조사), 다이버, 비디오/카메라 예인, 잠수정, 원격 작동 장비)</td> </tr> </tbody> </table>	수준	측정도구	보고 빈도	1	연안해양 부영양화 잠재도 지표(N과 P 적재)	5년	1	엽록소-a 편차(원격 감지)	매년	2	국가 별 ICEP 모델링	4년 (지역해 프로그램과 일치)	2	엽록소-a 농도(원격 감지 및 현장)	2	용해된 무기질소(DIN)의 총 질소	2	용해된 무기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의 총 인	2	총 이산화규소		수준	측정도구	보고 빈도	1	10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조각	매년	1	국가별로 지상의 원인에서 유래한 해변 쓰레기	격년	2	해변 쓰레기(해변 조사)	4년 (지역해 프로그램과 일치)	2	부유 플라스틱(시각 관찰, 만타 트롤)	2	수면주 플라스틱(해저 트롤)	2	해저 쓰레기(해저조사(어류 측량 조사), 다이버, 비디오/카메라 예인, 잠수정, 원격 작동 장비)
수준	측정도구	보고 빈도																																						
1	연안해양 부영양화 잠재도 지표(N과 P 적재)	5년																																						
1	엽록소-a 편차(원격 감지)	매년																																						
2	국가 별 ICEP 모델링	4년 (지역해 프로그램과 일치)																																						
2	엽록소-a 농도(원격 감지 및 현장)																																							
2	용해된 무기질소(DIN)의 총 질소																																							
2	용해된 무기인(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의 총 인																																							
2	총 이산화규소																																							
수준	측정도구	보고 빈도																																						
1	10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조각	매년																																						
1	국가별로 지상의 원인에서 유래한 해변 쓰레기	격년																																						
2	해변 쓰레기(해변 조사)	4년 (지역해 프로그램과 일치)																																						
2	부유 플라스틱(시각 관찰, 만타 트롤)																																							
2	수면주 플라스틱(해저 트롤)																																							
2	해저 쓰레기(해저조사(어류 측량 조사), 다이버, 비디오/카메라 예인, 잠수정, 원격 작동 장비)																																							
지표의의	<p>해안 지역은 육지, 바다, 공기, 사람들이 집중되는 높은 생산성을 지닌 영역임. 40% 이상의 인구가 해안지역에 거주하며, 이러한 지역의 생태계 파괴는 사회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농업용수와 생활 폐수 방출 등을 통해 발생하는 토양 기반의 영양 제공으로 발생하는 부영양화는 해양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임. 연안 해양 부영양화는 해양 생태계, 서식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유해한 녹조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본 지표는 해양 쓰레기와 영양소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감소시키고 방지하여 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p>																																							
지표해설	두 지표는 2021년 발표를 목표로 지표를 시험 및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																																							
지표대응	부영양화는 연안수질 현황을 통해 일부 판단할 수 있으나 부유성 플라스틱에 관한 국내 통계는 얻을 수 없으며 폐기물 밀도 지수라는 정의도 우리나라에 부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글로벌	데이터1	연안해양 부영양화지수(Index of coastal eutrophication)
	산식	<p>1. 연안해양 부영양화 잠재도 지표(ICEP) $ICEP(\text{수소 한정}) = [NFlx / (14 \times 16) - SiFlx / (28 \times 20)] \times 106 \times 12$ $ICEP(\text{인 한정}) = [PFix / 31 - SiFlx / (28 \times 20)] \times 106 \times 12$ 이 때, PFix, NFlx, SiFlx는 각각 강 하구에서 관측된 총 질소, 총 인, 용해된 이산화규소의 양을 각각 일 별 제공킬로미터 당 킬로그램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함</p> <p>2. 엽록소-a 편차 모형 연안해색센서(Coastal Zone Color Scanner, CZCS)을 통해 측정된 월 평균 엽록소-a의 지수의 연간 편차</p>

		<p>3. 현장 영양소 측정 엽록소-a의 농도, 용해된 무기질소의 총 질소, 용해된 무기인의 총 인, 총 이산화규소 등 다양한 지표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여 활용</p> <p>4. 국가별 ICEP 모형 기존의 ICEP 모형과 함께 세계분수령영양소추출(Global Nutrient Export from Water Sheds, Global NEWS-2) 모형과 먹이사슬, 환경, 자원의 영양분 흐름(NUtrient flows in Food chains, Environment and Resources, NUFER)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됨</p>
	측정단위	일별 제곱킬로미터 당 킬로그램, 편차의 퍼센트(%) 등
	자료수집방법	<p>1. 위성 자료</p> <p>2. 세계 모형: 국가별 정부로부터의 공식 자료에 기반하여 UN 기관이 수집</p> <p>3. 정부로부터 제공된 자료</p>
	시계열	2021년 이후 제공 예정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
	데이터2	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floating plastic debris density)
	산식	<p>1. 10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 조각 NASA와 ESA(유럽우주기관)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 해양에서 크기가 10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의 수를 센.</p> <p>2. 국가별로 육상기인 해변 쓰레기 해양 쓰레기의 근원을 추적하는 최신 라그랑주 해양 분석 이론틀인 OceanParcels v2.0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 중 해당 국가의 육상기인 쓰레기의 비율을 계산.</p> <p>3. 해변 쓰레기, 부유 플라스틱, 수면주 플라스틱, 해저 쓰레기 해양 청소 중 수집된 쓰레기의 수를 제곱킬로미터로 계산하여 산출.</p>
	측정단위	개수, 퍼센트(%), 제곱킬로미터 당 개수
	자료수집방법	<p>1. 위성 자료</p> <p>2. 세계 모형: 국가 별 정부로부터의 공식 자료에 기반하여 UN 기관이 수집</p> <p>3. 정부로부터 제공된 자료</p>
	시계열	2021년 이후 제공 예정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부영양화 지수	호수나 늪의 물 속 질소, 인, 칼슘과 같은 영양성분이 과잉 유입된 부영양화 현상의 발생 여부 및 진행 정도를 0~100 사이의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지표번호	14.2.1
지표명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Number of countries using ecosystem-based approaches to managing marine areas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By 2020, sustainably manage and protect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to avoid significant adverse impacts,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ir resilience, and take action for their restoration in order to achieve healthy and productive ocean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0월
지표정의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는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통합연안역 관리(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CZM)를 도입하고 있는 정도를 통해 나타냄. 해당 지표는 아직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아, 일차적으로 지역해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의 지표 22인 ICZM을 우선지표로 활용함.
지표의의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은 생명체, 서식지, 생태계 내의 물리적·화학적 환경, 생물학적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초점, 종 다양성, 전반적인 생태계 건강 관계를 고려함. 한편 관리적 관점에서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적용하는 사회-생태적 체계를 위한 통합된 관리 전략을 의미함.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은 각각을 반영하는 지표에 잘 드러남. 해양공간계획과 통합연안역 지구관리 등 생태학적 관점과 관리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의 관리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지목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법들을 이행하는 것은 생태계 기반의 관리의 타당한 지표로 고려될 수 있음.
지표해설	2020년 SDG 보고를 통해 국가 별 자료를 집계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정책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이후 5년 주기로 보고될 예정임.
지표대응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된다는 것의 정의가 필요하며,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국내 통계가 존재하는지 확인 어려움.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1단계: 해안과 해양 계획 및 관리에 책임을 가진 국가 행정부, 기관, 조직 등을 구체화 2단계: ICZM 계획에 따른 국가, 하위-국가, 지역적 경계를 설정하고 구체화 3단계: ICZM 계획의 도입 상태를 결정하고, 다음의 도입 단계에 따라 지역을 분류: 1) 초기 계획 준비 2) 계획 개발 3) 계획 도입/지정 4) 도입 및 조정 관리
	시계열	2021년 이후
	공표주기	5년
	세분화	지역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출처	-
	국내	데이터
각주설명	*배타적 경제 수역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수역이자 영역 내 모든 자원에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지표번호	14.3.1
지표명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Average marine acidity (pH) measured at agreed suite of representative sampling stations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Minimize and address the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including through enhanced scientific cooperation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2월
지표정의	해양 산성화지수는 수소 이온 농도인 pH로 표현함. 바닷물의 탄산염 화학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pH, pCO ₂ , DIC(CT), TA(AT) 등 4개 파라미터 중 최소 2개를 측정하여 pH로 환산함. 이때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은 탄소 화학물의 추세를 다양성을 묘사하고 해양 산성화에 대한 해양 체계의 노출과 그 충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측정 빈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 아울러 대표 표본 추출 지점은 국가의 다른 지역들과 자료를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메타 데이터 정보와 함께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는 장소들임. 본 지표는 각 표본 추출 지점에서 해양 산성도의 가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하여 연간 평균값을 사용함.
지표의의	해양 산성화란 대기의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해양의 산성도(pH)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바다는 대기로부터 인공 탄소의 약 30%를 흡수하여 점차 해수의 pH값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해양 생물, 생태계, 생물다양성, 식량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수산업과 양식업 뿐만 아니라 관광, 교통, 해안 보호 등 해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해안 지역의 경우 민물 투입, 해수면 상승, 생물학적 활동, 온도 변화 등이 해양의 산성도 변화에 대한 관리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모니터링 개선 방법, 측정 대상, 보고 대상 등에 대한 지침을 본 방법론에 수록하여 해양 산성화 관찰에 더 나은 이해와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고 품질 관리,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음.
지표해설	해당 지표는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 총 4개국의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 지구적 수준의 해양 산성화를 평가하기 위해 (1) 각국 통계청을 거치는 국가 보고 메커니즘 설치; (2) IOC 소속 국가별 지점에 매년 요청; (3) 국립해양자료원(NODC) 및 국제적 자료원들과 연계; (4) 전 지구 해양산성화 관측망(GOA-ON)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자료 수집 방법을 확대할 예정임.
지표대응	해양수산부의 해수수질실태보고는 연안수질 현황과 항만수질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이라는 정의가 분명치 않다는 점, 해양 산도를 산출하기 위해 측정해야 하는 네 가지의 지표 중 한 가지만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글로벌 지표에 해당하는 한국의 지표를 특정할 수 없음.

글로벌	데이터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Average marine acidity (pH) measured at agreed suite of representative sampling stations)
	산식	측정 가능한 모수(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들의 연간 평균
	측정단위	산성도(pH)
	자료수집방법	전문가들에 의해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에서 로그함수 상 수소이온농도(pH), 총 알칼리도(TA 혹은 AT), 총 용존무기탄소(DIC 혹은 CT), 탄산가스분압(pCO ₂) 중 적어도 두 가지의 지표를 측정하여, 최종 지표인 pH로 환산함.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측정계선별
	지표소관기구	유네스코 정부간해양조사위원회(IOC-UNESCO)
	출처	https://en.unesco.org/gosr
국내	데이터1	항만수질현황
	산식	-
	측정단위	pH
	세분화	항만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1744&conn_path=I3
	이용통계	해수수질실태보고
	자료수집방법	해양환경관련 전문조사분석기관 → 측정망 운영(조사)결과 → 해양수산부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4~2019
통계생산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44-200-5288)
데이터2	연안수질현황(환경관리해역 환경측정망)
산식	-
측정단위	pH
세분화	환경관리해역 환경측정망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1740&conn_path=I3
이용통계	해수수질실태보고
자료수집방법	해양환경관련 전문조사분석기관 → 측정망 운영(조사)결과 → 해양수산부
공표주기	1년
시계열	1995~2019
통계생산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44-200-5288)
데이터3	연안수질현황(연근해 환경측정망)
산식	-
측정단위	pH
세분화	환경관리해역 환경측정망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1742&conn_path=I3
이용통계	해수수질실태보고
자료수집방법	해양환경관련 전문조사분석기관 → 측정망 운영(조사)결과 → 해양수산부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2~2019
통계생산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044-200-5288)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지표번호	14.4.1
지표명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Proportion of fish stocks within biologically sustainable levels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By 2020, effectively regulate harvesting and end overfish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destructive fishing practices and implement science-based management plans, in order to restore fish stocks in the shortest time feasible, at least to levels that can produce maximum sustainable yield as determined by their biological characteristic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 자원에 관한 지표는 자원량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어획량 수준을 제시함. 해당 수준과 같거나 해당 수준보다 높은 상태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유하여 최대 지속가능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eild, MSY)에 도달한 경우,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됨. 반면 풍부함이 MSY 수준 이하로 내려간 경우 어족자원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 지표는 MSY 수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어족자원의 비율을 의미함.
지표의의	본 지표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어획량'과 '재생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측정함. 어족자원이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포획될 때, 어족자원의 재생산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어획량을 거둘 수 있으며, 인간의 활용과 생태계 보전 사이의 좋은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음. 비율은 생산량이나 어족자원 풍부성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순히 계산되어 모든 어족자원이 같은 중요도를 갖게 됨.
지표해설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이내에 포함된 어족자원의 비율은 1974년에 90%에 이르던 것이 2017년에는 65.8%까지 감소하였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소 추세의 속도는 점차 느려졌고, 2008년 이후에는 안정화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수준에서 해당 지표에서 명확한 발전의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잘 측정할 수 있지만, 어족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 부족과 기술적/경제적 문제로 인해 지표를 구축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경우 12개 어종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Proportion of fish stocks within biologically sustainable levels (not overexploited))
	산식	$\text{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 = \frac{\text{MSY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어종수}}{\text{전체 어종수}}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우선적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회원국에서 수집한 어획량, 어업 활동 자료, 기타 생물학적 자료 등을 활용하며,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함.
	시계열	2000, 2004, 2006, 2008, 2009-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2009년 이후 2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내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441/en/
	데이터	어업생산동향
	산식	사업체별 월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집계
	측정단위	톤, 천원
	세분화	-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이용통계	어업생산동향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공표주기	매월, 1년
	시계열	2000-2019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농어업동향과(042-481-2515)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지표번호	14.5.1
지표명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Coverage of protected areas in relation to marine areas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가용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지역의 10% 보호 By 2020, conserve at least 10 per cent of coastal and marine areas, consisten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의 비율 지표는 해양 다양성에 중요한 각 지역(즉, 전 세계 중 다양성의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지역) 중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영역의 비율을 의미함. 보호구역이란,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자연의 장기적인 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법령이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승인, 지정되고, 관리되는 지리적 공간을 뜻함.
지표의의	주요 지역의 보호는 종 다양성의 감소를 막고 해양 자원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데 중요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주요 기제이며, 본 지표는 해양 생태계와 그것이 제공하는 효용들에 대한 보호, 회복, 지속가능한 활용의 진척도를 측정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본 지표가 단 하나의 생태계 형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관심 단일 생태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임. - 조류&생물다양성 지역(IBAs): 조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구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지역 - 멸종 제로 지역 동맹(AZEs): 멸종위기종과 명확히 위험한 종과 관련한 IUCN 레드리스트의 위험 중에 대해 적어도 한 종은 모든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 -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KBAs_ Key Biodiversity Area):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IUCN에 의한 지정 지침 다시 말해, 중요한 지역의 보호된 구역을 나타내는 다목적 지표를 테마별로 분류하여 생물다양성의 지속성에 명확히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해양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의 비율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공간에 따른 종다양성 중요도의 극단적인 분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지님.
지표해설	보호지역이 적용되는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 평균 비율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2000년 30.5%이던 것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46.1%에 달하게 됨. 한편 2019년 OECD 국가의 2/3 정도가 50%를 넘기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2000년 20.8%에서 시작하여 2019년에도 38.5%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26위에 머무르고 있음.
지표대응	우리나라 현황으로는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임. Protected Planet의 Protected Areas Valu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호되는 해양구역의 수는 알 수 없으나 총 면적은 3,411km ² 임.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지표에 대응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1	보호지역이 적용되는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 평균 비율(Average proportion of Marine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산식	보호지역이 적용되는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 평균 비율 = 각 해양핵심생물다양성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비율들의 평균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의 보호지역 디지털 다각형과 해양핵심생물다양성지역의 디지털 다각형이 중첩되는 공간을 계산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세계 보전 모니터링 센터(UNEP-WCMC),
	출처	https://www.sdg.org/datasets/indicator-14-5-1-average-proportion-of-marine-key-biodiversity-areas-kbas-covered-by-protected-areas-percent-5
	데이터2	해양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 비율(배타적경제수역)(Coverage of protected areas in relation to marine areas (Exclusive Economic Zones))
	산식	해양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 비율 = $\frac{\text{해양 보호지역 면적}}{\text{전체 해양면적}} \times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국가의 보호지역 자료를 제공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세계 보전 모니터링 센터(UNEP-WCMC),
	출처	https://www.sdg.org/datasets/indicator-14-5-1-coverage-of-protected-areas-in-relation-to-marine-areas-exclusive-economic-zones-percent-5
	데이터3	보호되는 해양면적(배타적경제수역)(Protected marine area (Exclusive Economic Zones))
	산식	보호되는 해양면적 = 해양 보호지역 면적의 총 합
	측정단위	제곱킬로미터(km ²)
	자료수집방법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에서 각 국가의 보호지역 자료를 제공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세계 보전 모니터링 센터(UNEP-WCMC),
	출처	https://www.sdg.org/datasets/indicator-14-5-1-protected-marine-area-exclusive-economic-zones-square-kilometres-5
국내	데이터	해양보호구역현황
	산식	각 해양보호구역 면적의 총합
	측정단위	제곱킬로미터(km ²)
	세분화	-
	출처	해양환경정보포털
	이용통계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수집방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
	공표주기	부정기(입법 시)
	시계열	2002~2018
	통계생산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064)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지표번호	14.6.1
지표명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Degree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iming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By 2020, prohibit certain forms of fisheries subsidies which contribute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eliminate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refrain from introducing new such subsidies, recognizing that appropriate and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5월												
지표정의	<p>본 지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별 진전을 의미함. 보고 시점마다 국가의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점수가 제공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점수는 5점 척도로 변환되어 제공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0~<0.2</td> <td>1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매우 낮음</td> </tr> <tr> <td>0.2~<0.4</td> <td>2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낮음</td> </tr> <tr> <td>0.4~<0.6</td> <td>3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보통임</td> </tr> <tr> <td>0.6~<0.8</td> <td>4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높음</td> </tr> <tr> <td>0.8~1.0</td> <td>5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매우 높음</td> </tr> </tbody> </table>	점수	등급	>0~<0.2	1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매우 낮음	0.2~<0.4	2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낮음	0.4~<0.6	3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보통임	0.6~<0.8	4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높음	0.8~1.0	5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매우 높음
점수	등급												
>0~<0.2	1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매우 낮음												
0.2~<0.4	2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낮음												
0.4~<0.6	3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보통임												
0.6~<0.8	4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높음												
0.8~1.0	5등급: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의 이행 정도가 매우 높음												
지표의의	IUU 어업은 어종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노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Agenda 21의 제17장과 1995 FAO 책임어업행동강령(1995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CCRF)이 목표로 하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임. 게다가 IUU 어업은 해당 어업 조직의 규율에 따라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제공함. 이는 IUU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임. IUU가 억제되지 않고, IUU 어업이 강력한 관리 혹은 유예기간에 속한 취약한 어종자원을 목표로 할 경우 해당 어종들이 풍부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달성될 수 없음. 지금까지 IUU 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가의 다른 책임들을 강조하는 다양한 국제적 수단들이 발달함.												
지표해설	한국은 대다수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5등급에 속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매우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활용되는 자료는 어업 행동 강령 및 관련 기구(CCRF)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지의 특정 섹션에 대한 주정부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응되는 통계는 확인할 수 없음.												

글로벌 산식	데이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Progress by countries in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iming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변수	국제 협약	가중치	
	변수 1(V1)	1982 유엔해양법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준수 및 이행	10%	
	변수 2(V2)	1995 유엔어종자원협약(1995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의 준수 및 이행	10%	
	변수 3(V3)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POA-IUU)의 일환으로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NPOA)을 개발 및 이행	30%	
	변수 4(V4)	2009 항만국 측정에 대한 FAO협약(2009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PSMA)의 준수 및 이행	30%	
	변수 5(V5)	1993 FAO이행협정(1993 FAO Compliance Agreement)과 FAO기국상태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FAO Voluntary Guidelines for Flag State Performance)에 따른 기국책임(Flag State Responsibilities)의 도입	20%	
각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곱하여 0과 1사이의 지표 값을 산출				

	측정단위	이행 정도(1: 가장 낮음, 5: 가장 높음)
	자료수집방법	각 국제적 수단의 이행 정도에 대한 설문지를 FAO를 통해 발송하여 국가 별 응답을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2020년에 자료 수집 예정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4.6.1/en/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최빈개도국	유엔이 지정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극빈국가들.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지표번호	14.7.1
지표명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Sustainable fisheries as a proportion of GDP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all countries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하여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By 2030, increase the economic benefits to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aquaculture and tourism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해당 지표는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경제 내 모든 부문의 부가가치) 중 잡는 어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의 GDP에 대한 기여수준을 의미함. 목표 14.7은 어업, 양식, 관광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본 지표는 어업에 의한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초점을 둠. 따라서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합의된 지표 공식에 따라 GDP 중 비율로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측정함.
지표의의	특정 산업에서 얻는 부가가치의 비율은 그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됨. 따라서 어업 부가가치는 국가 경제에서 어업 관련 활동의 중요성과 생계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냄. GDP와 부가가치 모두 불변가격과 국내 통화로 측정됨.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포획되는 어족자원은 재생산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그에 의존하는 지역과 산업을 부양할 수 있음. 반대로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포획되는 어족자원은 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장기적인 경제 악화를 야기하게 됨. 어족자원의 상태는 생태학적·통계적 정보를 취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어업에 대한 반응으로서 풍부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지표해설	본 지표는 군소도서 개발국 및 최빈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어업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어,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자료를 활용할 수 없거나, 0.1% 미만의 매우 낮은 값을 보임. 분류에 따라 확인해보면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우 0.5%선에서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2011년 0.3%에 미치지 못하던 지표 값이 2017년 0.5%에 가깝게 상승해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게 됨.
지표대응	본 지표는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지표로 생각되지만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정의 자체도 모호하여 향후 메타데이터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내용 재검토가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Sustainable fisheries as a percentage of GDP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all countries)
	산식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의 GDP에 대한 기여수준은 다음과 같이 측정됨. 1) 국가GDP를 어업과 양식의 부가가치로 나누어 어업과 양식의 GDP 기여수준을 산출함. $\text{어업과 양식에서 발생한 GDP(\%)} = \frac{\text{어업과 양식의 부가가치}}{\text{GDP}} \times 100$ 2) 어업과 양식의 부가가치를 구분하기 위해 어획량을 대리변수로 하여 다음을 계산함. $\text{어류포획 부가가치의 대리변수 (\%)} = \frac{\text{어업·양식에서 발생한 GDP} \times \frac{\text{해양에서의 어류포획량}}{\text{총 어류어획량}}}{\text{총 어류어획량}} \times 100$ 3) FAO의 각 주요 어업지역에서 시기에 따라 발간하는 평균 지속가능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성 승수를 계산. 국가별로, 지속가능성 지수는 국가가 어업 활동을 하는 각 지역에서 포획되는 어류의 양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가 고려된 지속가능성의 평균을 의미함. 만약 한 국가가 하나의 FAO 어업지역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성 승수는 그 지역 어족자원의 평균 지속가능성과 같음. $\text{지속가능성 승수} = \left(\text{각 지역의 지속가능성} \times \frac{\text{각 해양지역의 어획량}}{\text{모든 해양지역의 어획량}} \right) \text{의 합}$ 4) 지속가능한 어류어획량을 GDP의 비율로 표현하기 위해 어류어획량 부가가치 대리변수에 지속가능성 승수를 곱함. GDP의 비율로서 지속가능한 어류포획량 = 지속가능성 승수 X 해양 어업의 부가가치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통계국(결측치의 경우 OECD)에서 매년 2월 FAO로 자료를 보내 GDP 데이터를 구축하며, 지속가능성의 경우 지표 14.4.1(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의 비율)을 활용함.
	시계열	2000-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471/en/
	국내	데이터
각주설명	*군소도서 개발국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하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의 작은 섬 나라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지표번호	14.a.1
지표명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Proportion of total research budget allocated to research in the field of marine technology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Increase scientific knowledge, develop research capacity and transfer marine technolog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order to improve ocean health and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marine biodiversity to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5월
지표정의	정부가 관리하는 연간 국가 예산 중 해양 기술 분야로 할당되는 비율. IOCCG/TMT(IOC 기준 및 지침)에서 정의한 해양기술은 해양 연안 지역의 자연 및 자원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구, 장비, 선박, 프로세스 및 방법론으로 다음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a) 해양 과학 및 관련 해양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사용자 친화적 형식) b) 설명서, 지침, 기준, 표준, 참고 자료 c) 샘플링 및 방법론 장비(예: 물, 지질, 생물학적, 화학적 샘플) d) 관측 시설 및 장비(예: 원격 감지 장비, 부표, 조수계, 선박 및 기타 해양 관측 수단) e) 현장 및 실험실 관찰, 분석 및 실험을 위한 장비 f) 모델 및 모델링 기법을 포함한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g) 해양 과학 연구 및 관찰과 관련된 전문성, 지식, 기술, 기술적/과학적/법적 노하우 및 분석적 방법
지표의의	해양 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식의 진보와 현대 경제 지원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것으로, 해당 지표는 투자 및 새로운 역량 개발 전략의 출발점으로 사용될 수 있음. 특히, 해양 경제는 많은 분야에서 고용, 수익, 혁신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그것의 현재 발전 수준은 세계 각국 정부의 수십 년간의 과학과 연구개발 투자에 기반을 두고 있음.
지표해설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중 해양과학에 지출되는 비율의 평균은 1.09퍼센트이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25%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2013년 0.4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임.
지표대응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양수산연구개발에 투입된 예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연구 개발 총 비용과 견주어 해당 지표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을 도출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가 해양과학에 지출되는 비율(National ocean science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산식	(해양과학에 지출되는 국가 연구개발 비용 / 국가 연구 개발 전체 예산)×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GOSR(Global Ocean Science Report)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예산 지출 규모를 수집
	시계열	2013-2017(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네스코 정부간해양조사위원회(IOC-UNESCO), NSOs, 유엔교육문화기구 통계연구소(UIS)
출처	https://en.unesco.org/gosr	
국내	데이터	해양수산연구개발 예산
	산식	-
	측정단위	원
	세분화	사업별
	출처	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55579Q018ZE4531P8OYY769237
	이용통계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세입/지출 예산편성현황(총액)"
	자료수집방법	세입/지출 예산 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7-2019
통계생산기관	해양수산부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및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지표번호	14.b.1
지표명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및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Degree of application of a legal/regulatory/policy/institutional frame work which recognizes and protects access rights for small-scale fisheries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성 제공 Provide access for small-scale artisanal fishers to marine resources and marke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5월
지표정의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적/규제/정책/제도적 구조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의미하며, 소규모 영세어민의 해양자원 접근성에 대한 국가들의 진전도를 평가함. CCRF(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설문지에는 소규모 어업에 관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반영함. 1. 소규모 수산분야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거나 다루는 법률, 규정, 정책, 계획 또는 전략이 있는가? 2. SSF(Small-scale Fisheries) 가이드라인(소규모 어업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3. 어업인/직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자문기구가 있는가? 국가지표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특히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권을 촉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실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표의의	SDG14의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되었을 때, 수렵과 어업의 확장 및 살아있는 해양 자원들에 대한 공정하고 안전한 접근에 대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들에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식량안보와 빈곤 근절의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을 보장할 수 있음.
지표해설	소규모 영세 어업만을 목표로 하는 법, 규제, 정책, 계획, 전략 등의 존재; SSF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 영세 어민과 어업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여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의 존재 등 세 가지 주요 변수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영세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측정함.
지표대응	국내 자료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함. CCRF 설문조사에 한국의 응답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내의 어떤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국제기구에 어떻게 응답을 보내는지 파악하여 향후 SDG 지표에 대응하여야 함.

글로벌	데이터	소규모 어업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정, 정책, 제도적 체계를 적용한 정도에 있어서 국가들의 진전도(Degree of application of a legal/regulatory/policy/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recognizes and protects access rights for small-scale fisheries)												
	산식	핵심적인 세 영역의 하위 변수들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점수를 산출하게 됨.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모든 하위 변수를 실천하고 있는 경우 1점을 얻게 됨. 변수 1: 소규모 영세 어업만을 목표로 하는 법(총 0.4점의 가중치를 갖는 5개의 하위변수) 변수 2: SSF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총 0.3점의 가중치를 갖는 10개의 하위변수) 변수 3: 영세 어민과 어업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여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의 존재(총 0.3점의 가중치를 갖는 1개의 하위변수) 각 하위 변수에 할당된 가중치의 총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진척도 점수를 매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분류</th> </tr> </thead> <tbody> <tr> <td>>0 ~ <0.2</td> <td>1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아주 낮은 정도</td> </tr> <tr> <td>0.2 ~ <0.4</td> <td>2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낮은 정도</td> </tr> <tr> <td>0.4 ~ <0.6</td> <td>3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보통인 정도</td> </tr> <tr> <td>0.6 ~ <0.8</td> <td>4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높은 정도</td> </tr> <tr> <td>0.8 ~ <1.0</td> <td>5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매우 높은 정도</td> </tr> </tbody> </table>	점수	분류	>0 ~ <0.2	1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아주 낮은 정도	0.2 ~ <0.4	2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낮은 정도	0.4 ~ <0.6	3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보통인 정도	0.6 ~ <0.8	4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높은 정도	0.8 ~ <1.0	5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매우 높은 정도
	점수	분류												
	>0 ~ <0.2	1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아주 낮은 정도												
	0.2 ~ <0.4	2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낮은 정도												
	0.4 ~ <0.6	3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보통인 정도												
	0.6 ~ <0.8	4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높은 정도												
	0.8 ~ <1.0	5등급: 소규모 어민들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매우 높은 정도												
	측정단위	1: 가장 낮음~5: 가장 높음												
자료수집방법	CCRF(Code of Cu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설문지를 통해 각 국가의 국가어업관리부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활용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4b1/en/													
국내	데이터	없음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지표번호	14.c.1
지표명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making progress in ratifying, accepting and implementing through legal,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ocean-related instruments that implement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oceans and their resources
목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대양 및 대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대양 및 대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 Enhanc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oceans and their resources by implementing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provide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oceans and their resources, as recalled in paragraph 158 of "The future we wa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1월
지표정의	본 지표는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 관련 수단을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를 측정함. 지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됨. (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UNCLOS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수단을 비준,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2) 그러한 장치들을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지표의의	가장 세계화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선원들의 노동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ILO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수를 통해 전 세계 해양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UNCLOS는 대양과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하는 대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법적 장치로 규정하려 함. 이는 협약의 조항에 부합하는 다른 도구들의 개발을 돕는 장치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UNCLOS가 반영된 국제법 도입의 진척도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하는 해양 관련 제도들의 도입 진척도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이 포괄적인 협약은 고용자 최소 연령, 고용 계약, 근로 시간 또는 휴식 시간, 임금 지불, 연차 유급휴가, 계약 만료 후 본국으로의 송환, 선박 탑승 시 치료, 인가 받은 고용 및 배치 서비스의 이용, 숙식, 건강 및 안전, 사고 방지와 선원의 고충 해결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선원의 노동 및 생활조건에 관한 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등을 다루고 있어 선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지표해설	이 지표는 새로 도입된 지표로, 14.c.1 질문지에 대한 초기 관리가 지표의 기초 자료를 구축할 것임. 현재 제공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유엔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있는 UNCLOS와 도입협약의 회원국 수임.
지표대응	한국은 2014년 1월 9일 ILO 해사노동협약(the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비준한 상황이지만 이 지표는 국가 수를 합산하는 국제기구 소관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에 해당 사항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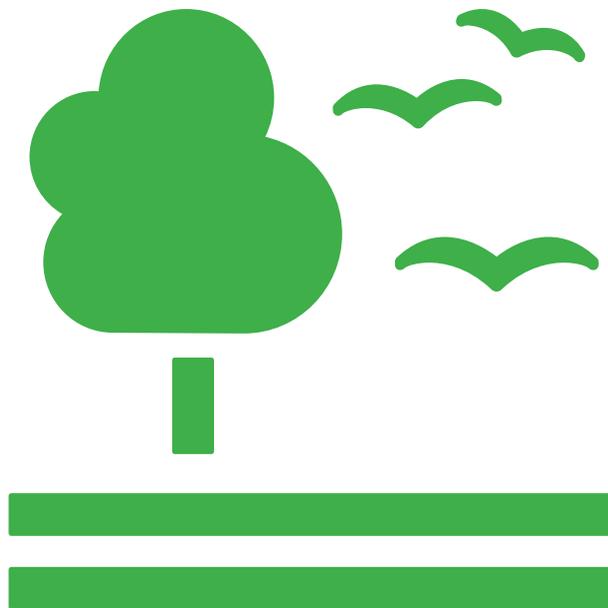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세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항목에 대한 각 국가의 응답에 기반하여 측정됨. 각 항목은 UNCLOS, Part XI Agreement, UNFSA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며, 해당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하였는지에 대한 문항(0: 아니오, 1: 예), 법적 장치로 도입하였는지에 대한 9점 척도 문항(1: 전혀 아님, 9: 전적으로 도입함),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항(0: 아니오, 1: 예) 등으로 이루어짐. (1) "대양과 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UNCLOS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의 경우, 비준 여부에 대한 응답의 값을 모두 더해 0~3의 값으로 만든 후, 0은 0점을, 3은 100점을 받도록 변환. (2) "그러한 수단을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의 경우 두 번째 문항과 세 번째 문항의 단순 합을 구해 0~30의 값으로 만든 후, 0은 0점을, 30점은 100점을 받도록 변환.
	측정단위	점(0~100)
	자료수집방법	각 국가에 설문조사를 요청
	시계열	2020년 기초자료 수집 예정
	공표주기	2~3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법무국해양법국(OLA/DOALOS)
출처	-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5.1.1 총 국토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지표번호	15.1.1
지표명	총 국토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By 2020, ensure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and inland freshwater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 particular forests, wetlands, mountains and drylands, in line with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산림의 정의는 최소 면적이 0.5헥타르 이상, 수고가 최소한 5m 이상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밀도(canopy cover)가 10% 이상 되는 토지로서 주로 농경이나 도시에서 쓰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총 토지면적은 주요 강과 호수 같은 내수로 덮인 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뜻함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지표의의	'산림면적'의 변화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며 산림 또는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행위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냄. 본 지표를 통해 국가 간 상대적인 산림면적 비율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맥락에서 국가별 노력을 판단할 수 있음.
지표해설	한국은 2000년 66.36, 2015년 65.03, 2020년 64.52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음. 한국의 산림 면적 비율은 핀란드, 스웨덴, 일본 등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
지표대응	산림청은 FAO에 '산림면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면적 자료만으로는 산림과 관련된 토지이용 변화(예. 산림→시가지, 산림→농경지 등)를 탐지하거나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음.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등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표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	총 국토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 (%))
	산식	산림면적(참고년도) / 총 토지면적(2015) × 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1946년부터 FAO는 5~10년 간격으로 세계 산림을 모니터링하며, 세계산림자원평가(FRA)는 5년마다 진행됨. FRA 2020에서는 236개 국가 및 지역의 산림 범위, 조건, 용도 및 가치와 관련된 약 60개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의 경우 FAO가 문헌 검색, 원격 감지 또는 둘 이상의 조합 사용해 보고서 작성함 모든 데이터는 표준 형식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가 보고서 형식으로 FAO에 제공됨. 원본 데이터, 레퍼런스 와 같이 각 지점의 산림 면적 추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됨. 온라인 플랫폼은 모든 데이터의 입력, 검토, 품질관리에 사용됨
	시계열	1990, 2000, 2005, 2010, 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 이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각 연도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FRA)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토지피복 지도	지구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Color Indexing한 후 지도의 형태로 표현한 공간정보DB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지표번호	15.1.2
지표명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Proportion of important sites for terrestrial and freshwater biodiversity that are covered by protected areas, by ecosystem type
목표명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국제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By 2020, ensure the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and inland freshwater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in particular forests, wetlands, mountains and drylands, in line with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지표정의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평균 비율을 의미함.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설정한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비중. IUCN에서 정하는 중요 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적인 가치가 연계된 지역으로, 자연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혹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며 확실한 목적 하에 관리되는 지리적인 장소임. - 항목 I a: 엄정 자연보호지역(Strict Nature Reserve), 항목 I b: 야생지 보호지역(Wilderness Area), 항목 II: 국립공원(National Park), 항목 III: 자연기념물(Natural monument or feature), 항목 IV: 서식지/종 관리지역(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항목 V: 경관 보호지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 항목 VI: 자원보호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 지정된 상태란 보호 구역이 국내법이나 일반적인 관습(예를 들어 행정부의 법령 등)에 따라 상응하는 권한이 생길 때 공식적으로 지정 문서에 승인된 상태를 지칭함.
지표의의	생태문화적으로 중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생태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데 기여하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육상 및 담수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
지표해설	중요 지역은 조류&생물다양성 지역, 멸종 제로 지역 동맹**, 핵심생물다양성지역 등의 중요 지역 등이 포함되며, 보호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연관된 자연의 장기적인 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법 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을 통해 인지, 기여, 관리되도록 명확하게 지정된 지리적 공간을 의미.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육상지역은 37.5%, 담수지역은 36.8%로가 보호지역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표대응	국내법에 의한 보호지역 면적 통계가 KDPA(한국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를 통해 WDPA(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됨. 국제기구인 이 면적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핵심생물다양성지역 면적을 겹쳐서 본 지표를 생산 중임. 국내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를 적용한 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글로벌	데이터1	보호지역이 적용되는 담수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평균 비율(Average proportion of Freshwater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
	산식	WDPA(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의 보호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과 담수핵심생물다양성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의 중첩을 통해 계산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핵심생물다양성지역에는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mportant bird and biodiversity areas; IBAs), 멸종 제로제휴지역(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 AZEs)이 포함됨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는 5-10년마다 UN 보호지역 목록을 작성하고, UN Lists의 중간 기간 동안 보호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부처/기관 및 NGO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계열	2000-2019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출처	https://www.protectedplanet.net/
	데이터2	보호지역이 적용되는 육상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 평균 비율(Average proportion of Terrestrial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
산식	WDPA(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의 보호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과 육상핵심생물다양성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의 중첩을 통해 계산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핵심생물다양성지역에는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mportant bird and biodiversity areas; IBAs), 멸종제로제휴지역(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 AZEs)이 포함됨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는 5-10년마다 UN 보호지역 목록을 작성하고, UN Lists의 중간 기간 동안 보호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부처/기관 및 NGO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계열	2000-2019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출처	https://www.protectedplanet.net/
국내	데이터	보호지역현황
	산식	-
	측정단위	-
	세분화	-
	출처	한국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이용통계	-
	자료수집방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14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현황을 서비스. 이 자료를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에 제출 등재함
	공표주기	-
	시계열	-
	통계생산기관	한국보호지역포럼(paforum.or.kr)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2, 033-769-9524)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지표번호	15.2.1
지표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목표명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시키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By 2020,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all types of forests, halt deforestation, restore degraded forests and substantially increase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globall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UN 총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모든 형태의 산림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SFM은 산림 면적 연간 순 변화율, 산림 내 지상부 바이오매스 총량, 보호림 비율,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비율, 산림경영인증 면적 등 5개 지표로 모니터링 됨.
지표의의	지표 15.1.1과 함께 산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 본 지표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방지하고 육상 및 담수 자원의 장기간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도모하며 산림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산림자원의 장기적·지속적 관리에 활용 가능함.
지표해설	국내 산림면적 및 장기관리계획 하의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상부 바이오매스 양 및 보호림 비율, 독립기관에 의한 산림경영인증면적은 증가하고 있음.
지표대응	산림청은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이 보고서에는 몬트리올프로세스(Montreal Process)**가 제시하는 7개 기준 54개 지표 중 36개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석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15.2.1)'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또한, FAO에서는 매년 Global Forest Assessment를 실시하는데 국내 산림과학원에서 대응 중임.

글로벌	데이터1	산림 내 지상부 바이오매스(biomass) 총량(Above-ground biomass in forest per hectare (tonnes per hectare))
	산식	-
	측정단위	헥타르 당 톤
	자료수집방법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Global Forest Assessment를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국별 컨설팅 실시
	시계열	2000, 2010, 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 이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forest-resources-assessment/en/
	데이터2	산림면적 연간 순변화율(Forest area net change rate (%))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Global Forest Assessment를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국별 컨설팅 실시
	시계열	2000-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5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forest-resources-assessment/en/	



	데이터3	산림경영인증 면적(Forest area certified under an independently verified certification scheme (thousands of hectares))
	산식	-
	측정단위	1,000헥타르
	자료수집방법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Global Forest Assessment를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국별 컨설팅 실시
	시계열	2000, 2010, 2015-2019(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 이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forest-resources-assessment/en/
	데이터4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비율(Proportion of forest area with a long-term management plan (%))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Global Forest Assessment를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국별 컨설팅 실시
	시계열	2000,2010,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 이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forest-resources-assessment/en/
	데이터5	보호림 비율(Proportion of forest area within legally established protected areas (%))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Global Forest Assessment를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국별 컨설팅 실시
	시계열	2000, 2010, 2015-2020(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2015년 이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fao.org/forest-resources-assessment/en/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바이오매스	단위 면적당 생물체의 중량 또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생물체 무게, 식물의 경우에는 지상부의 건조중량
	**몬트리올 프로세스	온·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회의 과정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지표번호	15.3.1
지표명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Proportion of land that is degraded over total land area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By 2030, combat desertification, restore degraded land and soil, including land affected by desertification, drought and floods, and strive to achieve a land degradation-neutral worl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월
지표정의	전체 토지면적 중 등급이 저하된 토지면적의 비율로 나타냄. 토지의 등급 저하는 생물학적 또는 경제학적 생산능력이 줄거나 소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 활동에 의해 천수*된 농경지, 관개 농경지나 방목지, 산림의 다양성이 줄거나 소실되는 것도 포함함.
지표의의	토지의 생산성은 장기적인 토지의 건강과 생산능을 가리킴. 계절 단위에서부터 10년 단위의 시간 범위에 걸쳐 변화되는 탄소의 축적은 식물 바이오매스의 변화로 설명되겠지만("빠른 변화"), 보다 장기간의 시간 규모에서 토양의 유기 탄소 축적은("느린 변화") 토지 생산성 측면의 기능을 확인하는 지표가 됨. Aichi 생물다양성 목표, Bonn 챌린지, SDG 목표 15.3 등 지난 10년 동안 세계 또는 지역 목표와 계획들은 토지의 소실을 중단하고 황폐화된 땅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생산성과 연관됨.
지표해설	UN 글로벌 DB에 한국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지표에서 정의하는 등급정의와는 다르지만,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에서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토지피복지도를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등급이 저하된 대지의 면적(Proportion of land that is degraded over total land area)
	산식	$A(\text{degraded})_{i,n} = \sum_{j=1}^n A(\text{recent})_{i,n} + A(\text{persistent})_{i,n}$ $A(\text{degraded})_{i,n} = \text{모니터링 연도 } n \text{의 토지 피복 등급 } i \text{에서 등급이 저하된 총 토지면적(ha)}$ $A(\text{recent})_{i,n} = \text{하위지표에 대한 1OAO(One-out, all-out) 평가 후 현재 모니터링 연도 } n \text{에 등급이 저하된 것으로 정의된 토지면적(ha)}$ $A(\text{persistent})_{i,n} = \text{하위지표에 대한 1OAO(One-out, all-out) 평가 후 모니터링 연도 } n \text{에 등급이 저하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전에 저하된 것으로 정의된 토지면적(ha)}$ $P_{i,n} = \frac{A(\text{degraded})_{i,n}}{A(\text{total})_{i,n}}$ $P_{i,n} = \text{모니터링 연도 } n \text{의 토지 피복 유형 } i \text{에서 등급이 저하된 토지면적의 비율}$ $A(\text{degraded})_{i,n} = \text{모니터링 연도 } n \text{의 토지 피복 유형 } i \text{에서 등급이 저하된 총 면적(ha)}$ $A(\text{total})_{i,n} = \text{국가 경계 내의 토지 피복 유형 } i \text{의 총 면적(ha)}$ $P_n = \frac{A(\text{Degraded})_n}{\sum_i A(\text{Total})}$ $P_n = \text{전체 토지면적 중 등급이 저하된 토지면적의 비율}$ $A(\text{Degraded})_n = \text{모니터링 연도 } n \text{에 등급이 저하된 총 토지면적(ha)}$ $A(\text{Total}) = \text{국가 경계 내의 총 토지면적(ha)}$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
	시계열	2015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통계청(UNS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BD, 통계청 및 전문기관
	출처	http://www.fao.org/soils-portal/soil-survey/soil-maps-and-databases/harmonized-world-soil-database-v12/en/
	국내	데이터
각주설명	*천수	지하수 중 대기로부터 유래된 물, 즉 물의 대순환과정중 주로 강우로 인한 지하 침투로 생성된 물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지표번호	15.4.1
지표명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 By 2030, ensure the conservation of mountain ecosystems, including their biodiversity, in order to enhance their capacity to provide benefits that are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2월 12일
지표정의	산악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평균 비율을 의미함.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설정한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비중. IUCN에서 정하는 중요 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적인 가치가 연계된 지역으로, 자연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혹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며 확실한 목적 하에 관리되는 지리적인 장소임. - 항목 I a: 엄정 자연보호지역(Strict Nature Reserve), 항목 I b: 야생지 보호지역(Wilderness Area), 항목 II: 국립공원(National Park), 항목 III: 자연기념물(Natural monument or feature), 항목 IV: 서식지/종 관리지역(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항목 V: 경관 보호지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 항목 VI: 자원 보호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지정된 상태란 보호 구역이 국내법이나 일반적인 관습(예를 들어 행정부의 법령 등)에 따라 상응하는 권한이 생길 때 공식적으로 지정 문서에 승인된 상태를 지칭함.
지표의의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산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 보전 보호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임.
지표해설	한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산악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 20.2%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OECD 국가에서 터키가 가장 보호지역 면적이 적으며, 그 다음이 한국임.
지표대응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지표정의와 활용 가능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면 지표에 부합하는 통계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UNEP, WCMC, IUCN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인 http://www.protectedplanet.net/ 을 통해 지표 정의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얻을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산악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보호지역 면적(Average proportion of Mountain Key Biodiversity Areas (KBAs) covered by protected areas)
	산식	WDPA(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의 보호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과 산악핵심생물다양성지역에 대한 디지털 폴리곤의 중첩을 통해 계산됨 산악 주요 생물다양성지역은 '핵심생물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 폴리곤과 '산 래스터 레이어(mountain raster layer)'(UNEP-WCMC 2002) 간 공간적 중첩을 실시하여 두 자료 간 면적이 5% 이상 중복되는 지역으로 산출함.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보호지역 설정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어진 시점의 지표 수치는 보호지역(산 주요 생물다양성지역)으로 간주되는 각 주요 생물다양성지역 면적의 평균 비율로 계산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는 5-10년마다 UN 보호지역 목록을 작성하고, UN Lists의 중간 기간 동안 보호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부처/기관 및 NGO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BirdLife International,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
	출처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ww.protectedplanet.net)
	국내	데이터
산식		-
측정단위		-
세분화		-

	출처	한국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이용통계	-
	자료수집방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14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보호지역현황을 서비스. 이 자료를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에 제출 등재함
	공표주기	-
	시계열	-
	통계생산기관	한국보호지역포럼(paforum.or.kr)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2, 033-769-9524)
각주설명	*적색목록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식물의 실태를 멸종위기등급으로 표시한 것.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목록Red List'란 이름을 부여하며,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짐
	**래스터	화상을 나타내는 2차원 배열. GIS 혹은 원격탐사 이미지 데이터 값을 갖는 격자형 행렬방식을 취하는 데이터 구조



15.4.2 산악녹색피복 지수(Mountain Green Cover Index)

지표번호	15.4.2
지표명	산악녹색피복지수 Mountain Green Cover Index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 By 2030, ensure the conservation of mountain ecosystems, including their biodiversity, in order to enhance their capacity to provide benefits that are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07월 11일
지표정의	산악지역 내 산림, 관목, 나무, 목초지, 농작물 토지 등과 같은 녹색 초목의 변화
지표의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산악녹색피복지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전반적인 숲, 나무, 식생 피복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함. 예를 들어 이것이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방목, 개간, 도시화, 숲 개발, 벌목, 딸감 수집, 산불과 연결시킬 수 있음. 이것이 증가하는 것은 식생의 성장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토지 복구, 재조림, 신규조림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음. 따라서, 시기별 산림의 식생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산림생태계의 보전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함.
지표해설	한국은 2017년 기준 96.27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값이 100으로 가장 높으며, 아이슬란드가 30.67로 가장 낮음.
지표대응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표 설명에 따르면 산에서의 녹색(숲, 나무 등)의 변화(벌채,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에 대한 지표를 가리키는데, 현재 산림과학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생산 중이며, 생산 전까지는 FAO 추정치를 활용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산악녹색피복지수(Mountain Green Cover Index)
	산식	이 지표는 FAO Collect Earth 도구에서 추출한 토지피복 데이터와 2015년 FAO/MP가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 산지분류에 근거해 생산한 산지도를 비교하여 작성함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Collect Earth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제공하여 2000년도 이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이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국가에서는 정확도가 더 낮다는 단점이 있음. 하지만,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는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시계열	2017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MPS/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출처	http://www.openforis.org/tools/collect-earth.html www.fao.org www.mountainpartnership.org
국내	데이터	없음

15.5.1 적색목록지수

지표번호	15.5.1
지표명	적색목록지수 Red list Index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Take urgent and significant action to reduce the degradation of natural habitats, halt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by 2020, protect and prevent the extinction of threatened spec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11일
지표정의	적색목록지수는 분류군별 멸종위험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각 카테고리별 멸종위기종 수의 변동에 기반하여 산출함. 변수범위는 1(모든 종들이 '최소관심'으로 구분되는 상태)에서 0(모든 종들이 '멸종되었다고 구분되는 상태)사이로, IUCN 적색목록지수가 1인 것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멈추었음을 의미함.
지표의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IUCN 적색목록지수의 하향 경향은 종의 멸종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함(생물다양성이 손실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상향 경향은 종의 멸종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함(생물다양성이 손실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 그리고 수평적인 선은 종의 멸종 속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멈추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적색목록지수는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의 지표로 사용되며, 생물다양성협약의 2010년 목표 및 MDGs 목표 7번 지표로 사용되기도 함.
지표해설	한국의 적색목록지수는 2000년 0.76, 2010년 0.73, 2020년 현재 0.70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생물 다양성 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의 국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0.98 이상의 적색목록지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와 오스트리아는 동일 기간에 0.80 이상의 적색목록지수를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전세계 적색목록지수를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값이 있음.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적색목록과 함께 국가 및 지방 단위에서는 지역적색목록지수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함. 국내에는 국립생물자원관(https://species.nibr.go.kr/index.do)에서 한국의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을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IUCN 적색목록 지수(IUCN Red List Index)
	산식	$RLI_t = 1 - \frac{\sum W_{(t,s)}}{W_{EX} \cdot N}$ <p>W_(t,s)는 특정 시기(t)에 특정 종(s)의 멸종위기 범주별 가중치 (각 범주에 대한 가중치는 '위급' = 4, '위기' = 3, '취약' = 2, '준위협' = 1, '최소관심' = 0이며, '위급'으로 분류된 종 중 '절멸 가능' 또는 '야생절멸 가능'의 경우 5의 가중치를 부여함) W_{EX} = 5 ('절멸', '야생절멸'종에 부여된 가중치) N = 조사대상종 전체 수</p>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 적색목록은 매년 갱신되며 재평가된 모든 종의 적색목록 지수도 함께 발표 멸종 위험의 재평가는 국제자연보존연맹(LUCN)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에 평가된 종에 대해 10년에 한 번, 이상적으로는 4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함
	시계열	2000-2020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Bird Life International
국내	출처	http://www.iucnredlist.org http://www.iucnredlist.org/about/publication/red-list-index http://mdgs.un.org/unsd/mi/wiki/7-7-Proportion-of-species-threatened-with-extinction.ashx , http://www.bipindicators.net/rli/2010
	데이터	한국의 적색자료집 (Red Data Book)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지표번호	15.6.1
지표명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adopted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frameworks to ensur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목표명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Promot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promote appropriate access to such resources, as internationally agree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5월
지표정의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 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로 정의 됨.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2010, 이하 의정서)와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s and Agriculture, 2001, 이하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을 나타냄. 의정서는 규약 당사자들이 접근, 이익 공유, 준수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핵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전자원 및 그에 대한 전통적 지식과 더불어 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까지 그 범위를 적용함. 국제조약의 목표는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의 결과물을 생물다양성조약과 보조를 맞추어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있음.
지표의의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제공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연구의 발전을 장려하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음. 또한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발전과 인간안녕에 대한 기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의정서의 규약 당사자들은 유전자원 활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제공자와 생산자 모두가 종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장려함. 국제조약은 다자간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Multilateral System of Acess and Benefit-sharing, 이하 다자간 시스템)을 수립하여 작물유전자원의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연구와 번식 목적의 식물유전자원 교환을 용이하게 함. 다자간 시스템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표의 달성 뿐만 아니라 이용 결과물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위해 중요함.
지표해설	2015년 기준 전 세계 나고야 의정서 채택국의 수는 69개이었으나, 2018년 115개, 2019년 122개로 증가함.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가입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의 표준물질이전협정 수는 2012년 106개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267개로 증가함.
지표대응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는 국제기구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1	나고야의정서 채택국 수(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산식	-
	측정단위	1:채택, 0:미채택
	자료수집방법	CBD 국가 초점 또는 ABS 초점으로 지정된 ABS Clearing-House의 발행 기관이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과 국제조약사무국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
	시계열	2012~2019(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지역별, 국가별
	지표소관기구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출처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데이터2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을 국가에 이전하는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SMTAs))의 총 보고수(Total reported number of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SMTAs) transferring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to the country)	

	산식	-
	측정단위	개
	자료수집방법	각 계약 당사자 국가는 국제조약 데이터스토어의 Easy-SMTA를 통해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수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시계열	2012~2019(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별, 국가별
	지표소관기구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CBD)
	출처	http://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561/en/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각주설명	*유전자원	유용 또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현재 재배종, 야생종, 원시종 등을 포괄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지표번호	15.7.1 (=15.c.1)
지표명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Proportion of traded wildlife that was poached or illicitly trafficked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보호종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물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end poaching and trafficking of protected species of flora and fauna and address both demand and supply of illegal wildlife produc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불법으로 판매된 모든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로서 모든 야생생물의 거래 가치(합법+불법) 중 불법거래의 가치를 의미함. 합법거래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을 준수한 거래량의 총합을 의미하며 CITES 연간 보고서 상의 중과 가공품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불법거래의 가치는 세계 WISE 압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모든 중-가공품 합에 CITES 연간 보고서 상의 중-가공품 단가를 곱한 것임.
지표의의	국제적인 보호 하의 생물종은 35,000종이 넘기에 모든 밀렵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불법거래는 밀렵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의의를 가짐. 야생동물 압수량은 불법 거래의 구체적인 예가 되지만, 이것이 야생동물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또한 가변적임. 또한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종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밀렵·밀거래 적발건수 국내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온라인상으로는 검색되지 않음.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표에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한국은 CITES의 가입국으로 야생동물 불법거래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지표번호	15.8.1
지표명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Proportion of countries adopting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and adequately resourcing the prevention or control of invasive alien species
목표명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 By 2020, introduce measure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ignificantly reduce the impact of invasive alien species on land and water ecosystems and control or eradicate the priority spec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다음 항목의 추세를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파트A: 다자간 관련 협약에 대한 국가별 책무, 특히 (1) 외래침입종(invasive alien species, IAS) 관련 국제 정책의 국가별 채택. (2) 다음 항목들을 채택한 국가 백분율 (a) 외래침입종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 (b) 외래침입종과 관련된 국가 법률 및 정책 파트B: 각 국가들이 정책을 시행하고 외래침입종을 적극적으로 통제 예방하기 위해 정책 협약을 조기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자원을 할당함. 특히, (3) 외래침입종의 예방 또는 통제를 위한 국가적 자원의 할당. 파트A 하위지표 (2)(b)가 글로벌 데이터1에 해당하며, 파트B 하위지표(3)이 글로벌 데이터2에 해당됨.
지표의의	이 지표는 국가 혹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등록된 외래침입종의 추적, 통제, 예방을 위한 국가별 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9는 "2020년까지 외래침입종과 경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의 종을 통제 혹은 근절하며, 유입과 정착을 막기 위한 경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파트A 하위지표 (1)과 관련하여, 외래침입종과 관련한 국제정책이 많아질수록 외래침입 종을 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기여도가 커짐. 한 국가가 더 많은 국제협약을 맺을수록 외래침입 종을 조절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강력해짐. 파트A 하위지표 (2)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국가 정책과 입법은 외래침입 종 예방과 통제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을 뒷받침함. 파트B 하위지표 (3)은 지표 15.8.1에 명시된 외래침입종의 통제와 예방에 대한 국가 정부의 자원 확보와 관련됨. 적절한 자원 확보는 목표의 도입과 효과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임.
지표해설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에 등록된 196개국 중 2016년 침입외래종 유입방지와 관리를 위한 법, 규정, 법률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는 총 142개이며, OECD 국가는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2016년에 국립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9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는 195개국 중 145개국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당 하위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두 지표 모두 실행하고 있음.
지표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음.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은 국제기구 소관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에 해당 사항이 없음.

글로벌	데이터1	외래침입종 유입방지와 통제를 위한 법, 규정, 법률 구비여부(Legislation, Regulation, Act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Invasive Alien Species)
	산식	농업의 잡초, 해충,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외래종과 외래침입종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있으면 관련 법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법안이 하나라도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
	측정단위	1:예, 0:아니오
	자료수집방법	생물다양성협약 국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시계열	2010-2016(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에 명시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9와 조화되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이 있는 국가(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 targets alignment to Aichi Biodiversity target 9 set out in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산식	외래종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프로그램 보유 여부, 외래종 및 외래침입종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지구환경 기금(GEF)와 같은 세계적 자금조달 체제로부터 자금후원을 신청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
	측정단위	1:예, 0:아니오
	자료수집방법	생물다양성협약 국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시계열	2016(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각주설명	*외래침입종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생존하게 된 생물로,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끼칠 수 있는 생물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지표번호	15.9.1
지표명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a)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national targets in accordance with or similar to Aichi Biodiversity Target 2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in their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s and the progress reported towards these targets; and (b) integration of biodiversity into national accounting and reporting systems, defined as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목표명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 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By 2020, integrate ecosystem and biodiversity values into national and local planning, development processes,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and accoun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6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2011-2020년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목표 2(늦어도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가치가 국가 및 지역 개발, 빈곤 감소 전략 및 계획 과정에 통합됨. 적절한 경우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에 통합)에 따라 수립된 국가목표의 진척도를 측정함. 이 지표는 다음 두 개의 하위지표로 구분됨. 하위지표(a)는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s, NBSAP)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2에 부합하여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General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협약 제6조에 기술됨. 하위지표(b)는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계정 및 보고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국가의 수로 정의. 이는 국제 통계 기준인 환경경제계정(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EEA)의 이행을 통해 가능함.
지표의의	본 목표의 목적은 공공 또는 민간 의사결정에서 생물다양성의 다양한 가치와 이에 대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얻는 기회가 인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하위지표(a)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수립된 국가목표에 국가 및 지역 계획, 개발 과정, 빈곤 감소 전략 및 생태계, 생물다양성 가치의 통합이 반영되는 정도를 다룸. 또한, 협약 당사자들이 국가보고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하위지표(b)는 환경경제계정(SEEA)*의 시행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계정 및 보고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함. 환경경제계정은 환경과 경제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통계 표준이며, 정의, 분류, 계정 규칙 및 표의 집합을 사용하여 경제적, 환경적 정보를 통합하여 물리적 및 통화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산출하는 계정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천연자원, 생태계 변화 및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경제계정의 시행은 생물다양성 가치가 국가 계정 및 보고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보여줌.
지표해설	한국은 하위지표 (a)에서 국가 목표가 존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진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 보다 상위등급으로, 국가 목표를 넘어서기 위한 진척을 진행 중인 국가는 소말리아와 베네수엘라의 2개국뿐이며, OECD에도 해당 등급을 가진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여 총 6개국 뿐임. 한편 하위지표 (b)의 경우 2006년 48개이던 생물다양성 통합 국가의 수가 2014년 53개, 2017년 69개로 증가함. 그러나 한국의 데이터는 없음.
지표대응	국내에서는 관련 전략 완료 및 이행 중이나 지표의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목표가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2를 반영하는가의 여부 (Countries that established national targets in accordance with Aichi Biodiversity Target 2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in their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s)
	산식	협약 당사국의 보고에 근거하여 다음의 등급에 따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등급	내용	점수
		0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 2를 반영한 국가생물 다양성 목표가 없음	0
		1	국가 목표가 존재하지만,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음	0.2
		2	국가 목표가 존재하지만, 진전이 없음	0.4
		3	국가 목표가 존재하고 진전이 있지만, 속도가 불충분함	0.6
		4	국가 목표가 존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진척이 진행 중	0.2
		5	국가 목표가 존재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진척이 진행 중	1
측정단위	국가 수, 등급 별 부합 여부(1:예, 0:아니오)			
자료수집방법	각 국의 담당 기관이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함.			
시계열	2020(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등급별, 지역별, 국가별			
지표소관기구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출처	https://www.cbd.int/nbsap/targets/			
데이터2	생물다양성 가치를 환경경제계정 이행으로 정의된 국가계정 및 보고체계에 통합한 국가 여부(Countries with integrated biodiversity values into national accounting and reporting systems, defined as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산식	환경경제계정을 보유한 국가의 수			
측정단위	국가 수, 국가 별 통합 여부(1:예, 0:아니오)			
자료수집방법	유엔통계국(UNSD)이 유엔 환경경제계정전문가위원회(UN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UNCEE)의 지원을 받아 국가 별로 설문조사를 실시.			
시계열	2006, 2014, 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국가별, 지역별			
지표소관기구	유엔통계처(UNSD)			
출처	https://sdmx.org/?page_id=8785			
국내	데이터	없음		
각주설명	*환경경제 계정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부속계정형태로 새로 도입한 것		

15.a.1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지표번호	15.a.1 (=15.b.1)
지표명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b) revenue generated and finance mobilised from biodiversity-relevant economic instruments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자원 동원
	Mobilize and significantly increase financial resources from all source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biodiversity and ecosystem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20일
지표정의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모든 공여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총 지출액으로 정의 (b) 생물다양성 관련 세금, 수수료, 부과금, 보조금 등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 기구에서 창출된 수입 및 동원된 자금
지표의의	(a) 개도국에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금 총액은 공여국이 개도국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의 노력을 계량화함. (b) 경제정책기구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직접 수입을 창출하거나 국가 수준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음.
지표해설	한국은 2008년 29.22였으나 2018년 기준 14.51임.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로 1600USD를 생물다양성에 대한 ODA로 사용하였음.
지표대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사용 및 보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공적지출의 국내통계 찾을 수 없음. 국제통계 사이트에서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사용 및 보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공적지출의 통계는 찾을 수 없음.

글로벌	데이터	기부국별 생물다양성을 위한 ODA 총액(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biodiversity, by donor countries)
	산식	공여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총합
	측정단위	USD(미국 달러)
	자료수집방법	데이터는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국과 다른 원조자가 제출한 것을 통해 집계
	시계열	2000-2015(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이 지표는 공여국 및 수혜국 (또는 지역)별, 금융유형별, 보조유형별, 하위부문별, 정책표시자(예: 성별)별로 구분가능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OECD, CRS database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	
국내	데이터	없음



15.b.1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지표번호	15.b.1 (=15.a.1)
지표명	(a)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b) revenue generated and finance mobilised from biodiversity-relevant economic instruments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대한 자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산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Mobilize significant resources from all sources and at all levels to financ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provide adequate incentives to developing countries to advance such management, including for conservation and reforest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a)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모든 공여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 총 지출액으로 정의 (b) 생물다양성 관련 세금, 수수료, 부과금, 보조금 등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 기구에서 창출된 수입 및 동원된 자금
지표의의	(a) 개도국에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금 총액은 공여국이 개도국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의 노력을 계량화함. (b) 경제정책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직접 수입을 창출하거나 국가 수준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음.
지표해설	한국은 2008년 29.22였으나 2018년 기준 14.51임.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로 1600USD를 생물다양성에 대한 ODA로 사용하였음.
지표대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사용 및 보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공적지출의 국내통계를 찾을 수 없음. 국제통계 사이트에서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사용 및 보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공적지출의 통계는 찾을 수 없음.

글로벌	데이터	기부국별 생물다양성을 위한 ODA 총액(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biodiversity, by donor countries)
	산식	공여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총합
	측정단위	USD(미국 달러)
	자료수집방법	데이터는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국과 다른 원조자가 제출한 것을 통해 집계
	시계열	2000-2015(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이 지표는 공여국 및 수혜국 (또는 지역)별, 금융유형별, 보조유형별, 하위부문별, 정책표시자(예: 성별)별로 구분가능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OECD, CRS database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	
국내	데이터	없음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지표번호	15.c.1 (=15.7.1)
지표명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Proportion of traded wildlife that was poached or illicitly trafficked
목표명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세부목표명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Enhance global support for efforts to combat poaching and trafficking of protected species, including by increasing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ies to pursue sustainable livelihood opportunit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불법으로 판매된 모든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로서 모든 야생생물의 거래 가치(합법+불법) 중 불법거래의 가치를 의미함. 합법거래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을 준수한 거래량의 총합을 의미하며 CITES 연간 보고서 상의 종과 가공품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불법거래의 가치는 세계 WISE 압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모든 종-가공품 합에 CITES 연간 보고서 상의 종-가공품 단가를 곱한 것임.
지표의의	국제적인 보호 하의 생물종은 35,000종이 넘기에 모든 밀렵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불법거래는 밀렵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의의를 가짐. 야생동물 압수량은 불법 거래의 구체적인 예가 되지만, 이것이 야생동물 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또한 가변적임. 또한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종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 중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밀렵·밀거래 적발건수 국내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온라인상으로는 검색되지 않음.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표에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한국은 CITES의 가입국으로 야생동물 불법거래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지표번호	16.1.1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Number of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per 100,000 population, by sex and age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해당 지표는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의 총 수를 총 인구로 나눈 것으로, 인구 1십만 명당으로 표시됨.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목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발생한 불법적 죽음으로 정의됨.
지표의의	이 지표는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범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즉시 인식하도록 만들.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개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사회와 그 사회의 경제 수준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살인범죄를 감시하는 것은 그것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측정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인 예방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함임. 그 목적이 있음.
지표해설	2018년 기준 한국의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는 남성의 경우 OECD 국가 중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28개 국가 중 11번째로 낮음.
지표대응	현재, 경찰청 「범죄통계」 살인기수 건수가 살인에 의한 피해자 수로 UN-CTS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살인범죄 1건당 대표 피해자정보만 수집되고 있음.

글로벌	데이터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별) (Number of victims of intentional homicide per 100,000 population, by sex (victims per 100,000 population))
	산식	특정 연도에 기록된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총 피해자 수를 같은 해의 총인구수로 나눈 값에 100,000을 곱한 값으로 계산
	측정단위	인구 1십만 명당
	자료수집방법	UN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30 개 이상의 회원국이 UN-CTS(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데이터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정기적으로 제출함. UN-CTS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제공하는 살인 추정치 자료를 사용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11-2018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보건기구(WHO)
	출처	https://dataunodc.un.org/
국내	데이터	피해자 성별, 연령별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성, 연령별
	출처	https://www.kosis.kr
	이용통계	범죄통계
	자료수집방법	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1-2019
통계생산기관	경찰청 수사기획과(02-3150-1632)	

16.1.2 인구 1십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지표번호	16.1.2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Conflict-related deaths per 100,000 population, by sex, age and cause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2월
지표정의	해당 지표는 분쟁관련 사망자의 총 수를 총 인구로 나눈 것으로, 인구 1십만 명당으로 표시됨. 분쟁관련 사망은 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과 간접적인 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직접적인 사망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전쟁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가령 전통적인 전쟁이나 폭격 등이 포함됨. 간접적인 사망은 분쟁으로 인한 경제 악화, 의약품 부족, 농업 능력 감소로 인한 식량, 식수, 위생, 건강 및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망을 의미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무력 충돌이 유병률과 인명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분쟁 관련 사망을 측정하는 것은 민간인과 모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무력 충돌의 패턴과 결과를 이해하여 미래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한 자료는 분쟁지역에 한해 적용됨으로 한국에는 해당 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지표번호	16.1.3
지표명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subjected to (a) physical violence, (b) psychological violence and (c) sexual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신체적 폭력이란 타인의 신체에 고의적인 또는 무모한 물리적 힘을 가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물리적 힘 또는 상해 수준을 분류하여 측정 가능함.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행위, 성행위를 얻고자 하는 시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전달하거나, 협박, 물리적 힘, 사기, 강압, 위협, 속임수, 약물/술사용, 권력/지위의 남용을 통해 접촉 또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함. 또한 다른 형태의 성폭행 및 강간도 이에 포함됨. 정서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현재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 없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지표의의	이 지표는 무력 충돌이 유병률과 인명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분쟁 관련 사망을 측정하는 것은 민간인과 모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무력 충돌의 패턴과 결과를 이해하여 미래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지표해설	2016년 기준 한국의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은 남성 0.2%, 여성 0.1%로 당해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국가 14개(핀란드, 폴란드, 호주, 프랑스, 스웨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멕시코, 이스라엘, 미국, 칠레, 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임. 2016년 기준 한국의 지난 12개월간 성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은 남성 0%, 여성 0.1%로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임. 한국의 성폭력 피해 인구 비율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미만의 수치를 유지 하였으나, 2012년 1.5%, 2014년 1.1%로 증가추세를 보인 후 2016년 0.1%로 급격하게 수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음. 신체적 폭력 피해 인구의 경우 2012년 0.11%에서 2014년 0.2%로 증가하였음.
지표대응	국가발전지표중 범죄율 지표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성폭력(강간 포함) 및 폭행 범죄율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지표는 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와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되었음.

글로벌	데이터1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subjected to physical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sex (%))
	산식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UN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30 개 이상의 회원국이 UN-CTS(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데이터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정기적으로 제출함
	시계열	2003-2018(한국 데이터 2012-2016 수록)
	공표주기	국가별로 상이 (한국 데이터는 2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데이터2	지난 12개월간 성폭력을 당한 인구 비율((Proportion of population subjected to sexual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by sex (%))
	산식	지난 12개월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UN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30 개 이상의 회원국이 UN-CTS(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데이터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정기적으로 제출함
	공표주기	2003-2018(한국 데이터 2012-2016 수록) 국가별로 상이 (한국 데이터는 2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국내	데이터	형법범죄율
	산식	(형법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측정단위	건/인구 10만 명당
	세분화	-
	출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이용통계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
	자료수집방법	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8-2018
	통계생산기관	통계청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지표번호	16.1.4
지표명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feel safe walking alone around the area they live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해당 지표는 집 밖의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느낌을 측정하고 설문 지역을 "이웃" 또는 "귀하의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응답자의 즉각적인 경험을 반영함
지표의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웰빙(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타인들과의 소통 및 활동,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개념은 범죄의 유행과는 별개의 현상이며 범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두려움은 공공인식, 미디어 담론 및 개인 상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중재되기 때문에 실제 경험과는 독립적 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지표해설	2016년 기준 한국의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은 0.59%로 당해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국가 12개(한국, 터키,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 아이슬란드)중 가장 낮은 수치임. 12개국 평균은 0.729%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파악한 범죄피해의 두려움 수준은 2009년 39.0%에서 2019년 19.8%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여자의 두려움 수준은 남자보다 3-4배 정도 높으며, 10대와 20대의 두려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을 알 수 있음.
지표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중 성별 및 연령집단별 범죄피해두려움 지표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주거지 근처에서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that feel safe walking alone around the area they live (%))
	산식	'귀하의 지역/주변에서 혼자 걷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매우 안전'과 '상당히 안전' 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수를 합하고 총 응답자 수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UN 범죄 예방 및 형사 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30 개 이상의 회원국이 UN-CTS(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데이터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정기적으로 제출함. UN-CTS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WHO가 제공하는 살인 추정치 자료를 사용함
	시계열	2013-2018(한국 데이터 2014-2016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국내	데이터	성별 및 연령집단별 범죄피해 두려움
	산식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별, 연령별
	출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4
	이용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중 6,710명(2019년 기준)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공표주기	2년
	시계열	2012~2018
통계생산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02-3460-5149)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지표번호	16.2.1
지표명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Proportion of children aged 1-17 years who experienced any physical punishment and/or psychological aggression by caregivers in the past month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End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해당 지표는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1~14세 아동의 비율 지표로 대체 측정됨. 복수집단지표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의 정의에 따르면 정서적인 폭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으로 어린이를 지칭하는 경우를 뜻하며, 육체적 체벌은 어린이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또는 가벼운 통증을 주는 고의적인 행위를 뜻함. 가령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어린이를 흔들거나, 이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들이 육체적인 폭력에 해당됨.
지표의의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어린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체벌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이나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폭력적인 훈육 방법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는 대개 동시 발생하여 악화된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가해지고 있음.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적 훈육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만연한 현상이므로 본 지표를 통해 아동 인권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는 84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서학대 피해건수가 신체학대 피해 건수보다 평균적으로 약 1.5배 높음.
지표대응	보건복지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통계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국내 18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 산출 가능. 다만 해당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만 분석한 결과로 경찰서 등 타 기관을 통해 접수된 건은 미 반영되어 있어, 실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지난 한 달간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1~14세 아동의 비율(1~14세 아동 전체 인구 대비) (Proportion of children aged 1-14 years who experienced physical punishment and/or psychological aggression by caregivers in last month (% of children aged 1-14 years))
	산식	지난 한 달간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체벌,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1~14세 아동의 수를 1~14세 아동 인구 전체의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2005년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혹은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와 같은 가구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05-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국내	출처	https://mics.unicef.org/surveys
	데이터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산식	-
	측정단위	건
	세분화	-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2
	이용통계	보건복지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자료수집방법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보호 건수 현황 분석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8-2018
통계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16.2.2 인구 1십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지표번호	16.2.2
지표명	인구 1십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Number of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per 100,000 population, by sex, age and form of exploitation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End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UN 인신매매 의정서(UN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무력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속임수, 권력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위협이나 다른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에게 보수나 특혜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수송, 인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뜻함. 착취의 범주에는 성매매, 강제 노동, 노예 생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 장기 적출 등의 항목이 포함됨.
지표의의	해당 지표를 통해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의 수준을 점검 및 감시할 수 있으며, 국가별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수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인신매매 피해수준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입법 및 관행의 변화, 피해자의 태도 변화와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신매매 피해자 수 자체로만 인신매매와 관련된 추세를 파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경찰청의『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내 인신매매 발생 건수는 매해 5건 이내로 2017년 기준 UN 글로벌 데이터에 자료가 제공된 17개OECD 국가 평균인 152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임.
지표대응	국내 인신매매 관련 통계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경찰범죄통계』약취·유인 부문의 총 4개 항목-인신매매, 인신매매(추행·간음·결혼·영리), 인신매매 등(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국외이송약취·유인·인신매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글로벌	데이터	인신매매 피해자수 (Detecte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by age and sex)
	산식	-
	측정단위	건
	자료수집방법	UNODC에서 130여개 국가들로부터 제공받은 파악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 통계치 들을 활용하여 2년마다 보고서를 제공. 현재 미파악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집계하는 방법론이 개발 중에 있음
	시계열	2003-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4년
	세분화	성별,연령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국내	데이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신매매)
	산식	-
	측정단위	건
	세분화	-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conn_path=I3
	이용통계	경찰청「경찰청범죄통계」
	자료수집방법	행정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1-2018
	통계생산기관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2-3150-1632)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지표번호	16.2.3
지표명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Proportion of young women and men aged 18-29 years who experienced sexual violence by age 18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End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아동 성폭력은 형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에게 성인이 가하는 다음과 같은 성행위를 포함함: (a)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해로운 성행위에 가담하도록 아동을 유인하거나 강요; (b) 상업적 목적의 아동 성적 착취; (c) 아동 성적 학대 행위 영상 촬영; (d) 아동 매춘, 성 노예, 여행 및 관광에서의 성적 착취, 성적 착취 (국내 및 국가 간)를 위한 인신 매매,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 판매 및 강제 결혼.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저지른 성행위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힘, 위협 또는 기타 압력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학대로 간주됨.
지표의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는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되어 있으며, 성폭력은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 중 가장 심각한 범죄임. 유아시절의 성폭력 경험은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 사회적 측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성장 저해를 유발함.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의 성적 학대는 성인기 정신 건강과 행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의 경우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13세~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08년 부터 2017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78.7% 증가하였음.
지표대응	국내 18세 이전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 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aged 18-29 years who experienced sexual violence by age 18, by sex)
	산식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 했다고 보고 한 18-29세의 젊은 여성과 남성의 수를 18-29세의 젊은 여성과 남성의 총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2005년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혹은 DHS(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와 같은 가구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05-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성별, 연령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data.unicef.org/
국내	데이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
	산식	-
	측정단위	건
	세분화	연령
	출처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n
	이용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수집방법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 통계원표, 검거 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8-2017
	통계생산기관	대검찰청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지표번호	16.3.1
지표명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Proportion of victims of violence in the previous 12 months who reported their victimization to competent authorities or other officially recognized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관할당국이란 경찰, 검찰 및 부패나 사기와 같은 범죄를 다룰 수 있는 정부 기관들로 정의되며,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이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비공식적 재판 혹은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부족, 마을, 종교 집단의 지도자 포함)을 의미함.
지표의의	범죄 피해자들이 적절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정이지만, 만약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이나 다른 기관들이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 신뢰와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해당지표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 범죄 비율을 측정 하는 것이 가능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2014년, 2016년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2016년 기준 한국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신고비율은 31.2%, 강도 피해 신고비율은 45%, 성범죄 신고비율은 13.7%임. 한국의 범죄 피해 신고율은 전반적으로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호주와 미국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지표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의 범죄피해 신고건수 및 신고율 지표를 통해 강도, 폭행상해 및 성폭행 범죄 신고율을 확인 가능하나, 2010년 데이터만 존재하여 신고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는 없음.

글로벌	데이터1	신체적 폭력에 대한 경찰 신고비율(성별) (Police reporting rate for physical assault, by sex)
	산식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를 한 범죄 피해자수를 모든 폭력 범죄 피해자 수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연간 데이터 수집(UN-CTS)을 통해 130개 이상 회원국의 각종 범죄 보고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시계열	2010-2018(한국 데이터 2014, 2016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데이터2	강도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비율 (Police reporting rate for robbery, by sex (%))
	산식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강도 피해를 신고한 범죄 피해자수를 모든 폭력 범죄 피해자 수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연간 데이터 수집(UN-CTS)을 통해 130개 이상 회원국의 각종 범죄 보고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시계열	2004-2018(한국 데이터 2014, 2016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데이터3	성범죄 신고 비율(Police reporting rate for sexual assault, by sex (%))
	산식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범죄 피해자수를 모든 폭력 범죄 피해자 수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연간 데이터 수집(UN-CTS)을 통해 130개 이상 회원국의 각종 범죄 보고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시계열	2004-2018(한국 데이터 2014, 2016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국내	데이터	범죄피해 신고건수 및 신고율
	산식	신고율=(신고건수/피해사례) × 100
	측정단위	건, 퍼센트(%)
	세분화	대상별(가구대상, 개인대상) 범죄별(주거침입관련범죄, 단순손괴, 자동차관련범죄)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3&tblId=DT_40301N_016&conn_path=I2
	이용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2년
	시계열	2010
	통계생산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 (02-3460-5149)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지표번호	16.3.2
지표명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Unsentenced detainees as a proportion of overall prison population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형 미선고자란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에 대해 관할 당국으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형사 소송 대상자를 의미함. 형사 소송 대상자중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자의 경우(예, 항소 대상자)에도 선고된 것으로 간주함.
지표의의	판결을 기다리는 개인이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의미로 본 지표가 제공되었으며, 유죄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모든 개인들은 결백한 것으로 여겨질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음. 판결 전 구금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도주 방지, 혹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음. 이는 형사사법제도 자원을 낭비하게 되며, 동시에 미결 수용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음. 해당 지표 측정을 통해 국가마다 판결이 나지 않은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여 판결 전 개인 수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음.
지표해설	한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대비 형 미선고자 비율은 2005년 34.2%, 2015년 34.2%, 2018년 35.4%로 변화폭이 적음. 2018년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 36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비율은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다음으로 높으며, 36개국 평균(24.42%)보다 약 10% 높음.
지표대응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에서 담당하는 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지표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중 미결수의 인원을 확인 가능함. 그러나 이 인원에는 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료 비교시 주의해야 함.

글로벌	데이터	교정시설 수용자 대비 형 미선고자 비율 (Unsentenced detainees as a proportion of overall prison population)
	산식	지정된 날짜에 판결을 받지 않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를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 수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2016년 기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연간 데이터 수집(UN-CTS)을 통해 114개국의 형 미선고자 및 총 구금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다른 출처(연구기관 및 NGO)가 포함될 경우 추가 60개 국가에 대한 데이터 추가 가능.
	시계열	2005,2015,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내	출처	https://dataunodc.un.org/
	데이터	교정시설 수용현황
	산식	-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9
	이용통계	법무부 내부 행정자료
	자료수집방법	전국 53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지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미결 수용자,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0-2019
통계생산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 (기구 유형별)

지표번호	16.3.3
지표명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ho have experienced a dispute in the past two years and who accessed a formal or inform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by type of mechanism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6월
지표정의	분쟁이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단체 간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의미함. 법적 문제란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이 해당 문제를 법적 문제로 인식하는지 여부, 문제의 결과로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률적 쟁점사항을 포함함. 사법 접근권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없지만, 인권 표준에 따라 사람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 사법 기관의 법적 지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분쟁해결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함. 많은 국가에서 법원이 민사 분쟁을 다루는 주요 기관을 대표하지만, 비공식적인 방식이나 전통 부족 혹은 종교의 지도자가 1차적으로 분쟁 해결을 다루는 국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 및 설문조사의 질문을 구성함에 있어 모든 관련 기관 및 절차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함
지표의의	시민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사법 서비스 및 법률 자문,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해당 지표는 법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법 기관 및 분쟁해결 절차(공식 혹은 비공식)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민사 사법 기관의 전반적인 접근성과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해결 방식의 수요를 식별하여 분모(분쟁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인구)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함. 이 수요에는 분쟁 해결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사법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물리적 거리 및 재정 부담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방식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음. 분쟁을 경험하였지만 분쟁 해결 방식이 필요하지 않아 분쟁해결에서 자발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함.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공식 혹은 비공식 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한 인구(분자)를 2년 동안 분쟁을 경험한 모든 인구에서 자발적으로 분쟁을 종료한 인구를 뺀 값(분모)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지표번호	16.4.1
지표명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Total value of inward and outward illicit financial flows (in current United States dollar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illicit financial and arms flows, strengthen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assets and combat all forms of organized crim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1월
지표정의	불법금융거래란 불법적으로 생성(예, 범죄 활동 또는 탈세에서 발생)되거나, 불법적으로 이전(예, 통화 통제 위반)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예, 테러 자금 조달) 되는 모든 금융 거래를 의미함.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에 따르면 불법금융거래와 관련된 범죄는 크게 세금 및 상업적 목적에 의한 거래, 부패에 의한 거래, 범죄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절도형 거래, 불법 시장에서의 거래로 유형화 할 수 있음.
지표의의	불법금융거래와 관련된 불법 관행과 범죄는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함. 불법금융거래의 수익금은 종종 국가 간 이전되어 합법 혹은 불법적인 활동에 활용 및 재투자되기도 함. 따라서 불법금융거래와의 싸움은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를 증진하려는 목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현재 회원국이 지표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2단계의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며, 5개국에서 테스트되었음. 먼저, 국가에서 가장 주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불법금융거래 원천을 식별하는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가장 중요한 거래를 생성하는 활동이 식별되면, 거래는 분리된 방식으로 추정될 수 있음. 불법금융거래를 생성하는 활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유형은 별도의 분리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지표번호	16.4.2
지표명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Proportion of seized, found or surrendered arms, whose illicit origin or context has been traced or established by a competent authority in line with international instrument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illicit financial and arms flows, strengthen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assets and combat all forms of organized crim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7월
지표정의	무기는 소형 무기 및 경무기를 지칭하며, 총알 또는 발사체를 방출하거나 발사하도록 설계 혹은 변형 가능한 휴대용 무기로 정의됨. 압수된 무기란 해당 무기와 관련된 형사 범죄 또는 행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일시적이든 아니든 관계 당국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물질적으로 빼앗긴 무기를 의미함. 적발된 무기란 의도적이든 계획된 조사와 관련 없이 당국에 의해 압수된 무기를 의미하며, 무기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에게도 소유권이 없음. 회수된 무기는 계획된 조사와 관련 없이 당국에 넘겨진 무기로, 자발적인 회수 캠페인과, 군축 및 동원 해제 과정에서 시민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생한 무기를 지칭함.
지표의의	해당 지표는 불법 무기 흐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거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법 무기 밀매의 특성상 매우 어려움. 따라서 이 지표는 불법 무기 거래 흐름을 측정하기 보다는, 국제 사회가 불법 무기 밀매 현상에 대응하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불법 무기 사용과 관련된 글로벌 데이터는 불법무기거래조사(IAFQ)의 표 5.1~5.3을 통해 보고됨. 한국은 불법무기거래조사 참여국이 아님.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인구 비율

지표번호	16.5.1
지표명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ersons who had at least one contact with a public official and who paid a bribe to a public official, or were asked for a bribe by those public officials, during the previous 12 month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을 대폭 감소 Substantially reduce corruption and bribery in all their form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SS)에 따르면, 뇌물이란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공무를 수행 혹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약속, 제안, 제공, 요청 또는 수락하는 것으로 정의됨. 해당 지표는 공공 행정 또는 공무원과의 거래에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의 뇌물을 다루고 있음.
지표의의	부패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경제의 올바른 기능을 저하시키며,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개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부패는 권위와 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킴. 해당 지표는 뇌물 수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객관적 척도 및 부패 퇴치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제출되었던 한국의 뇌물수수비율은 모두 0%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임.
지표대응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인식도조사」는 부패인식도 지표를 통해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주한 외국인 등 대상으로 공직사회 등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사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뇌물을 요구 받았던 경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음.

글로벌	데이터	뇌물수수 비율 (Prevalence rate of bribery, by sex)
	산식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를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한 모든 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UN-CTS(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수집 방식을 통해 2016년 기준 약 130개 회원국이 UNODC에 데이터를 제출. 뇌물 경험 지표에 대한 주요 데이터 출처는 일반적으로 부패/피해 조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통계청, 부패방지기구 등)임
	시계열	2004-2018(한국 데이터 2008-2014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출처	https://dataunodc.un.org/
국내	데이터	부패경험
	산식	공공기관과의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중 부패경험 항목별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www.acrc.go.kr
	이용통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공표주기	2014-2019
	시계열	1년
통계생산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지표번호	16.5.2
지표명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Proportion of businesses that had at least one contact with a public official and that paid a bribe to a public official, or were asked for a bribe by those public officials during the previous 12 month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을 대폭 감소 Substantially reduce corruption and bribery in all their form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세계은행(WB) 회원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의 다양한 측면과 연간 매출, 생산성 등을 측정하는 기업설문조사(Enterprise Surveys)를 통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주었거나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을 측정함. 기업설문조사 대상 기업은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직원 5명이 이상 정식 등록된 기업으로 100% 국영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4-5년마다 시행됨.
지표의의	기업의 세금 납부는 대부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당 지표를 통해 일상적인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부패발생 비율을 측정하고자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없음.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에 포함된 공직 부패경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접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명(응답자의 0.2%)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지표대응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에 포함된 공직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 지표를 통해 대응 가능. 부패경험은 전국 일반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대상자 중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글로벌	데이터	뇌물수수 발생비율(최소 1건 이상의 뇌물 요구를 받은 기업의 비율) (Bribery incidence (% of firms experiencing at least one bribe payment request))
	산식	기업설문조사 응답자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는지 묻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변 한 기업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은행(WB)에서 실시하는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06-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www.enterprisesurveys.org
국내	데이터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유무
	산식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 여부'에서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 경험 여부'에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BASE_000000000000473
	이용통계	우리나라 정부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수집방법	FAX/E-mail/온라인 조사 병행(일반기업체 종사자), 개별면접조사(자영업자)
	공표주기	2000-2018
	시계열	1년
통계생산기관	한국행정연구원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지표번호	16.6.1
지표명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Primary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proportion of original approved budget, by sector (or by budget codes or similar)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Develop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은 정부지출문서나 재정보고서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총예산지출(aggregate budget expenditure outturn)이 최초 승인된 예산에서 차지하는 량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지표의 적용 범위는 Budgetary Central Government(BCG)이며 적용 기간은 지난 3년임.
지표의의	해당 지표는 정부 예산의 신뢰성 즉, 정부가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예산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없음. UN 글로벌 데이터는 주로 PEFA(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에 속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최초 승인된 예산 대비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 (Primary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proportion of original approved budget)
	산식	PEFA의 Framework for assessing public financial management에 따라, 정부의 주요 지출액이 최초 승인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도에 따라 A부터 D까지 4점 척도의 점수를 부과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당국 재무부 제공 국가회계연말보고서와 같은 자료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04-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www.worldbank.org, https://www.pefa.org/assessments/batch-downloads
국내	데이터	없음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지표번호	16.6.2
지표명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satisfied with their last experience of public service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Develop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의료, 교육 및 정부 서비스(예, 출생, 결혼, 사망)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등록 및 문서발행 서비스 영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를 설문조사 기반으로 측정함.
지표의의	정부는 접근성, 대응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시민들이 지리적 또는 전자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이 좋지 않을 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에 대한 만족도 까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시민의 일선 공공 서비스 경험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해당 지표는 설문 조사 응답자에게 실제로 전달 된 서비스의 가용성과 품질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며, 시민의 일반적 인식보다는 시민의 실제 경험을 강조하는 지표임.
지표해설	현재 UN 글로벌 데이터 없으며, UNDP(지표소관기구)가 별도 설문조사 개발 예정임. 응답자는 가장 최근의 경험을 반영하여 의료, 교육 및 정부서비스의 5가지 속성 (접근성, 비용, 시설 품질, 공정성, 효율성 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하여 답변을 제공해야함. 설문조사 결과는 최소한 성별, 소득 및 거주지(도시/노촌, 행정구역) 별로 세분화 하는 것을 권장함.
지표대응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지표를 통해 대응 가능. 해당 지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료, 교육 및 정부 서비스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공공서비스 이용 만족도
	산식	(서비스 유형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공공서비스 경험 응답자)× 100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성, 연령, 직업, 가구소득, 학력, 도농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1&conn_path=I3
	이용통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6-2019
	통계생산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02-2007-0663)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지표번호	16.7.1
지표명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여부 및 인구집단별) Proportions of positions in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including (a) the legislatures; (b) the public service; and (c) the judiciary, compared to national distributions, by sex, ag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pulation group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Ensure respons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내 주요 의사 결정 직위에 있는 종사자가 성별, 연령, 장애여부와 같은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함. 대표성의 개념은 기술적(descriptive) 대표성과 실질적(substantive) 대표성의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적 대표성이란 공공기관의 구성이 전국 인구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며, 실질적 대표성이란 공공기관이 특정 인구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정도(공공기관 구성원이 자신을 해당 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와 관련이 있음, 해당 지표는 공공기관의 기술적 대표성을 측정하는 지표임.
지표의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포괄적, 참여적,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대표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지표해설	현재 UN 글로벌 데이터 없으며, 입법부 관련 데이터는 IPU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관련 데이터는 UNDP에서 수집 계획임. 입법부의 경우 국가 및 지방 입법부 내 주요 의사 결정 직위인 국회의원, 의장 및 외교, 국방, 재무, 인권 및 양성 평등 분야 상임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정의된 공공 관료직과 일선의 공공서비스 직업, 사법부의 경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내 주요 의사결정 직위인 판사 및 공인기록 담당자(registrar)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별 분포를 측정함.
지표대응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인사통계」를 활용하여 국가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분류한다면, 전체 국가 공무원의 남녀 성별 비율을 매년마다 측정할 수 있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총조사」를 통해서 5년마다 전체 국가공무원 보직별 연령그룹 측정이 가능하나, 공공기관별로 세분화 되어있지 않으며, 이 조사는 국가공무원 중 행정부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중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제외되어 본 지표의 직접적 대응은 불가능함.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장애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종별로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본 지표에 직접적 대응은 불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산식	-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의 입법부 내 인구집단별 보직분포비율 관련 데이터는 국제의회연맹(IPU)의 New Par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가능함.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한 온라인 SDG16 데이터 보고 플랫폼 (https://sdg16reporting.undp.org) 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
	시계열	-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의회연맹(IPU), 유엔개발계획(UNDP), Oslo Governance Centre
	출처	-
국내	데이터	없음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지표번호	16.7.2
지표명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Proportion of population who believe decision-making is inclusive and responsive, by sex, age, disability and population group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Ensure respons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t all level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3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정치인 혹은 정치 기관이 일반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 행동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인 '외부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을 측정함. 해당 지표는 일반 시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정부 구조가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통해 측정함. 포용적 의사결정이란 사람들이 의사 결정자에게 자신의 요구, 의견 및 선호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며, 대응적 의사결정이란 정치인 및 정치 기관이 사람들의 요구, 의견 및 선호 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정치적 효능'의 개념을 다루며, 정치적 효능감은 민주주의 체제의 전반적 건전성과 정치적 신뢰를 측정하는 핵심 척도로서 논의되어 왔음.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은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기에 매우 중요함. 시민의 정치적 목소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드러내줌으로써 공공정책을 바로 잡으며, 정치적 목소리는 또한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성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구축할 가능성을 높임.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가 의사결정의 포용적 정도는 "당신의 국가 정치 시스템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만큼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문항으로, 대응적 정도는 "당신의 국가 정치 시스템이 당신으로 하여금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얼마만큼 허용하는가?" 문항을 통해 측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지표대응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항목 있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산식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항목에 5점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 평균값
	측정단위	점
	세분화	성, 연령, 직업, 가구소득, 학력, 도농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3&conn_path=I3
	이용통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3-2019
	통계생산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02-2007-0663)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지표번호	16.8.1 (=10.6.1)
지표명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Proportion of members and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Broaden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stitutions of global governanc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국제기구의 회원국 자격을 갖춘 개도국의 비율과 투표권을 가진 개도국의 비율을 측정함. 몇몇 국제기구에서는 두 요소가 겹치는 경우가 있음. 본 지표에 해당되는 11개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음: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위 11개 국제기구에서 UN M.49 통계 기준에 의해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회원권이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함.
지표의의	UN은 회원국들의 주권 평등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서로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국가들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함.
지표해설	각 기구의 연간 보고서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개도국 회원국의 수를 모두 집계하고 전체 회원국의 숫자로 나누고, 또는 투표권을 가진 개도국의 수를 모두 집계하여 전체 투표권을 가진 국가의 수로 나누어 지표 값을 산출함.
지표대응	해당 지표 산출은 국제기구에서 총괄하는 부분으로, 한국에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1	국제기구별 개도국 회원국 비율(Proportion of member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산식	(국제기구 가입된 개도국 수 / 해당 국제기구의 총 회원국 수)×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 기구에서 개별적으로 개도국 회원국의 수를 집계한 후 UN-DESA에 제출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국제기구별로 상이함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
	데이터2	국제기구별 개도국 투표권 비율(Proportion of voting righ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
	산식	(투표권을 가진 개도국 수 / 해당 국제기구의 총 회원국 수)×100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 기구에서 개별적으로 개도국 회원국의 수를 집계한 후 UN-DESA에 제출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국제기구별로 상이함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
국내	데이터	없음

16.9.1 5세 미만 중 행정당국에 출생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지표번호	16.9.1
지표명	5세 미만 중 행정당국에 출생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hose births have been registered with a civil authority, by age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By 2030, provide legal identity for all, including birth registr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3월
지표정의	본 지표는 출생 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5세 미만 비율
지표의의	아동의 출생등록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임. 공식적인 신분서류가 없는 아동들은 의료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의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혼인을 할 경우, 취업 활동을 할 경우, 또는 군에 들어갈 경우, 사회적 원조를 받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투표를 할 경우, 여권을 발행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아동의 출생 신고 관련 권리는 아동권리협약(CRC)의 제7조에 명시되어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OECD국가는 대부분 95%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한편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들은 20% 미만의 수치가 집계되어 지표 값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 산출을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아동의 수를 포함한 5세 미만 아동의 총 인구수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해당 자료가 부재함.

글로벌	데이터	행정당국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5세 미만 아동 비율(전체 5세 아동 미만 인구 대비)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hose births have been registered with a civil authority)
	산식	행정당국에 출생등록 되어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수를 5세 미만 아동의 총 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CRING(Country Data Reporting on the Indicators for the Goals) 시스템을 통해 각 국가의 아동 관련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시계열	2006-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출처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set/percentage-children-age-5-whose-births-registered-sex-place-residence-household-wealth-quintile/
국내	데이터	없음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지표번호	16.10.1
지표명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Number of verified cases of killing, kidnapping, enforced disappearance, arbitrary detention and torture of journalists, associated media personnel, trade unionists and humanrights advocates in the previous 12 month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6월
지표정의	이 지표에서 언급하는 언론인이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 진술, 정책 및 제안을 관찰, 설명, 문서화 및 분석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원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인권운동가는 일부 언론인과 노동조합원을 포함하여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및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이 지표를 통해 추적되는 다양한 폭력의 범주(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및 기타 국제법 및 방법론적 표준과 모니터링 관행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UN이 제공하는 ICCS(국제범죄분류)의 분류에 따라 정의되었음.
지표의의	이 지표는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가 향유하는 의견의 자유,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정도를 측정함. 해당 지표는 16.10.2 지표와 함께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의 자유 수준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대륙별 데이터만 포함되어있고 국가별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아 한국 데이터 역시 존재하지 않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인권운동가, 언론인, 노동조합 관계자 대상 살인 건수 (Number of cases of killings of human rights defenders, journalists and trade unionists)
	산식	-
	측정단위	건
	자료수집방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가 공통의 양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국가 수준에서 데이터의 1차 출처는 일반적으로 시민 사회 단체 및 인권기구 등임
	시계열	2015-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지표번호	16.10.2
지표명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constitutional, statutory and/or policy guarantees for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월
지표정의	이 지표의 초점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위한 헌법, 법률 및 정책 보장의 채택 및 실행 상태에 있음.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란 개념은 시민과 일반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의 존재를 의미함. 이는 표현과 연대를 위한 근본적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위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침.
지표의의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근거는 실제 정보 접근성을 다루는 법적 단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임. 해당 지표는 기존 국제기구 설문조사 자료, 행정 기록, 전문가 평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양적 및 질적 방법을 통해 측정 가능함. 지표 값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는 1. 국가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에 대해 헌법, 법률 및 정책을 보장하는가? 2. 이러한 헌법, 법률 및 정책 보장이 국제협약(예, 세계 인권 선언,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을 반영하는가? 3. 이러한 보장이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떠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가? 와 같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2020년 자료만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지표 값은 1996개국으로 자료가 포함된 37개 OECD국가 평균 1986개국과 비교적 가까운 수치를 나타냄.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공공의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constitutional, statutory and/or policy guarantees for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산식	-
	측정단위	개
	자료수집방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회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설문조사, 기타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한 추정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
	시계열	2020(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출처	http://en.unesco.org/
국내	데이터	없음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지표번호	16.a.1
지표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Existenc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폭력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 강화 Strengthen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capacity at all level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o prevent violence and combat terrorism and crim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규칙에 의거한 파리원칙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관의 존재 여부를 측정함.
지표의의	이 지표는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독립적인 국가 제도를 설립하는데 행해지는 국제적인 협력 및 노력을 측정하기 위함임. 한 국가 내에서의 NHRI(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증진은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그 국가의 노력 및 헌신을 나타냄. 여기서 NHRI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편당을 받지만 독립성과 다원성을 유지해야만 함. 만약 NHRI에 유사 사법력이 주어진다면 NHRI는 법정에서 국가 인권 보호 시스템의 핵심 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차별법을 폐지하고 비차별적인 법을 옹호할 수 있음.
지표해설	이 지표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를 3가지 인증 지위(status)로 나누어 측정함. A지위: 파리규정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이 존재함. B지위: 파리규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이 존재함 C지위: 파리 규정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한국의 경우 데이터 측정이 시작된 2005년부터 계속해서 A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의 측정은 국제기구 소관으로, 국내 지표 대응은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 보유국(A지위) (Countries wi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A status)
	산식	-
	측정단위	1 = YES; 0 = NO
	자료수집방법	각 국가의 인권기관을 통해 국제 설문조사 실시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출처	https://nhri.ohchr.org/EN/AboutUs/GANHRIAccreditation/Pages/default.aspx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지표번호	16.b.1 (=10.3.1)
지표명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reporting having personally felt discriminated against or harassed in the previous 12 months on the basis of a ground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세부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Promote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12월
지표정의	국제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이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함. 이 지표는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을 측정함.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차별 사유 목록은 다음과 같음: 성별, 연령, 장애, 인종 혹은 언어, 이주민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종교, 혼인 및 가족 상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정치적 의견, 기타 사항
지표의의	이 지표의 목적은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차별의 유병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인구 집단에 대한 비 차별적 법률, 정책 및 관행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 지표임. 성, 연령,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법이나 정책이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측정 가능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표대응	국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에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을 묻고 있음. 그러나 아직 데이터는 미공표. 이외 고용, 장애, 여성 관련 사회조사들에 차별경험에 대해 묻는 문항들이 일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해당 지표가 요구하는 바에 따른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조항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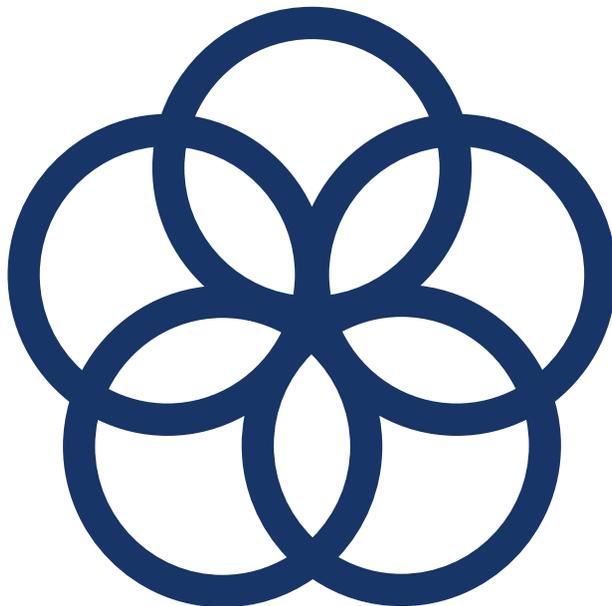
글로벌	데이터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 성별, 장애에 대해 차별 경험을 보고한 인구의 비율 (Proportion of population reporting having felt discriminated against, by grounds of discrimination, sex and disability)
	산식	지난 12 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금지 된 차별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설문 조사 응답자의 수를 설문 조사 응답자의 총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설문모듈에 따라 진행된 각국의 설문 결과를 OHCHR에서 수집함. 각국의 가구 및 사회 설문조사가 해당 지표의 주요한 데이터 출처임
	시계열	2014-2019(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성별
	지표소관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출처	www.ohchr.org
국내	데이터	없음



통계청
통계개발원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지표번호	17.1.1
지표명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Total government revenue as a proportion of GDP, by source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Strengthen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domestic capacity for tax and other revenue collec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1월
지표정의	총수입이란 수입 측면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임. 총수입은 IMF가 2014년에 발간한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GFSM)에 따라 1)조세수입 2)사회보장기여금 3)세외수입 4)기타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지표의의	정부 총수입은 국가 재정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회계 지표임. 해당 지표는 과세 및 비과세 형태로 발생하는 수익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조세부담률(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부담률(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추이 비교가 가능함.
지표해설	OECD 국가 전체의 2018년 GDP 중 정부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멕시코의 18.83%에서 노르웨이의 56.45%까지 국가별 차이가 있음.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중 정부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04%로, OECD 국가 평균(40.3%)에 비해 낮은 편임. 26%에서 34%로 약 8%의 높은 증가폭을 보였던 2011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통계로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중지출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있음. 다만, 총수입과 통합재정수입은 작성방식이 유사하나, 용자 및 기업특별회계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함.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총수입에서 용자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총계를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 영업흑자(흑자가 발생할 경우)를 합하여 계산. 따라서 총수입의 규모는 항상 통합재정수입 규모를 상회함.

글로벌	데이터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Total government revenue (budgetary central government) as a proportion of GDP)
	산식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서 관리하는 정부재정통계(GFS)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 도출이 가능하며 GFS 수익 데이터는 표준 연간 데이터 설문지의 표1을 통해 수집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각국 통계청의 국가 재정 자료로 집계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2000-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IMF Statistics Department (Government Finance Division, STAGODATA@imf.org)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DDAY	
국내	데이터	통합재정수지 비율
	산식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 - 세출 및 순융자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이용통계	기획재정부「통합재정수지」, 한국은행,「국민계정」
	자료수집방법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에서 자체 수집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05-2019
통계생산기관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지표번호	17.1.2
지표명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Proportion of domestic budget funded by domestic taxe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Strengthen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domestic capacity for tax and other revenue collec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11월
지표정의	해당 지표는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 관련 중앙정부(budgetary central government) 지출의 비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명확함. IMF가 2014년 발간한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에 따르면 예산 관련 중앙 정부란 통상적으로 국가 행정, 입법 및 사법 권력의 근본적인 활동들은 아우르는 기관들을 가리키며, 중앙 정부의 수익 혹은 지출은 일반적으로 입법부에서 승인한 예산을 통해 재무부 또는 그와 동등한 부처의 권한을 통해 규제됨(GFSM 2014 단락 2.42 참조).
지표의의	해당 지표는 국가의 반복적인 자본 지출이 과세의 형태로 동원되는 국가 수입으로 충당되는 정도를 보여줌. 국가 당국이 IMF에 보고한 정부재정통계(GFS)를 통해 직접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이 지표는 국가 예산과 수입, 세금 관리간의 관계를 보여줌. 조세부담률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지표 17.1.1과 상보성이 있음.
지표해설	OECD 국가 전체의 2017년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의 비율은 슬로바키아의 46.9%부터 덴마크의 89.48%까지 국가별 차이가 있음.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의 비율은 61.88%로 OECD국가 평균(61.44%)과 근접하며, 2000년 이후 최저 비율(55.83%)을 기록했던 2012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표대응	한국의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의 비율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가 매년 생산하는 '국가와 지방 연도별, 회계별 예산 현황 통계'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가 매년 생산하는 '국세 및 지방세 비중'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Proportion of domestic budget funded by domestic taxes)
	산식	Taxes / Expenditure Expenditure=Expense+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매년 각국의 국가 기관(재정부, 중앙은행, 국가통계청 등)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
	시계열	2000-2019(한국 데이터 2000-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IMF Statistics Department (Government Finance Division)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DDAY
국내	데이터	없음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지표번호	17.2.1
지표명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tal an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a proportion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onors' gross national income (GNI)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Developed countries to implement fully thei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ments, including the commitment by many developed countries to achieve the targe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GNI) to developing countries and 0.15 to 0.20 per cent of ODA/GNI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ODA providers are encouraged to consider setting a target to provide at least 0.20 per cent of ODA/GNI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7월
지표정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국민총소득(GNI)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함. ODA/GNI 비율은 총 ODA(순지출기준)에서 명목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지표의의	본 지표는 개도국을 돕는 국가 차원의 공공의 노력들을 수량화하기 위함임.
지표해설	국제사회의 ODA는 규모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22~0.32%에서 유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는 2005년의 예외적인 증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음. 우리나라의 2018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지표대응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매년 GNI대비 미 1인당 ODA추이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지만, 해당 자료들의 출처가 UN 글로벌 데이터와 동일한 OECD 통계임. 한국수출입은행의 ODA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ODA 총순지출금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제공하는 실질(명목) 국민총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통계 생산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최빈개도국 대상 순 ODA(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LDCs as a percentage of OECD-DAC donors' GNI, by donor countries (%))
	산식	공여국의 최빈개도국 대상 순ODA를 명목 GNI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매년 각국의 국가 기관(외교부, 국가원조기관 등)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게 통계를 제출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www.oecd.org/dac/stats
국내	데이터	없음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지표번호	17.3.1
지표명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South-South Cooperation as a proportion of gross national income (GNI)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자원 동원 Mobilize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ing countries from multiple sour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4월
지표정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지표의의	본 지표는 개도국을 돕는 국가 차원의 노력들을 수량화하기 위함임. FDI의 경우 지난 10 년 동안 개도국에서 가장 큰 외부 자금원으로 기능하였으며, 경제 및 재정적 충격에도 강한 회복력을 보임.
지표해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경우 4,104백만 불(2015년)부터 17,912백만 불(2017년)까지 금액의 격차가 다양함. 2018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4,479백만 불로 데이터가 제공된 OECD 평균 16,253백만 불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지표대응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 매년 ODA 원조규모 및 GNI대비 미 1인당 ODA추이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하지만, 해당 자료들의 출처가 UN 글로벌 데이터와 동일한 OECD 통계임. 국수출입은행의 ODA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ODA 총순지출금액 데이터,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승인통계 11520)」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국내 FDI 데이터, 한국은행「국민계정」에서 제공하는 실질(명목) 국민총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지표에 대응하는 국내통계 생산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inflows (millions of US dollars))
	산식	-
	측정단위	백만불
	자료수집방법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 혹은 통계청과 같은 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OECD
	출처	https://unctad.org/en/Pages/DIAE/FDI%20Statistics/FDI-Statistics.aspx www.oecd.org/dac/stats ,
국내	데이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산식	-
	측정단위	백만불
	세분화	산업별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0
	이용통계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승인통계 11520)」
	자료수집방법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등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인 외국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접수한 후 관련 내용 전산 입력
	공표주기	매분기
	시계열	2018-2019
통계생산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17.3.2 총 GDP 중 송금액의 비율

지표번호	17.3.2
지표명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Volume of remittances (in United States dollars) as a proportion of total GDP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자원 동원
	Mobilize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ing countries from multiple sourc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송금액은 은행을 통한 개인 송금(personal transfers)과 개인 수입(compensation of employees)을 합한 값. 개인 송금은 거주민과 비거주민(nonresidents)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송금 행위를 지칭함. 개인 수입은 계절성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단기 노동자들의 수입을 포괄하며, 이 때 노동자들은 비거주민 인데 고용된 경우와 비거주민에 의해 고용된 경우를 포함함.
지표의의	-
지표해설	한국의 총 GDP중 송금액의 비율은 2000년(0.805%)부터 2018년(0.439%)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 기준 데이터가 제공된 OECD 국가의 평균인 0.929%와 비교하면 한국의 총 GDP 중 송금액의 비율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지표대응	UN 글로벌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송금액과 관련된 국내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글로벌	데이터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Volume of remittances (in United States dollars) as a proportion of total GDP)
	산식	송금액(미국달러기준)을 총 GDP로 나눈 값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송금데이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통계(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자료를, GDP 데이터는 세계은행(WB)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자료를 활용하여 수집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X.TRF.PWKR.DT.GD.ZS?end=2015&start=2000
국내	데이터	없음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지표번호	17.4.1
지표명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Debt service as a proportion of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attaining long-term debt sustainability through coordinated policies aimed at fostering debt financing, debt relief and debt restructuring, as appropriate, and address the external debt of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to reduce debt distres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수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채상환(원금 및 이자 지급)의 비율을 측정함. 부채 및 재화 및 서비스 수출 개념은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포지션 매뉴얼(BPM6) 제6판의 정의에 따름.
지표의의	세계은행(WB)의 운영 정책 14.10에 따라 외부 부채보고는 차용 국가의 외채 상황, 신용도, 및 경제 관리와 국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부채 및 부채 상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요구됨.
지표해설	UN 글로벌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집되는 지표로 한국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 상환 비율 (Debt service as a proportion of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산식	-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 및 국제수지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 재화 및 서비스 수출 관련 데이터는 IMF의 국제수지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됨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세계은행(WB)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X.TRF.PWKR.DT.GD.ZS?end=2015&start=2000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지표번호	17.5.1
지표명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investment promotion regimes fo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LDC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Adopt and implement investment promotion regime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1월
지표정의	투자촉진제도란 국내 또는 투자 유치국의 특정 제도를 통해 대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합법적인 투자 수단을 의미함. 이는 투자자 본국의 직접적 투자 또는 개도국을 위한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외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해당 지표는 최빈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투자촉진제도와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일반적 투자촉진제도를 모두 포함함.
지표의의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의 실행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충분한 수단은 아님. 해당 제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의 후속 구현이 필요하며, 실행 단계에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 투자촉진제도의 '구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수립이 필요함.
지표해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자체 설문과 국제투자협정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집하나, 현재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7.6.1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지표번호	17.6.1
지표명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Fixed Internet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by speed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추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Enhance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nd access to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enhance knowledge-sharing on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through improved coordination among existing mechanisms, in particular at the United Nations level, and through a global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은 256 kbit/s이상의 속도로 공용 인터넷(TCP/IP연결)에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여기에는 케이블 모뎀, DSL, 광케이블, 기타 고정(유선)광대역, 위성 광대역 및 지상 고정 무선 광대역이 포함 됨. 이 지표는 다운스트림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256 kbit / s ~ 2 Mbit / s 미만, 2 Mbit / s ~ 10 Mbit / s 미만, 10Mbit / s 구독 (4213_G10) 이상. 해당 지표는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구축은 제외함.
지표의의	인터넷은 정보의 접근성은 물론 과학 기술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지식을 공유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임.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질적 접근과 엄청난 양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이 지표는 과학 기술 및 지식공유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인터넷 잠재력 (특히 고정 광대역 가입률과 인터넷 속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개도국)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을 둠. 또한 이 지표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격차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됨.
지표해설	2001년 16.39명이었던 한국의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2018년 41.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18년 데이터가 제공된 OECD국가의 평균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32.6명으로 한국의 가입률은 37개 국가 중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임.
지표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통계를 통해 대응 가능함.

글로벌	데이터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Fixed Internet 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by speed (per 100 inhabitants))
	산식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총 인구 수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ITU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당국 또는 정보통신기술 부처의 설문을 통해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00-2018 (한국 데이터 전체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속도별
	지표소관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출처	http://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default.aspx
국내	데이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산식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총 인구 수
	측정단위	명
	세분화	-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8
	이용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 보고자료)
	자료수집방법	각 협회 및 중앙전파관리소의 제출자료를 통해 집계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0-2019
통계생산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등(KT, LGT, SKB 등)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지표번호	17.7.1
지표명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Total amount of fun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transfer,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혜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Promote the development, transfer,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to developing countries on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as mutually agreed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9년 11월
지표정의	친환경 기술이란 다른 기술에 비해 환경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함. 보호하고, 오염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과 제품을 더 많이 재활용하는 친환경기술은 단순한 개별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하우, 절차, 상품과 서비스, 장비, 조직 및 관리 절차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의미함. 국가 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평가를 제공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드 및 소프트 기술 모두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
지표의의	합리적인 환경 관리는 자연 시스템의 지속 및 재생 능력을 파괴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친환경 기술은 자원(재료 및 에너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부문의 오염 및 폐기물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친환경기술의 중요성은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처음 강조되었으며, 이후 국제 환경 협력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된 지원금의 총량을 추적하는 방법론에는 두가지 접근 방식이 있음. Level 1 접근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위해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프록시를 생성함. Level2 접근방식은 친환경 기술 투자와 관련된 국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임.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지표 없음.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지표번호	17.8.1
지표명	인터넷 이용자 비율
	Proportion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구축 메카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Fully operationalize the technology bank an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apacity-building mechanism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by 2017 and enhance the use of enabling technology, in particula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지난 3개월 동안 어느 장소에서든 인터넷을 사용한 이용자의 비율을 측정함
지표의의	인터넷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점차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의 소통 방식, 생활양식, 사무 방식에 변화를 일으켰음. 나아가 인터넷 활용 관련 지표들은 정보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콘텐츠의 성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
지표해설	2000년 44.7명이었던 한국의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2018년 9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18년 데이터가 제공된 OECD국가의 평균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84.5명으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1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임.
지표대응	대한민국 국민 중 최근 1개월 이내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을 집계한 인터넷 이용률 통계를 통해 대응 가능. 이 통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 지정통계 제120005호)"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됨. 2019년 7월 기준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이용률은 91.8%이며, 이는 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 46,353천명이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임을 의미함.

글로벌	데이터	인구 1백 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Internet users per 100 inhabitants)
	산식	인터넷을 사용하는 총 개인의 수 / 총 인구 수
	측정단위	명
	자료수집방법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에서 각 국가의 통계청에 보내는 연례 설문지를 통해 수집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출처	http://www.itu.int/ITU-D/ict/
국내	데이터	인터넷 이용률
	산식	만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 / 총 인구 수
	측정단위	퍼센트(%)
	세분화	-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6
	이용통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 지정통계 제120005호)
	자료수집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공표주기	1년
	시계열	2010-2019
통계생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

지표번호	17.9.1
지표명	개도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 Dollar value of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through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committed to developing countrie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하여,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Enhance international support for implementing effective and targeted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to support national plans to implement a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rough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원조국들이 개도국의 역량 개발 및 국가 사업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ODA와 OOF을 합한 총 금액을 측정 대상으로 삼고 있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OOF)이란 개도국의 발전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거나, 양허성 차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ODA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됨 정부부분에 의한 자금공여를 의미함.
지표의의	본 지표 측정을 통해 원조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공 노력을 쏟고 있는지 수치화할 수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는 개도국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데이터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표대응	한국수출입은행의 ODA통계를 통해 한국의 ODA 지출규모는 확인가능하나, OOF 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는 부재함.

글로벌	데이터	기술협력 위한 총 ODA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ross disbursement) for technical cooperation)
	산식	ODA와 OOF의 합계
	측정단위	미국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매년 각국의 국가 기관(외교부, 국가원조기관 등)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게 통계를 제출
	시계열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OECD
	출처	www.oecd.org/dac/stats
국내	데이터	없음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지표번호	17.10.1
지표명	국제 가중 관세 평균 Worldwide weighted tariff-average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Promote a universal, rules-based, open, non-discriminatory and equitabl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cluding through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under its Doha Development Agenda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HS chapter 01-97에 해당하는 수입품목에 적용되는 가중관세 평균치를 측정함. 관세란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로, 물품가격기준 또는 특정 기준 (예: 100kg당 \$7)에 따라 부과되며, 관세는 유사한 지역생산 상품에 대한 가격 우위를 창출하고 정부 수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됨. 무역구제조치 및 세금은 관세로 간주되지 않음. 국가 그룹에 대한 관세 가치를 집계하기 위해서 수입 된 상품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됨.
지표의의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다자간 협력 및 국가 간 무역 협력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가능 함.
지표해설	2018년 기준 한국이 최혜국지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부과하는 가중관세평균치는 8.58%로 2005년 7.9%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데이터가 제공된 OECD 1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지표 값을 가짐. 2018년 기준 한국이 특혜지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부과하는 가중관세평균치는 4.68%로 2005년 7.86%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며, 최혜국지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제공된 OECD 1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지표 값을 가짐. 품목의 경우 농산품의 관세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데이터 없음.

글로벌	데이터1	1.국제가중관세평균치, 최혜국지위 (Worldwide weighted tariff-average, most-favoured-nation status, by type of product) 2.국제가중관세평균치, 특혜지위(품목별) (Worldwide weighted tariff-average, preferential status, by type of product)
	산식	증가세(ad valorem) 형태로 제시되지 않은 일부 관세율은 증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환산되어야 하며, 관세선 수준에서 개인 수입업자를 통해 단가 방법으로 환산됨. 일부 제한된 비증가(non-ad valorem) 관세율은 증가세 상당치로 제공될 수 없고 계산에서 제외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수입 관세 데이터는 국제무역센터(ITC)의 MAcMAP, WTO의 ID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TRAIN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시계열	2005, 2010, 2015-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상품유형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센터(IT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지표번호	17.11.1
지표명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are of global export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Significantly increase the expor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doubling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hare of global exports by 2020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함. 이 지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수출량의 증가와, 전 세계 수출량과 비교하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수출량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지표의의	수출점유율은 특정 국가나 지역이 무역 실적을 개선했는지 유추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야함. 수출점유율의 변화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수출 증가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국가의 수출 가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인지 관찰하기 위해 수출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함.
지표해설	UN 글로벌데이터에 한국 데이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표 값이 국가가 아닌 대륙별로 분류되어 있음.
지표대응	해당 지표에 대응 가능한 국내 데이터 없음.

글로벌	데이터1	전 세계 재화 수출(merchandise)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are of global merchandise exports)
	산식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재화 수출량 / 전 세계 재화 수출량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국가 기관 또는 지역 조직(관세 조합, 지역경제공동체 등)을 통해 ITC(Trade Map)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시계열	1년
	공표주기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센터(IT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2	전 세계 재화 수입(merchandise)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are of global merchandise imports)
	산식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재화 수입량 / 전 세계 재화 수입량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ITC(Trade Map)데이터베이스와 WTO(DB)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상품거래데이터를 통해 수집
	시계열	1년
	공표주기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센터(IT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3	전 세계 서비스 수출(service)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are of global services exports)	
산식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수출량 / 전 세계 서비스 수출량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IMF, OECD 및 EUROSTAT에서 관리하는 국제수지계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ITC/UNCTAD/WTO의 공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	
시계열	1년	
공표주기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센터(IT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데이터4	전세계 서비스 수입(service)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are of global services imports)
산식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서비스 수입량 / 전 세계 서비스 수입량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IMF, OECD 및 EUROSTAT에서 관리하는 국제수지계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ITC/UNCTAD/WTO의 공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
시계열	1년
공표주기	2000-2018(한국 데이터 미수록)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센터(IT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지표번호	17.12.1
지표명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Weighted average tariffs faced by developing countries,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Realize timely implementation of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on a lasting basis for all least developed countries, consisten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s, including by ensuring tha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pplicable to impor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transparent and simple, and contribute to facilitating market acces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6년 7월
지표정의	이 지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서 수출 된 제품에 적용되는 평균 수입 관세를 측정함. 관세란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로, 물품가격기준 또는 특정 기준 (예: 100kg당 \$7)에 따라 부과되며, 관세는 유사한 지역생산 상품에 대한 가격 우위를 창출하고 정부 수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됨. 무역구제조치 및 세금은 관세로 간주되지 않음.
지표의의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를 통해 다자간시스템에서 무관세 무쿼터 시장이 시행되기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농업과 같은 핵심 부문에서의 관세 인하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을 보여줌. 현 단계에서 개별 국가들이 개도국, 후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를 측정하는 것은 방법론 상의 어려움이 있음.
지표해설	한국 수출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최혜국 지위의 경우 모든 제품군의 경우 2000년 2.0%로부터 2014년 1.6%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 기준 1.8%로 소폭 상승하였음. 2018년 기준 관세가 높은 상품군은 농산품, 의류 및 섬유제품임. 특혜지위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한국 수출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00년 1.98%에서 2019년 0.12%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관세가 높은 상품군은 최혜국 지위 대상과 동일함. 북한의 경우, 연도별로 실효 관세율 비율값에 등락이 큰 편이며(평균 5.4%), 지렛값이 산출되는 OECD 가입국(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터키)은 전반적으로 매년 큰 차이 없음.
지표대응	3개의 국제기구(ITC, WTO, UNCTAD)가 본 지렛값을 공동보고하고 있으며, 일반화된 방법론 없이 개별 국가들이 본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글로벌	데이터1	1.상품별 선진국 실효 관세율, 최혜국 지위 (Average tariff applied by developed countries, most-favored nation status, by type of product) 2.상품별 선진국 실효 관세율, 특혜지위 (Average tariff applied by developed countries, preferential status, by type of product)
	산식	증가세(ad valorem) 형태로 제시되지 않은 일부 관세율은 증가세 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환산되어야 하며, 관세선 수준에서 개인 수입업자를 통해 단가 방법으로 환산됨. 일부 제한된 비증가(non-ad valorem) 관세율은 증가세 상당치로 제공될 수 없고 계산에서 제외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수입 관세 데이터는 국제무역센터(ITC)의 MAcMAP, WTO의 ID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TRAIN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
	시계열	2000, 2005, 2010-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부정기
	세분화	상품별
	지표소관기구	국제무역센터(IT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출처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지표번호	17.13.1
지표명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Macroeconomic Dashboard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Enhance global macroeconomic stability, including through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coherence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11월
지표정의	이 대시 보드에는 GDP 대비 상품 무역, GDP 대비 개인 송금, GDP 대비 통장 잔고, 자금 성장률, 은행 자산 대비 자본 비율, GDP 대비 세입, GDP, 오일 가격, 실업률 등을 포함하여 한 국가의 거시 경제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음.
지표의의	세계은행(WB)은 국가의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거시 경제 대시 보드를 설계함.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2018년 11월 제8차 IAEГ-SDGs 회의에서 Tier III에서 Tier II로 재분류. 지표에 포함되는 자료들의 부문별 주요 개념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표준 SDG 메타데이터 템플릿 형식은 제공예정임. 따라서, 정확한 정의 및 산식을 알 수 없으며, 향후 보완된다면 국제기구에서 본 지푹값을 산출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지표번호	17.14.1
지표명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with mechanisms in place to enhance policy coher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없음
지표정의	-
지표의의	-
지표해설	-
지표대응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정의 및 산식을 알 수 없으며, 향후 보완된다면 국제기구에서 본 지렛값을 산출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지표번호	17.15.1
지표명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Extent of use of country-owned results frameworks and planning tools by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Respect each country's policy space and leadership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8월
지표정의	모든 관련된 개발 파트너가 국가 주도 결과 프레임워크(country-led results frameworks: CRFs)를 사용하여 개발 협력 노력을 계획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정도를 측정함. 개발협력 공여국이 국가의 개발 우선 순위와 목표를 반영하는 국가 정부 주도 결과 프레임워크로부터 가져온 목표 및 결과 지표를 바탕으로 개입을 설계하는 정도를 평가함.
지표의의	결과 보고 메커니즘의 유형과 조정 계획의 측면에서 개발 파트너의 지원에 있어서 국가 우선 순위 조정에 대한 측정을 통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을 파악할 수 있음. 국가 결과 프레임워크는 결과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과 개발 결과의 성과와 성취에 초점을 맞춘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임. 결과프레임워크는 합의된 목표와 결과 지표가 포함되며, 정부의 계획 문서에서 정의한 목표 달성의 진전을 측정하기 위한 타겟을 설정함 본 지표에서 사용되는 국가 주도 결과 프레임워크의 정의는 일관적이고 통합된 CRFs를 통해 모든 국가가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동등한 우선 순위 설정 메커니즘의 사용 가능성을 허용함.
지표해설	본 지표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데이터는 2018년에 한하며, 이 중 OECD 가입국은 공여국 데이터에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지렛값이 제공됨 - 공여국이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공여국 자료)의 OECD 가입국 평균은 55.3%, 가장 낮은 비율은 슬로베니아 20.8%, 벨기에 32.1%, 영국 38.7%, 뉴질랜드 38.8% 순이며, 가장 높은 비율 아이슬란드 100.0%, 핀란드 79.6%, 이탈리아 68.5%, 독일 64.2% 순이고, 한국은 52.3%로 나타남 - 공여국 사업 중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 비중(공여국 자료)의 OECD 가입국 평균은 75.1%, 가장 낮은 비율은 벨기에 40.0%, 뉴질랜드 45.5%,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50.0% 순이며, 가장 높은 비율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100.0%, 이탈리아 93.9%, 독일 92.4% 순이고, 한국은 89.7%임 -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결과 지표(result indicators) 비율(공여국 자료)의 OECD 가입국 평균은 49.7%, 가장 낮은 비율은 슬로베니아 6.3%, 영국 22.4%, 뉴질랜드 28.4%, 미국 29.6% 순이며, 가장 높은 비율은 아이슬란드 100.0%, 오스트리아 91.9%, 스페인 67.8%, 핀란드 65.6% 순이고, 한국은 39.2%임 - 수원국의 자원과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할 결과지표의 비율(공여국 자료)의 OECD 가입국 평균은 41.0%, 가장 낮은 비율은 슬로베니아 6.3%, 포르투갈 22.9%, 미국 24.4%, 영국 24.6% 순이며, 가장 높은 비율은 아이슬란드 100.0%, 핀란드 73.1%, 이탈리아 54.1%, 노르웨이 52.1% 순이고, 한국은 27.9%임.
지표대응	각국의 담당 부처의 보고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작업을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음. 또한 메타데이터 상에 정의 및 산식 관련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메타데이터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CRFs에 대한 한국 정부(유관 부처)의 목표, 계획, 전략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 및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글로벌	데이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여국이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공여국 자료) (Extent of use of country-owned results frameworks and planning tools by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 data by provider (%)) 2.공여국이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활용하는 정도(수원국 자료) (Extent of use of country-owned results frameworks and planning tools by provide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 data by recipient (%)) 3.공여국 사업 중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 비중(공여국 자료)(Proportion of new development interventions drawn from country-led result frameworks - data by provider (%)) 4.공여국 사업 중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 비중(수원국 자료)(Proportion of new development interventions drawn from country-led result frameworks - data by recipient (%))
-----	-----	--



		<p>5.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결과 지표(result indicators) 비율(공여국 자료)(Proportion of results indicators drawn from country-led results frameworks - data by provider (%))</p> <p>6. 수원국 주도의 성과체계로부터 도출된 결과 지표(result indicators) 비율(수원국 자료)(Proportion of results indicators drawn from country-led results frameworks - data by recipient (%))</p> <p>7. 수원국의 자원과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할 결과지표의 비율(공여국 자료)(Proportion of results indicators which will be monitored using government sources and monitoring systems - data by provider (%))</p> <p>8. 수원국의 자원과 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할 결과지표의 비율(수원국 자료)(Proportion of results indicators which will be monitored using government sources and monitoring systems - data by recipient (%))</p>
산식		<p>국가 주도의 성과체계 및 다른 정부 주도 기획 수단을 활용하는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을 제공하기 위해, 본 지표는 새로운 개발 개입과 관련된 목표, 결과지표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국가 자원으로부터 활용된 정도를 계산함</p> <p>-평가 차원 (기준 해에 승인된 US\$ 100,000 이상의 개발 개입에 대한 평가)</p> <p>q1. 목표가 정부 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계획 및 전략에서 도출되었는가 (0/1)</p> <p>q2. 정부 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계획 및 전략에서 도출된 결과 지표의 비율 (%)</p> <p>q3. 프로젝트 진전을 추적하기 위한 기존 국가 주도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국가 통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는 결과 지표의 비율 (%)</p>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p>국가수준의 데이터는 관련 정부기관과 개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보고. OECD와 UNDP는 글로벌 파트너십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2년에 한번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 보증을 주도함</p> <p>- 수집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가정부에서 국가의 조정관 지정 2) 국가 조정관은 개발 파트너의 투입들을 수집, 데이터는 OECD-UNDP 모니터링팀에 제출된 후, 개발 파트너의 본부와 함께 검토를 거침 3) 검증 과정 이후, 데이터 조정 없음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국가 수준, 개발 파트너 수준, 섹터 수준, 개발 프로젝트 수준 등
지표소관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출처		<p>각국의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등)는 국가 데이터 수집 및 국가 수준의 검증 주도. OECD, UNDP 공동으로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수집 및 보고</p> <p>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p>
국내	데이터	없음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지표번호	17.16.1
지표명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 progress in multi-stakeholder development effectiveness monitoring frameworks that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Enhanc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plemented by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hat mobilize and share knowledge, expertise, technology and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8월
지표정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 이해관계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로, "복합 이해관계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임.
지표의의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을 동원하고 강화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함. 개발 파트너 간 관계가 좋을수록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도 더 좋아짐. 본 지표는 개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둘러봄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향상을 측정함. 본 지표는 자발적으로 합의된 개발 주체들간의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며, 데이터의 수집과 검토는 국가 자체적으로 주도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인 공공섹터, 민간섹터, 시민사회 조직이 참여함. - 복합 이해관계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개발협력지원의 공여국과 수원국의 보고 지표 [공여국] 개발 목표의 국가 조정 / 국가 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 국가 모니터링 및 통계 시스템 활용 / 국가 평가 시스템 활용 / 개발 협력 투명성(개발협력 정보공개) / 개발협력의 예측가능성(연간, 중기[1-3년], 계획대로 수행된 지출) / 개발협력 기금의 국회 관리 / 국가 시스템을 통한 개발협력의 제공 / 비구속화 [수원국] 국가 우선순위 반영(결과 프레임워크 강화) / 시민 사회조직을 위한 환경 조성 / 민간 부분 참여와 기여 촉진 / 개발협력 기금의 예산화(국회의 관리) / 상호 책무성 강화 /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 국내 기구 강화(예산 및 공공재정 관리의 질)
지표해설	현재 OECD 가입국 중 16개국의 2018년 지렛값이 산출되고 있으며, 한국의 포함되지 않음. 16개국 모두 달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각국의 담당 부처의 보고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작업을 검토할 필요는 없음. OECD-UNDP의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9 Progress Report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보고 지표에 대한 응답률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모니터링 활동에서 다루는 각 보고 항목에 대해 응답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총 참여국과 지표별로 응답한 국가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지표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SDG 달성 지원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따른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Progress in multi-stakeholder development effectiveness monitoring frameworks that support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 YES; 0 = NO))
	산식	복합 이해관계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진전을 보고하는 총 국가 수 - 긍정적인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수가 부정적인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수보다 많을 때, 진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 보고하는 지표들에서 모든 목표를 충족해서 더 이상 진전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유지에 대해서도 진전이있는 것으로 간주함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국가수준의 데이터는 관련 정부기관과 개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보고. 국가 정부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 보완적으로 유엔경제사회국은 UNDP와 협력하여, 개발협력 포럼을 위한 정기 조사 실시 - 수집과정 1)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가정부에서 국가의 조정관 지정 2) 국가 조정관은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데이터는 개발협력 제공자의 본부에서 검증 3) 국가수준 유지의 필요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조정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수정을 위해 국가 조정관에 재전송
	시계열	2018(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2년
	세분화	국가수준, 복합 이해관계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개별 지표, 지역
	지표소관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출처	데이터의 취합 및 계산을 위해 각국 정부는 OECD/UNDP에 데이터 제출 http://www.oecd.org/dac/making-development-co-operation-more-effective-26f2638f-en.htm	
국내	데이터	없음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지표번호	17.17.1
지표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Amount of United States dollars committ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Encourage and promote effective public, public-private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s, building on the experience and resourcing strategies of partnership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20년 9월
지표정의	WB(세계은행)는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공공 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기관 또는 기관과 민간 기관 간의 계약 상 합의”라고 정의하며, 이에 따라 민간 당사자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됨.
지표의의	이 지표는 민관 파트너십의 양적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이며, 이 지표를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 구축 변화, 민간분야 참여에 대한 제약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정의 및 산식을 알 수 없으며, 향후 보완된다면 국제기구에서 본 지표값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현재로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민관 파트너십과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데이터의 수집에 따른 차이로 본 지표를 (a) 민관 파트너십 및 (b)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투입된 US달러 금액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함.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7.18.1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지표번호	17.18.1
지표명	SDG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Statistical capacity indicator for SDG monitoring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By 2020, enhance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없음
지표정의	-
지표의의	-
지표해설	UN 글로벌 데이터 없음.
지표대응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정의 및 산식을 알 수 없으며, 향후 보완된다면 국제기구에서 본 지렛값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데이터	없음
국내 데이터	없음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지표번호	17.18.2
지표명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national statistical legislation that complie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By 2020, enhance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8년 2월
지표정의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로 이것은 UN의 공식통계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 of Official Statistics)을 준수하는 통계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입
지표의의	<p>국가의 통계법이 UN의 공식통계 10가지 원칙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포함할 때, UN의 공식통계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함. 단, 지표는 국가별 통계청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나, 응답률이 37%로 낮아 데이터 해석에 주의해야함.</p> <p>- UN의 공식통계 10가지 원칙</p> <p>제1조: 경제·사회·인구 및 환경 현황에 대한 공식통계는 민주사회의 정보시스템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 제공. 이러한 공식통계는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부통계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함</p> <p>제2조: 공식통계가 신뢰를 얻으려면 통계자료의 수집, 처리, 저장 및 공표에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p> <p>제3조: 자료의 올바른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기관은 자료의 출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여야 함</p> <p>제4조: 통계기관은 통계의 잘못된 분석과 잘못된 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음</p> <p>제5조: 통계는 통계조사나 행정기록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료 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기관은 통계의 품질, 시의성, 비용 및 응답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함</p> <p>제6조: 통계기관에 의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는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p> <p>제7조: 통계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조치 등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함</p> <p>제8조: 국가내 통계기관 간의 업무조정은 통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함</p> <p>제9조: 각국 통계기관의 국제적 개념, 분류 및 방법론 사용은 공인된 수준에서 통계제도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킴</p> <p>제10조: 한 국가의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p>
지표해설	모든 OECD 가입국(37개국)이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고 있음. 북한의 경우,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포함됨.
지표대응	국제기구(PARIS21)의 통계치 합산을 통해 본 지표를 산출하며, 한국도 포함됨.

글로벌	데이터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legislation exists that complie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1 = YES; 0 = NO))
	산식	10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법을 갖추고 있는 전체 국가의 수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PARIS21의 국가별 온라인 SDG 설문 송부, 혹은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 국제기구와 국가의 공동조사 등을 통해 수집
	시계열	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
	지표소관기구	PARIS21
출처	PARIS21이 통계청으로부터 수집하여 산출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지표번호	17.18.3
지표명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Number of countries with a national statistical plan that is fully funded and under implementation, by source of funding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By 2020, enhance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국가 통계계획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 중인 국가 수로 국가 통계 프로젝트 전략 수립, 이행 또는 올해 안에 전략 채택을 기다리는 국가 포함
지표의의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 통계 계획 프로젝트를 가진 국가의 수로, PARIS21이 국가 통계 프로젝트 전략 수립, 이행 또는 올해 안에 전략 채택을 기다리는 NSDS(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과정 중에 있는 전체 국가의 수 관련 자료들을 매년 제시하고 있음
지표해설	2019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국가통계발전계획에 완전한 재정지원이 되는 국가는 비해당 국가를 제외한 35개국 중 30개국이며, 한국을 포함한 칠레,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콜롬비아는 국가통계발전계획에 완전한 재정지원이 되는 국가가 아님. 국가통계발전계획이 이행 중인 국가는 OECD 가입국 중 비해당 국가를 제외한 35개국 중 34개국이며, 아이슬란드는 이행 중인 국가통계발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 역시 국가통계발전계획이 이행 중인 국가에 속함.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와 공여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에서는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35개국이 비해당국가임, 두 국가는 정부와 공여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역시 두 항목에 해당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기타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북한과 OECD 가입국 중 27개국이 비 해당이며, 나머지 10개국(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라트비아)은 기타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지표대응	본 지표값의 측정은 국제기구의 소관이므로 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데이터	1.국가통계발전계획에 완전한 재정지원이 되는 국가(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that are fully funded (1 = YES; 0 = NO)) 2.국가통계발전계획이 이행 중인 국가(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that are under implementation (1 = YES; 0 = NO)) 3.정부(government)로부터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with funding from Government (1 = YES; 0 = NO)) 4.공여기관(donors)으로부터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with funding from donors (1 = YES; 0 = NO)) 5.기타 예산지원이 되는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갖춘 국가(Countries with national statistical plans with funding from others (1 = YES; 0 = NO))
	산식	국가 통계 프로젝트 전략 i) 이행, ii) 수립, iii) 올해 안에 전략 채택을 기다리는 국가 수 국가통계발전계획에 완전한 재정지원이 되는 국가: 1 = YES; 0 = NO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PARIS21이 통계청으로부터 매년 수집하여 산출. 매년 국가별 NSDS(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관련 기관과 이메일을 통해 수집
	시계열	2019(한국 데이터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별
	지표소관기구	PARIS21
출처	https://paris21.org/national-strategy-development-statistics-nsds	
국내	데이터	해당 없음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지표번호	17.19.1
지표명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Dollar value of all resources made available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GDP 보안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By 2030, build on existing initiatives to develop measurements of progres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complement gross domestic product, and support statistical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2017년 7월
지표정의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지표의의	개도국의 통계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US Dollar)의 종합적 파악. PRESS(Partner Report on Support to Statistics)가 제공하는 본 지렛값은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프로젝트 전체를 다루고 있지 못하여, 보고서에 제공된 수치는 실제 수치보다 상한값으로 주어질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본 지렛값은 국제 원조만을 다룰 뿐 국내 원조는 측정하지 못함. 지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는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CRS)의 통계역량 구축 코드(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code 16062)가 보고되며, 이때 하향 편향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PARIS21은 프로젝트 설명 검토함. 마지막으로 PARIS21 사무국의 자체 설문(CRS에서 수집된 변수의 하위 내용과 통계역량 관련 항목으로 구성)을 통해 자료들을 보완함.
지표해설	2017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수여국은 4개국으로 터키가 USD 631,332.8로 가장 지원 금액이 높으며, 다음으로 콜롬비아(403,313), 멕시코(177,567), 칠레(104,000) 순으로 나타남. 북한의 지원금액은 USD 377,000임.
지표대응	국제기구(OECD, PARIS21)들의 통계치 합산을 통해 수여국 대상으로 본 지렛값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OECD 공여국인 한국은 해당 없음.

글로벌	데이터	개도국에서 통계역량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현 미국달러기준)(Dollar value of all resources made available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 United States dollars))
	산식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해의 주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US Dollar로 환산 지급금이 이미 보고된 경우에는 지급된 해의 주기평균 환율 사용
	측정단위	미국 달러(USD)
	자료수집방법	PARIS21가 발행한 PRESS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CRS)와 PARIS21 PRESS의 온라인 서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시계열	2017(한국 데이터 미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역, ODA 분야, 통계 영역 및 지원방법
	지표소관기구	PARIS21(제공: PARIS21/OECD)
출처		공여국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공여국에 요청함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https://paris21.org/press-2019
	국내	데이터

17.19.2 지난 10년 동안 a)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 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지표번호	17.19.2
지표명	지난 10년 동안 a)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 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Proportion of countries that (a) have conducted at least on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e last 10 years; and (b) have achieved 100 per cent birth registration and 80 per cent death registration
목표명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부목표명	2030년까지 GDP 보안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By 2030, build on existing initiatives to develop measurements of progres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complement gross domestic product, and support statistical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글로벌 메타 업데이트	(a) 2016년 7월 / (b) 2017년 7월
지표정의	지난 10년 동안 a)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했고, b) 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개별 국가의 상세한 인구수와 행정자료 및 인구등록 자료 등의 다양한 통계자료 활용을 통한 주택통계가 포함됨
지표의의	인구주택조사는 사회경제부문의 전반적 발전 및 환경 지속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입안, 실행, 감독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된 자료로 활용됨.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진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인구주택조사 자료가 요구됨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RES/2015/10 결의안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회원국들이 인구주택조사를 적어도 한번은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b)의 경우, 연례 인구통계 메타데이터 설문 분류에 따라, 출생등록은 90%, 사망등록은 75%를 임계값으로 함
지표해설	a)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한 국가의 비율: 한국은 2015년에 인구주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현재 기준, 전 세계 86.1%의 국가가 진행하였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동부 및 동남 아시아에서는 100.0%,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는 96.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94.0%, 중앙 및 남부아시아 71.4%,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70.6%,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이 64.0%로 가장 낮음 b) 90%의 출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한국을 포함한 OECD 가입국 중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90%의 출생등록을 달성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등록을 달성한 국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2015년 56.1%, 2018년 59.8%), 지역별로는 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으나, 북아메리카의 경우 80%에서 2018년 10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아시아는 2015년부터 꾸준히 그 비율이 증가하였음(2015년 66.7%, 2017, 2018년 83.3%). 4년 동안 90%의 출생등록 등록비율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58.1%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가 16.0%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남아시아가 33.3%로 가장 낮음, 반면 유럽이 9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b) 75%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한국을 포함한 OECD 가입국 중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75%의 사망등록을 달성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2015년 58.5%, 2018년 62.4%), 지역별로는 4년 동안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북아메리카의 경우 80%에서 2018년 10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0.6%에 2018년 80.4%로 상승함. 중앙 및 남부 아시아 역시 2015년 50.0%에서 2017, 2018년 64.4%로, 남아시아는 2015년 33.3%에서 2017, 2018년 55.6%로 증가하였음. 4년 동안 75%의 사망등록 국가 비율의 평균은 전 세계적으로는 60.4%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가 17.0%로 가장 낮고, 유럽이 97.6%로 가장 높음.
지표대응	유엔개발계획(UNSD)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한국 자료 제공함.

글로벌	데이터1	지난 10년 동안 최소 한 번의 센서스 실시 여부(Countries that have conducted at least on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e last 10 years (1 = YES; 0 = NO))
	산식	지난 10년 동안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한 국가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2015 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지역



지표소관기구	유엔개발계획(UNSD)
출처	각국의 통계청 및 인구조사기관. UNSD는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함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census/index.cshhtml
데이터2	최소 90% 이상의 출생등록 (Countries with birth registration data that are at least 90 percent complete (1 = YES; 0 = NO))
산식	지난 10년 동안 b) 100퍼센트의 출생등록을 달성한 국가
측정단위	-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15-2018(한국 데이터 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방행정구역, 소득, 성별, 연령, 장애상태 등
지표소관기구	유엔개발계획(UNSD),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각국 통계청에서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의 일환으로 UN통계국에 제공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census/index.cshhtml
데이터3	최소 75% 이상의 사망 등록 (Countries with death registration data that are at least 75 percent complete (1 = YES; 0 = NO))
산식	지난 10년 동안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15-2018(한국 데이터 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방행정구역, 소득, 성별, 연령, 장애상태 등
지표소관기구	유엔개발계획(UNSD),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각국 통계청에서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의 일환으로 UN통계국에 제공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census/index.cshhtml
데이터4	지난 10년동안 최소 한 번의 센서스 실시 국가 비율 (%) (Proportion of countries that have conducted at least on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the last 10 years (%))
산식	지난 10년 동안 최소 한 번의 인구주택조사를 진행한 국가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10-2019(한국 데이터 2015 수록)
공표주기	-
세분화	지역
지표소관기구	유엔개발계획(UNSD)
출처	각국의 통계청 및 인구조사기관. UNSD는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함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census/index.cshhtml
데이터5	최소 90% 이상의 출생등록 국가 비율 (%) (Proportion of countries with birth registration data that are at least 90 percent complete (%))
산식	지난 10년 동안 100퍼센트의 출생등록과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15-2018(한국 데이터 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방행정구역, 소득, 성별, 연령, 장애상태 등
	지표소관기구	유엔개발계획(UNSD),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각국 통계청에서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의 일환으로 UN통계국에 제공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census/index.cshml
	데이터6	최소 75% 이상의 사망 등록 국가 비율 (%)(Proportion of countries with death registration data that are at least 75 percent complete (%))
	산식	지난 10년 동안 80퍼센트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 비율
	측정단위	퍼센트(%)
	자료수집방법	회원국의 인구주택 센서스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국에 설문을 발송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요청,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
	시계열	2015-2018(한국 데이터 2017 수록)
	공표주기	1년
	세분화	지방행정구역, 소득, 성별, 연령, 장애상태 등
	지표소관기구	유엔개발계획(UNSD),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출처	각국 통계청에서 UN 인구통계연감의 연례 데이터 수집의 일환으로 UN통계국에 제공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국내	데이터	없음

SDGs 지표 훑아보기

편집인 박영실, 윤민희

발행인 전영일

발행처 통계개발원

전 화 042) 366-7108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인 쇄 나래기획

본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연구진: 김석호, 정혜진, 김대훈)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시에는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개발원(2020), SDGs 지표 훑아보기,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